

2012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한국정당학회

2012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과제명: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사업추진단체: 한국정당학회

연구자:

- 책임연구원:

임성학 (서울시립대)

- 공동연구원:

양승찬 (숙명여대)

조진만 (덕성여대)

한정택 (연세대)

박진수 (고려대)

이재묵 (연세대)

사업기간: 2012. 12. ~ 2013. 2.

차례

2012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I. 서론	1
II. 선행연구 분석	9
I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27
IV.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제도 분석	35
V.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현실 분석	55
VI.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75
VII. 결론	103
참고문헌	109
※ 부록	115
1. 조사개요	117
2.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사전조사 설문지	120
3.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사후조사 설문지	126
4.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사전조사)	131
5.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사후조사)	164

표 차례

〈표 II- 1〉 1997년과 2002년 TV토론회 도움 정도 평가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18
〈표 III- 1〉 표본 특성 분포표	31
〈표 III- 2〉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설문항목 현황	32
〈표 IV- 1〉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개최 현황	42
〈표 IV- 2〉 후보자 TV토론회 횟수 충분성 사전/사후 조사 결과 비교	44
〈표 V- 1〉 18대 대통령선거 투표 결정요인	58
〈표 V- 2〉 한국의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시청률(%)	64
〈표 V- 3〉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토론을 잘 하였다고 생각하는 후보 교차분석(명, %)	73
〈표 VI- 1〉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	77
〈표 VI- 2〉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진행 방식 만족도 교차분석: 사후조사 ..	81
〈표 VI- 3〉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진행의 공정성 교차분석: 사후조사	82
〈표 VI- 4〉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회 흥미성 교차분석: 사후조사	83
〈표 VI- 5〉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회의 유익성 교차분석: 사후조사	84
〈표 VI- 6〉 사전 정치지식(사전 조사)과 후보자 TV토론회 정보 획득 교차분석	85
〈표 VI- 7〉 지지 대통령 후보(사전조사)와 유권자 후보자 TV 토론평가(사후조사) 교차분석	88
〈표 VI- 8〉 지지 대통령 후보(사전조사)와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사후조사) 교차분석	90
〈표 VI- 9〉 후보자 TV토론회 평가(사후조사)와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사후조사) 교차분석	91
〈표 VI- 9〉 TV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상관관계 분석: 사후조사	93
〈표 VI-10〉 TV토론회 시청 빈도수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여부 교차분석: 사후조사	94
〈표 VI-11〉 TV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간 상관관계: 사후조사 ..	94
〈표 VI-12〉 TV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선거정보 효과 상관관계: 사후조사	95
〈표 VI-13〉 TV토론회 및 주요 통제변수들이 유권자의 선거관심도에 미친 영향 (순서 로짓 ordered logit model 회귀분석)	98
〈표 VI-14〉 TV토론회 및 주요 통제변수들이 유권자 정치정보 활동에 미친 영향 (순서 로짓 ordered logit model 분석)	99
〈표 VI-15〉 TV토론회 및 주요 통제변수들이 유권자의 투표 후보 결정에 미친 영향 (순서 로짓 ordered logit model 회귀분석)	101
〈표 VI-16〉 TV토론회 및 주요 통제변수들이 유권자 투표 후보 결정에 미친 영향 (이항 로지스틱 binary logistic 회귀분석)	102



그림 차례

2012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그림 III- 1〉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의 주요 내용 구성	29
〈그림 III- 2〉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연구의 주요 내용 구성	30
〈그림 IV- 1〉 공공문제 정보 획득 매체: 사전조사	37
〈그림 IV- 2〉 대통령선거 정보 취득 매체: 사후조사	39
〈그림 IV- 3〉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 필요성: 사전조사	41
〈그림 IV- 4〉 후보자 TV토론회 횟수 충분성 평가	43
〈그림 IV- 5〉 적당한 후보자 TV토론회 횟수: 사전조사	45
〈그림 IV- 6〉 후보자 TV토론회 확대 횟수: 사후조사	45
〈그림 IV- 7〉 비초청대상(군소정당) 후보자 TV토론회 횟수 충분성: 사전조사	46
〈그림 IV- 8〉 비초청대상(군소정당) 후보자 TV토론회 적정 횟수: 사전조사	47
〈그림 IV- 9〉 후보자 TV토론회 시간(2시간) 적정성: 사후조사	49
〈그림 IV-10〉 후보자 TV토론회 방식 변경 동의도: 사후조사	51
〈그림 IV-11〉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 만족도: 사후조사	52
〈그림 V- 1〉 대통령선거 후보 선택 시 최우선 고려사항: 사전조사	59
〈그림 V- 2〉 후보자 TV토론회 관심도: 사후조사	60
〈그림 V- 3〉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선거 관심도: 사후조사	61
〈그림 V- 4〉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 사후조사	62
〈그림 V- 5〉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	63
〈그림 V- 6〉 후보자 TV토론회 중립 공정성: 사전조사	64
〈그림 V- 7〉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한 진행: 사후조사	65
〈그림 V- 8〉 지상파 방송 신뢰도: 사전조사	66
〈그림 V- 9〉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 사전조사	67
〈그림 V-10〉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 사후조사	68
〈그림 V-11〉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 사후조사	69
〈그림 V-12〉 지지 대통령선거 후보: 사전조사	71
〈그림 V-13〉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사후조사	71
〈그림 V-14〉 토론을 잘 하였다고 생각하는 후보: 사후조사	72
〈그림 V-15〉 안철수 후보 사퇴를 통한 야권 단일화: 사전조사	73

〈그림 VI- 1〉 유권자의 투표참여 의향과 투표여부	79
〈그림 VI- 2〉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80
〈그림 VI- 3〉 후보자 TV토론회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86
〈그림 VI- 4〉 후보자 TV토론회의 투표 후보 지지도 영향력: 사후조사	87
〈그림 VI- 5〉 TV토론을 잘 하였다고 생각하는 후보: 사후조사	88
〈그림 VI- 6〉 지지 대통령 후보(사전조사)와 유권자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사후조사)	89
〈그림 VI- 7〉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선거관심도: 사후조사	92
〈그림 VI- 8〉 후보자 TV토론회 이후 지인들과 관련 대화 여부: 사후조사	93
〈그림 VI- 9〉 TV토론회의 다양한 선거정보 효과: 사후조사	96

2012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요 약 문

요약문

I. 서론

-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자 TV토론회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선거방송토론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96.7%가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후보자 TV토론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91.8%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거의 모든 국민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자 TV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지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는 어느 매체를 통하여 얻었는가를 조사하였는데, 정보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TV가 주 정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TV가 48%, 그 다음으로 인터넷 37.5%, 신문 9.9% 등의 순서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회의 시청률이 감소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증가 추세로 돌아간 것도 미디어 융합의 효과가 컸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시청률이 15대 대통령선거에서 53.2%, 16대 대통령선거에서 34.2%, 그리고 17대 대통령선거에서 2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1차와 2차 지상파 후보자 TV토론회의 시청률은 각각 36.2%와 37.9%를 기록하여 16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선거방송토론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선거방송토론회는 유권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공평하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정보를 유권자 스스로 판단·평가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정치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방송의 방식, 공정성, 형평성, 신뢰성, 투명성 등의 확보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하지만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처럼 선거방송토론회의 방송의 방식, 형평성, 공정성 등에 관한 논란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설문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69.4%로, 그리고 부정적인 응답은 28.8%로 조사되어 일반적으로 공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선거방송토론의 제도, 현실, 효과의 세 가지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II. 선행 연구 분석

- 한국 대통령선거 과정에 TV토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1997년 이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학계에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TV토론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한국 사회에 적절할 형식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TV토론이 유권자에 의하여 어떻게 활용되고 평가받고 있는지 현실적인 이슈에 대한 진단도 있었다. 한편 미디어 효과이론을 검증하는 학자들은 TV토론이 유권자에 미칠 수 있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측정해보려는 연구도 시도되었다.
- 후보자 TV토론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이후 토론 형식, 토론 규칙, 후보자 초청 대상 등 TV토론 자체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양당의 주요 후보가 2인 토론을 펼치는 형식이 아닌 다수의 후보가 참여하는 후보자 TV토론회가 그동안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기계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었다. 2007년에는 6인의 후보가 참여한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되어 진정한 토론이 펼쳐지지 못하고 시청률 역시 1997년과 비교하여 매우 떨어지기도 하였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TV토론회 초청 기준이 다시 한 번 이슈로 등장하였고, 진정한 토론을 이끄는 형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점화되었다.
- 유권자의 TV토론 이용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연구는 많지 않지만 1997년 처음 등장 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V토론의 문제점으로는 후보자들간의 인신 공격으로 인하여 진정한 토론이 없었다는 점과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발언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TV토론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후보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태도의 강화, 선거 관련 지식 습득 또는 학습, 정치 참여 증진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TV토론 시청이 유권자의 정책 이슈 지식(issue knowledge) 수준과

이슈 현저성(issue salience)에 대한 지각 수준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입장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연구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또한 TV토론은 유권자 의제 설정 기능(agenda-setting)도 갖고 있으며, 후보자의 성격에 대한 유권자 선호의 변화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물론 투표 선호(vote preference)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V토론 시청을 통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유권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존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Ⅲ. 연구의 내용과 방법

- 본 연구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선거방송토론의 제도, 현실, 효과의 세 가지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1>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의 주요 내용 구성

제도	현실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방식 • 토론 횟수 • TV토론회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토론회 인지도 • TV토론회 관심도 • TV토론회 청취도 • TV토론회 공정성 • TV토론회 유용성 • TV토론회 흥미성 • TV토론회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지식 효과 • 선거관심 효과 • 정치효능감 효과 • 정책 인지 효과 • 후보자 인지 효과 • 투표 참여 효과 • 투표 결정 효과 • TV토론회 효과

- 먼저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후보자 TV토론회의 방식과 횟수, 그리고 이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이유는 후보자 TV토론회 제도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요구들을 파악할 때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현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인지도, 관심도, 청취도, 신뢰도, 공정성, 흥미성 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후보자 TV토론회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청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식되어야 하며, 무미건조하지 않고 흥미도 이끌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구비될 때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이러한 기준들에 대하여 후보자 TV토론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정치지식, 선거관심, 정치효능감, 정책 인지, 후보자 인지, 투표 참여와 결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

〈그림 2〉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의 주요 내용 구성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 1,541명 (가중 후 1,500명) ■ 사후조사 : 1,002명 (가중 후 1,000명)
패널 유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0%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
사후보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2월 29일 통계청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역, 성, 연령별 사후 보정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2012년 11월 30일 ~ 12월 4일 (5일간) ■ 사후조사: 2012년 12월 21일 ~ 25일 (5일간)
조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서치앤리서치(R&R)

-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그림 2〉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듯이 후보자 TV토론회 이전의 사전조사(1,541명)와 이후의 사후조사(1,002명)를 두 번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연구진과 여론조사 전문기관과의 수차례 상의를 거쳐 사전조사는 2012

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 동안, 그리고 사후조사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다.

〈표 1〉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설문항목 현황

설문항목	사전조사	사후조사
TV토론회 시청 의향(시청 여부)	0	0
TV토론회 관심도		0
TV토론회 횟수 충분성(4회)	0	0
TV토론회 시간(2시간) 적절성		0
주요 후보 위주의 토론방식으로 변경 필요성		0
현 TV토론회 방식 만족도		0
TV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자질 비교		0
TV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정책공약 비교		0
TV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비교		0
TV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이슈 습득 여부		0
TV토론회 이후 추가적 선거정보 취득		0
TV토론회를 통한 선거 관심도		0
TV토론회 후 지인들과 관련 대화 여부		0
TV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0	0
TV토론회의 공정한 진행	0	0
TV토론회의 흥미성	0	0
TV토론회의 유익성		0
18대 대선 투표 의향(투표 여부)	0	0
18대 대선 대선 투표 후보	0	0
18대 대선 TV토론회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0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0
공공문제(대선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매체	0	0
18대 대선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0	
안 후보의 사퇴를 통한 야권 단일화	0	
군소정당 후보 토론회 횟수 충분성	0	
공중파를 통한 TV토론회 진행 필요성	0	
17대 대선 당시 TV토론회 시청 여부	0	
17대 대선 당시 TV토론회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0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 중요하다(견해)	0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견해)	0	
정치상식	0	
정치지도자 호감도	0	

- 표본은 전국 성인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대에 따른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의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패널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패널유지율은 65.0%였으며, 두 차례 조사 모두 컴퓨터 지원 전화조사방식(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 본 연구팀은 사전조사에서는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성향,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사후조사 설문지는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이후 유권자들이 가졌던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성향, 그리고 후보자 선택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각각 별도로 조사된 설문항목과 양자 모두에서 조사된 설문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은 <표 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등의 다양한 분석들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 현실,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한 결과가 어떠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빈도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주요 사회경제적 배경 등과 관련하여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변수들의 관계와 영향력이 어떠한 방향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 이러한 기초 통계분석을 수행한 이후에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회귀분석은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통제된 상황에서 각각의 독립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선거관심 효과, 정치지식 효과, 투표결정 효과 등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불러올 수 있는 제반 정치적 효과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특히 본 연구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파악하고 있는 설문들이 두 가지 차원의 선택지(투표 참여 vs. 기권) 또는 다차원의 선택지(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 매우 불만)가 혼용되어 있는 바 이에 걸 맞는 회귀분석 모델을 채택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두 가지 차원의 선택지로 파악하고 있는 설문들에 대해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다차원의 선택지로 파악하고 있는 설문들에 대해서는 순서 로짓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다양한 통계분석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이면서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좀더 엄밀하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제도 분석

1 공공문제 및 대통령선거 정보 획득 매체

-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공중파 방송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유권자들이 어떠한 매체들을 통하여 공공문제 및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조사에서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3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데스크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선거 관련 정보들을 어떠한 매체들에 의존하여 취득하였는가를 질문한 결과 TV를 통하여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 관련 정보들을 취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도 3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설문결과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공공문제 및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TV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의 영향력 또한 유사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발전으로 인하여 후보자 토론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방송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들이 향후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2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 필요성

-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93.4%)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지 5.3%의 응답자들만이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3 후보자 TV토론회 횟수

- 현재 총 4회로 되어 있는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수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사전조사에서는 총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이 63.3%로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30.0%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사후조사의 경우 현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은 63.3%로 나타났다.
- 다만 사전조사와 비교하여 사후조사에서 현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비율이 줄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진보적 유권자, 그리고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후보자 TV토론회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요구들이 사후조사의 결과에 일정 수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이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현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몇 회 정도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적당한지(사전조사)와 몇 회 정도로 늘려야 하는지(사후조사)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한 두 차례 정도 후보자 TV토론회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후보자 TV토론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하지만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회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TV토론회 외에는 특별한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적절한 수준의 대안적 토론회가 이루어질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횟수는 현행으로 유지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점은 후보자 TV토론회를 늘릴 경우 초청대상과 비초청대상간의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군소정당 후보들을 위한 1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6.2%)이 현행 단 한 차례 제공되고 있는 비초청대상(군소정당) 후보들에 대한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초청대상 후보를 위한 후보자 TV토론회의 경우 우선적으로 횟수를 증가하는 것보다는 현행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되어 있는 토론회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단 한 차례 진행을 한다는 점에서 현행 2시간으로 되어 있는 후보자 TV토론회 시간을 좀 더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 시간대의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사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사들이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의 경우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프라임 시간대의 편성을 꺼리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가 밤 11시에서 새벽 1시로 편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의 경우 일부 토론자들이 본인들의 발언시간을 다 쓰지 못하여 당초 예정하였던 2시간 생방송 종료시간보다 훨씬 일찍 끝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그러므로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의 횟수와 시간을 더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좀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후보자 TV토론회 시간 적정성

- 현재 2시간으로 설정된 후보자 TV토론회의 시간 배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5.5%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현행 2시간보다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29.3%로 나타났고,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3.7%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대통령 후보에 대한 TV토론회의 경우 오후 9시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경우 현행 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후보자 TV토론회의 시간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제 전통이 구축되어 있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양자대결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후보들이 TV토론회를 진행하게 될 경우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향후 횟수의 문제와 연계하여 좀 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5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

- 세 명의 후보가 참여한 1차와 2차 TV토론회와 두 명의 후보가 참여한 3차 TV토론회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79.4%가 후보자 TV토론회가 주요 후보 위주의 토론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단지 18.1%에 불과하였다.
- 이것은 삼자구도로 진행된 1차와 2차 후보자 TV토론회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로 인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의 정책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차 후보자 TV토론회 이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3차 후보자 TV토론회에서는 이전 토론방식과 차별화된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토론과 재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토론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조사해본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7.5%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이 18대 대통령선거 토론 진행방식에 대하여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적지 않는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 이것은 기계적 공정성 강조로 인한 경직된 후보자 TV토론회 진행,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유토론의 기회 제한, 사회자의 미숙한 진행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통합진

보당 이정희 후보가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하여 주요 후보들간의 토론 중심으로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았다는 점도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은 향후 좀 더 종합적인 경험적 모델을 구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V.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현실 분석

- 후보자 TV토론회는 기존 한국 선거과정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고비용·저효율 정치의 개선과 함께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개인적인 정책적 차별성을 유권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TV토론은 유권자들이 투표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정당, 후보자, 그리고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TV토론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s)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선거 매체의 하나로 등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범람하고 있는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TV토론은 정책 대결보다는 이미지 선거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갖기도 한다. 왜냐하면 토론의 내용이나 질보다는 외모나 화술, 그리고 연기력 등에 의해서 후보자들이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TV토론은 정책선거를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뜰이나 정당의 유동성이 강하고, 정당간 정책적 차별성이 부족하며,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등장하였던 한국의 선거과정에서 정책이나 쟁점에 대한 정책적 대결보다 후보자의 퍼스널리티가 강조될 수 있다. 특히 단순다수제로 실시되는 한국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 기준에서 후보자 요인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 TV토론의 방식이나 후보자들의 토론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사회자 및 패널리스트 구성 등의 요인에 의하여 TV토론이 원래 의도하였던 바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정당 정치가 후퇴될 수도 있다.
- 이 장에서는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선거방송토론의 현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인지도, 관심도, 청취도,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이 ‘고비용·저효율’ 선거과정을 선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된 바, 선거방송토론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즉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을 때,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유권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 TV토론회와 관련하여 제도적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의 문제와 후보자 TV토론회가 갖는 정치적 효과 등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1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은 ‘누가 찍는가?’와 ‘왜 찍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요인은 선거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학문적 관심사항이 되어 왔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은 ‘정책·공약’과 ‘후보의 능력’이었다. “선생님께서서는 18대 대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책·공약’이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후보의 능력’이라는 응답이 32.2%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도덕성’은 14.8%, ‘이념’은 7.7%, ‘소속 정당’은 6.5%, ‘출신 지역’은 0.9%, ‘주변의 평가’는 2.3%의 응답률을 보였다.
- 18대 대통령선거는 사상 초유의 유력 여성 후보자의 등장, 야권 단일화 과정의 지연, 과도한 네거티브 선거의 창궐, 보수-진보의 치열한 대립, 세대 균열과 지역주의 등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선거 당일까지도 당선인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선거과정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후보자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능력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 있었다.
- 본 연구의 사후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실로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께서서는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라는 질문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 51.2%,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 40.6%,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끔 보았다’ 7.0%,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 0.9%, ‘모름/무응답’ 0.4%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전체 응답자 967명 중 후보자 TV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91.8%로 나타났고, 반대로 후

보자 TV토론회에 관심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7.9%에 불과하였다.

- 사후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9.7%가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고, 1.7%의 응답자만이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다고 대답하였다. 유권자들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책·공약, 그리고 후보의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투표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치적 정보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재였음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

-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식과 관심도를 제고하였다면, 실제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 전체 응답자의 96.7%가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3%의 응답자만이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의 평균 시청 횟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TV토론회를 보신 적이 있다면 총 4번의 토론회 중 몇 회 TV토론회를 시청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을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후보자 TV토론회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967명의 평균 시청 횟수는 2.59회로 나타났다.

3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 흥미성, 유의성

- ‘공정성’이란 TV토론회 참여의 기회, 발언시간, 순서 등에서 후보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후보자 TV토론회의 독립 공정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7.7%,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50.5%,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28.9%,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3%를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8.2%가 후보자 TV토론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

다고 판단하였고, 33.2%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8.2%가 후보자 TV토론회의 중립·공정성에 대하여 ‘긍정’하였고, 33.2%가 ‘부정’하였던 것과 달리 사후조사에서는 후보자 TV토론회의 중립·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높게 나타났다.

- 후보자 TV토론회 시행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조사 과정에서 “선생님께서서는 지상파 방송(KBS, MBC, SBS)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지상파 방송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68.1%, ‘불신’한다는 응답자가 29.4%를 차지하였다.
- 후보자 TV토론회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한 기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아울러 유권자들을 TV 앞으로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흥미성이 요구된다. 오락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흥미성은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 전체적으로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46.1%,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6.8%를 차지하였다. 비록 그 격차는 0.7%밖에 되지 않지만 사전조사 결과 후보자 TV토론회가 흥미롭지 않다는 응답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사후조사 결과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59.1%로 나타나 사전조사의 46.1%보다 13.0%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9.3%로 사전조사의 46.8%보다 7.5% 낮게 나타났다.
-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증대하였다면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은 어떠하였을까?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78.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19.9%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평가

- 후보자 TV토론회의 실시 목적이 금권·관권 선거를 탈피하고, 공정한 토론을 통하여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후보자의 정치적 자질을 검증하여 망국적 지역주의를 탈피

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 후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후보자 TV토론회의 현실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사전/사후 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후조사 결과 후보자 TV토론회를 가장 잘 한 후보자로는 ‘박근혜’라는 응답이 37.9%, ‘문재인’이라는 응답이 29.7%, ‘이정희’라는 응답이 17.2% 순으로 나타났다.
- 실제 투표 후보와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토론을 잘 하였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와의 일치도를 판단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수행해본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였다고 응답한 유권자들 중 64.5%는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을 가장 잘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응답자 중 50.0%는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을 가장 잘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등장하였던 안철수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질문항으로 사전조사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사퇴를 통한 야권 단일화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았다. 안철수 후보의 후보직 사퇴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45.3%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고, 46.8%는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VI.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1 시청자 집단 분석

- 조사 대상자 중에서 횡수에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96.7%(967명/1000명)에 이르렀고,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유권자 수는 단 3.3%(33명)에 그쳤다. 또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사람 중에서 88.7%가 토론회를 2회 이상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52.6%의 응답자는 세 번 이상 토론회를 시청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결과 비교를 통한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의 중요도(내적 효능감, internal efficacy)나 어느 후보가 권력을 잡는가의 중요도(외적 효능감, external efficacy)에 따라 후보자 TV토론회를 대하는 시민들의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내적 효능감 변수와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 및 관심도 변수 사이엔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관련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외적 효능감 변수의 경우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r=0.140$,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0.01$)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정치적 외적 효능감이 큰) 사람들일수록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후보자 TV토론회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권자 정치 참여도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향을 물었을 때 86.7%의 유권자만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대답하고, 10.3%의 응답자가 가급적 투표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사후조사에서 실제 투표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99%의 응답자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사전조사에서 투표할 의사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중이 3%였던 것과 비교하여 사후조사 결과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비중이 1%(2차 사후조사)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패널 유지율을 고려하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의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 대통령선거 TV토론 시청에 따른 정보 전달 기능의 효과성에 관하여는 사전조사에서 91.6%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실제 TV토론 실시 이후에 행해진 사후조사에서는 TV 선거정보 전달자로서 토론 시청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응답자는 81.3%에 그쳤다. 특히 TV토론 시청이 선거정보 획득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적극 응답 계층이 1차 사전조사의 35.3%에서 사후조사의 19.3%로 16%나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정보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한 응답자 수가 사후조사에서 10.3% 감소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 비중은 6.8%(1차 사전조사)에서 18.2%(1차 사후조사)로 1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포맷과 진행방식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선거정보 효과성 변수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왜 토론회의 정보 전달 기능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후보자 TV토론회의 충분성, 시간의 적절성(시간을 더 늘려야 vs. 줄여야), 그리고 토론방식의 변경에 동의하는가의 여부는 선거정보 획득의 효과성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p < 0.05$)을 보여주지 않았다. 반면 전반적인 토론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 토론 진행의 공정성, 흥미성, 그리고 유익성 등은 정보 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 유권자의 사전 정치지식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분류가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시청자의 새로운 선거정보 획득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유권자의 사전 지식 수준(및 학력 수준)에 따른 차등화 된 정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후보자 TV토론회의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의 경우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토론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57.2%에서 18대 대통령선거의 63.8%로 다소 증가한 반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40%(17대 대통령선거)에서 35.1%(18대 대통령선거)로 다소 감소한 추세를 나타내었다. 다만 지지 후보의 TV토론 성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계없이 후보자 TV토론회 방송 이후에도 기존의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계속 유지하였다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87.4%에 달하였다. 이것은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지지 후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지지 후보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기존 지지 후보에 대한 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으로 순수하게 지지 후보의 변동이 일어나는 비중은 결코 크지 않았으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지지 후보자들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지지 후보에게 투표하는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즉 유권자의 기존 지지 성향을 변동시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적어도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유권자의 투표 후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3 시청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와 관심도에 따른 효과 분석

- 시청자들의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노출, media exposure)와 시청 관심도(attention)를 주요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 두 변수들이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투표 참여 및 투표 결정, 선거정보 획득, 후보자 공약, 자질 및 국정 수행능력 등 주요 종속변인들에 일으키는 변화들을 분석해봄으로써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의 제반 정치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 분석 결과,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조사 대상자들은 선거관심도가 상당히 고양되었

고, 지인들과 선거 관련 대화 빈도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40.1%, 그리고 조금 높아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39.6%로 변화가 없었다(18.2%)고 대답한 사람들이나 낮아졌다고 대답한 사람들(1.7%)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지인들과 선거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89.5%)이 그렇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10.2%)을 큰 차이로 앞질렀다.

-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와 관심도, 그리고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를 보여 주는 두 변수들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유권자는 후보자 TV토론회를 더 자주 접할수록 그들이 선거에 대하여 갖는 관심을 올라가며, 후보자 TV토론회에 더 주목하면 할수록 그들이 선거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자 TV토론회의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과 유권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각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와 실제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미약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유권자가 후보자 TV토론회에 주목하는 관심도의 경우 투표 후보 결정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시청자가 후보자 TV토론회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수록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그 유권자의 실제 투표 후보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더 빈번한 노출(exposure) 보다는 유권자가 실제로 얼마나 큰 관심(attention)을 갖고 그것을 지켜보느냐에 따라 시청자의 투표 후보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유권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접촉 빈도수가 높고, 그들이 후보자 TV토론회에 더 관심을 갖고 볼수록 시청자들은 대통령선거 출마 후보자 및 선거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시청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를 더 자주 접할수록 그들은 출마 후보자의 자질, 공약, 그리고 국정 수행능력을 비교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후보자 TV토론회에 큰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자주 접한 사람일수록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선거이슈가 더 많아지고, 정치지식 수준도 고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TV토론회에 큰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자주 접한 사람일수록 후보자 TV토론회 이후에 추가적 선거정보에 대한 흥미 유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유권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빈도 및 관심도가 유권자의 선거

정보 취득 효과와 양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회귀분석

- 마지막 절에서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반 정치적 효과를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한 주요 통제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선거관심 효과, 정치지식 효과, 투표 결정 효과 등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불러올 수 있는 제반 정치적 효과들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분석의 주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선택하였다.
- 후보자 TV토론회가 선거관심도에 미친 영향의 경우 후보자 TV토론회를 더 많이 시청한 시민들일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유권자가 후보자 TV토론회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그들이 대통령선거 자체에 대하여 갖는 관심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빈도 변수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주요 변수 들로는 여성, 나이, 학력, 정치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 박근혜 후보 지지 여부, 그리고 사전조사에서 측정한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을 들 수 있겠다. 즉 여성 유권자들은 남성들과 비교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선거관심도 또한 상대적 고학력자들에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에 정치지식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여타 후보 지지를 드러낸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선거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19~29세의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은 선거 관심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기존의 젊은 유권자들에게 관찰되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그 밖에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즉 외적 정치 효능감이 큰 유권자들일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유권자의 정보 효과의 경우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에 비례해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더 많은 새로운 이슈들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추가 정보를 찾기 위하여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포함된 여러 통제변인들 중에서 흥미로운 발견은 사전 정치지식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새로운 정

보를 그다지 획득하지는 못하지만 후보자 TV토론회 이후에 더 활발한 추가 정보 탐색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분석의 경우 지금까지와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빈도 변수는 후보 결정과 관련된 어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즉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유권자의 선거관심도도 증대되고 선거정보 활동도 활발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권자의 활발한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자체가 그들의 투표 후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I. 결론

-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자 TV토론회는 후보를 검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특히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96.7%가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91.8%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거의 모든 국민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자 TV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자 TV토론회가 처음 도입된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부터 후보자 TV토론회가 선거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토론 형식, 토론 규칙, 후보자 초청대상 등 TV토론 자체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양당의 주요 후보가 양자토론을 펼치는 형식이 아닌 다수의 후보가 참여하는 후보자 TV토론회가 그동안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기계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었다. 2007년에는 6인의 후보가 참여한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되어 진정한 토론이 펼쳐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시청률 역시 1997년과 비교하여 매우 떨어지기도 하였다.
-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처럼 선거방송토론회의 방송의 방식, 형평성, 공정성 등에 관한 논란이 많았던 적도 없었다. 누가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지지율이 매우 낮은 후보와 당선권에 있는 후보가 같은 수준에서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 또한 토론 시간과 내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이번에도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기계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토론이 실질적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후보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후보자의 정책의 방향, 추진전략, 효과, 수반되는 예산 등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이런 후보자들의 토론 내용이 검증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토론방식을 고안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 현실, 효과의 세 가지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먼저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후보자 TV토론회의 방식과 횟수, 그리고 이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 일단 공공문제 및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TV의 영향력이 여전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선거방송토론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와 더불어 점점 인터넷의 영향력 또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방송토론과 인터넷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경우에서 보면 선거방송토론이 중요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방송토론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새로운 형태의 퓨전(융합)미디어 선거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다음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정보의 확산과 양질의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차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는 현재 총 4회로 되어 있는 후보자 TV토론회 횟수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사후조사의 경우 충분하다는 입장은 줄어들어 후보자 TV토론회 횟수를 한 두 차례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TV토론회 외에는 특별한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식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횟수는 현행으로 유지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세 명의 후보가 참여한 1차와 2차 후보자 TV토론회와 두 명의 후보가 참여한 3차 후보자 TV토론회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79.4%가 후보자 TV토론회가 주요 후보 위주의 토론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단지 18.1%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삼자구도로

진행된 1차와 2차 후보자 TV토론회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로 인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의 정책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후보자 TV토론회 참여 자격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현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인지도, 관심도, 청취도, 신뢰도, 공정성, 흥미성 등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후보자 TV토론회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청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식되어야 하며, 무미건조하지 않고 흥미도 이끌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구비될 때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이러한 기준들에 대하여 후보자 TV토론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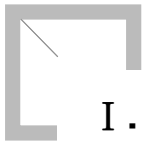
- 먼저 본 연구의 사후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실로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TV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91.8%로 나타났고, 사후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9.7%가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치적 정보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선거방송토론의 역할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58.2%가 후보자 TV토론회의 중립·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 시행 주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지상파 방송(KBS, MBC, SBS)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68.1%를 차지하였다.

-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46.1%를, 그리고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6.8%를 차지하였다. 비록 그 격차는 0.7%밖에 되지 않지만 사전조사 결과 후보자 TV토론회가 흥미롭지 않다는 응답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더 많은 국민이 선거토론방송을 시청하도록 유도하려면 흥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수정 보완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흥미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거방송토론의 효과를 정치지식, 선거관심, 정치효능감, 정책 인지, 후보자 인지, 투표 참여와 결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선거방송토론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살펴보았다.
 - 본 연구의 결과,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조사 대상자들은 선거관심도가 상당히 고양되었고, 지인들과 선거 관련 대화 빈도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청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를 더 자주 접할수록 그들은 출마 후보자의 자질, 공약, 그리고 국정 수행능력을 비교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에 큰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자주 접한 사람일수록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선거이슈가 더 많아지고, 정치지식 수준도 고양되며, 또한 후보자 TV토론회 이후에 추가적 선거정보에 대한 흥미 유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선거에서 선거토론방송이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많은 만큼 선거토론방송의 공정성, 형평성, 효율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다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 형평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I. 서론



I. 서론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자 TV토론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선거방송토론회의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96.7%가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91.8%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거의 모든 유권자들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자 TV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지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는 어느 매체를 통하여 얻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정보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TV가 주 정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48.0%는 TV, 37.5%는 인터넷, 그리고 9.9%는 신문을 꼽았다.

최근 전통적으로 선거운동과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TV 선거방송의 영향을 줄어 들고, 새로운 미디어인 트위터(tweeter)와 페이스북(facebook)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선거 등에서 이러한 추세가 목격되고 있어 한국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리고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주요 후보 선거본부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응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청장년층보다는 중노년층에 지지를 받는 보수 후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으나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 모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방빅의 승부, 즉 1~2% 지지율이 승패를 좌우한 선거였기 때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매우 중요하였다는 평가도 있었다.¹⁾

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진보 편향적이라는 근거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 진보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보수 진영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보수 후보의 적극적 노력으로 대선 약 3개월 전부터

1) 파이내셜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212190100188670010586&cDateYear=2012&cDateMonth=12&cDateDay=19 검색일: 2013/01/03).

트위터 점유율에서도 앞서고 “박근혜 후보 진영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을 긍정적 이미지와 적극 연결시켜 '후광 효과'를 누린 반면 문재인 후보 진영은 '노무현 정부 실정에 대한 공동 책임'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에 휩싸이면서 최종 승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²⁾ 따라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특정 이념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런 선거운동방식은 투표율이 낮은 젊은층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낮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반된 주장보다는 선거방송토론이 중요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방송토론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새로운 형태의 퓨전(융합) 미디어 선거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치열하게 격돌한 2012년 12월 4일과 10일의 1차와 2차 후보자 TV토론회의 지상파 4사 시청률은 각각 36.2%와 37.9%를 기록하였다. 종합편성·보도 채널까지 합치면 43.6%(10일)에 달하여 후보자 TV토론회에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후보자 TV토론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다양한 시청 소감, 의견 제시, 그리고 리트윗(retweet)을 통하여 선거 관련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효과를 이끌었다.³⁾ 결국 후보자 TV토론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토론거리를 제공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토론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방송토론회의 시청률이 감소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증가 추세로 돌아간 것도 미디어 융합의 효과가 컸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의 시청률이 15대 대통령선거에서 53.2%, 16대 대통령선거에서 34.2%, 그리고 17대 대통령선거에서 2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18대 대통령선거 1차와 2차 지상파 후보자 TV토론회의 시청률은 각각 36.2%와 37.9%를 기록하여 16대 대통령선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후보자 TV토론회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후보자 TV토론회는 유권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공평하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정보들을 유권자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정치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방송의 방식, 공정성, 형평성, 신뢰성, 투명성 등의 확보가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처럼 선거방송토론회의 방송 방식, 형평성, 공정성 등에 관한 논란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설문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69.4%, 그리고 부정적인 응답은 28.8%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공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논란

2)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1/2012122100264.html 검색일: 2013/01/03).

3)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61705341&code=910100 검색일: 2013/01/03).

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누가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후보자 TV토론회 참여 자격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우선 군소후보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자. 2012년 12월 5일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이 한 차례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석하여 정책 대결을 할 수 있었다. 박종선(기호 4번) 후보, 김소연(기호 5번) 후보, 김순자(기호 7번) 후보가 이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강지원 후보(기호 6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 TV토론회 초청요건 자체에 불만을 품어 후보자 TV토론회에 불참하였다.⁴⁾ 토론방식에 있어서도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가 시청률이 낮은 밤 11시에 편성되어 한 차례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수 5명 이상 정당 추천자,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후보만 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지율이 1%도 안 되는 후보들을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들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다행히 3차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함으로써 주요 후보의 양자토론이 진행되었지만 이 논란은 차후에도 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보다 더 논란이 된 것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에 대한 것이었다. 이정희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소속 의원이 6명으로 위의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가졌다. 하지만 이정희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 안팎인 상황에서 지지율 40% 이상의 후보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율이 15%가 넘을 경우에만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새누리당은 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 참가기준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주요 내용은 지지율 15% 이상으로 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⁵⁾

주요 후보자의 자격을 정하는 것은 공론적 토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없애야 한다. 후보자 TV토론회 참여 자격요건에 대한 변경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통하여 향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이번 조사에서 “세 명의 후보가 참여한 1차와 2차 토론회와 두 명의 후보가 참여한 3차 후보자 TV토론회를 보면서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주요 후보 위주의 토론방식으로 바뀌

4)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090101 검색일: 2012/01/05).

5)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2/h20121212023535121990.htm> 검색일: 2013/01/07).

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하였는데 이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9.4%,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18.1%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자료는 향후 주요 후보 중심의 후보자 TV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보자 TV토론회 방식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은 토론시간 배정과 토론내용이었다. 2012년 12월 4일에 열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한 주제에 배분된 토론시간은 20분 남짓이었다. 그리고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면 후보들이 각각 1분 30초간 답변을 한 뒤 후보들끼리 15분 동안 상호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방식은 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와 비교하여 후보자들간의 상호 토론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1차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주어진 시간 내의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2차 후보자 TV토론회에서는 후보자들이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상호토론 방식으로는 심도 있는 토론이 어려워 국민들이 후보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책을 검증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후보의 정책의 방향, 추진전략, 효과, 수반되는 예산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이런 후보들의 토론내용이 검증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토론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주요 정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후보자 TV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변수였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관심이었던 상황 속에서 문재인-안철수 양자 TV토론회가 2012년 11월 22일에 실시되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정치, 경제, 사회/복지/노동, 외교/통일/안보 등 5개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각자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이슈인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얘기로 끝을 맺으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선거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박근혜 후보측도 후보간 형평성을 근거로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2012년 11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1월 21일 단일화 관련 TV토론을 한다고 알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11월 23일 밤 이에 상응하는 TV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사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⁶⁾ 균등한 방송토론의 기회를 보

6)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446.html 검색일: 2013/01/08).

장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단독으로 TV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먼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의 TV토론은 황금시간대인 밤 10시로 예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11시 15분으로 연기되었다. 방송사측은 이미 편성된 드라마 광고 등을 이유로 10시 생중계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⁷⁾ 하지만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드라마보다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특정 언론사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의 압력으로 연기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단독 TV토론도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2012년 11월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단독 TV토론회와 관련하여 ‘박근혜 후보의 TV토론 질문지와 답변지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기획사가 중복질문이나 전체적 기획 차원에서 패널들에게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⁸⁾ 이와 같은 논란은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차후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TV토론회는 국민에게 보다 공정하고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런 정보들은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특히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기존 정치상황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물론 이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기 어려웠다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차기 선거를 위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도 정치적 격변기에 진행되다보니 바로 발생한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수집하여 분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대통령선거의 역사 등에 대한 부분,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에 대한 부분, 후보자 TV토론회의 현실에 대한 부분,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 현실, 효과의 세 가지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적 설정에 대한 인식,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인식이 종합적인 차원에서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안을

7) PD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30> 검색일: 2013/01/08).

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61815171 검색일: 2013/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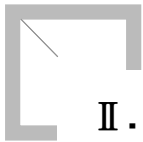
모색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후보자 TV토론회의 방식과 횟수, 그리고 이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이유는 후보자 TV토론회 제도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요구들을 파악할 때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현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인지도, 관심도, 청취도, 신뢰도, 공정성, 흥미성 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후보자 TV토론회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청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식되어야 하며, 무미건조하지 않고 흥미도 이끌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구비된 상태에서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될 경우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이러한 기준들에 대하여 후보자 TV토론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정치지식, 선거관심, 정치효능감, 정책인지, 후보자 인지, 투표 참여와 결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와 정책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심 유도 등을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로 인하여 선거 참여와 후보자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전반적인 차원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어떠한 측면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Ⅱ. 선행 연구 분석



II. 선행 연구 분석

한국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TV토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1997년 이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학계에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TV토론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한국 사회에 적절할 형식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TV토론이 유권자에 의하여 어떻게 활용되고 평가받고 있는지 현실적인 이슈에 대한 진단도 있었다. 한편 미디어 효과이론을 검증하는 학자들은 TV토론이 유권자에 미칠 수 있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측정해보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미디어 내용분석에 초점 맞춘 연구자들은 TV토론에서 펼쳐지는 후보자의 담론 분석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TV토론과 관련한 논의 중에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세 가지 영역의 논의와 선행 연구를 정리하려고 한다.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에 주목하는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시각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와 형식, 현실적인 이용과 평가, 그리고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다룬다. 이와 같은 연구범위에 맞추어 이 장에서는 첫째,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실제와 형식에 대한 이슈를 정리한다. 둘째,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이용자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유권자의 이용과 평가의 수준을 정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 이론에 입각하여 이루어 온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연구의 경향을 제시한다.

1 제도와 형식

(1)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1997년에는 크게 두 부류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열렸다. 한 명의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한 후보자 개별 TV토론회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TV토론회로 나누어볼 수 있다. 실제 형식에 대한 소개와 진단을 이종수(1997)와 양승찬(1998)의 정리에 기초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후보자 개별 TV토론회의 경우 199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시기별로 진행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 먼저 5월부터 6월까지 중앙일보-MBC 주최, 한국일보-SBS 주최, 조선일보-KBS 주최로 열린 대통령선거 후보자 개별 TV토론회가 있었다. 총 10명의 대통령선거 후보가 날짜별로 1명씩 토론에 참여하고 패널은 약 5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TV토론회 진행방식은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오프닝을 사회자 토론 후보 소개, 후보자 약력 소개, 패널 소개, 모두 발언(소견 발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본 토론의 경우 3사가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통적으로는 패널질문 1분과 후보자가 2분 내 응답하는 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KBS만 추가사항 없이 이 방식만을 적용하였다. SBS는 패널 질문과 더불어 보충 질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가상현실에 관한 질문(기자질문 가운데 2개 임의적 선택), 시청자가 팩스로 보내준 질문과 방청객 질문도 제시하였다. MBC 역시 패널 질문 형식은 같으나 토론 구성을 조금 달리하였다. 먼저 현안 문제부터 시작하여 정책·개인 신상문제, 정책(질문 35~40개, 2~3개 방청객 질문)으로 끝나도록 구성하였다. 토론 규칙으로 시간 엄수와 진행 중 박수 금지 등이 제시되었다(이종수 1997).

1997년 5월~6월 실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개별 TV토론회를 분석한 이종수(1997)의 연구결과를 보면 출연한 전체 패널 129명 중 54.2%(70명)가 교수였고, 교수가 패널로 많이 등장한 원인으로 질문 내용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토론 내용으로는 전체 475개 분석항목 가운데 정치적 이슈(39.1%)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경선과 선거의 판세와 대통령선거 정지자금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초반 후보자 개별 TV토론회는 현안 정치적 사안이나 경선 판세와 전망과 같은 경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이종수 1997).

이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개별 TV토론회의 경우 5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개별 기자회견식으로 구성된 TV토론회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패널 질문이 최소 30초에서 최대 1분까지 주어졌으며, 후보자 답변은 2분으로 구성되었다(양승찬 1998). 또한 다수의 패널이 기자회견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질문을 하던 양식에 덧붙여 패널 수를 줄인 좌담회 형식이 3차와 4차 TV토론회에서 선보였다. 질문과 답변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며, PC통신과 인터넷 동시 참여를 이끌어낸 특징이 발견되었다(양승찬 1998). 양승찬(1998)은 이종수(1997)의 분석틀에 맞추어 대통령선거 후보자 개별 TV토론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29명의 패널 중 69%(20명)가 언론인으로 구성되어 5월~6월 교수 패널이 압도적이었던 양상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였다. 토론 주제의 경우 7월~9월 토론회에서는 정책 관련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10월~11월 토론회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양승찬 1998).

이후 12월에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TV토론회가 3당 후보를 초청하여 지상파 방송 3사가 돌아가며 한 차례씩 진행하며 개최되었다. 12월 1일, 7일, 14일 3당 후보 대상 TV토론회가 열렸으며, 14일에는 군소정당 후보의 TV토론회가 마련되었다. 3당 후보 초청

TV토론회는 기초연설(1분), 사회자 질문과 답변(1분 30초), 상대 후보의 반론과 보충 발언(1분), 후보간 상호토론 질문(1분) 이어진 답변(1분 30초),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반론과 보충 발언(1분)으로 구성되었다.

(2)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주요 정당이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TV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경선 출마자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TV토론이 ‘지상 최대의 퀴즈쇼’나 ‘인포테인먼트’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황근 2002a).

이후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는 지상파 방송 3사가 각각 다른 주제를 맡아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 진행되었다. 2002년 12월 3일엔 KBS가 정치·외교·통일 분야, 10일에는 MBC가 경제·과학 분야, 16일에는 SBS가 사회·문화·여성·언론 분야를 주제로 한 TV토론회를 각각 마련하였다. 토론은 기초연설, 사회자 질문, 후보자 3인의 3자 토론, 양자 토론, 마무리 연설로 구성되었다. 후보자들의 발언시간이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사회자의 역할은 최소화되었다.

2002년 대통령선거 TV토론회의 경우 토론의 진행과 연출에 있어서는 시간 배분이나 재현 방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정책 논리를 객관적으로 중개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상길 2003). 후보 사이의 일대일 맞대결은 금지되었고, 화면구성 또한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다. 토론 시작과 말미에 사회자 뒤편에서 스튜디오 내 후보들 전체를 조망해준 장면을 제외하면 프로그램 내내 발언자 중심의 화면이 기본을 이루었고, 발언 중간이나 직후에 상대 후보의 반응 장면은 배제되었다.

반면 이와 같은 엄격한 진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 토론 형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후보를 3인 이내로 초청하고 직접토론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과 90초라는 짧은 답변시간과 사회자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황근 2002b; 송종길 2003). 또한 토론 활성화와 시민 관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들이 TV토론회에 참여하여 후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인 ‘시민 포럼 방식(town-hall meeting)’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이중수 2002a).

(3)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TV토론회는 12월 6일, 11일, 16일 총 세 차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6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토론에 참여하였다. 세

차례의 TV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군소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TV토론회는 13일 늦은 밤 11시에 한 차례 진행되었다. TV토론회는 KBS와 MBC 스튜디오에서 각 2회씩 개최되었다. TV토론회 주제는 1차에서 정치, 외교, 통일, 안보를 다루었고, 2차에서 사회, 교육, 문화, 여성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었다. 그리고 3차에서는 경제, 노동, 복지, 과학 분야를 다루었다.

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는 6명이 참여한 관계로 이전 TV토론회와 차이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후보자 개별 기초연설(2분)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하여 1분 30초씩 답변하는 공통질문이 주어졌다. 후보자간 상호 토론은 A후보자의 모두 발언(1분 30초)을 시작으로 다른 후보자들이 1분씩 반론을 하고, 다시 A후보자가 답변(2분)을 하여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UCC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1분 30초)이 이어졌고, 다시 한 번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하여 1분 30초씩 답변 한 뒤 맺음말(2분)로 TV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경우 초청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가 7명에 이르고,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가 6명씩이나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수가 토론하는 상황에 따른 제약이 많았다. 6명의 후보가 정해진 시간 내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간적·형식적 제약을 극복하기 힘들어 한 후보당 15분 내외의 발언시간이 주어졌을 뿐이었다(안차수 2007). 규정과 관습에 매인 기계적 토론 역시 후보자간 비교 검증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구교태 2008). 또한 연구자들은 2002년 당시, 심층적이고 역동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였던 재반론 혹은 재답변이 생략되어 후보자간 충돌이 약해져 토론이 지루해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안차수 2007; 구교태 2008). 하지만 새롭게 시도 된 UCC 토론은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던 시민 참여방식을 일부 수용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었다(구교태 2008).

(4)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의 TV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 4일, 10일, 16일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TV토론회별 주제는 차수별로 1차에서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2차 경제·복지·노동·환경 분야, 3차 사회·교육·과학·문화·여성 분야로 나누어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초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는 12월 5일 늦은 밤 11시에 한 차례의 TV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차 TV토론회는 후보별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하여 답변하고, 국민 공모 질문으로 정치쇄신 방안에 대한 답변,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간 상호 토론, 마지막으로 맺음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차 TV토론회에서는 1차

TV토론회 때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제어하지 못하고 후보자가 발언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였다는 지적 때문에 형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1차 TV토론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차 TV토론회는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 세 차례와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진 뒤 맺음말을 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마지막 3차 TV토론회는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양자토론 형식으로 바뀌었다. 형식 역시 질문(1분)과 답변(1분 30초), 반론(1분)과 재반론(1분 30초)으로 바뀌어 진행되었다.

1차 TV토론회 중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발언과 관련하여 TV토론회 초청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2004년 선거법 개정 당시에도 후보 초청기준⁹⁾의 모호함이 제기된 이래로(이상현 2004; 류한호 2004) 어떤 자격의 후보를 초청해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윤성옥 2007a; 윤성옥 2007b). 1차 TV토론회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다른 나라의 선거 TV토론회 출연 기준을 제시하는 등 ‘TV토론회 초청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 이용과 평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후보자 TV토론회의 이용과 평가를 진단한 연구는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 이후 대표적으로 세 연구를 들 수 있다. 15대와 16대 대통령선거는 양승찬(1998, 2003)의 연구에서 이용과 평가 부분을 살펴보고, 17대 대통령선거는 송종길·박상호(2007)의 연구에서 관련 부분을 검토하였다. 서로 다른 선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15대 대통령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동일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후보자 TV토론회의 이용도와 다양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측정할 수 있어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17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상이한 척도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참고를 위하여 일부 결과들을 제시한다.

(1) 시청도

후보자 TV토론회의 시청도는 크게 TV토론회를 시청한 ‘노출도’와 이를 관심 있게 주의하여 시청한 ‘주목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양승찬의 1998년과 2003년 연구에서는 노출도와 주목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반면 송종길·박상호(2007)의 연구에서는 TV토론회

9) 후보자 TV토론회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분석 결과는 다음의 제VI장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제도 분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실시된 TV토론회의 노출도를 물어본 설문에서는 응답자 400명 중 TV토론회를 모두 본 응답자가 35.5%, 일부만 본 응답자가 61.3%, 전혀 보지 않은 응답자가 3.2%로 나타나 96.8%나 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TV토론회를 조금이라도 시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TV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TV토론회의 주목도를 물어본 결과, '매우 관심 있게 시청했다' 25.8%, '어느 정도의 관심 있게 시청했다' 61.0%, '별 관심 없이 가끔 보았다' 12.4%, '전혀 관심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 0.8% 등으로 나타나 약 87%의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 있게 TV토론회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대통령선거 TV토론회의 경우 노출도는 '매우 많이' 16.4%, '어느 정도 보았다' 58.6%로 나타나 1997년 TV토론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5%가 어느 정도 TV토론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도 역시 1997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관심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매우 관심 있게 시청했다' 19.9%, '어느 정도의 관심 있게 시청했다' 21.9%, '별 관심 없이 가끔 보았다' 55.1%, '전혀 관심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 3.1% 등으로 관심 있게 TV토론회를 시청한 사람들보다 별 관심 없이 TV토론회를 시청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면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진보 또는 보수의 정치성향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TV토론회의 주목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2007년에 실시된 연구를 보면 전체 800명 중 1차 TV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가 62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TV토론회 평균 시청시간은 96.9분이었다. 반면 2차와 3차 TV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는 총 443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시청시간은 각각 75.98분과 93.14분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시청률 전문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TV토론회 시청률에 따르면(안차수 2007) 1997년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시청률은 평균 53.2%, 2002년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시청률은 평균 34.2%, 2007년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시청률은 21.7%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회를 거듭할수록 TV토론회의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시청 이유

TV토론회 시청자만을 대상으로 TV토론회 시청 이유를 물어본 결과, 1997년 TV토론회 연구에서는 총 387명의 응답자 중 47%가 '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지 후보가 토론을 잘 하는지를 알고 싶어

서(35.7%)’ 등으로 나타났다. 2002년 역시 이와 유사하게 ‘후보자 결정 전 인물됨을 비교하고 싶다’(29.4%)와 ‘정책을 비교하고 싶다’(27.4%) 등이 높게 나타났다. 2007년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후보의 인물됨을 비교하고 싶어서’(32.4%)와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고 싶어서’(32.4%)가 주요한 TV토론회 시청 이유로 확인되면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후보자의 인물됨’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3) 유용성 평가

TV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수용자가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얼마만큼 유용한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1997년의 조사에서는 수용자들의 58.9%가 TV토론회가 ‘유용한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2002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4%가 ‘유용한 내용을 담았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 1997년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TV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도움 정도

유권자들이 TV토론회가 후보자 비교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간성, 리더십, 논리성, 정책 공약, 정치성향, 국정 수행능력,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 등 총 7가지 비교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15대와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1997년 대통령선거 TV토론회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후보자들의 인간성 비교(평균 3.79), 리더십 비교(3.74), 논리성 비교(3.36), 정책 공약 비교(3.30), 정치성향 비교(3.47), 국정 수행능력 비교(3.40),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 비교(3.36) 등의 대부분 항목들에서 평균 이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02년 대통령선거 TV토론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인간성 비교(3.71), 리더십 비교(3.69), 논리성 비교(3.75), 정책 공약 비교(3.74), 정치성향 비교(3.69), 국정 수행능력 비교(3.55),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 비교(3.52)로 1997년과 마찬가지로 평균 이상의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1997년과 2002년간에 TV토론회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2개 항목을 제외한 5개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2002년의 평가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논리성($t=-1.973$, $df=808.831$, $p<0.05$), 정책공약($t=-7.111$, $df=837$, $p<0.05$), 정치성향($t=-3.707$, $df=819.279$, $p<0.05$), 국정 수행($t=-2.613$, $df=837$, $p<0.05$), 미래비전($t=-2.832$, $df=802.095$, $p<0.05$)의 항목

에서 상대적으로 2002년 평가가 1997년 평가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반면 인간성과 리더십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1997년과 2002년 TV토론회 도움 정도 평가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항목	1997년	2002년				
	평균 (5점 척도)		t값	df	유의확률	비고
인간성	3.79	3.71	-	-	-	1997년 n=387, 2002년 n=453
리더십	3.74	3.69	-	-	-	
논리성	3.36	3.75	-1.973	808.831	.49	
정책 공약	3.30	3.74	-7.111	837	.00	
정치성향	3.47	3.69	-3.707	819.279	.00	
국정 수행능력	3.40	3.55	-2.613	837	.00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	3.36	3.52	-2.832	802.095	.00	

※ 출처: 양승찬(1998, 2003)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4) 정책/공약 차이점

각 후보들이 내건 정책/공약에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1997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평균 3.14로 정책/공약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어서 2002년 대통령선거 역시 평균 3.52로 1997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정책/공약의 차이점에 대하여 측정한 2007년 1차 TV토론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평균 3.06으로 이전 TV토론회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5) 공정성

1997년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8%가 공정하였다는 의견을 보여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았다. 2002년에는 ‘공정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57.3%로 나타나 1997년 대통령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다. 역시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는 않지만 2007년 1차 TV토론회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4.8%가 ‘공정했다’고 평가하여 TV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점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문제점

TV토론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1997년의 경우 ‘후보자간 인신 공격으로 진정한 토론이 없었다’는 의견이 70.3%, ‘각 후보에게 충분한 발언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가 61.2%로 가

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경우에는 ‘각 후보에게 발언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43.8%로 특히 많이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1차 TV토론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후보자간 인신 공격으로 진정한 토론이 없었다’(31.5%)와 ‘답변시간이 짧아 충분한 발언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28.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97년 대통령선거 TV토론회부터 후보자들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것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3 TV토론회 효과

TV토론회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후보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태도의 강화, 선거 관련 지식 습득 또는 학습, 정치 참여 증진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송종길, 박상호 2009, 이준웅 2003). 베노이트와 동료 연구자들은(Benoit et al. 2002) 미국 예비선거와 본선거 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시청이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메타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TV토론회 시청이 유권자의 정책 이슈 지식(issue knowledge) 수준과 이슈 현저성(issue salience)에 대한 지각 수준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입장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TV토론회는 유권자 의제설정 기능(agenda-setting)도 갖고 있으며, 후보자의 성격에 대한 유권자 선호의 변화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물론 투표 선호(vote preference)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V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유권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메타분석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TV토론회 관련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들을 그 차원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선호 변화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과 인격과 자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호감도와 연관된 이미지 차원과 후보 선택과 관련이 있는 태도 변화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TV토론회와 후보자 이미지와 관련한 연구는 1960년 케네디 후보와 닉슨 후보의 ‘Great Debate’를 계기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김관규·구교태·이준웅 2006).

당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케네디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서 TV토론회를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지각된 이미지가 선거의 승패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기 시작하였다(Kraus 1996). 특히 이후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정당소속감이나 정당간 정책 비교보다는 후보자의 이미지가 투표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주장이 실증 연구를 통하여 제기되면서 TV토론회가 후보자 이미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이강형 2004). 이미지에 초점 맞춘 연구들을 보면 TV토론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모르고 있던 부분을 인지적으로 알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감성 및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는 그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나은영·한규석·고재홍 2003; Maddox and Nimmo 1981; Stroud, Stephens, and Pye 2011; Warner, Carlin, Winfrey, Schnoebelen, and Trosanovski 2011).

파우와 버군(Pfau and Burgoon 1989)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첫 번째 판단이 후보자의 성격과 같은 후보자 이미지 요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TV토론회가 후보와 관련 있는 이슈에 대한 지식의 획득보다 이미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주와 동료들(Zhu, Milavsky, Biswas 1994)은 TV토론회가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몇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로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비전의 매체 속성이다. 시각적 메시지는 언어적인 내용과 비교하여 시청자의 관여도가 낮아도 이해되기 쉬우며, 기억 속에 보다 쉽게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후보자의 이미지 지각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Hellweg, Pfau, Brydon 1992). 두 번째로 인간적인 요소의 강조이다. TV토론회 제작자들은 후보자들의 대결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후보의 반응 장면(reaction shots)을 많이 사용하면서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후보자의 스타일이나 재치, 순발력, 능력 등 유권자들의 흥미를 끄는 요소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미지 전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연구자들은 후보 이미지에 대한 텔레비전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패인과 동료연구자들(Payne, Golden, Marlier, Ratzan 1989)의 연구에서는 TV토론회가 이미 형성된 이미지를 강화시킬 정도이지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기존 태도나 이미지와 일치하는 정치적 메시지에만 선택적으로 주목하거나 재해석하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이강형 2003). 트렌트와 프리덴버그(Trent and Friedenber 1991)는 후보자가 잘 알려지지 않아 아직까지 이미지가 고착되지 않았을 경우에 TV토론회가 이미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조건적 요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일치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김관규·구교태·이준웅(2006)은 후보자가 지니고 있는 요건, 이미지의 유형, 유권자의 개인적 성향 등과 같은 매개변인에 따라 영향력의 발현 여부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TV토론회가 후보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 진단은 어떤 경우에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들 연구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후보자 선호 변화와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태도 변화의 측면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TV토론회가 후보자 결정보다는 지지 후보에 대한 선택적 보강 또는 강화의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양승찬 1999; 이준웅 1999; 정성호 2006; Benoit and Hansen 2004; Miller and Mackuen 1979; Munro et al. 2002). 1960년, 1976년, 1980년, 1984년, 1988년의 다섯 차례 미국의 대통령선거 TV토론회를 분석한 헬리웁, 파우, 브라이든(Hellweg, Pfau, Brydon 1992)의 연구에 따르면 TV토론회는 지지 후보가 있던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보강하는 효과를 미쳤고, 미결정자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정도가 낮은 유권자에게는 제한적으로 후보자 선택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은영(2002)은 TV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태도 강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TV토론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가 나올 경우 유권자들은 채널을 고정시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채널을 아예 다른 곳으로 돌려 버리는 ‘선택적 노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호와 상관없이 TV토론회를 시청하게 될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의 토론은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반면 싫어하는 후보의 토론 내용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선택적 집중’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V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토론 내용을 다 들은 후에는 좋아하는 후보가 말한 내용은 지지하고 싫어하는 후보가 말한 내용은 부정하거나 그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기존 신념의 강화’ 효과가 일어난다고 태도 강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강형·김춘식·양승찬·권혁남(2004)은 유권자들이 TV토론회를 시청하기에 앞서 이미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후보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가 TV토론회 이전에 형성되어 TV토론회 자체만으로 유권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존재한다(이준웅 1999).

(2) 지식 습득(학습)

식견 있는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은 부분은 TV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정책과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이미지 정치 속에 TV토론회가 정책선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와도 연결된다. TV토론회 시청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인지적 효과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TV토론회를 통하여 유권자들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부각

된 쟁점에 대하여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이 결국 투표로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TV토론회가 선거과정에 등장한 이후 TV토론회를 통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한 정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 이슈 등을 얼마나 인지하고 습득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TV토론회 시청이 지식 습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국외 연구는 물론 국내 연구간에도 일관되지 않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먼저 TV토론회 시청의 인지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이강형 2003; 이준웅 1999; Best and Hubbard 1999; Caffee and Dennis 1979; Graber 1993; Krarus 1988; Jamieson and Birdsell 1988)에서는 TV토론회가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정치 또는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이념과 비전, 후보자 및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 후보자의 공약 및 정책 등을 전달하며,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치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이종수 2002b). 이러한 TV토론회 시청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전제인 식견 있는 유권자를 만들고, 선거의 과열과 타락을 방지하며, 선거를 정책 대결로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효성 1993).

채피와 데니스(Chaffe and Dennis 1979)는 1976년 포드 후보와 카터 후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에서 TV토론회가 후보자 개인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들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1960년, 1976년, 1980년, 1984년 네 차례의 미국 대통령선거 TV토론회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Graber 1993; Krarus 1988; Jamieson and Birdsell 1988)에서는 비록 TV토론회가 후보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인 선거과정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지속된 TV토론회 효과 연구에서도 TV토론회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와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Benoit and Hansen 2004; Chaffee, Zhao, Leshner 1994; Drew and Weaver 1991; Elliott and Sothirajah 1993; McLeod, Pan, Sun, Hein 1989). 1988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배경으로 한 드류와 위버(Drew and Weaver 1991)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노출도, 캠페인 흥미도, 교육 수준, TV토론회 시청도가 정책 이슈에 대한 지식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TV토론회 시청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케나머(Kennamer 1987)는 TV토론회를 시청하거나 이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이 유권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캠페인 이슈를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준웅(1999)은 15대 대통령 선거 TV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보다 실제로 선거 이슈 및 후보 정책에 대하여 더 많이 학습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강형(2003)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TV토론회 시청이 이슈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관규와 동료들(김관규·구교태·이준웅 2006) 역시 TV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이 해당 선거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현안을 학습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TV토론회 시청과 정치지식 습득간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1992년 미국 선거를 중심으로 연구한 두 연구에서도 TV토론회와 지식 습득간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채피, 자오, 레슈너(Chaffee, Zhao, Leshner 1994)의 연구에서는 TV토론회 시청과 정책에 대한 지식 습득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선거를 배경으로 한 위버와 드류(Weaver and Drew 1995)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996년 대통령선거에서 동일한 연구 디자인으로 재검증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타났다(Drew and Weaver 1998). 국내에서도 TV토론회 시청이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다른 미디어 이용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정책 관련 지식 습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양승찬 1999).

이와 같이 TV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정책 관련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연구자들은 TV토론회 효과를 측정할 방법론상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TV토론회 효과 연구들은 서베이 혹은 실험디자인 방법을 통하여 실시되어 왔다. 특히 서베이를 통하여 TV토론회의 정책 이슈 학습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효과가 크지 않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이 대부분 TV토론회만의 효과를 살펴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접촉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양승찬 1999; Drew and Weaver 1998; Weaver and Drew 1995). 반면 실험디자인을 채택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정책 이슈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TV토론회에만 초점을 두어 실험 처치를 통한 사전-사후 변화를 분석한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강형 2003; Bishop, Oldendick, Tuchfarber 1978).

일부 학자들은 TV토론회의 학습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미디어 이용자의 다양한 개인적 속성을 평가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구교태·김관규·이준웅 2007). 즉 TV의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유권자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 정당지지도, 기존의 정치적 지식, 정치관심도, 미디어 의존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양승찬 1999, 2003; 이강형 2004; 이준웅 1999, 2003; Kraus 1988; Sears and Chaffee 1979). 실제로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학습은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욕구, 정치관심도, 정치시스템에 대한 배경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왔다(Mendelsohn and O'Keefe 1976; Jeffres 1997).

(3) 정치참여 및 기타 정치 관련 변인

TV토론회 시청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후보자나 정책과 이슈 등에 대한 주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 및 선거과정의 참여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TV토론회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투표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구교태·김관규·이준웅 2007).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배경으로 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TV토론회가 투표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Faucheux 2002). 맥클라우드, 비비, 듀랄(McLeod, Bybee, Durall 1979) 역시 TV토론회가 선거 및 캠페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정치적인 대화를 촉진시키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 여러 연구들에서도 TV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Benoit and Hansen 2004; Best and Hubbard 1999; Charree 1978; Kraus 1988; Sears and Chaffee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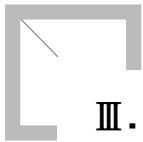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들이 발견되었는데 양승찬(1999)은 15대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시청도와 투표 참여의사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일반 미디어 이용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TV토론회 시청이 투표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성호와 이화행(2006) 역시 2006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후보간의 TV토론회를 대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의도를 비교한 결과 반복적으로 TV토론회를 시청할수록 투표 참여의사가 높아진 결과를 발견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TV토론회의 이용은 단순히 TV토론회를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속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함께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양승찬 1999; Lang and Lang 1978; Sears and Chaffee 1979). 왜냐하면 사람들은 TV토론회를 직접 시청하기도 하지만 추후에 이를 분석하거나 보도하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투표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유권자들이 TV토론회 이후에 매스미디어에서 어떤 후보자가 더 잘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보도를 접함으로써 후보자의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ang and Lang 1978; Sears and Chaffee 1979). 또한 매스미디어의 이용 외에도 TV토론회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맥클라우드

와 동료연구자들(McLeod, Durall, Ziemke, Bybee 1979)은 TV토론회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이 TV토론회를 시청한 뒤 다른 정보원과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후보자 및 정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1976년 포드-카터의 TV토론회를 배경으로 분석한 결과, TV토론회는 유권자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며, 이에 따라 정책 관련 지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양승찬(1999)은 TV토론회 시청이 정책 관련 지식, 투표 의사, 후보 지지 관련 의견 표명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 미디어 이용 변인, TV토론회 관련 커뮤니케이션 변인들을 함께 살펴본 결과, TV뉴스 시청과 TV토론회 관련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정책 관련 지식, 투표 의사, 후보 지지 의견 표명 등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송종길과 박상호(2009)는 텔레비전 토론 이용 동기에 따라 유권자의 정치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정치 정보효능감, 정치적 지식, 정치 냉소주의, 투표 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텔레비전 이용 동기는 '정책/공약 파악', '선거 참여의 흥미/재미', '이야기 소재 제공', '후보자 정보 습득', 'TV토론 공정성 평가', '선거 추이 파악', '수동적 시청/정치 참여', '후보자와 준사회적 상호 작용', '정치정보 능동적 관여' 등 9가지 이용 동기가 나타났으며, 이용 동기에 따라 정치 정보효능감, 정치적 지식, 정치 냉소주의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Ⅲ. 연구 내용과 방법



Ⅲ.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아래의 <그림 Ⅲ-1>과 같이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 현실, 효과의 세 가지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적 설정에 대한 인식,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인식이 종합적인 차원에서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Ⅲ-1>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의 주요 내용 구성

제도	현실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방식 • 토론 횟수 • TV토론회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토론회 인지도 • TV토론회 관심도 • TV토론회 청취도 • TV토론회 공정성 • TV토론회 유용성 • TV토론회 흥미성 • TV토론회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지식 효과 • 선거관심 효과 • 정치효능감 효과 • 정책 인지 효과 • 후보자 인지 효과 • 투표 참여 효과 • 투표 결정 효과 • TV토론회 효과

먼저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후보자 TV토론회의 방식과 횟수, 그리고 이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후보자 TV토론회 제도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요구들을 파악할 때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현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인지도, 관심도, 청취도, 신뢰도, 공정성, 흥미성 등의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후보자 TV토론회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청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식되어야 하며, 무미건조하지 않고 흥미도 이끌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구비된 상태에서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될 경우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이러한 기준들에 대하여 후보

자 TV토론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정치지식, 선거관심, 정치효능감, 정책인지, 후보자 인지, 투표 참여와 결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와 정책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심 유도 등을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로 인하여 선거 참여와 후보자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전반적인 차원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어떠한 측면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림 III-2〉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연구의 주요 내용 구성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 1,541명 (가중 후 1,500명) ■ 사후조사 : 1,002명 (가중 후 1,000명)
패널 유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0%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
사후보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2월 29일 통계청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역, 성, 연령별 사후 보정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2012년 11월 30일 ~ 12월 4일 (5일간) ■ 사후조사: 2012년 12월 21일 ~ 25일 (5일간)
조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서치앤리서치(R&R)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위의 〈그림 III-2〉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듯이 후보자 TV토론회 이전의 사전조사(1,541명)와 이후의 사후조사(1,002명)를 두 번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연구진과 여론조사 전문기관과의 수 차례 상의를 거쳐 사전조사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 동안, 그리고 사후조사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다.

〈표 Ⅲ-1〉 표본 특성 분포표

		계	
		사례수	%
■ 전체 ■		1,000	100.0%
□ 성별 □	남성	495	49.5%
	여성	505	50.5%
□ 연령별 □	19-29세	184	18.4%
	30대	204	20.4%
	40대	218	21.8%
	50대	191	19.1%
	60대 이상	203	20.3%
□ 권역별 □	서울	208	20.8%
	인천/경기	287	28.7%
	대전/충청	101	10.1%
	광주/전라	102	10.2%
	대구/경북	105	10.5%
	부산/울산/경남	157	15.7%
	강원/제주	40	4.0%
□ 직업별 □	농/임/어업	24	2.4%
	자영업	167	16.7%
	화이트칼라	94	9.4%
	블루칼라	274	27.4%
	가정주부	239	23.9%
	학생	105	10.5%
	무직/기타	94	9.4%
	모름/무응답	3	0.3%
□ 학력별 □	중 졸 이 하	139	13.9%
	고졸	355	35.5%
	대 재 이상	499	49.9%
□ 소득별 □	200만원 이하	227	22.7%
	201~300만원	174	17.4%
	301~400만원	157	15.7%
	401~500만원	147	14.7%
	501만원 이상	201	20.1%
	모름/무응답	94	9.4%
□ 정당지지도 □	새누리당	396	39.6%
	민주통합당	244	24.4%
	통합진보당	11	1.1%
	진보정의당	3	0.3%
	기타정당	1	0.1%
	없음	314	31.4%
	모름/무응답	30	3.0%

표본은 전국 성인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대에 따른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하였는데 구체적인 특성은 <표 III-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패널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패널유지율은 65.0%였으며, 두 차례 조사 모두 컴퓨터 지원 전화조사방식(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표 III-2>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설문항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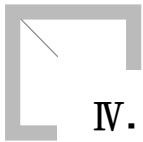
설문항목	사전조사	사후조사
TV토론회 시청 의향(시청 여부)	0	0
TV토론회 관심도		0
TV토론회 횟수 충분성(4회)	0	0
TV토론회 시간(2시간) 적절성		0
주요 후보 위주의 토론방식으로 변경 필요성		0
현 TV토론회 방식 만족도		0
TV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자질 비교		0
TV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정책공약 비교		0
TV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비교		0
TV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이슈 습득 여부		0
TV토론회 이후 추가적 선거정보 취득		0
TV토론회를 통한 선거 관심도		0
TV토론회 후 지인들과 관련 대화 여부		0
TV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0	0
TV토론회의 공정한 진행	0	0
TV토론회의 흥미성	0	0
TV토론회의 유익성		0
18대 대선 투표 의향(투표 여부)	0	0
18대 대선 대선 투표 후보	0	0
18대 대선 TV토론회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0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0
공공문제(대선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매체	0	0
18대 대선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0	
안 후보의 사퇴를 통한 야권 단일화	0	
군소정당 후보 토론회 횟수 충분성	0	
공중파를 통한 TV토론회 진행 필요성	0	
17대 대선 당시 TV토론회 시청 여부	0	
17대 대선 당시 TV토론회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0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 중요하다(견해)	0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견해)	0	
정치상식	0	
정치지도자 호감도	0	

본 연구는 두 차례의 패널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사전 조사와 사후조사간에 실시해야 될 설문항목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들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에 본 연구팀은 사전조사에서는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성향,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사후조사 설문지는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이후 유권자들이 가졌던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성향, 그리고 후보자 선택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각각 별도로 조사된 설문항목과 양자 모두에서 조사된 설문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은 앞의 <표 III-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등의 다양한 분석들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 현실,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한 결과가 어떠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빈도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주요 사회경제적 배경 등과 관련하여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변수들의 관계와 영향력이 어떠한 방향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기초 통계분석을 수행한 이후에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회귀분석은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각각의 독립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선거관심 효과, 정치지식 효과, 투표결정 효과 등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불러올 수 있는 제반 정치적 효과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파악하고 있는 설문들이 두 가지 차원의 선택지(투표 참여 vs. 기권) 또는 다차원의 선택지(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 매우 불만)가 혼용되어 있는 바 이에 걸 맞는 회귀분석 모델을 채택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두 가지 차원의 선택지로 파악하고 있는 설문들에 대해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다차원의 선택지로 파악하고 있는 설문들에 대해서는 순서 로짓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다양한 통계분석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이면서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좀더 엄밀하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제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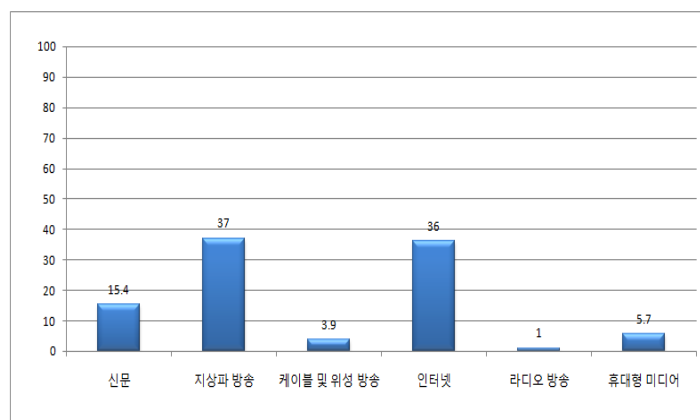
IV.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제도 분석

1 공공문제 및 대통령선거 정보 획득 매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TV토론회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들과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때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공중파 방송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유권자들이 어떠한 매체들을 통하여 공공문제 및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조사에서 “선생님께서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였다.¹⁰⁾ 그 결과 아래의 <그림 IV-1>에서 볼 수 있듯이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3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데스크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던 신문(종이신문)은 15.4%의 응답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을 통한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 취득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공공문제 정보 획득 매체: 사전조사



10)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0.9%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공문제 정보 획득 매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지상파 방송에 의존하여 공공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지상파 방송보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 유권자들의 경우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10.5%,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68.8%가 공공문제를 획득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경우 이와 상반되게 인터넷보다는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기록한 유권자의 77.0%가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기록한 유권자의 52.2%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응답하였다. 소득과 관련해서도 월 2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의 경우 61.1%가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응답한 반면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50.9%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후보)에 따라서도 공공문제를 획득하는 경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념적으로 보수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경우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이념적으로 보수인 유권자의 38.0%, 새누리당 지지자의 47.6%,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45.2%가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진보적인 유권자의 53.4%,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45.0%,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50.2%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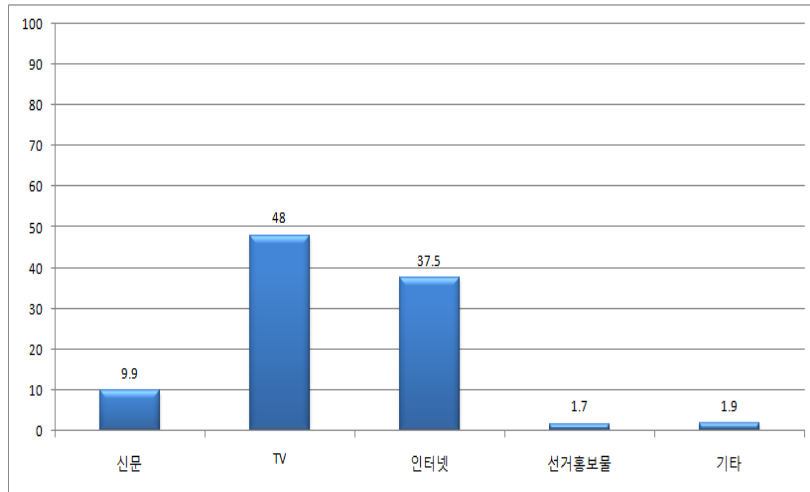
그렇다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선거 관련 정보들을 어떠한 매체들에 의존하여 취득하였을까? 이에 본 연구는 사후조사에서 “선생님께서 선거운동 기간 중 지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어느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얻으셨습니까?”¹¹⁾라고 질문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VI-2>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와 유사하게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보들도 TV를 통하여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이 37.5%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 질문에 대하여 신문은 9.9%, 그리고 선거홍보물은 1.7%의 비율을 기록하였다.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통령선거 관련 정보 취득 경로도 앞서 살펴본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와 동일한 특징을 보였다. 다시 말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이념적으로 보수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경우

11)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0.9%였다.

TV를 통하여 대통령선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이념적으로 진보이고,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대통령선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대통령선거 정보 취득 매체: 사후조사



이와 같은 설문결과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이라고 보여진다. 첫째는 공공문제 및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TV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의 영향력 또한 유사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¹²⁾ 이것은 오늘날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공공문제 및 선거 관련 정보 전달매체로서의 신문이나 라디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TV 방송의 영향력은 여전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과 휴대형 미디어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는 공공문제와 선거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경로가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내지는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TV와 인터넷이라는 두 가지 주요 매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들 매체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담론과 여론이 차이를 보이고, 이것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양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표출된 여론이 사회 전반의 민심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 수준 존재하였다는 점, 민주통합당의 경우 종합편성 방송의 출연을 거부하는 모습

12)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을 통하여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다고 응답한 비율(40.9%) 이 인터넷(데스크탑)과 휴대형 미디어(휴대전화, 태블릿 PC 등)를 통하여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다고 응답한 비율(41.7%)과 비교하여 다소 적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와 같은 특징을 방증하고 있다.

을 보였다는 점 등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 현상들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점은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발전은 후보자 토론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방송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들이 향후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 문제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유권자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매체의 선택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은 정보 격차(digital divide)라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일정 수준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매체들간의 서로 다른 담론과 여론의 형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 필요성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토론회에 대하여 유권자들은 얼마나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까? 이에 본 연구는 “선생님께서도 공중파를 통한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¹³⁾ 그 결과 다음의 <그림 IV-3>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93.4%)이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¹⁴⁾ 반면 단지 5.3%의 응답자들만이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¹⁵⁾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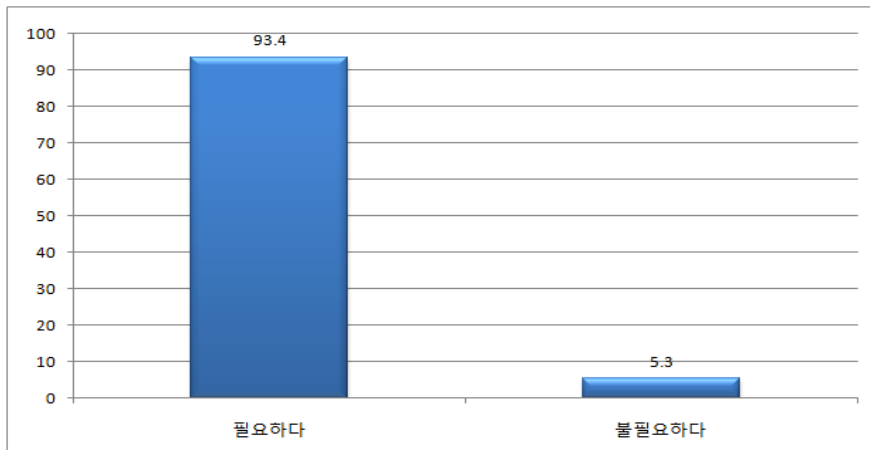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높은 합의는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와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다만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즉 이념적으로 보수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경우 후보자 TV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수적 유권자의 91.9%, 새누리당 지지자의 91.4%, 그리고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90.8%만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 보수적이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후보자 TV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 평균 이하의 동의 수준을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13)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1.3%였다.

14)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3.3%,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로 나타났다.

15)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8%, 그리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5%였다.

〈그림 IV-3〉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 필요성: 사전조사



반면 이념적으로 진보이고,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경우 후보자 TV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진보적 유권자의 97.2%,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96.8%, 그리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의 96.8%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 진보적이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후보자 TV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 평균 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상대적으로 토론을 잘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이 제기되었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기 이전까지 후보자 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보수적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부정적 반응이 일정 수준 투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채택된 제도에 대한 합의와 이행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후보자 TV토론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합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후보자 TV토론회 횟수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아래의 〈표 IV-1〉에서 볼 수 있듯이 초청대상이 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그리고 비초청대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의 후보자 TV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표 IV-1〉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 일시	개최 장소	토론 분야
초청대상	2012년 12월 4일(화) 20:00~22:00	MBC	정치/외교/안보/통일
	2012년 12월 10일(월) 20:00~22:00	KBS	경제/복지/노동/환경
	2012년 12월 16일(일) 20:00~22:00	KBS	사회/교육/과학/문화/여성
비초청대상	2012년 12월 5일(수) 23:00~ 12월 6일(목) 1:00	MBC	초청대상 토론의 전 분야

대통령선거의 경우 초청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상 다음의 세 가지 기준들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여야 한다. 둘째,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사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여야 한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¹⁶⁾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여야 한다.¹⁷⁾ 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이러한 세 가지 조건들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시킨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였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3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초청대상 후보에 대하여 3회, 그리고 비초청대상 후보에 대해서는 1회의 후보자 TV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였을까? 다음의 〈그림 IV-4〉는 사전조사와 사전조사 모두에서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총 4회로 되어 있는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설문에 대한 유권자들의 입장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¹⁸⁾

일단 이 그림에서 보면 후보자 TV토론회가 실시되기 이전에 진행된 사전조사에서는 현 총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이 63.3%로 “부족하다”고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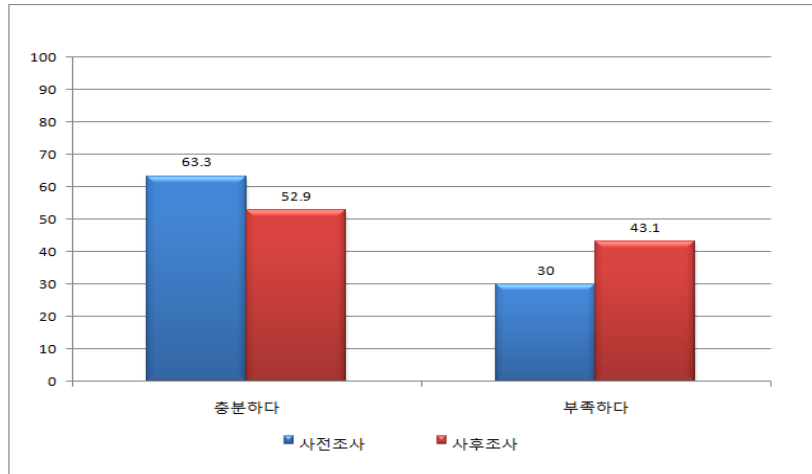
16)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언론기관의 범위)가 해당 규칙이다.

17) 무소속 강지원 후보의 경우 12월 5일에 실시된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에 불참하였다. 그 이유로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개시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안철수 전 후보의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부당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여론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 본 등록을 할 경우 지지율 자체가 없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결국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에는 강지원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박종선, 김소연, 김순자 세 명 무소속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8) 사전조사에서 이 설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6.7%였고, 사후조사에서 이 설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4.0%였다.

답한 비율 30.0%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였다. 세부적인 차원에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평균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후보자 TV토론회 횟수의 충분성에 대한 입장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림 IV-4〉 후보자 TV토론회 횟수 충분성 평가



구체적으로 이념적으로 보수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경우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였다. 하지만 이념적으로 진보이고,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경우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덜 강하게 표출하였다. 예를 들어 보수적 유권자의 70.3%, 새누리당 지지자의 72.0%,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70.5%가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진보적 유권자의 57.4%,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58.1%, 문재인 후보 지지자의 55.1%가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토론에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양자 대결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요구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림 IV-4〉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사전조사와 비교하여 사후조사에서 현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비율이 줄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사전조사에서 현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은 63.3%였지만 실제 후보자 TV토론회 이후 실시된 사후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52.9%로 나타나 10.4%나 줄어들었다. 이것은 진보적 유권자, 그리고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좀더 많은 후보자 TV토론회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요구들이 사후조사의 결과에 일정 수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이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 횟수에 대한 응답자들의 사전/사후 평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유권자들의 후보자 TV토론회의 횟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조사 결과, 사전조사에서 현 4회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632명 중 216명(34.2%)이 사후조사에서 부족하다고 그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전조사에서 현 4회 후보자 TV토론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280명 중 87명(31.1%)이 사후조사에서 충분하다고 그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후보자 TV토론회 횟수 충분성 사전/사후 조사 결과 비교

사후조사 \ 사전조사	충분하다	부족하다	합계
충분하다	416	216	632
부족하다	87	193	280
합계	503	409	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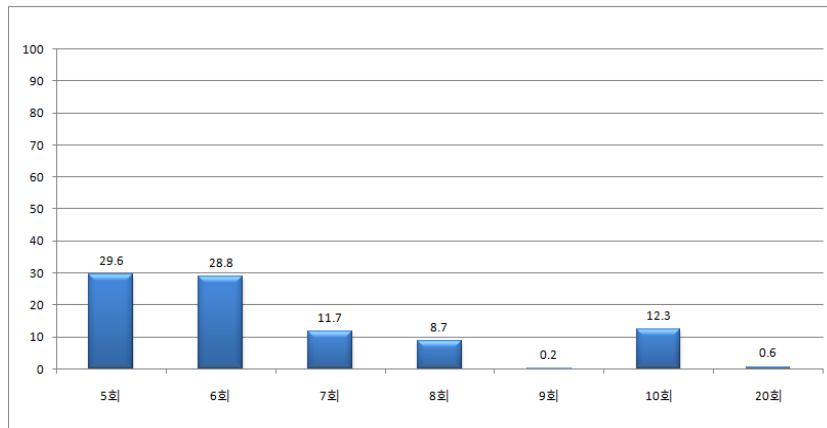
물론 이와 같은 결과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간의 양자토론회 세 차례 중 단 한 차례만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이와 같은 기회들을 더 많이 제공받았으면 하는 바람의 표출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 외에는 특별한 토론회가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¹⁹⁾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 횟수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현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몇 회 정도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적당한지(사전조사)와 몇 회 정도로 늘려야 하는지(사후조사)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IV-5>와 <그림 IV-6>에 제시되어 있다.²⁰⁾

19) 1997년에 실시된 15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여타 신문사나 사회단체들이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를 포함하면 100회가 넘는 후보자 토론회가 실시되었다. 또한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83차례, 그리고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48차례의 후보자 토론회가 실시되었다(한겨레신문 2012/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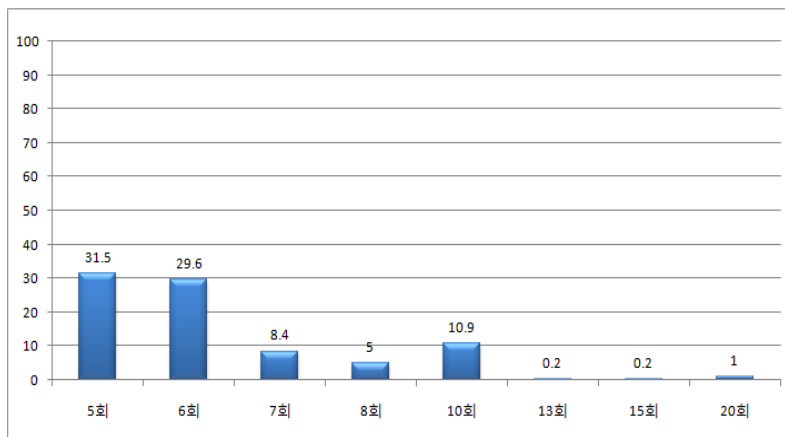
20) 사전조사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8.0%였고, 사후조사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

〈그림 IV-5〉 적당한 후보자 TV토론회 횟수: 사전조사



일단 사전조사에서 현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다수는 5회(29.6%) 또는 6회(28.8%) 정도 한 두 차례 더 후보자 TV토론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후보자 TV토론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현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현행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절대 다수(58.8%)도 현재보다 한 두 차례 더 후보자 TV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후보자 TV토론회 횟수를 유지하던지, 아니면 한 두 차례 더 늘리는 정도의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6〉 후보자 TV토론회 확대 횟수: 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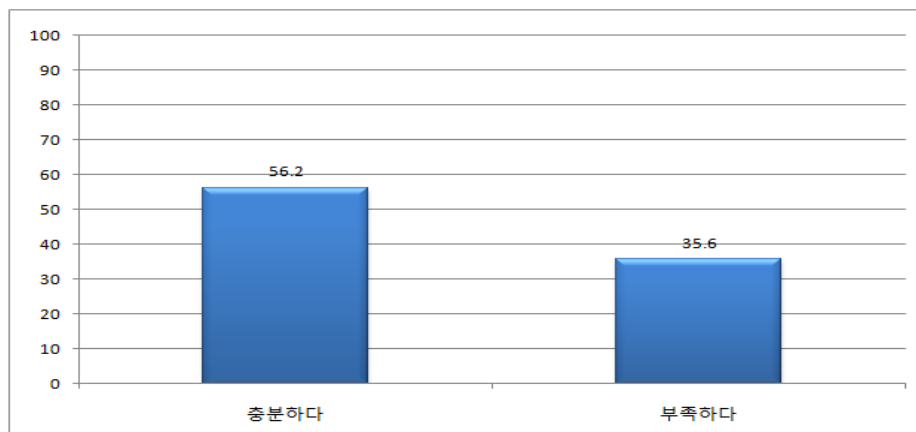
은 13.3%였다.

특히 이러한 점은 후보자 TV토론회가 실시된 이후에 조사한 결과 역시 현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다수가 5회(31.5%) 또는 6회(29.6%) 정도 한 두 차례 더 후보자 TV토론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하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회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TV토론회 외에는 특별한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적절한 수준의 대안적 토론회가 이루어질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횟수는 현행으로 유지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점은 후보자 TV토론회를 늘릴 경우 초청대상과 비초청대상간의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초청대상과 비초청대상 사이의 후보자 TV토론회 횟수의 구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군소정당 후보들을 위한 1회의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살펴보았다.²¹⁾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IV-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7> 비초청대상(군소정당) 후보자 TV토론회 횟수 충분성: 사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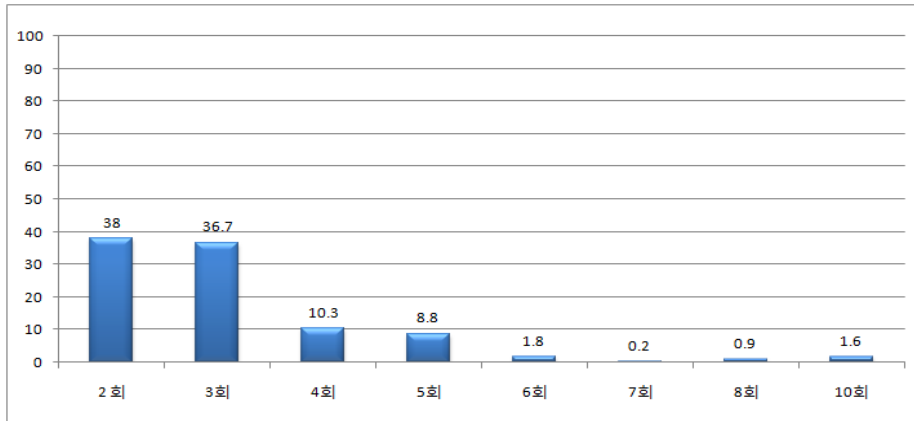


<그림 IV-7>에서 볼 수 있듯이 유권자들의 과반수 이상(56.2%)은 현행 단 한 차례 제공되고 있는 비초청대상(군소정당) 후보들에 대한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비교

21)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8.2%였다.

적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물론 이것은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초청대상에 포함되었고, 전반적인 선거과정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간의 양자대결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 IV-8〉 비초청대상(군소정당) 후보자 TV토론회 적정 횟수: 사전조사



그렇다면 군소정당 후보들을 위한 단 한 차례의 후보자 TV토론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 횟수의 후보자 TV토론회가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주어지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앞의 〈그림 IV-8〉에서 볼 수 있듯이 현 1회의 군소정당 후보들을 위한 후보자 TV토론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다수가 2회(38.0%) 또는 3회(36.7%) 정도 더 후보자 TV토론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다.²²⁾ 하지만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소수자 보호라는 당위적 명분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설문조사 문항 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동일한 설문에 대한 사후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비초청대상(군소정당) 후보들에 대한 후보자 TV토론회 실시 이후 사후조사를 진행하였다면 사전조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들이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비초청대상(군소정당) 후보들을 위한 후보자 TV토론회를 늘릴 경우 초청대상 후보자들간의 횟수 조정의 문제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권자들의 다수는 현행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후보자 TV토론회의 횟수를 늘리더라도 한 두 차례 정도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보자 TV토론회를 현 4회에서 6회로 두 차례를 늘리더라도 늘어난 2회의 후보자 TV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모두 줄 것인지, 아니면 초청대상 후보와 비초청

22) 이 설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1.8%였다.

대상 후보간에 한 차례씩 동등하게 나누어가질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초청대상과 비초청대상 후보간에 동등하게 후보자 TV토론회를 나누어 가질 경우에도 과연 이것이 정치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유권자들의 요구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 TV토론회의 경우 현행 4회의 체제를 유지하던가 늘리고자 할 경우 초청대상 후보를 대상으로 한 차례 정도 우선적으로 늘리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비초청대상 후보를 위한 후보자 TV토론회의 경우 우선적으로 횟수를 증가하는 것보다는 현행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되어 있는 토론회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단 한 차례 진행을 한다는 점에서 현행 2시간으로 되어 있는 후보자 TV토론회 시간을 좀더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 시간대의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사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사들이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의 경우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프라임 시간대의 편성을 꺼리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가 밤 11시에서 새벽 1시로 편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의 경우 일부 토론자들이 본인들의 발언시간을 다 쓰지 못하여 당초 예정하였던 2시간 생방송 종료시간보다 훨씬 일찍 끝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그러므로 비초청대상 후보자 TV토론회의 횟수와 시간을 더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좀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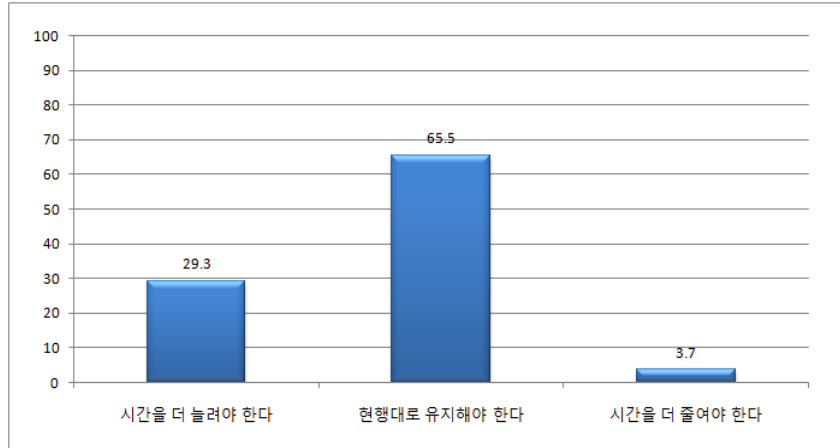
4 후보자 TV토론회 시간 적정성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회는 2시간의 시간을 배정하여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초청대상 후보들의 경우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비초청대상 후보들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2시간 동안 진행된 후보자 TV토론회의 시간에 대하여 유권자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후보자 TV토론회의 횟수만큼 시간의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가 종료된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생님께서서는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의 시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²³⁾ 그 결과는 아래

의 <그림 IV-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9> 후보자 TV토론회 시간(2시간) 적정성: 사후조사



구체적으로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인 65.5%는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현행 2시간보다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29.3%로 나타났고,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3.7%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후보에 대한 TV토론회의 경우 오후 9시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경우 현행 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후보자 TV토론회의 시간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제 전통이 구축되어 있어 극히 예외적인 상황²⁴⁾을 제외하면 양자대결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실시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서 다자대결의 후보자 TV토론회가 일상화되어 있다. 물론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간의 양자 대결구도로 선거과정이 진행되었고, 3차 후보자 TV토론회를 앞두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여 양자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행 2시간의 후보자 TV토론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하지만 다수의 후보들이 TV토론회를 진행하게 될 경우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향후 횟수의 문제와 연계하여 좀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후보자 TV토론회 시간 배정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크게 발견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후보자 TV

23) 이 설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1.5%였다.

24) 예를 들어 미국의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제3의 후보였던 로스 페로가 여론조사기관 조사 결과 15% 이상의 지지를 얻어 역사상 최초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여한 바가 있다.

토론회 시간에 대한 평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의 71.8%와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69.5%는 현행과 같이 2시간 동안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56.9%와 문재인 후보 지지자의 58.0%만이 현행과 같이 2시간 동안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후보자 TV토론회의 시간 문제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횟수, 대통령 선거의 후보대결 구도, 방송사의 시간 편성, 후보자 TV토론회의 진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민주주의가 공고화될수록 설정된 제도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2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다른 여건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5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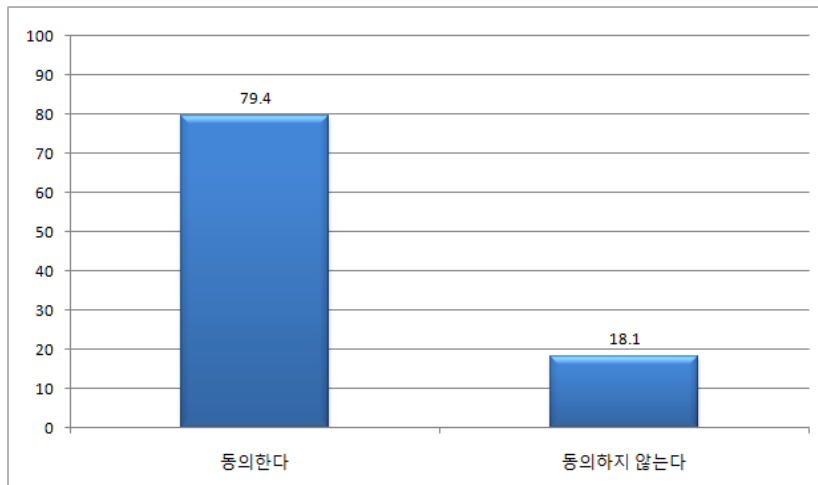
후보자 TV토론회에 있어서 그 진행방식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후보자 TV토론회의 진행방식은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흥미성과 이에 따른 효과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들이 제기되었다. 지나치게 공정성을 의식한 기계적인 진행방식으로 인하여 후보들간의 실질적인 정책 토론과 자질 검증이 부족하였고,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가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과 비방을 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주요 후보들간의 양자구도로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많이 일어났다.

이에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를 모든 마친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생님께서 세 명의 후보가 참여한 1차와 2차 TV토론회와 두 명의 후보가 참여한 3차 TV토론회를 보시면서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주요 후보 위주의 토론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²⁵⁾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 IV-9>에 제시되어 있다.

25)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2.5%였다.

〈그림 IV-10〉 후보자 TV토론회 방식 변경 동의도: 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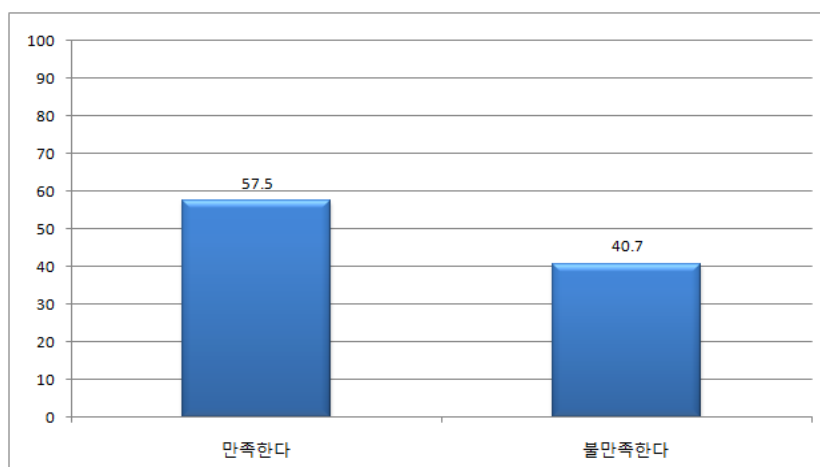
조사결과, 응답자의 79.4%가 후보자 TV토론회가 주요 후보 위주의 토론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단지 18.1%에 불과하였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소수 유권자들의 반대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정치적 성향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주요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합의 하에 충분히 요구되고 수용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삼자구도로 진행된 1차와 2차 후보자 TV토론회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로 인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의 정책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차 후보자 TV토론회 이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3차 후보자 TV토론회에서는 이전 토론방식과 차별화된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토론과 재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토론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조사결과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은 지적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후보자 TV토론회의 초청대상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후보들간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가치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요 후보들간이 정책적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치 중 어느 가치를 더 중시하여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주요 정치제도들이 효율성보다는 대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문제를 토대로 후보자 TV토론회 초청대상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지나치게 초청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것

은 주요 후보와 군소 후보간의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앞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현행 후보자 TV토론회 횟수를 유지하거나 한 두 차례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되는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해서는 주요 후보들간의 자유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IV-11〉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 만족도: 사후조사



그렇다면 18대 대통령선거에 유권자들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을 어떻게 평가하였을까? 이에 본 연구는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선생님께서 이번 대선 TV토론회의 토론 진행방식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²⁶⁾ 그 결과 위의 〈그림 IV-10〉에서 볼 수 있듯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7.5%로 나타났고,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²⁷⁾ 상대적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이 18대 대통령선거 토론 진행방식에 대하여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적지 않는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기계적 공정성 강조로 인한 경직된 후보자 TV토론 진행,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유토론의 기회 제한, 사회자의 미숙한 진행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앞서 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하여 주요 후보들간의 토론 중심으로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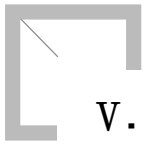
26)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1.8%였다.

27) 구체적으로 “매우 만족한다” 6.8%, “어느 정도 만족한다” 50.7%,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3.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3%로 나타났다.

는 요구들이 많았다는 점도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은 향후 좀더 종합적인 경험적 모델을 구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2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V.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현실 분석



V.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현실 분석

TV토론회는 기존 한국 선거과정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고비용·저효율 정치의 개선과 함께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개인적인 정책적 차별성을 유권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TV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투표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정당, 후보자, 그리고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TV토론회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s)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선거 매체의 하나로 등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범람하고 있는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의 사실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TV토론회는 정책 대결보다는 이미지 선거를 구축할 개연성이 높다는 단점을 갖기도 한다. 왜냐하면 토론의 내용이나 질보다는 외모나 화술, 그리고 연기력 등에 의해서 후보자들이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TV토론회는 정책선거를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뜩이나 정당의 유동성이 강하고, 정당간 정책적 차별성이 부족하며,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등장하였던 한국의 선거과정에서 정책이나 쟁점에 대한 정책적 대결보다 후보자의 퍼스널리티가 강조될 수 있다. 특히 단순다수제로 실시되는 한국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 기준에서 후보자 요인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 TV토론회의 방식이나 후보자들의 토론에 임하는 자세나 사회자 및 패널리스트 구성 등의 요인에 의하여 TV토론회가 원래 의도하였던 바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정당 정치가 후퇴될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현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인지도, 관심도, 청취도,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후보자 TV토론회가 ‘고비용·저효율’ 선거과정을 선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된 바, 후보자 TV토론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을 때,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때 유권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 TV토론회와 관련하여 제도적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의 문제와 후보자 TV토론회가 갖는 정치적 효과 등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1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은 ‘누가 찍는가?’와 ‘왜 찍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요인은 선거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학문적 관심사항이 되어 왔다.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측면을 가장 중시하여 투표 결정을 하였을까? 한 조사에 따르면²⁸⁾ “(투표를 하신 분만) 후보를 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라는 질문항에 대하여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 능력’(34.0%)을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정책 및 공약’(30.5%), ‘소속 정당’(10.8%), ‘도덕성’(1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권자들은 정당 및 출신 지역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능력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리고 ‘정책 및 공약’을 중시하는 투표행태를 보였다.

<표 V-1> 18대 대통령선거 투표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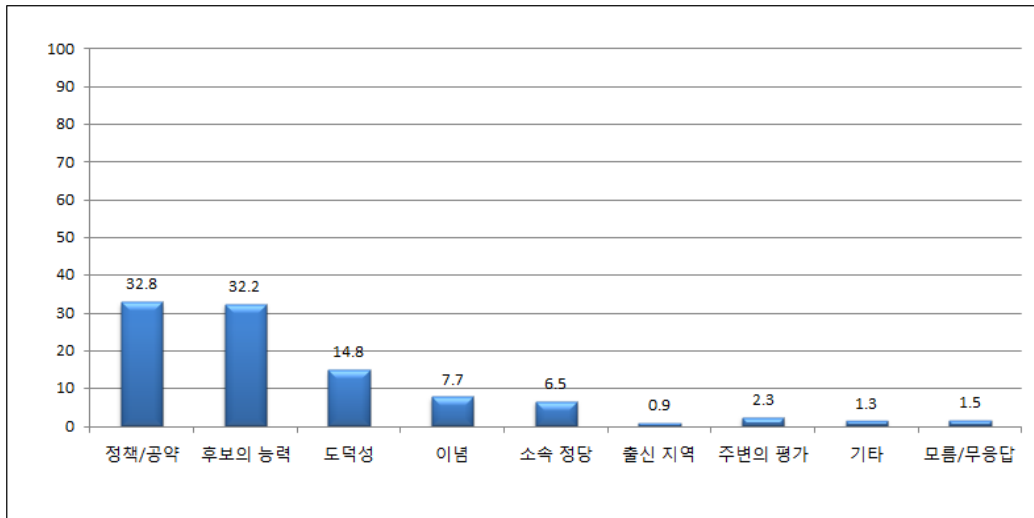
투표 결정요인	빈도(명)	응답률(%)
정책 및 공약	329	30.5
소속 정당	116	10.8
후보 능력	367	34.0
이념	97	9.0
도덕성	114	10.6
출신 지역	6	0.6
주변의 평가	33	3.1
기타	10	0.9
무응답	6	0.6
합계	1078	100.0

※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유권자 의식조사(2012).

28) 연구에 사용된 유권자 의식조사 데이터는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서 18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2012년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이다. 이 데이터는 지역·성·연령별로 층화 추출하는 표집방법을 사용하였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준오차는 ±2.83% 포인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결과를 좌우하던 유일무이한 주요 변수가 ‘지역주의’임을 감안할 때 유권자의 투표 결정 요인으로 후보자와 정책 및 공약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기존의 투표 행태와는 다른 모습으로 18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정당간 정책적 이념적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자와 주요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그림 V-1〉 대통령선거 후보 선택 시 최우선 고려사항: 사전조사



본 연구를 위하여 진행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림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생님께서서는 18대 대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²⁹⁾에 대하여 ‘정책·공약’이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후보의 능력’이라는 응답이 32.2%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도덕성’은 14.8%, ‘이념’은 7.7%, ‘소속 정당’은 6.5%, ‘출신 지역’은 0.9%, ‘주변의 평가’는 2.3%, ‘기타’는 1.3%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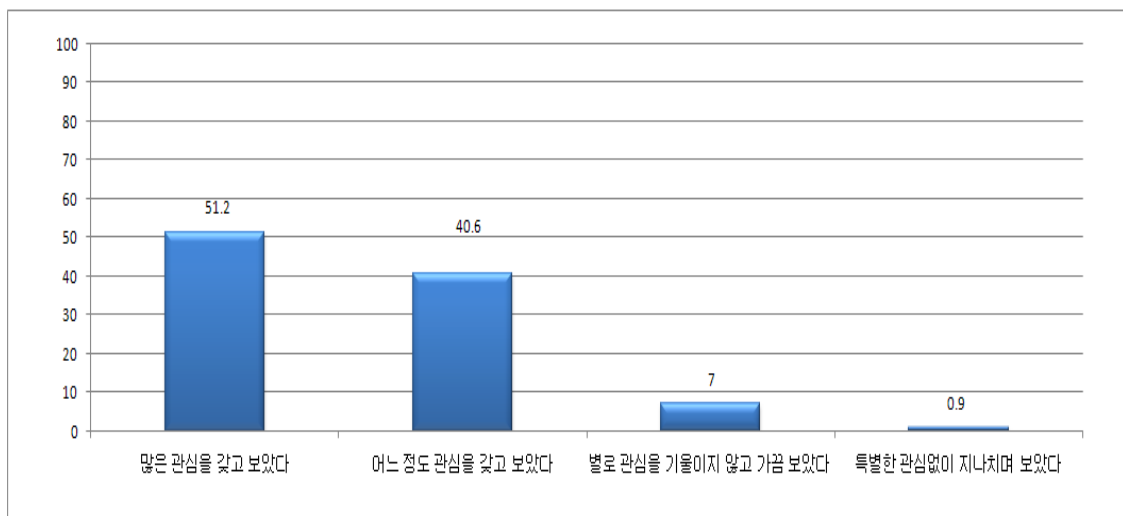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정책·공약’과 ‘후보의 능력’이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정책·공약을, 여성 응답자의 경우 후보의 능력을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으로 밝혔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40대 이하는 후보의 능력보다는 정책·공약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고 응답하였고, 50대 이상에서는 정책·공약보다는 후보의 능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후보의 능력보다는 정책·공약을 투표 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답하였고,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 세분화해보면 새누리당을 지지

29)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1.5%였다.

한다는 유권자들의 경우 후보의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들은 정책·공약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념 성향’에 따르면 진보적 응답자들은 정책·공약을,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후보의 능력을 중시하였다. ‘대선 후보 지지도’와 관련해서 분석해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들은 후보의 능력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들은 정책·공약을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 습득 경로’와 관련하여 주로 신문이나 지상파, 케이블 및 위성방송을 통하여 정치적 정보를 습득하는 유권자들은 후보의 능력을 정책·공약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대통령선거는 사상 초유의 유력 여성 후보자의 등장, 야권 단일화 과정의 지연, 과도한 네거티브 선거의 창궐, 보수-진보의 지열한 대립, 세대 균열과 지역주의 등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선거 당일까지도 당선인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선거과정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후보자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능력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 있었다.

〈그림 V-2〉 후보자 TV토론회 관심도: 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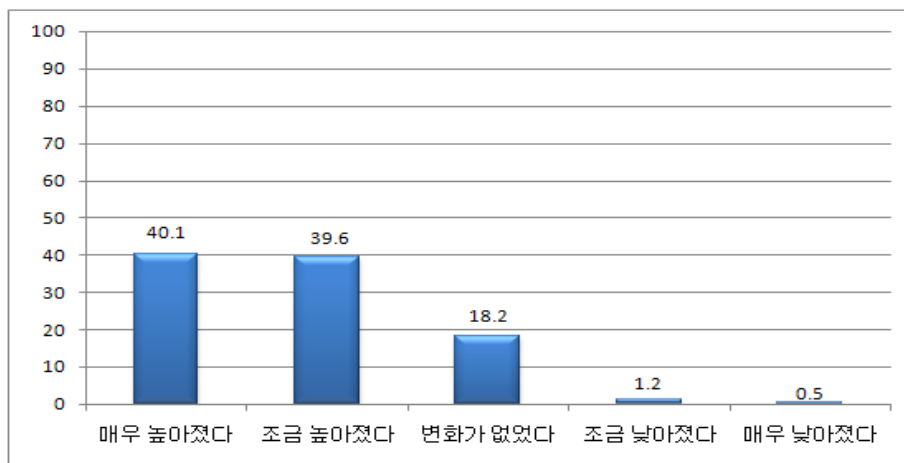
〈그림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사후조사 결과에 따르면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실로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께서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라는 질문항³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 51.2%,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 40.6%,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30)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0.4%였다.

않고 가끔 보았다' 7.0%,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 0.9%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전체 응답자 967명 중 '후보자 TV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91.8%로 나타났다고, 반대로 '후보자 TV토론회에 관심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7.9%에 불과하였다.

후보자 TV토론회에 관심을 가진 유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관심을 가졌고, 이념성향과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유권자들보다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 상식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관심을 받았던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는 어떠하였을까?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후조사 과정에서 "TV토론회 시청을 통해 선생님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항을 통하여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선거 관심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V-3〉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선거 관심도: 사후조사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선거 관심도는 〈그림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40.1%, '조금 높아졌다'는 응답이 39.6%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9.7%가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고, 1.7%의 응답자만이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다고 대답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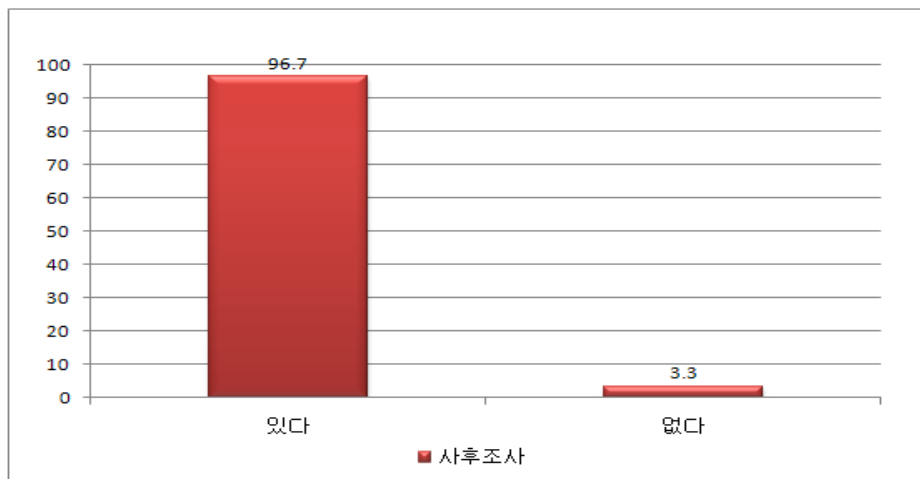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유권자들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책·공약, 그리고 후보의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투표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치적 정보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재였음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식과 관심도를 제고하였다면, 실제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그림 V-4〉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 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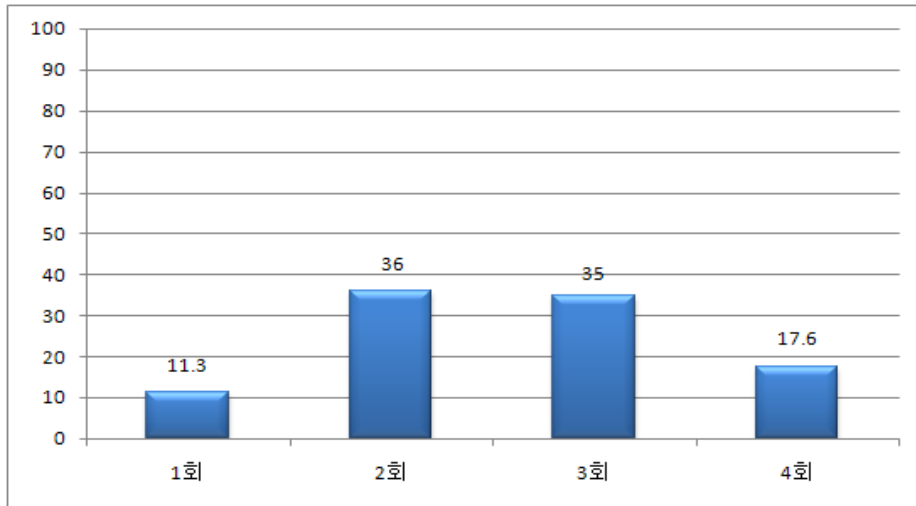
설문조사를 통하여 후보자 TV토론회의 시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생님께서서는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림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96.7%가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3%의 응답자만이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에 따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할 가능성이 높았고, 기타 변수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TV토론회는 주요 정당의 후보자끼리 3회, 기타 군소 정당의 후보자끼리 1회 등 총 4회가 진행되었는데, 그렇다면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평균적인 시청 횟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관심도가 지대하였고, 또한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7%에 육박하기 때문에 평균 시청 횟수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림 V-5〉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의 평균 시청 횟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TV토론회를 보신 적이 있다면, 총 4번의 토론회 중 몇 회 TV토론회를 시청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을 비교하였다. 〈그림 V-5〉와 같이 후보자 TV토론회를 ‘1회’ 시청한 응답자가 11.3%, ‘2회’ 시청한 응답자가 36.1%, ‘3회’ 시청한 응답자가 25.0%, ‘4회’ 시청한 응답자가 17.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후보자 TV토론회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967명의 평균 시청 횟수는 2.59회로 나타났다. 총 4회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되었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경쟁력이 있는 주요 후보자들의 TV토론회는 3회 실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응답자의 대부분은 주요 TV토론회를 거의 시청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 이념 성향, 정치적 상식 인지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시청 횟수와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보보다 보수적인 성향의 응답자일수록, 그리고 정치적 상식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가 증가하였다.

〈표 V-2〉 한국의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시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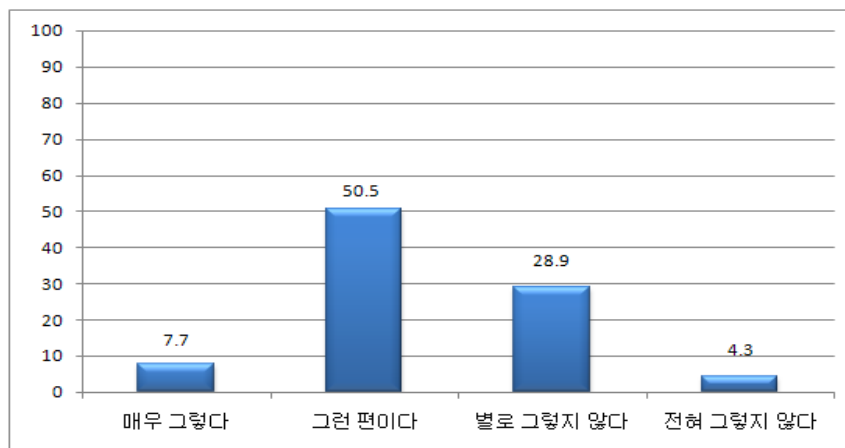
연도	1차	2차	3차	평균
1997	55.7	52.5	51.4	53.2
2002	33.8	32.3	36.6	34.2
2007	24.0	21.9	19.2	21.7
2012	34.9	34.7	29.7	33.1

※ 출처: (국민일보, 2012/12/07).

3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 흥미성, 유익성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주요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 TV토론회는 금권·조직선거 운동의 폐해를 줄이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였다. 물론 후보자 TV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이미지 경쟁으로 변질된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인식 공격이나 비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였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을 진화하면서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 후보자 TV토론회의 경우 공정성은 물론 흥미성과 유익성의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각각의 요소들이 동시에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V-6〉 후보자 TV토론회 중립 공정성: 사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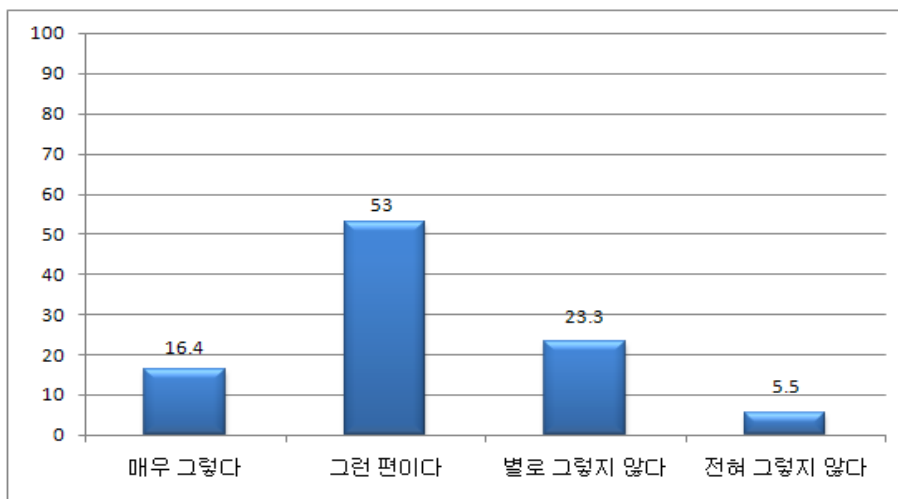


‘공정성’이란 후보자 TV토론회 참여의 기회, 발언시간, 순서 등에서 후보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사전조사에서 실시하였다.³¹⁾ <그림 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보자 TV토론회의 중립 공정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7.7%,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50.5%,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28.9%,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3%를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8.2%가 후보자 TV토론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고, 33.2%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후보자 TV토론회의 중립 공정성에 관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고, 보수적인 유권자가 진보적인 유권자보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중립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야당 지지 유권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림 V-7>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한 진행: 사후조사



본 연구를 위한 사전조사 과정에서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중립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던 데 기반하여 실제로 4회의 후보자 TV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는지의 여부를 사후조사를 통하여 질문하였다. “선생님께서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³²⁾에 대하여 <그림 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16.4%,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53.0%,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23.3%,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5%를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9.4%가 후보자 TV토론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

31)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8.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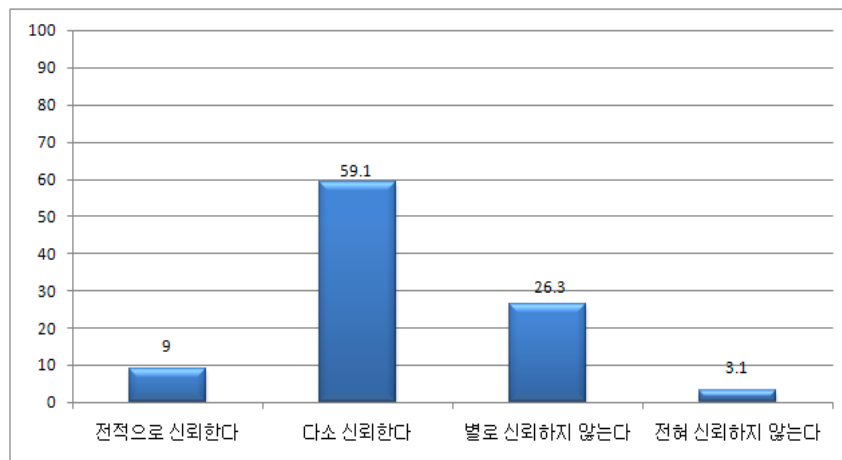
32)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1.8%였다.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28.8%가 후보자 TV토론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사전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후보자 TV토론회의 중립·공정성에 대하여 ‘긍정’하였고, 33.2%가 ‘부정’하였던 것과 달리 사후조사에서는 후보자 TV토론회의 중립·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 TV토론회의 중립·공정성에 대하여 응답한 유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아졌으며, 보수적 이념성향의 응답자들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TV토론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의 중립·공정성에 대한 판단에는 그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후보자 TV토론회 시행 주체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으면 후보자 TV토론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 V-8>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사전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V-8〉 지상파 방송 신뢰도: 사전조사



후보자 TV토론회 시행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조사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지상파 방송(KBS, MBC, SBS)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³³⁾ <그림 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9.0%, ‘다소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59.1%,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26.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1%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지상파 방송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68.1%, ‘불신’한다는 응답자가 29.4%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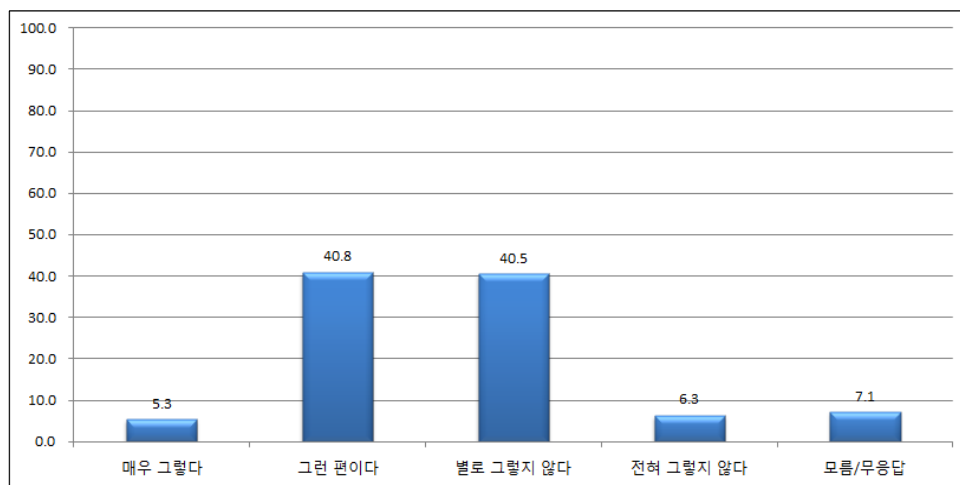
33)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2.5%였다.

후보자 TV토론회를 직접 중계한 지상파 방송 신뢰도에 관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관련해 볼 때 보수적인 유권자의 지상파 방송 신뢰도가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와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상파 방송보다는 인터넷과 ‘카페트’(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정치 정보 의존도가 높았던 것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졌다.

후보자 TV토론회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한 기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아울러 유권자들을 TV 앞으로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흥미성이 요구된다. 오락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흥미성은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의 <그림 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조사 과정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³⁴⁾ 사전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3%,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40.8%,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0.5%,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46.1%,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6.8%를 차지하였다. 비록 그 격차는 0.7%밖에 되지 않지만 사전조사 결과 후보자 TV토론회가 흥미롭지 않다는 응답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V-9>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 사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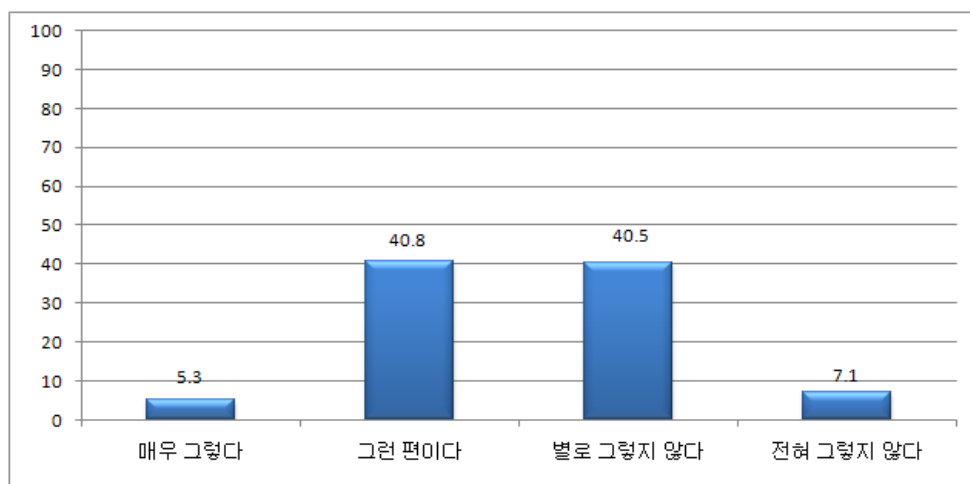


34) 이 설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7.1%였다.

한편 사후조사를 통하여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생님께서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³⁵⁾ <그림 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보자 TV토론회 흥미성에 관한 사후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16.0%,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43.0%,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33.7%,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6%를 차지하였다. 사후조사 결과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59.1%로 나타나 사전조사의 46.1%보다 13.0%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9.3%로 사전조사의 46.8%보다 7.5%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후조사의 경우 3회에 걸친 후보자 TV토론회가 다 끝나고 대통령선거 이후에 조사된 것이고,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의 경우 3차 TV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양자 토론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토론 방식이나 후보자의 태도 등이 개선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겠다.

후보자 TV토론회 흥미성에 관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사전조사의 경우 연령별로 40대 이하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고, 5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 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야당 지지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관련해서는 보수적 유권자의 경우에만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부정적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0>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 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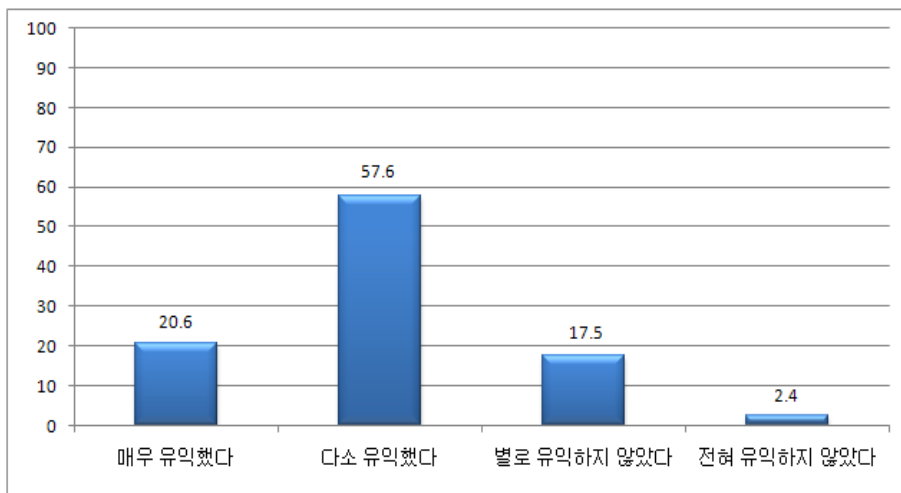


35)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1.7%였다.

한편 사후조사의 경우 사전조사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이념성향과 관련하여 보수보다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증대하였다면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은 어떠하였을까? 후보자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비교/평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비교할 수 있었는가?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을 비교할 수 있었는가?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정치 정보와 이슈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

〈그림 V-11〉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 사후조사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해볼 때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다른 정보매체들보다 유익했다고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항을 던졌다.³⁶⁾ 〈그림 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유익했다’라는 응답이 20.6%, ‘다소 유익했다’라는 응답이 57.6%,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17.5%,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2.4%를 차지하였다.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78.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19.9%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6.0%는 후보자 TV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59.6%가 후보자 TV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후

36)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1.9%였다.

보자의 국정 수행능력을 비교할 수 있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9.0%였으며,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후보자 정책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이슈가 있었다는 응답이 68.5%를 차지하였다.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유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념성향이 진보일수록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학력이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TV 이외에도 정치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접할 기회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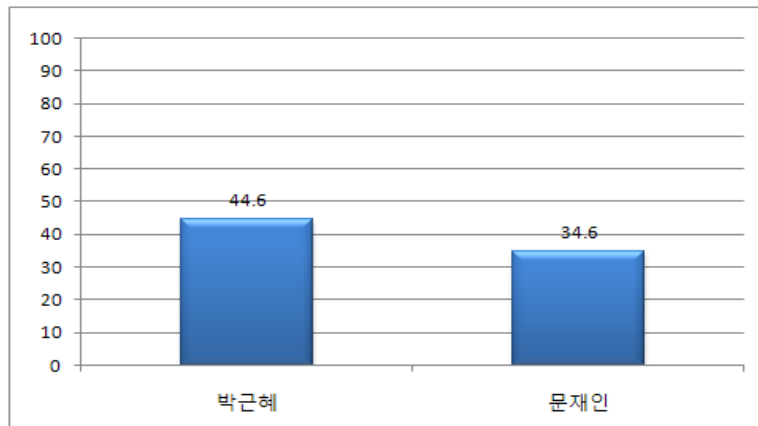
4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평가

후보자 TV토론회의 실시 목적이 금권·관권 선거를 탈피하고, 공정한 토론을 통하여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후보자의 정치적 자질을 검증하여 망국적 지역주의를 탈피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 후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후보자 TV토론회의 현실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지지 대통령선거 후보와 실제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를 조사하였다.

먼저 사전조사를 통하여 대통령선거 지지 후보를 “현재 선생님께서 지지하는 대선 후보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물어보았다.³⁷⁾ <그림 V-1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박근혜’라는 응답이 44.6%를,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응답이 34.6%를 기록하였다. 실제 18대 대통령선거 결과 평균 투표율 75.8%를 보였고, 이 중 박근혜 후보가 51.6%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야권 진영의 사실상 단일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48.0%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37) 이 질문에 대하여 ‘기타’라는 응답은 0.6%, ‘없음’이라는 응답은 10.2%, 그리고 모름/무응답 비율은 10.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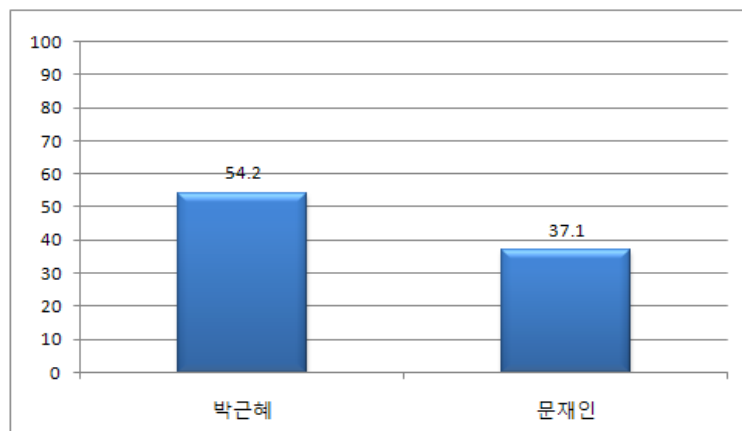
〈그림 V-12〉 지지 대통령선거 후보: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남성보다 강하게 받았고, 학력이 올라갈수록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증대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응답자의 이념성향이 보수일수록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진보일수록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후조사 결과 나타난 실제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는 누구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투표하셨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³⁸⁾ 〈그림 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근혜’라는 응답이 54.2%, ‘문재인’이라는 응답이 37.1%, ‘기타’라는 응답이 0.3%를 기록하였다. 사후조사 결과 사전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은 지지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조사 당시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던 유권자들이 선거과정 속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하여 실제 투표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림 V-13〉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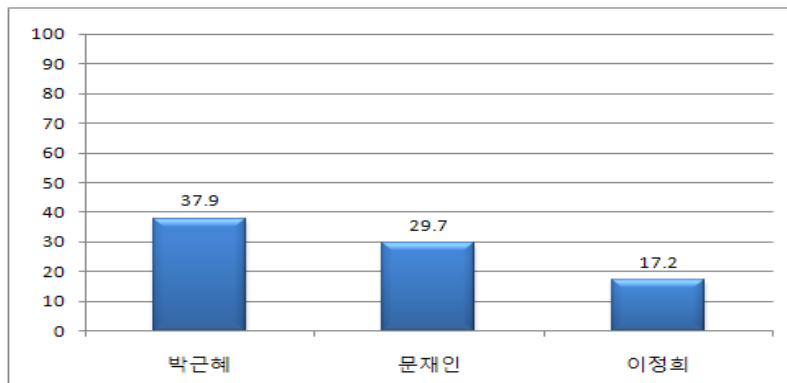
38) 이 질문에 대하여 ‘기타’라는 응답은 0.3%, 그리고 모름/무응답 비율은 8.3%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가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박근혜 후보에 대한 투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였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이념성향이 진보적인 응답자일수록 박근혜보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후조사에서 실시된 후보자 TV토론회 상식 인지도가 높을수록 박근혜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대통령선거 후보에 관한 지지 여부에 후보자 TV토론회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는 다음 장 대통령선거 후보 TV토론회의 효과 부분에서 검토될 문제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후조사 결과 밝혀진 응답자들의 대답 비율과 실제 투표 지지와의 관계를 단순 비교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사후조사 결과 후보자 TV토론회 과정에서 토론을 잘 하였다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을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³⁹⁾

〈그림 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조사 결과 후보자 TV토론회를 가장 잘 한 후보자로는 ‘박근혜’라는 응답이 37.9%, ‘문재인’이라는 응답이 29.7%, ‘이정희’라는 응답이 1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3〉은 실제 투표 후보와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토론을 잘 하였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와의 일치도를 판단하기 위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였다고 응답한 유권자들 중 64.5%는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을 가장 잘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응답자 중 50.0%는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을 가장 잘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중 31.9%는 이정희 후보가 TV토론을 가장 잘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투표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 분석에서 시도될 것이다.

〈그림 V-14〉 토론을 잘 하였다고 생각하는 후보: 사후조사



39) 이 질문에 대하여 기타 후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0.6%, 그리고 모름/무응답 비율은 14.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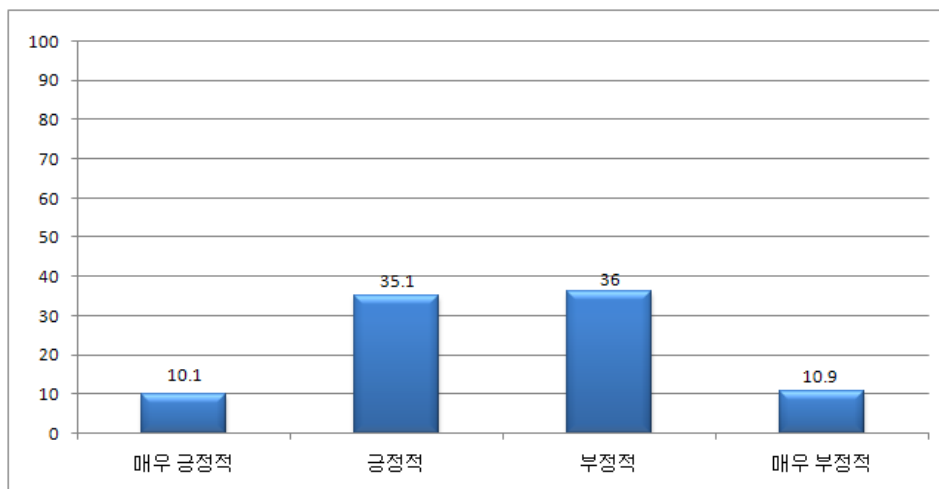
〈표 V-3〉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토론을 잘 하었다고 생각하는 후보 교차분석(명, %)

		토론을 잘 하었다고 생각하는 후보					전체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기타	모름/ 무응답	
대선 투표 후보	박근혜	364 64.5	79 14.0	31 5.5	5 0.9	85 15.1	564 100.0
	문재인	24 6.9	174 50.0	111 31.9	2 0.6	37 10.6	348 100.0
	기타	0 0.0	0 0.0	3 100.0	0 0.0	0 0.0	3 100.0
	모름/무응답	15 19.2	22 28.2	17 21.8	0 0.0	24 30.8	78 100.0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등장하였던 안철수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질문항으로 사전조사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사회를 통한 야권 단일화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았다.

〈그림 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생님께서는 지난 11월 23일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전격 사퇴했는데요, 안 후보의 사퇴를 통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⁴⁰⁾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이 10.1%,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이 35.1%,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36.0%,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10.9%를 차지하였다. 안철수 후보의 후보직 사퇴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45.3%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고, 46.8%는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그림 V-15〉 안철수 후보 사퇴를 통한 야권 단일화: 사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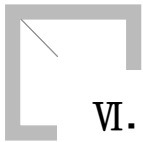


40)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7.9%였다.

안철수 후보 사퇴를 통한 야권 단일화에 관하여 응답한 유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이념 성향과 관련하여 진보적인 유권자일수록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5.2%로 나타났고, 기타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0.0%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2012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Ⅵ.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VI.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1 시청자 집단 분석

설문에 응한 전체 유권자 중에서 횡수에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TV 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조사 대상자는 96.7%(967명/전체 1000명)에 이르렀고,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유권자는 단 3.3%(33명)에 그쳤다. 후보자 TV토론회를 한 번이라도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967명 가운데 TV토론회를 오직 한 번 시청하였다고 대답한 사람은 11.3%(109명), 2번 시청한 응답자의 비중은 36.1%(349명), 3번 시청한 응답자의 비중은 35%(339명), 그리고 4번 모두 시청한 응답자의 비중은 17.6%(170명)로 나타났다. 즉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조사 대상자의 88.7%가 후보자 TV토론회를 2회 이상 시청한 것이며, 나아가 52.6%의 응답자는 세 번 이상 시청한 것이다.

〈표 VI-1〉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

구분	빈도	%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	967	96.7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없다.	33	3.3
합계	1000	100
구분	빈도	%
1회 시청	109	11.3
2회 시청	349	36.1
3회 시청	339	35.0
4회 시청	170	17.6
합계	967	100

그렇다면 실제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의 유권자 효과는 무엇이며 어떠한가? 이를 위하여 먼저 선거관심, 정책 및 후보자 인지 효과, 정치지식, 그리고 투표 참여 및 결정 등 TV 토론 시청의 주요한 정치적 효과 변인들을 중심으로 설문 응답자들이 1차 사전조사와 2차 사후조사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조사 대상자를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빈도수(0~4회)와 시청 관심도(관심 없음, 별로 관심 없음, 어느 정도 관심 있음, 그리

고 매우 관심)의 집단별로 나누어, 위에 열거한 주요 효과 변수들을 중심으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2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결과 비교를 통한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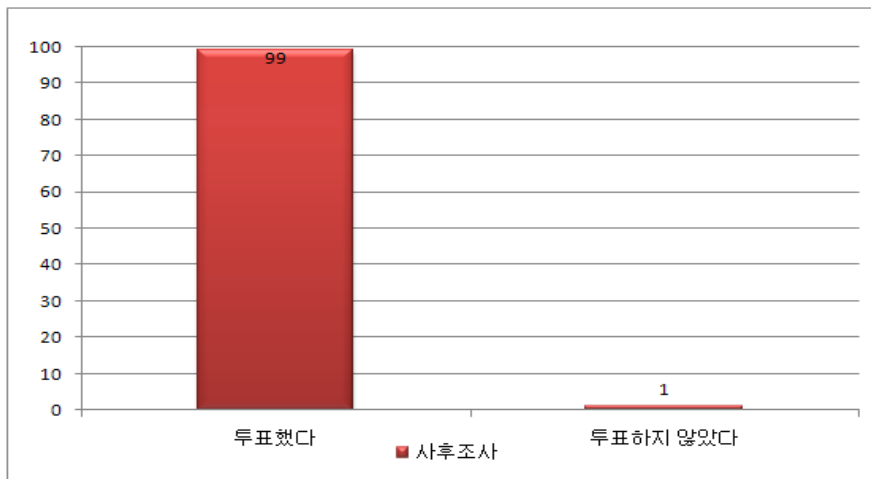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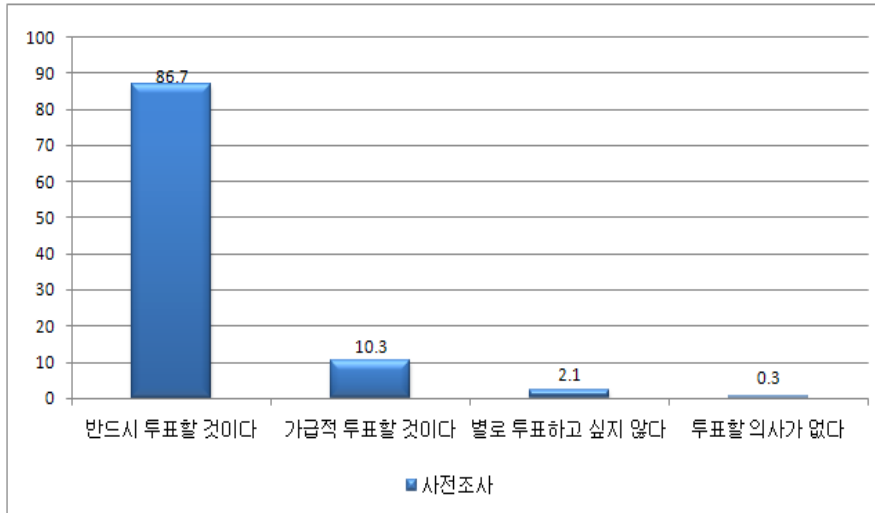
1차 조사(사전조사)의 표본수는 1,500명이고, 2차 조사(사후조사)의 표본수는 1,000명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실시된 본 여론조사의 패널 유지율은 65%이다.

먼저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의 중요도(내적 효능감, internal efficacy)나 어느 후보가 권력을 잡는가의 중요도(외적 효능감, external efficacy)에 따라 후보자 TV토론회를 대하는 시민들의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차 사후조사에서 후보자 TV토론회를 한 번이라도 시청한 응답자 수가 967명이나 되고 한 번도 시청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유권자 수가 오직 33명에 그치므로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를 측정하는 변수보다는 시청자들의 시청 횟수나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정치효능감과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내적 효능감 측정 변수(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 중요하다), 외적 효능감 측정 변수(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 및 관심도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우선 내적 효능감 변수와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 및 관심도 변수 사이엔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관련성도 찾을 수 없었다. 외적 효능감 변수의 경우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와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r=0.140$,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0.01$)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정치적 외적 효능감이 큰) 사람들일수록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후보자 TV토론회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문응답자들의 정치 참여도를 바탕으로 사전/사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자. 유권자의 낮은 투표 참여율이 현재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유권자 동원효과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도적 중요성을 갖는다. 본 조사에서는 사전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대통령선거 투표 의향을 묻고, 사후조사에서는 실제 투표 참여 여부를 물었다.

〈그림 VI-1〉 유권자의 투표참여 의향과 투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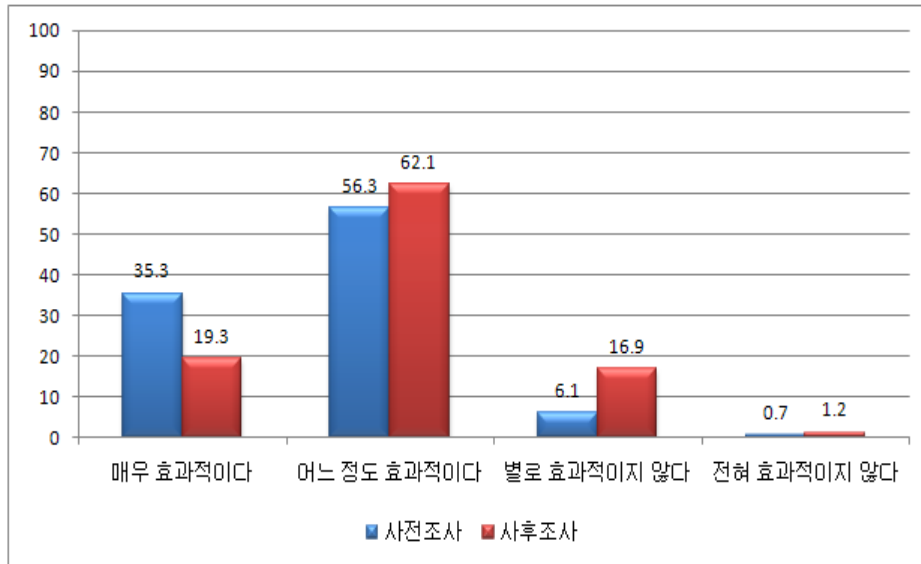


1차 사전조사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향을 물었을 때 86.7%의 유권자만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대답하고, 10.3%의 응답자가 가급적 투표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2차 사후조사에서 실제 투표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99%의 응답자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였다고 대답하였다. 1차 사전조사에서 투표할 의사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중이 3%(별로 투표하고 싶지 않다: 2.1%, 투표할 의사가 없다: 0.3%, 투표할 의사가 없다: 0.6%)였던 것과 비교하여 사후조사 결과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비중이 1%(2차 사후조사)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패널 유지율을 고려하면 1차 사전조사와 2차 사후조사 사이에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의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⁴¹⁾ 이는 적어도 본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TV토론회의 유권자 동원(voter

41) 1차 사전조사에서 투표 의향에 대한 모름/무응답의 비중은 0.6%였다. 그리고 2차 사후조사에서 대통령선거 투표 여부에 대한 모름/무응답의 비중은 0%(결측값 없음)였다.

mobilization) 효과는 생각만큼 지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VI-2〉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TV 토론회 시청의 투표 동원효과에 이어서 토론회의 정치지식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자. 유권자의 높은 정치지식 수준은 양질의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informed choice)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낸다. 대통령선거 TV토론 시청에 따른 정보 전달 기능의 효과성에 관하여는 사전 조사에서 91.6% 설문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제공한 반면에 실제 TV토론 실시 이후에 행해진 2차 사후조사에서는 TV 선거정보 전달자로서 토론 시청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응답자는 81.3%에 그쳤다. 특히 TV토론 시청이 선거정보 획득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적극 응답 계층이 1차 사전 조사의 35.3%에서 2차 사후조사의 19.3%로 16%나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정보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한 응답자 수가 2차 사후조사에서 10.3% 감소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 비중은 6.8%(1차 사전조사)에서 18.2%(1차 사후조사)로 1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⁴²⁾ 이는 실제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시청자들이 기대하였던 만큼 효과적인 선거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왜 TV토론 시청이 선거정보 획득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할까?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하여 2차 사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포맷과 진행방식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선거정보 효과성 변수를 교차분석해 보았다.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TV 토론회의 충분성, 시간의 적절성(시

42) 선거정보 획득 효과에 대한 문항의 모름/무응답 비율은 각각 1.6%(사전조사)와 0.5%(사후조사)였다.

간을 더 늘려야 vs. 줄여야), 그리고 토론방식의 변경에 동의하는가의 여부는 선거정보 획득의 효과성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p < 0.05$)을 보여주지 않았다. 반면 전반적인 토론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 토론 진행의 공정성, 흥미성, 그리고 유익성 등은 정보 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표 VI-2〉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진행 방식 만족도 교차분석: 사후조사

구분		토론진행 방식 만족도				합계
		매우 만족	어느 정도 만족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매우 효과적	26 13.2%	118 59.9%	46 23.4%	7 3.6%	197 100%
	어느 정도 효과적	37 6.2%	331 55.4%	184 30.8%	46 7.7%	598 100%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4 2.3%	51 29.5%	98 56.6%	20 11.6%	173 100%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0 0%	3 23.1%	9 69.2%	1 7.7%	13 100%
합계		67 6.8%	503 51.3%	337 34.4%	74 7.5%	981 100%

※ $X^2=87.645$ (df=9, $p(0.001)$)

〈표 VI-2〉에서 나타나듯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선거정보를 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 토론진행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정보 획득의 효과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토론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불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⁴³⁾ 특히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선거정보 획득에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경우 토론 진행방식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들의 비중이 68.2%(56.6%+11.6%)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족도와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정보의 효과적 전달 여부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43) 주지하듯이 본 보고서의 통계분석에서 응답자들이 모른다고 답하였거나 그 밖에 조사자에 의하여 무응답 처리된 답변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결측값으로 처리되어 통계분석에서 제외시킨다.

〈표 VI-3〉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진행의 공정성 교차분석: 사후조사

구분		토론진행의 공정성				합계
		매우 공정	공정한 편	별로 공정하지 않음	전혀 공정하지 않음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매우 효과적	60 30.5%	84 42.6%	44 22.3%	9 4.6%	197 100%
	어느 정도 효과적	92 15.3%	347 57.6%	134 22.3%	29 4.8%	602 100%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20 11.9%	89 53%	45 26.8%	14 8.3%	168 100%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1 8.3%	6 50%	3 25%	2 16.7%	12 100%
합계		173 17.7%	526 53.7%	226 23.1%	54 5.5%	979 100%

※ $\chi^2=37.412$ (df=9, $p<0.001$)

토론 진행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의 경우 후보자 TV토론회가 선거정보 획득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다른 응답자들과 비교하여 토론 진행이 더 공정하였다고 받아들이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선거정보 획득 경로로서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과 비교하여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토론 진행이 “매우 공정”하다고 답한 비중이 약 2배에 이르렀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대답한 그룹과 비교해서는 “매우 공정”의 비중이 거의 3배에 육박하였다(〈표 VI-3〉 참조). 이는 결국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선거정보 획득에 있어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일부는 토론 진행이 별로 공정하게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4〉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회 흥미성 교차분석: 사후조사

구분		토론회의 흥미성				합계
		매우 흥미	흥미로운 편	별로 흥미롭지 않음	전혀 흥미롭지 않음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매우 효과적	67 34.2%	75 38.3%	48 24.5%	6 3.1%	196 100%
	어느 정도 효과적	79 13.1%	297 49.4%	192 31.9%	33 5.5%	601 100%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10 5.8%	48 27.9%	98 57%	16 9.3%	172 100%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1 7.7%	1 7.7%	9 69.2%	2 15.4%	13 100%
합계		157 16%	421 42.9%	347 35.3%	57 5.8%	982 100%

※ $X^2=118.863$ (df=9, $p<0.001$)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 및 유익성과 선거정보 획득의 효과성간의 교차분석에서는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4〉와 〈표 VI-5〉 참조).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선거정보를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사람들의 경우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전반적으로 유익하고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보 획득 기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후보자 TV토론회가 흥미롭지도 유익하지도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5〉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회의 유익성 교차분석: 사후조사

구분		토론회의 유익성				합계
		매우 유익	유익한 편	별로 유익하지 않음	전혀 유익하지 않음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매우 효과적	101 51%	88 44.4%	8 4.0%	1 0.5%	198 100%
	어느 정도 효과적	103 17.2%	403 67.3%	85 14.2%	8 1.3%	599 100%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8 4.7%	72 42.1%	80 46.8%	11 6.4%	171 100%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0 0%	4 30.8%	6 46.2%	3 23.1%	13 100%
합계		212 21.6%	567 57.8%	179 18.2%	23 2.3%	981 100%

※ $X^2=37.412$ (df=9, $p<0.001$)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 TV토론회가 선거정보 전달매체로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 우선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사전 정치지식의 양에 따라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1차 사전조사에서 얻은 응답자의 정치지식과 2차 사후조사의 정보 획득의 효과성 변수간의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두 변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⁴⁴⁾ 그리고 2차 사후조사에서 묻은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으로 유권자가 추가적 선거정보를 획득하였는가라는 질문과 사람들의 사전 정치지식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함을 찾을 수 있었다.

44) 사전 정치지식은 1차 사전조사에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묻은 4가지 정치상식에 대한 답변에서 응답자가 올바르게 답변한 문항 수를 합하여 도출하였다(0점~4점). 여기에 사용된 정치상식 문항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 현 국무총리 이름, 그리고 현 국회의장 이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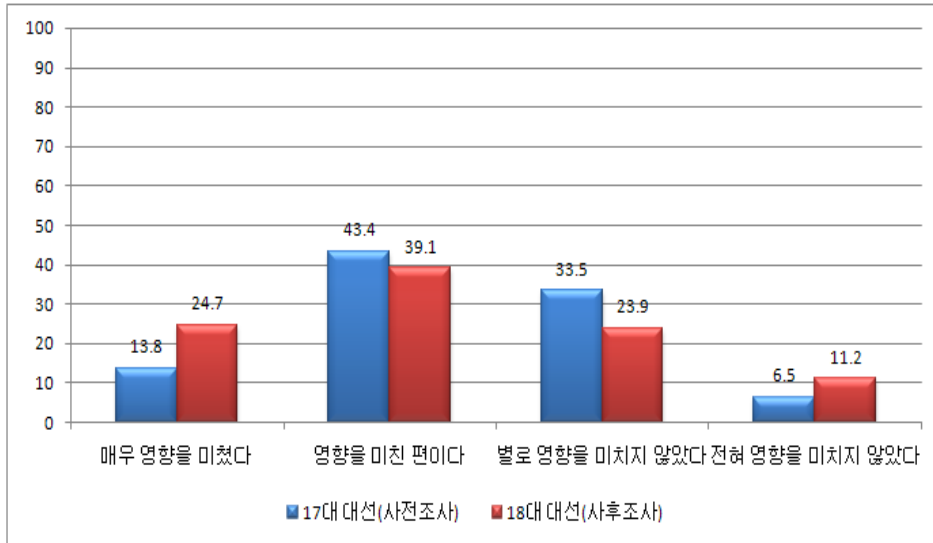
〈표 VI-6〉 사전 정치지식(사전 조사)과 후보자 TV토론회 정보 획득 교차분석

사후조사		토론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이슈				합계
		매우 많음	조금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유권자의 사전 정치 지식	0점	12 25%	24 50%	12 25%	0 0%	48 100%
	1점	23 19.7%	71 60.7%	21 17.9%	2 1.7%	117 100%
	2점	62 16.1%	212 55.1%	97 25.2%	14 3.6%	385 100%
	3점	27 10.6%	134 52.8%	82 32.3%	11 4.3%	254 100%
	4점	25 13.4%	93 50%	65 34.9%	3 1.6%	186 100%
합계		149 15.1%	534 53.9%	277 28%	30 3%	990 100%

※ $X^2=26.106$ (df=12, $p<0.01$)

〈표 VI-6〉의 교차분석표는 1차 사전조사에서 포함된 4가지 정치상식 질문에 대한 올바른 응답의 개수로 측정한 유권자의 사전 정치지식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분류가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시청자의 새로운 선거정보 획득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보여준다. 사전적 정치지식이 전무한 그룹(0점)에 속한 유권자들의 경우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이슈가 매우 많다고 2차 사후조사에서 대답한 비중이 여타 그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25%)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그룹(3~4점)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알게 된 이슈가 별로 없거나 아예 없다고 대답한 비중이 35% 이상으로 나타나 사전 정치지식이 낮은 두 그룹(0~1점)과 비교하여 정보 효과에서 10%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같은 유권자의 사전 지식 수준에 따른 차등화 된 정보 효과는 조사 대상자의 학력 별 분류에 의해서도 발견되는데, 실재로 중졸 이하의 학력 그룹에서는 약 27.6% 사람들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매우 많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룹에서는 오직 9.4%만이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이슈가 매우 많았다고 대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중졸 이하 그룹의 15.1%가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별로 없다고 대답하였다면, 대재 이상의 그룹에서는 같은 항목에 30.5% 응답함으로써, 두 그룹간 정보 효과 차이가 약 2배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후보자 TV토론회가 제공하는 선거정보 전달 효과가 시청자의 사전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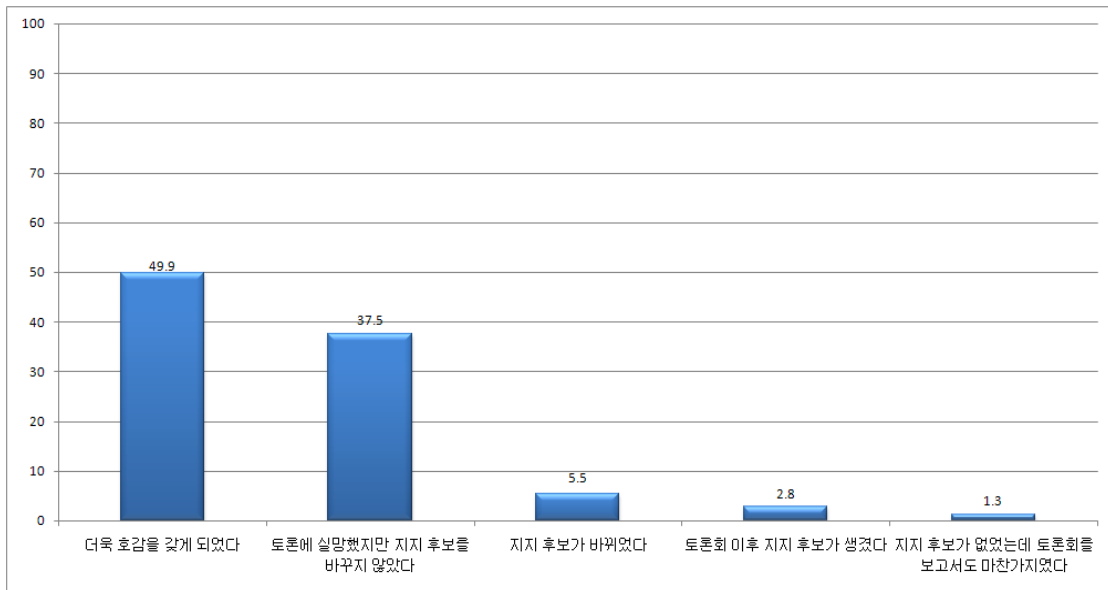
〈그림 VI-3〉 후보자 TV토론회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그렇다면 TV 토론회의 시청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이 얻은 선거정보가 실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2차 사후조사에서 우리는 후보자 TV토론회가 조사 대상자의 지지 후보 및 투표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먼저 〈그림 VI-3〉는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응답자의 투표 후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빈도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정도에 상관없이 후보자 TV토론회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63.8%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인 35.1%를 앞서고 있다. 이는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투표 결정 영향력을 묻은 1차 사전조사의 동일한 문항(통제변수)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투표 후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⁵⁾ 실제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토론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57.2%에서 63.8%로 다소 증가한 반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40%(17대 대통령선거)에서 35.1%로 다소 감소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45) 이 질문에 대한 모름/무응답의 비중은 각각 2.8%(사전조사)와 1.1%(사후조사)였다.

〈그림 VI-4〉 후보자 TV토론회의 투표 후보 지지도 영향력: 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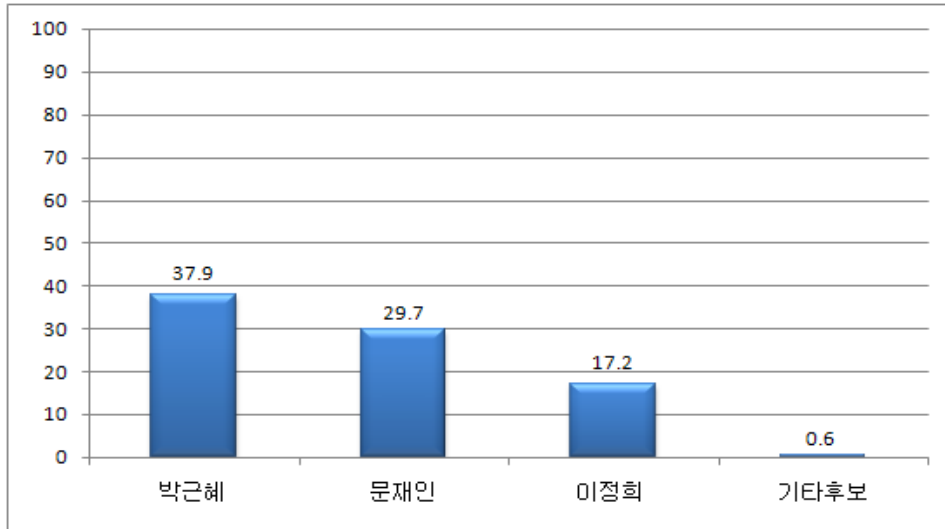


이어서 〈그림 VI-4〉는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응답자의 투표 후보 지지도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 빈도분석한 결과로서 지지 후보의 TV토론회 성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에 관계 없이 TV토론회 방송 이후에도 기존의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계속 유지하였다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87.4%에 달하였다.⁴⁶⁾ 이것은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투표 후보 결정에 상당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 영향의 방향이 지지 후보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기존 지지 후보에 대한 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실제로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유권자의 지지 후보 및 투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알아보기 위하여 1차 사전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제시한 지지 대통령 후보와 2차 사후조사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한 실제 투표 후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응답자들의 기존 지지 대통령 후보 선호에 따라 2차 사후조사에서 응답자들이 평가한 후보자 TV토론회를 잘하였다고 생각하는 후보 선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자. 끝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과연 그들이 평가하기에 토론회를 잘 수행하였다고 평가한 후보에게 실제로 투표하였는지도 분석해보기로 한다.

46) 이 문항에 대한 모름/무응답의 비율은 2.9%였다.

〈그림 VI-5〉 TV토론을 잘 하였다고 생각하는 후보: 사후조사



〈표 VI-7〉 지지 대통령 후보(사전조사)와 유권자 후보자 TV 토론평가(사후조사)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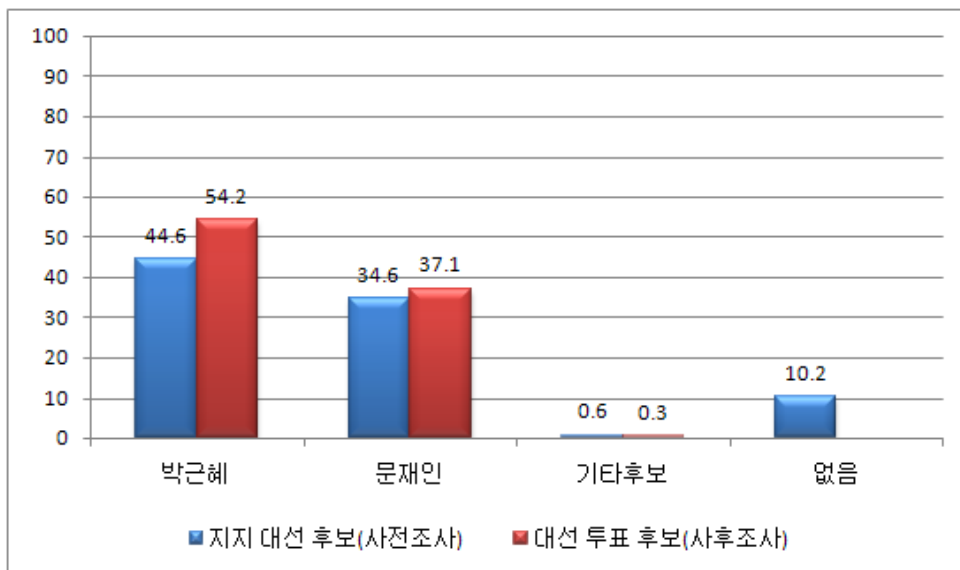
사전조사 \ 사후조사		토론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합계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기타 후보	
지지 대선후보	박근혜	329 75.6%	76 17.5%	26 6%	4 0.9%	435 100%
	문재인	27 9.4%	155 54%	104 36.2%	1 0.3%	287 100%
	기타 후보	1 16.7%	2 33.3%	3 50%	0 0%	6 100%
	없음	21 33.9%	19 30.6%	21 33.9%	1 1.6%	62 100%
합계		378 47.8%	252 31.9%	154 19.5%	6 0.8%	790 100%

※ $\chi^2=327.867$ (df=9, $p<0.001$)

우선 유권자들을 1차 사전조사에서 드러난 기존 지지 후보군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누가 과연 TV토론을 잘하였다고 응답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예상대로 가장 많은 비중의 75.6%의 응답자들이 지지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잘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비중의 54%가 그들의 지지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가장 토론을 잘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이 수치는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그것보다 한 참 낮은 결과이다. 또한 흥미롭게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 중 상당수(36.2%)가 다른 야권 후보인 이정희 후보가 토론을 잘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⁴⁷⁾ 이러한 결

과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문 후보의 TV토론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문 후보 지지자들의 선호 후보에 대한 지지의 충성도가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다소 약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편 1차 사전조사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한 부동층 유권자(‘없음’)의 경우 TV토론 성적에 대한 평가가 세 명의 후보자들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VI-6〉 지지 대통령 후보(사전조사)와 유권자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사후조사)



그렇다면 유권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 지지 성향은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으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받을까? 더욱 흥미로운 질문은 과연 얼마만큼의 유권자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으로 기존 지지 성향에 변화를 일으킬까? 이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표 VI-8〉에서 1차 사전조사의 지지 대통령 후보와 2차 사후조사의 실제 투표 후보 설문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⁴⁸⁾

47) 이 설문에 대한 모름/무응답 비율은 14.7% 였다.

48) 사전조사에서 지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설문의 모름/무응답 비율은 10%이고, 사후조사에서 투표 후보에 대한 설문의 모름/무응답 비율은 8.3%였다.

〈표 VI-8〉 지지 대통령 후보(사전조사)와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사후조사) 교차분석

사전조사 \ 사후조사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합계
		박근혜	문재인	기타 후보	
지지 대통령 후보	박근혜	450 94.1%	27 5.6%	1 0.2%	478 100%
	문재인	28 9.6%	262 90%	1 0.3%	291 100%
	기타 후보	3 60%	1 20%	5 100%	5 100%
	없음	29 46%	34 54%	0 0%	63 100%
합계		510 60.9%	324 38.7%	3 0.4%	837 100%

※ X²=606.136 (df=6, p<0.001)

〈표 VI-8〉이 보여주듯이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으로 순수하게 지지 후보의 변동이 일어나는 비중은 결코 크지 않았다.⁴⁹⁾ 기존 박근혜 후보 지지자 중에서 오직 5.6%만이 후보자 TV토론회 방송 이후 실시된 2차 사후조사에서 투표 후보의 변동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기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오직 9.6%만이 투표 후보의 변동을 나타냈다. 두 명의 주요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 중 90% 이상이 후보자 TV토론회 이후 실시된 2차 사후조사에서 고스란히 기존의 지지 후보에게 실제로 투표하였다고 응답한 것이다. 결국 위의 후보자 TV토론회의 투표결정력에 대한 빈도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TV토론회의 시청은 유권자의 기존 지지 성향을 바꾸기보다는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전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하였던 부동산 유권자의 경우 표에서 드러나듯이, 46%(29명)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고, 54%(34명)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었다.

49) 앞에서 살펴본듯이 2차 사후조사에서 후보자 TV토론회를 한 번이라도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 수가 967명으로 전체 응답자 1000명을 기준으로 96.7%에 이른다. 그러므로 2차 사후조사에서 나타난 유권자 지지 성향의 변동을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의 직간접적 효과로 간주한다.

〈표 VI-9〉 후보자 TV토론회 평가(사후조사)와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사후조사) 교차분석

구분		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합계
		박근혜	문재인	기타 후보	
토론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박근혜	364 93.8%	24 6.2%	0 0%	388 100%
	문재인	79 31.2%	174 68.8%	0 0%	253 100%
	이정희	31 21.4%	111 76.6%	3 2.1%	145 100%
	없음	5 71.4%	2 28.6%	0 0%	7 100%
합계		479 60.4%	311 39.2%	3 0.4%	79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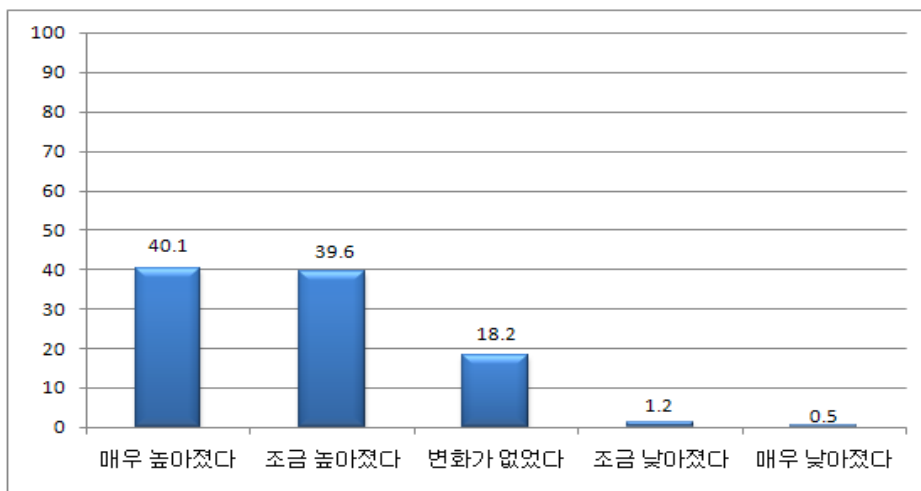
※ $\chi^2=373.512$ (df=6, $p<0.001$)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TV토론회 성과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별도로 유권자가 원하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지 보다 면밀히 분석해보기 위하여 〈표 VI-9〉에서는 유권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성적 평가(2차 사후조사)와 실제 투표 후보(2차 사후조사)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해보았다. 〈표 VI-9〉에서 나타나듯이,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을 잘하였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의 대다수(93.8%)가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반면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잘 하였다고 평가한 사람들 중 31.2%(79명)가 후보자 TV토론회 평가와 상관없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정희 후보가 토론을 잘 하였다고 평가한 사람들 중에서 76.6%(111명)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였으며, 21.4%(31명)는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후보에게 실제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110명)이 박근혜 후보보다 경쟁 후보들(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이 TV토론을 잘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서 상당수(111명)가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TV 토론을 잘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지지 후보자들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지지 후보에게 투표하는 성향을 보여준다. 즉 유권자의 기존 지지 성향을 변동시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적어도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유권자의 투표 후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3 시청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와 관심도에 따른 효과 분석

앞 절에서는 1차 사전조사와 2차 사후조사간의 문항별 비교분석을 통하여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의 정치적 효과를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시청자들의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노출, media exposure)와 시청 관심도(attention)를 주요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 두 변수들이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투표 참여 및 투표 결정, 선거정보 획득, 후보자 공약, 자질 및 국정 수행능력 등 주요 종속변인들에 일으키는 변화들을 분석해봄으로써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의 제반 정치적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림 VI-7〉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선거관심도: 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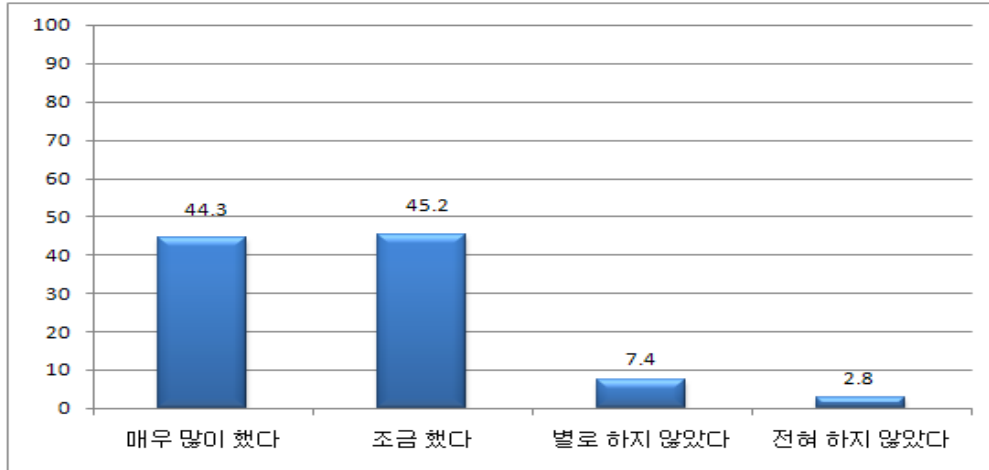


먼저 조사 대상자의 TV 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그들의 선거관심도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그림 VI-7〉과 〈그림 VI-8〉에 따르면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조사 대상자들은 선거관심도가 상당히 고양되었고, 지인들과 선거 관련 대화 빈도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40.1%, 그리고 조금 높아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39.6%로 변화가 없었다(18.2%)고 대답한 사람들이나 낮아졌다고 대답한 사람들(1.7%)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지인들과 선거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89.5%)이 그렇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10.2%)을 큰 차이로 앞질렀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대된 선거관심도가 실제 유권자들의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빈도나 관심도와 어떤 연관성을 갖나 알아보기 위하

50) 선거관심도에 대한 설문지의 모름/무응답 비율은 0.4%였고, 지인들과 선거 관련 대화 여부를 묻는 질문의 모름/무응답 비율은 0.3%였다.

여 유권자의 선거관심도를 측정하는 두 변수(선거 관심도와 지인들과 선거 관련 대화 여부)와 시청 빈도 및 관심도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VI-8〉 후보자 TV토론회 이후 지인들과 관련 대화 여부: 사후조사



〈표 VI-9〉 TV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상관관계 분석: 사후조사

구분	Pearson Correlation
TV토론회 접촉 빈도-유권자의 선거관심도	0.170**
TV토론회 접촉 빈도-유권자의 선거 관련 대화 빈도	0.149**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유권자의 선거관심도	0.275**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유권자의 선거 관련 대화 빈도	0.215**

** : $p < 0.01$

위의 〈표 VI-9〉에 나타나듯이 토론회 시청 횟수와 관심도, 그리고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를 보여 주는 두 변수들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자가 토론회를 더 자주 접할수록, 그들이 선거에 대하여 갖는 관심을 올라가며, 유권자가 토론회에 더 주목하면 할수록, 그들이 선거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극히 예측 가능한 사실이기도 하다.

〈표 VI-10〉 TV토론회 시청 빈도수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여부 교차분석: 사후조사

구분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여부		합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TV토론회 시청 횟수	1	104 96.3%	4 3.7%	108 100%
	2	331 99.7%	1 0.3%	332 100%
	3	346 99.4%	2 0.6%	348 100%
	4	185 100%	0 0%	185 100%
합계		966 99.3%	7 0.7%	973 100%

※ $X^2=15.722$ (df=3, $p<0.01$)

그렇다면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으로 인하여 고양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실제 투표행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표 VI-10〉는 조사 대상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빈도에 따른 그들의 투표 참여 여부를 교차분석한 표이다.⁵¹⁾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에서 기권한 사람의 비중은 시청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접촉 빈도가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4번의 후보자 TV토론회를 모두 시청한 사람들 중에는 투표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VI-10〉는 교차분석 표의 8개 셀(cell) 중에 50%인 4개 셀에서 너무나 작은 사례 수가 보고되었으므로 분석의 신뢰성이 낮다. 이는 근본적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1,000명 중에 기권으로 응답한 유권자가 오직 7명(0.7%) 밖에 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문제인데, 이처럼 투표 참여 여부의 변량이 크지 않아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하여 갖는 효과 분석은 본 조사에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표 VI-11〉 TV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간 상관관계: 사후조사

구분	Pearson Correlation
TV토론회 접촉 빈도-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0.027
TV토론회 시청 관심도-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0.177**

** : $p<0.01$

51)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빈도수와 더불어 시청 관심도와 투표 참여 여부간의 동일한 형식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VI-12〉 TV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선거정보 효과 상관관계: 사후조사

구분	Pearson Correlation
TV토론회 접촉 빈도-후보자 자질 비교	0.117**
TV토론회 접촉 빈도-후보자 공약 비교	0.070*
TV토론회 접촉 빈도-후보자 국정 수행능력 비교	0.154**
TV토론회 접촉 빈도-새롭게 알게 된 이슈	0.125**
TV토론회 접촉 빈도-추가적 선거정보 취득	0.123**
TV토론회 접촉 빈도-정치지식 수준	0.191**
TV토론회 접촉 빈도-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0.095**
TV토론회 시청 관심도-후보자 자질 비교	0.163**
TV토론회 시청 관심도-후보자 공약 비교	0.148**
TV토론회 시청 관심도-후보자 국정 수행능력 비교	0.203**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새롭게 알게 된 이슈	0.183**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추가적 선거정보 취득	0.179**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정치지식 수준	0.147**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0.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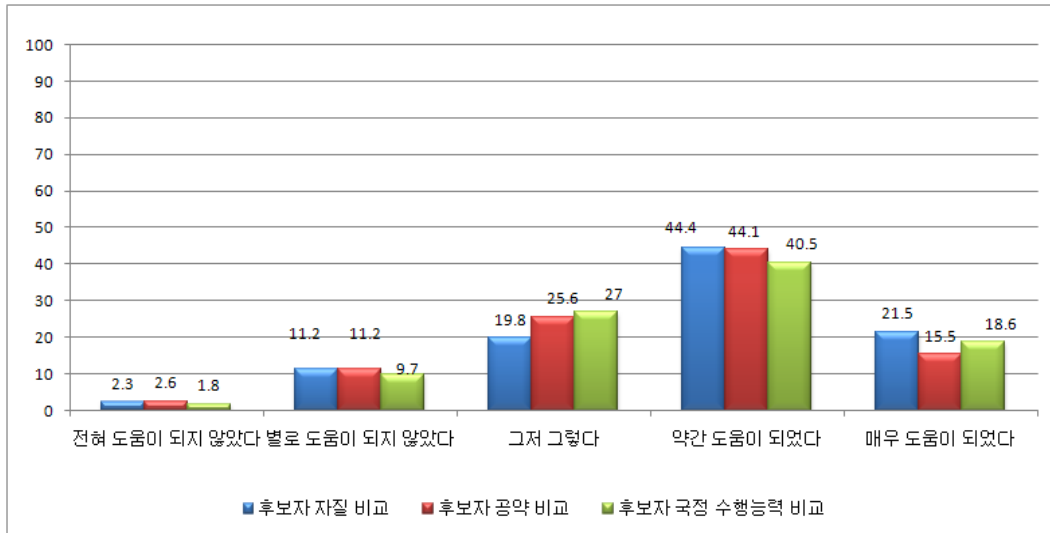
* $p < 0.05$, ** $p < 0.01$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의 유권자 투표 동원 효과에 이어서 유권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가 실제 유권자의 투표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자. 〈표 VI-11〉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과 유권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각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와 실제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미약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유권자가 후보자 TV토론회에 주목하는 관심도의 경우 투표 후보 결정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시청자가 후보자 TV토론회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수록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그 유권자의 실제 투표 후보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더 빈번한 노출(exposure)보다는 유권자가 실제로 얼마나 큰 관심(attention)을 갖고 그것을 지켜보느냐에 따라 시청자의 투표 후보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시민들의 후보자 TV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다양한 선거정보 효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예상한 바대로 유권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접촉 빈도수가 높고, 그들이 토론회에 더 관심을 갖고 볼수록 시청자들은 대통령선거 출마 후보자 및 선거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시청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를 더 자주 접할수록 그들은 출마 후보자의 자질, 공약, 그리고

국정 수행능력을 비교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9〉 TV토론회의 다양한 선거정보 효과: 사후조사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할 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그들은 위에 나열한 항목에 대하여 선거정보 차원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에 큰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자주 접한 사람일수록,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선거이슈가 더 많아지고, 정치지식 수준도 고양되며, 또한 후보자 TV토론회 이후에 추가적 선거정보에 대한 흥미 유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유권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빈도 및 관심도가 유권자의 선거정보 취득 효과와 양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회귀분석

마지막 절에서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반 정치적 효과를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한 주요 통제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선거관심 효과, 정치지식 효과, 투표결정 효과 등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불러올 수 있는 제반 정치적 효과들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분석의 주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선택하였다. 다만 투표참여 효과의 경우 2차 사후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99%가 투표하였다고 대답함으로써 변수 값의 변이(variation)가 충분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회귀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유권자들의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 독립변수로는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본 적이 있다-본 적이 없다)나 시청 관심도 보다는 시청 횟수(1~4회)를 사용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시청 횟수의 변수 값의 변이가 다른 두 변수와 비교하여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96.7%의 응답자가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오직 3.3%만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91.8%가 관심을 갖고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오직 7.9%만이 후보자 TV토론회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반하여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의 경우 1회 시청(11.3%), 2회 시청(36.1%), 3회 시청(35%), 그리고 4회 모두 시청(17.6%)로 위의 두 변수와 비교하여 응답자의 비중이 변수 값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우선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및 그 밖에 주요 변수들이 유권자의 선거관심도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자.⁵²⁾ <표 VI-13>에 나타나듯이 후보자 TV토론회를 더 많이 시청한 시민들일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³⁾ 이는 결국 유권자가 후보자 TV토론회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그들이 대통령선거 자체에 대하여 갖는 관심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빈도 변수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주요 변수들로는 여성, 나이, 학력, 정치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 박근혜 후보 지지 여부, 그리고 사전조사에서 측정한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을 들 수 있겠다. 즉, 여성 유권자들은 남성들과 비교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선거관심도 또한 상대적으로 학력자들에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에 정치지식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여타 후보 지지를 드러낸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선거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19~29세의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은 선거 관심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기존의 젊은 유권자들에게 관찰되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그 밖에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즉 외적 정치 효능감이 큰 유권자들일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2) 선거관심도에 대한 물음에 “조금 낮아졌다(1.2%)” 혹은 “매우 낮아졌다(0.5%)”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1.7%)이 상당히 낮게 조사되어, 위의 두 항목을 합산하여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53)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을 자주 한 시청자들이 선거관심도가 더 높듯이, 선거관심도가 더 높은 유권자들이 애초에 후보자 TV토론회를 더 자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통계모델은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후보자 TV토론회의 여러 정치적 효과들을 살핀다는 목적 하에서 내생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겠다.

〈표 VI-13〉 TV토론회 및 주요 통제변수들이 유권자의 선거관심도에 미친 영향
(순서 로짓 ordered logit model 회귀분석)

독립변수	Coefficient Estimates (선거관심도)
여성	0.431(0.139)***
20대(19세 포함)	0.561(0.234)**
30대	0.044(0.209)
50대	-0.037(0.197)
60대 이상	0.057(0.232)
학력	-0.182(0.090)**
소득 수준	-0.019(0.052)
TV토론회 시청 횟수	0.461(0.079)***
정치성향(진보 0-보수 10)	-0.048(0.032)
정치 내적 효능감	-0.014(0.079)
정치 외적 효능감	0.126(0.065)**
사전 정치지식 수준	-0.126(0.071)*
박근혜 지지자	0.444(0.197)**
문재인 지지자	0.142(0.200)
영남 거주	0.126(0.161)
호남 거주	-0.096(0.252)
충청 거주	-0.013(0.234)
강원/제주 거주	-0.209(0.320)
cut point 1	-3.132(0.628)***
cut point 2	-0.504(0.583)
cut point 3	1.486(0.585)**
N	826
Pseudo R-Square (Cox-Snell)	0.089

* p<0.1, ** p<0.05, *** p<0.01

선거관심도에 이어서 후보자 TV토론회가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정보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된 두 가지 종속변수를 활용하여 순서 로짓(ordered logit) 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두 종속변수는 먼저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 이후 추가 정보를 탐색해 보았는가에 대한 설문이다.

〈표 VI-14〉 TV토론회 및 주요 통제변수들이 유권자 정치정보 활동에 미친 영향
(순서 로짓 ordered logit model 분석)

독립변수	Coefficient Estimates (새롭게 알게 된 이슈)	Coefficient Estimates (추가적 정보 탐색)
여성	0.255(0.141)*	0.186(0.135)
20대(19세 포함)	0.050(0.236)	0.751(0.230)***
30대	0.024(0.215)	0.213(0.208)
50대	0.105(0.202)	-0.067(0.194)
60대 이상	0.167(0.233)	-0.321(0.223)
학력	-0.231(0.092)**	0.186(0.088)**
소득 수준	-0.017(0.053)	-0.005(0.051)
TV토론회 시청 횟수	0.338(0.080)***	0.380(0.076)***
정치성향 (진보 0-보수 10)	-0.002(0.032)	0.010(0.031)
사전 정치지식 수준	-0.193(0.072)***	0.188(0.069)***
박근혜 지지자	0.125(0.201)	-0.095(0.192)
문재인 지지자	0.024(0.205)	0.078(0.198)
영남 거주	-0.080(0.164)	0.108(0.157)
호남 거주	0.207(0.261)	0.205(0.252)
충청 거주	-0.064(0.236)	-0.346(0.226)
강원/제주 거주	-0.558(0.320)*	0.207(0.310)
cut point 1	-3.849(0.516)***	0.405(0.455)
cut point 2	-1.051(0.583)**	1.999(0.459)***
cut point 3	1.668(0.481)***	4.417(0.480)***
N	839	840
Pseudo R-Square (Cox-Snell)	0.060	0.082

* p<0.1, ** p<0.05, *** p<0.01

〈표 VI-14〉에서 보이듯이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에 비례해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더 많은 새로운 이슈들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추가 정보를 찾기 위하여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포함된 여러 통제변인들 중에서 흥미로운 발견은 사전 정치지식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그다지 획득하지는 못하지만 후보자 TV토론회 이후에 더 활발한 추가 정보 탐색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고학력자들이나 사전 정치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미 필요한 정치적 상식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그다지 얻지 못

하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반면에 그들은 풍부한 정치 상식 및 지식을 바탕으로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얻는 새로운 정보를 잘 활용하여 추가적 정보 탐색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력을 갖는 20대들이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활발한 추가 정보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위의 선거관심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문제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믿음에 다소 배치되는 결과이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활발한 노출(exposure)이 유권자의 전반적 선거관심도를 증대시키고, 그들의 정치정보 수준을 고양시키며, 나아가 활발한 정치 정보활동 또한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을 찾아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과 별개로 과연 유권자의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개개인의 투표 후보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표 VI-15〉와 〈표 VI-16〉은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를 포함한 주요 독립변수들과 유권자의 투표 후보 결정 및 실제 투표 후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두 표 모두에서 나타나듯이 지금까지와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빈도 변수는 후보 결정과 관련된 어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즉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을 통하여 유권자의 선거관심도도 증대되고, 선거정보 활동도 활발해졌지만, 그렇다고 유권자의 활발한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자체가 그들의 투표 후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여성 및 젊은 20대 유권자들의 경우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그들의 투표 후보 결정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력 유권자들일수록 후보자 TV토론회가 그들의 투표 후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투표행위와 관련해서 〈표 VI-16〉은 어떤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이항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표에서 나타나듯이 지지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세대간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20~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여타 후보보다는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 후보를 둘러싼 첨예한 지역갈등 구도도 또한 발견되는데, 영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였다면, 호남에 거주하는 후보자들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보다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흥미로운 점은 고학력자, 그리고 정치지식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기보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VI-15〉 TV토론회 및 주요 통제변수들이 유권자의 투표 후보 결정에 미친 영향
(순서 로짓 ordered logit model 회귀분석)

독립변수	Coefficient Estimates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여성	0.349(0.133)***
20대(19세 포함)	0.556(0.224)**
30대	0.160(0.205)
50대	0.204(0.190)
60대 이상	0.239(0.220)
학력	-0.161(0.086)*
소득 수준	-0.040(0.050)
TV토론회 시청 횟수	0.096(0.074)
정치성향(진보 0-보수 10)	-0.031(0.031)
사전 정치지식 수준	-0.048(0.067)
박근혜 지지자	-0.225(0.190)
문재인 지지자	-0.506(0.194)
영남 거주	-0.033(0.154)
호남 거주	-0.135(0.241)
충청 거주	-0.138(0.226)
강원/제주 거주	-0.213(0.302)
cut point 1	-2.623(0.462)***
cut point 2	-1.181(0.454)***
cut point 3	0.552(0.452)
N	832
Pseudo R-Square (Cox-Snell)	0.044

* p<0.1, ** p<0.05, *** p<0.01

〈표 VI-16〉 TV토론회 및 주요 통제변수들이 유권자 투표 후보 결정에 미친 영향
(이항 로지스틱 binary logistic 회귀분석)

독립변수	Coefficient Estimates (박근혜 후보 투표)	Coefficient Estimates (문재인 후보 투표)
여성	-0.049(0.176)	-0.180(0.178)
20대(19세 포함)	-0.551(0.260)**	0.708(0.276)***
30대	-0.594(0.215)**	0.287(0.252)
50대	0.645(0.243)***	-0.526(0.251)**
60대 이상	1.042(0.299)***	-1.173(0.324)
학력	-0.307(0.116)***	0.247(0.120)**
소득 수준	0.077(0.066)	-0.035(0.067)
TV토론회 시청 횟수	-0.057(0.098)	-0.019(0.100)
정치성향 (진보 0-보수 10)	0.432(0.035)***	-0.405(0.044)***
사전 정치지식 수준	-0.266(0.091)***	0.365(0.094)***
영남 거주	0.865(0.208)***	-0.753(0.216)***
호남 거주	-1.418(0.328)***	1.245(0.307)***
충청 거주	-0.146(0.286)	-0.243(0.297)
강원/제주 거주	0.596(0.417)	-0.442(0.427)
상수 Constant	-1.046(0.575)*	0.543(0.589)
N	844	844
Pseudo R-Square (Cox-Snell)	0.30	0.263

* p<0.1, ** p<0.05, *** p<0.01

Ⅶ. 결 론



VII. 결 론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자 TV토론회는 후보를 검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특히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96.7%가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91.8%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거의 모든 국민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자 TV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통령선거 과정에 TV토론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1997년 이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학계에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TV토론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한국 사회에 적절한 형식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또한 대통령선거 TV토론회가 유권자에 의하여 어떻게 활용되고 평가받고 있는지 현실적인 이슈에 대한 진단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TV토론회가 유권자에 미칠 수 있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후보자 TV토론회가 처음 도입된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부터 후보자 TV토론회가 선거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토론 형식, 토론 규칙, 후보자 초청대상 등 TV토론회 자체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양당의 주요 후보가 양자토론을 펼치는 형식이 아닌 다수의 후보가 참여하는 후보자 TV토론회가 그동안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기계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었다. 2007년에는 6인의 후보가 참여한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되어 진정한 토론이 펼쳐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시청률 역시 1997년과 비교하여 매우 떨어지기도 하였다.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처럼 선거방송토론회의 방송의 방식, 형평성, 공정성 등에 관한 논란이 많았던 적도 없었다. 먼저 누가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 참여 자격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군소후보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서 시작하여 지지율이 매우 낮은 후보와 당선권에 있는 후보가 같은 수준에서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후보자 TV토론회 방식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은 토론 시간과 내용이었다. 이번에도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기계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토론이 실질적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후보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후보자의 정책의 방향, 추진전략, 효과, 수반되는 예산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이런 후보자들의 토론 내용이 검증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토론방식을 고안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 현실, 효과의 세 가지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먼저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후보자 TV토론회의 방식과 횟수, 그리고 이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이유는 후보자 TV토론회 제도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요구들을 파악할 때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현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인지도, 관심도, 청취도, 신뢰도, 공정성, 흥미성 등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후보자 TV토론회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청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식되어야 하며, 무미건조하지 않고 흥미도 이끌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제대로 구비될 때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이러한 기준들에 대하여 후보자 TV토론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를 정치지식, 선거관심, 정치효능감, 정책인지, 후보자 인지, 투표 참여와 결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TV토론회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살펴보았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후보자 TV토론회 이전의 사전조사(1,541명)와 이후의 사후조사(1,002명)를 두 번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제도, 현실, 효과의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후보자 TV토론회의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국민들이 공공문제 및 대통령선거 정보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문제 및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TV의 영향력이 여전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선거방송토론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결과와 더불어 점점 인터넷의 영향력 또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방송토론과 인터넷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경우에서 보면 후

보자 TV토론회가 중요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후보자 TV토론회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새로운 형태의 퓨전(융합)미디어 선거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후보자 TV토론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다양한 시청 소감, 의견 제시, 리트윗(retweet)을 통하여 선거 관련 정보는 확대 재생산되었다. 결국 후보자 TV토론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토론거리를 제공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토론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다음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정보의 확산과 양질의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차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총 4회로 되어 있는 후보자 TV토론회 횟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다수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사후조사의 경우 충분하다는 입장은 줄어들어 후보자 TV토론회 횟수를 한 두 차례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회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TV토론회 외에는 특별한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적절한 수준의 대안적 토론회가 이루어질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후보자 TV토론회의 횟수는 현행으로 유지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선거방송토론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이슈는 주요 후보만 참여하는 양자토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법에 따라 자격 있는 후보들 모두를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논의였다. 세 명의 후보가 참여한 1차와 2차 후보자 TV토론회와 두 명의 후보가 참여한 3차 후보자 TV토론회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79.4%가 후보자 TV토론회가 주요 후보 위주의 토론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단지 18.1%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삼자구도로 진행된 1차와 2차 후보자 TV토론회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로 인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의 정책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토론회 참여 자격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후보자 TV토론회의 현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인지도, 관심도, 청취도,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등의 기준으로 후보자 TV토론회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사후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실로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TV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91.8%로 나타났고, 사후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9.7%가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

한 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치적 정보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선거방송토론의 역할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정성’이란 후보자 TV토론회 참여의 기회, 발언시간, 순서 등에서 후보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58.2%가 후보자 TV토론회의 중립·공정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후보자 TV토론회 시행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조사 과정에서 “선생님께서서는 지상파 방송(KBS, MBC, SBS)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지상파 방송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68.1%를 차지하였다.

후보자 TV토론회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한 기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아울러 유권자들을 TV 앞으로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흥미성이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46.1%를, 그리고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6.8%를 차지하였다. 비록 그 격차는 0.7%밖에 되지 않지만 사전조사 결과 후보자 TV토론회가 흥미롭지 않다는 응답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더 많은 국민이 후보자 TV토론회를 시청하도록 유도하려면 흥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보자 TV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수정 보완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흥미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TV토론회 효과 분석이다.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조사 대상자들은 선거관심도가 상당히 고양되었고, 지인들과 선거 관련 대화 빈도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자가 토론회를 더 자주 접할수록 그들이 선거에 대하여 갖는 관심을 올라갔다. 그리고 유권자가 토론회에 더 주목하면 할수록 그들이 선거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청자들이 후보자 TV토론회를 더 자주 접할수록 그들은 출마 후보자의 자질, 공약, 그리고 국정 수행능력을 비교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에 큰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자주 접한 사람일수록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선거이슈가 더 많아지고, 정치지식 수준도 고양되며, 또한 후보자 TV토론회 이후에 추가적 선거정보에 대한 흥미 유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회가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많은 만큼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 형평성, 효율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다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 형평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2012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참 고 문 헌

- 구교태 (2008). “제17대 대선 TV토론 점검: 불꽃 튀는 ‘역동적’ 토론, 언제쯤 보게 될까.” 『신문과 방송』, 445호, 127~131.
- 나은영 (2002).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 나은영·한규석·고재홍 (2003).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TV토론의 효과와 제3자 효과: 세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권 3호, 145~158.
- 류한호 (2004). “달라진 17대 총선보도 : 미디어 선거의 이모저모.” 『신문과 방송』, 399호, 17~22.
- 박승희·김현기 (2012.12.06). “TV토론, 해외선 어떻게.” 『중앙일보』.
- 송종길 (2003). “대선보도 TV합동토론 너무 짧은 90초, 사회자 역할도 한계.” 『신문과 방송』, 385호, 46~50
- 송종길·박상호 (2007). 『제 17대 대통령선거와 TV토론 효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243.
- 송종길·박상호 (2009).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TV토론 이용 동기가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417~442.
- 안차수 (2007). “TV 토론 평가.”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발제집, 59-76.
- 양승찬 (1998). 『미디어 정치시대 선거보도』, 11~182, 한국언론재단.
- 양승찬 (2003). “16대 대통령 선거와 미디어.” 『대통령 선거와 미디어』, 11~76, 한국언론재단.
- 양승찬 (1999). “텔레비전 선거토론 방송의 영향력연구-후보자 평가변화, 정책관련 지식, 정치과정 참여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48호, 210~246.
- 윤성옥 (2007a). “TV토론 후보자 제한기준 합리적 차별인가.” 『방송문화』.
- 윤성옥 (2007b). “대통령선거 TV토론 후보자 참여 제한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권 6호, 317-365.
- 이강형 (2003).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 유권자의 후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유사 실험연구.” 『한국언론학술논총』, 279~324.
- 이강형 (2004).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토론회 패널 조사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346~372.
- 이강형·김춘식·양승찬·권혁남 (2004). “후보 결정에 대한 TV토론의 영향력에 있어서 정치환경의 역할: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 『한국방송학보』, 18권 3호, 51~90.
- 이상길 (2003). “대선 TV합동토론 정책논리 객관적 중계 돋보여.” 『신문과 방송』, 385호, 142~145.
- 이상헌 (2004). “TV토론 의무화, 출연기준 현실화 시급.” 『신문과 방송』, 401호, 58~63.
- 이종수 (1997). “97 대통령선거 TV토론.” 『선거 TV토론과 시민저널리즘』, 44~55, 한국언론재단.
- 이종수 (2002a). “TV토론에 시민참여 포맷 도입해야.” 『신문과 방송』, 379호, 50~54.
- 이종수 (2002b). “공정선거 텔레비전 토론 모델 연구.” 『공정선거방송 모델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 이준웅 (1999). “텔레비전 토론의 정치적 영향력: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2권, 253~297.
- 이효성 (1993). “공명선거와 텔레비전 토론 : 문제의 관건은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다.” 『저널리즘 비평』, 제9권, 58~67.

- 이준용 (2003).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 이미지, 이슈 근접성, 후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곡논총』, 34권 2호, 285~332.
- 이철한·현경보 (2007). “유권자의 미디어의 이용이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불신감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7권 4호, 112~142.
- 정성호 (2003). “TV 토론이 유권자의 인지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16대 대통령선거 TV 토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3호, 221~248.
- 정성호·이화행 (2006). “TV토론이 유권자의 인지효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광역단체장 선거 경선 TV토론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호, 63~87.
- 정효식·손국희 (2012.12.06). “막말 대선토론 개선 요구 빗발.” 『중앙일보』.
- 최재혁·선정민 (2012.12.06). “관 깨러 나온 지지율 0.2% 후보에... 관 제대로 깔아준 TV토론.” 『조선일보』.
- 황근 (2002a). “TV토론, 즐거움과 정보 제공하는 방식 찾길.” 『신문과 방송』, 375호, 19~22.
- 황근 (2002b). “후보 3인이내 초청, 직접 토론 방식으로.” 『신문과 방송』, 383호, 20~13.
- Benoit, W. L., Hansen, G. J., & Verser, R. M. (2002).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Viewing U. S. Presidential Debates. *Communication Monographs*, 70(4), 335~350.
- Benoit, W. L. & Hansen, G. J. (2004). Presidential Debate Watching, Issue Knowledge, Character Evaluation, and Vote Choi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0(1), 121~144.
- Best, S. J., & Hubbard, C. (1999). Maximizing “minimal effects”: The impact of early primary season debates. on voter preference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7, 450~467.
- Bishop, G. F., Oldendick, R. W., & Tuchfarber, A. J. (1978). Debate watching and the acquisition of political knowledge. *Journal of Communication, Autumn*, 99~113.
- Chaffee, S. H., Zhao, X., & Leshner, G. (1994). Political Knowledge and the Campaign Media of 1992. *Communication Research*, 21(3), 305~324.
- Drew, D & Weaver, D.(1991). Voter learning in the 1988 presidential election: Did debates and the media matter?. *Journalism Quarterly*, 68(1), 27~37.
- Drew, D & Weaver, D. (1998). Voter learning in the 1996 presidential election: Did the media matter?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2), 292~301.
- Elliott, W. R. & Sothirajah, J. (1993). Post-debate analysis and media reliance: Influences on candidate image and voting probabilities, *Journalism Quarterly*, 70(2), 321~335.
- Hellweg, S. A., Pfau, M., & Brydon, S. R. (1992).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dvocacy in contemporary America*. NY: Praeger.
- Jamieson, K. H. & Birdsell, D. S. (1980). *Presidential debates: The challenge of creating on informed electorat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Jeffres, L. W. (1997). *Mass media effects (2nd ed.)*. IL: Waveland Press.

- Kraus, S. (1996). Winners of the first 1960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 between Kennedy and Nixon. *Journal of Communication*, 46(1), 78~97.
- Kraus, S. (1988).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public policy*. NJ: Lawrence Erlbaum.
- Maddox, W. S. & Nimmo, D. (1981). In search of the ticket splitter. *Social Science Quarterly*, 62, 401~408.
- McLeod, J. M., Bybee, C. R., & Durall, J. A. (1979). Equivalence of informe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1976 Presidential debates as a source of influence. *Communication Research*, 6, 463~487.
- McLeod, J. M., Pan, Z., & Sun, S. (1989). *Knowing, feeling and voting in the 1988 Presidential elec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Midwest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Chicago, November.
- Mendelsohn, H. & O'Keefe, G. J. (1976). *The people choose a resident: Influences on voter decision making*. NY: Praeger.
- Miller, A. H., & MacKuen, M. (1979). Learning about the candidates: The 1976 presidential deb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326~346.
- Munro, G. D., Ditto, P. H., Lockhart, L. K., Fagerlin, A., Gready M., & Peterson, E. (2002). Biased assimilation of sociopolitical arguments: Evaluation the 1996 U. S. presidential debat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 15~26.
- Payne, J. G. Golden, J. L., Marlier, J., & Ratzan, S. C. (1989). Perception of the 1988 presidential and vice-presidential deb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2, 425~435.
- Salant, R. S. (1962). The Television Debates: A revolution deserves a future. *Public Opinion Quarterly*. 26, Fall, 193~235.
- Sears, D. O., & Chaffee, S. H. (1979). Uses and effects of the 1976 debates: An overview of empirical studies. In Kraus, S.(Ed.), *The great debates: Carter vs. Ford, 1976*. pp. 223~261.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troud, N. J., Stephens, M., and Pye, D. (2011). The influence of debate viewing context on political cynicism and strategic interpretation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5(3), 270-283.
- Warner, B., Carlin, D., Winfrey, K., Schnoebelen, J., and Trosanovski, M. (2011). Will the real candidates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please stand up? 2008 pre- and post-debate viewer perception of candidate image.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5(3), 232-252.
- Weaver, D. & Drew, D. (1995). Voter learning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Did the nontraditional media and debates matter?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2(1), 7~17.

Zhu, J. H., Milavsky, J. R., & Bisway, R. (1994). Do televised debates affect image perception more than issue knowledge? A study of the first 1992 presidential debat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0(3), 302~333.

2012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부 록

1. 조사개요

1) 조사 설계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 1,541명 (가중후 1,500명) ■ 사후조사 : 1,002명 (가중후 1,000명)
패널 유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0%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
사후보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2월 29일 통계청 주민등록기준으로 지역, 성, 연령별 사후보정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 2012년 11월 30일 ~ 12월 4일 (5일간) ■ 사후조사 : 2012년 12월 21일 ~ 25일 (5일간)
조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서치앤리서치

2) 주요 조사 내용

주요 조사 항목	세부 항목
TV토론회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여부 ■ 관심도
TV토론회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TV토론회 진행 시간 ■ TV토론회 진행 방식 만족도
TV토론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별 비교 ■ 새롭게 알게 된 정책 및 정보 ■ TV토론회 이후 선거 관심도 ■ 중립성, 흥미성, 유익성 등
TV토론회 후보 결정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토론회 후보 결정 영향력 ■ TV토론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정치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토론회에 나온 공약-후보자 매칭

3) 표본의 특성

		계	
		사례수	%
■ 전체 ■		1,000	100.0%
■ 성별 ■	남성	495	49.5%
	여성	505	50.5%
■ 연령별 ■	19-29세	184	18.4%
	30대	204	20.4%
	40대	218	21.8%
	50대	191	19.1%
	60대 이상	203	20.3%
■ 권역별 ■	서울	208	20.8%
	인천/경기	287	28.7%
	대전/충청	101	10.1%
	광주/전라	102	10.2%
	대구/경북	105	10.5%
	부산/울산/경남	157	15.7%
	강원/제주	40	4.0%
■ 직업별 ■	농/임/어업	24	2.4%
	자영업	167	16.7%
	화이트칼라	94	9.4%
	블루칼라	274	27.4%
	가정주부	239	23.9%
	학생	105	10.5%
	무직/기타	94	9.4%
	모름/무응답	3	0.3%
■ 학력별 ■	중 졸 이 하	139	13.9%
	고졸	355	35.5%
	대 재 이상	499	49.9%
■ 소득별 ■	200만원 이하	227	22.7%
	201~300만원	174	17.4%
	301~400만원	157	15.7%
	401~500만원	147	14.7%
	501만원 이상	201	20.1%
	모름/무응답	94	9.4%
■ 정당지지도 ■	새누리당	396	39.6%
	민주통합당	244	24.4%
	통합진보당	11	1.1%
	진보정의당	3	0.3%
	기타정당	1	0.1%
	없음	314	31.4%
	모름/무응답	30	3.0%

4) 사전-사후조사 설문지 Map

	사전조사	사후조사
TV토론회 시청 의향 (시청 여부)	0	0
TV토론회 관심도		0
TV토론회 횟수 충분성(4회)	0	0
TV토론회 시간(2시간) 적절성		0
주요 후보 위주의 토론방식으로 변경 필요성		0
현 TV토론회 방식 만족도		0
TV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자질 비교		0
TV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정책공약 비교		0
TV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 비교		0
TV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이슈 습득 여부		0
TV토론회 이후 추가적 선거정보 취득		0
TV토론회를 통한 선거 관심도		0
TV토론회 후 지인들과 관련 대화 여부		0
TV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0	0
TV토론회의 공정한 진행	0	0
TV토론회의 흥미성	0	0
TV토론회의 유익성		0
대선 투표 의향 (투표 여부)	0	0
대선 투표 후보	0	0
18대 대선 TV토론회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0
토론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0
공공문제(대선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매체	0	0
18대 대선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0	
안후보의 사퇴를 통한 야권 단일화	0	
군소정당 후보 토론회 횟수 충분성	0	
공중파를 통한 TV토론회 진행 필요성	0	
17대 대선 당시 TV토론회 시청 여부	0	
17대 대선 당시 TV토론회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0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 중요하다(견해)	0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견해)	0	
정치상식	0	
정치지도자 호감도	0	

2. 18대 대선 후보 TV토론회 효과 분석: 사전조사 설문지

리서치앤리서치(2012.12)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에 위치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입니다.
저희는 한국정당학회의 의뢰를 받아 18대 대선 후보 TV토론회 효과 분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SQ1. 거주 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SQ2. 성별(목소리로 판단할 것!) 1. 남자 2. 여자

SQ3.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_____세 (☞ 만 19세 미만 면접 중단)

1. 만 19-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SQ4. 선생님께서는 이번 18대 대선에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

1.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2.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
3. 별로 투표하고 싶지 않다
4. 투표할 의사가 없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SQ5. 선생님께서는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하는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시청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면접 중단)

SQ6. 리서치앤리서치는 이번 조사를 포함,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 이후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조사를 포함, 총 2회 진행 예정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회 모두 참여시 소정의 상품(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1. 있다
2. 없다 (☞ 면접 중단)

♣ 다음은 18대 대선에 대해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Q01. 선생님께서는 18대 대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겠습니까? (보기 Rotation)

1. 정책·공약
2. 소속 정당
3. 이념
4. 도덕성
5. 출신지역
6. 후보의 능력
7. 주변의 평가
8. (불러주지 말 것) 기타 () (▶ 구체적 응답 필요)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2. 선생님께서는 지난 11월 23일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전격 사퇴했는데요. 안 후보의 사퇴를 통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이다
2. 긍정적이다
3. 부정적이다
4. 매우 부정적이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 다음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대해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 TV토론회는 주요 정당 후보 3회, 군소정당 후보 1회, 총 4회 진행됩니다.

Q03. 선생님께서는 현재 총 4회로 되어 있는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충분하다
2. 부족하다 (⇒Q03-1로)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3-1. (부족하다면) 몇 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

Q04. 그러면 군소정당 후보들을 위한 1회의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충분하다
2. 부족하다 (⇒Q04-1로)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4-1. (부족하다면) 몇 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

Q05. 선생님께서는 공중파를 통한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1. 반드시 필요하다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6. 선생님께서는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선거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효과적이다
2.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3.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4.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7. 지금까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8. 지금까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 다음은 2007년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Q09. 선생님께서는 지난 2007년 실시된 17대 대선 당시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시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Q09-1로)
2. 없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9-1. (있으시다면) 당시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선생님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1.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영향을 미친 편이다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 다음은 선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보겠습니다.

Q10.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터 5까지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1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5는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	1 ----- 2----- 3 ----- 4 ----- 5	9(모름/무응답)
----	----------------------------------	-----------

Q11.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터 5까지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1은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5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	1 ----- 2----- 3 ----- 4 ----- 5	9(모름/무응답)
----	----------------------------------	-----------

Q12. 이번에는 정치에 관련된 간단한 상식을 여쭙보겠습니다.

12-1.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면접원: "5년" 응답만 정인지로 체크, 그 외 응답은 오인지]

1. 정인지
2. 오인지

12-2.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면접원: "4년" 응답만 정인지로 체크, 그 외 응답은 오인지]

1. 정인지
2. 오인지

12-3. 현재 국무총리는 누구입니까?(Rotation)

1. 김황식 (정답)
2. 박재완
3. 고건
4. 정운찬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12-4. 현재 국회의장은 누구입니까?(Rotation)

1. 강창희 (정답)
2. 이만섭

1.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2.

DQ1. 정치에서 사람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를 구분합니다. 숫자 0부터 10까지 중 선생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5는 중도적, 10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입니다.

-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⑥ 5 ⑦ 6 ⑧ 7 ⑨ 8 ⑩ 9 ⑪ 10 ⑫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2. 선생님께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1. 신문 (중이신문) 2.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3. 케이블 및 위성 방송 4. 인터넷 (데스크탑)
5. 라디오 방송 6. 휴대형 미디어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DQ3. 선생님께서는 지상파 방송(KBS, MBC, SBS)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전적으로 신뢰한다 2. 다소 신뢰한다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DQ4.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이상
6.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JOB.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임업/어업 11. 무직 12. 기타
2. 자영업 (상업,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운전사 등)
3. 판매/영업/서비스직 (상점 점원, 세일즈맨, 방문 판매원, 미용사 등)
4. 기능/숙련직 (운전기사, 세탁, 선반, 목공, 기능공 등)
5. 생산/노무직 (제조업 생산직, 현장직업, 일용노무직, 청소관리, 경비원 등)
6. 사무직 (차장이하 사무직, 초중고 교사, 6급이하 공무원)
7. 경영/관리직 (5급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8. 전문/자유직 (변호사, 의사, 건축사, 교수, 예술가, 종교지도자 등)
9. 가정주부 (가사와 육아만 하는 전업주부)
13. (불러주지 말 것!) 잘모름 14. (불러주지 말 것!) 무응답

DQ5. 선생님 댁 가족 전체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1. 70만원 이하 2. 71-100만원 3. 101-150만원 4. 151-200만원 5. 201-250만원
6. 251-300만원 7. 301-400만원 8. 401-500만원 9. 501-600만원 10. 601만원 이상
11.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6. 현재 선생님께서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1. 새누리당 2. 민주통합당
3. 통합진보당 4. 진보정의당
5. (불러주지 말 것!) 기타정당 () 6. (불러주지 말 것!) 없음
7. (불러주지 말 것!) 잘모름 8. (불러주지 말 것!) 무응답

DQ7. 현재 선생님께서 지지하는 대선 후보는 누구입니까?

1. 박근혜 2. 문재인
3. (불러주지 말 것!) 기타 () 4. (불러주지 말 것!) 없음
5.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8. 선생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3. 18대 대선 후보 TV토론회 효과 분석: 사후조사 설문지

리서치앤리서치(2012.12)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에 위치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입니다.
저희는 한국정당학회의 의뢰를 받아 18대 대선 후보 TV토론회 효과 분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SQ1. 리서치앤리서치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 경에 TV 토론회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전 조사에 응해주신 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조사에 응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면접 중단)

SQ2. 본 조사에 응해주시면, 3,000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선생님의 휴대전화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시겠습니까?

1. 네 2. 아니오 (☞ 면접 중단)

SQ3. 선생님께서는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를 시청하신 적이 있으니까?

1. 있다 (☞ SQ3-1로)
2. 없다 (☞ Q02로)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SQ3-1. 있다면, 총 4번의 토론회 중 몇 회 TV 토론회를 시청하셨습니다? (_____) 회

♣ 이번 대선 후보자 TV토론회는 주요 정당 후보 3회, 군소정당 후보 1회, 총 4회 진행되었는데요, TV 토론회에 대해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Q01. 선생님께서는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1.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
2.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
3.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끔 보았다.
4.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2. 선생님께서는 총 4회 진행된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1. 충분했다
2. 부족했다(☞ Q02-1로)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2-1. 부족했다면, 토론회를 몇 회 정도로 늘려야 할까요? (_____)회

Q03. 선생님께서는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의 시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2.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3.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4. 선생님께서는 세 명의 후보가 참여한 1, 2차 토론회와 두 명의 후보가 참여한 3차 TV 토론회를 보시면서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주요 후보 위주의 토론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5.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선 TV 토론회의 토론 진행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어느 정도 만족한다.
3.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 이번에는 TV 토론회 결과 및 평가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Q06-1.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선 TV 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비교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Q06-2. 후보자의 정책공약 비교에서는요?

Q06-3.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비교는 어땠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않았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모름/ 무응답
(1)	(2)	(3)	(4)	(5)	(9)

Q07.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정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이슈가 있었습니까?

1. 매우 많다
2. 조금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8. TV 토론회 시청 후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더 찾아보셨습니까?

1. 많이 찾아 보았다
2. 어느 정도 찾아 본 편이다
3. 별로 찾지 않았다
4. 전혀 찾아보지 않았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09. TV 토론회 시청을 통해 선생님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아졌다.
2. 조금 높아졌다
3. 변화가 없었다
4. 조금 낮아졌다
5. 매우 낮아졌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10. 선생님께서는 TV 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이번 선거와 TV토론에 대한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매우 많이 했다
2. 조금 했다
3. 별로 하지 않았다
4. 전혀 하지 않았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11-1. 선생님께서는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선거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효과적이다
2.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3.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4.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11-2. 선생님께서는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11-3. 선생님께서는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12. 전반적으로 평가해볼 때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다른 정보매체들 보다 유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1. 매우 유익했다.
2. 다소 유익했다.
3.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
4.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 다음은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Q13. 선생님께서는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다가?

1. 투표했다(☞Q13-1로)
2. 투표하지 않았다(☞Q14로)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13-1. 하셨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다가?

1. 박근혜
2. 문재인
3. 기타후보 ()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13-2 이번 TV 토론회가 선생님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1.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영향을 미친 편이다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9. (불러주지 말 것) 모름/ 무응답

Q14. 그렇다면, 이번 TV 토론회가 선생님께서 투표하신(지지하신) 후보에 대한 지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1.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
2. 토론에 실망했지만 지지 후보를 바꾸진 않았다
3. 지지 후보가 바뀌었다

4. 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효과분석 (사전조사)

(조사일: 20121130 ~ 1204)

통계표 목차

【 응답자 특성 표 】	132
【 표 1 】 대선 투표의향	133
【 표 2 】 대선후보 선택시 최우선 고려사항	134
【 표 3 】 안철수 후보 사퇴를 통한 야권 단일화	135
【 표 4 】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 횟수 충분성	136
【 표 5 】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TV 토론회 횟수	137
【 표 6 】 군소정당 후보 합동 TV 토론회 횟수 충분성	138
【 표 7 】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TV 토론회 횟수(군소정당)	139
【 표 8 】 공중파 방송을 통한 TV 토론회 필요성	140
【 표 9 】 TV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	141
【 표 10 】 TV토론회 중립 공정성	142
【 표 11 】 TV토론회 흥미성	143
【 표 12 】 17대 대선 TV토론회 시청 여부	144
【 표 13 】 17대 대선 TV토론회 투표결정 영향력	145
【 표 14 】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 중요도	146
【 표 15 】 누가 권력을 잡느냐 차이	147
【 표 16 】 대통령임기(정치상식)	148
【 표 17 】 국회의원 임기(정치상식)	149
【 표 18 】 국무총리(정치상식)	150
【 표 19 】 국회의장(정치상식)	151
【 표 20 】 박근혜 호감도	152
【 표 21 】 문재인 호감도	154
【 표 22 】 안철수 호감도	156
【 표 23 】 정치성향	158
【 표 24 】 공공문제 정보 획득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매체	160
【 표 25 】 지상파 방송 신뢰도	161
【 표 26 】 정당지지도	162
【 표 27 】 지지 대선후보	163

【 응답자 특성 표 】

	사례수	%
■ 전 체 ■	1500	100.0%
■ 성별 ■	742 758	49.5% 50.5%
■ 연령 ■	278 307 331 282 302	18.5% 20.5% 22.1% 18.8% 20.1%
■ 지식인/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주거/제조/서비스/농림수산업/학생/기타 ■	311 428 152 153 155 239 62	20.7% 28.5% 10.1% 10.2% 10.3% 15.9% 4.1%
■ 학력 ■	223 513 741 22	14.9% 34.2% 49.4% 1.5%
■ 직업 ■	57 246 150 416 344 144 138 5	3.8% 16.4% 10.0% 27.7% 23.0% 9.6% 9.2% .4%
■ 소득 ■	349 252 262 204 282 151	23.3% 16.8% 17.5% 13.6% 18.8% 10.0%
■ 정치참여 ■	553 384 17 8 1 458 80	36.9% 25.6% 1.2% .5% .1% 30.5% 5.3%
■ 이념 ■	472 545 392 91	31.4% 36.4% 26.1% 6.1%
■ 정보습득경로 ■	231 555 59 540 15 86 14	15.4% 37.0% 3.9% 36.0% 1.0% 5.7% .9%
■ 투표소 ■	1300 155 36 9	86.7% 10.3% 2.4% .6%
■ 대선후 지지도 ■	669 519 9 154 150	44.6% 34.6% .6% 10.2% 10.0%
■ 고서인/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주거/제조/서비스/농림수산업/학생/기타 ■	221 195 235 268 228 245 109	14.7% 13.0% 15.7% 17.9% 15.2% 16.3% 7.3%

【 표 1 】 대선 투표의향

[문 SQ4] 선생님께서는 이번 18대 대선에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례수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	별로 투표하고 싶지 않다	투표할 의사가 없다	무응답/답	*적극적응	*수동적응	*비투표	계
		%	%	%	%	%	%	%	%	
■ 전 체 ■	(1500)	86.7	10.3	2.1	.3	.6	86.7	10.3	2.4	100.0
■ 선관여 ■	(742) (758)	87.7 85.7	9.0 11.7	2.2 2.0	.4 .1	.7 .5	87.7 85.7	9.0 11.7	2.6 2.1	100.0 100.0
■ 연 19-29세 대 이 상 ■	(278) (307) (331) (282) (302)	80.5 79.9 84.3 92.4 96.6	15.2 16.0 11.9 5.5 2.9	3.1 2.6 2.5 2.1 .3	.0 .3 .9 .0 .0	1.3 1.2 .3 .0 .2	80.5 79.9 84.3 92.4 96.6	15.2 16.0 11.9 5.5 2.9	3.1 2.9 3.4 2.1 .3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식인 대 광대 부 ■	(311) (428) (152) (153) (155) (239) (62)	85.7 86.3 83.7 89.8 92.0 84.8 88.5	11.5 9.8 12.0 6.9 6.6 13.8 10.3	1.9 2.4 4.4 2.5 1.4 1.9 1.2	.3 .5 .0 .5 .0 .0 .0	.6 1.1 .0 .8 .0 .4 .0	85.7 86.3 83.7 89.8 92.0 84.8 88.5	11.5 9.8 12.0 6.3 6.6 13.8 10.3	2.3 2.8 4.4 3.1 1.4 1.9 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생 대 일반 대 ■	(223) (513) (741) (22)	96.3 86.6 83.8 87.1	2.9 10.0 12.8 12.9	.0 2.0 2.5 .0	.4 .2 .3 .0	.5 .6 .7 .0	96.3 86.6 83.8 87.1	2.9 10.0 12.8 12.9	.4 2.8 2.8 .0	100.0 100.0 100.0 100.0
■ 직업 대 무직 대 ■	(57) (246) (150) (416) (344) (144) (138) (5)	93.9 86.9 78.6 85.7 89.5 81.3 94.1 79.4	4.7 10.6 15.1 11.6 8.5 13.6 3.9 20.6	.0 2.1 4.9 1.8 1.7 3.4 .7 .0	1.4 .0 .7 .2 .3 .0 .0 .0	.0 .4 .7 .6 .0 1.7 1.3 .0	93.9 86.9 78.6 85.7 89.5 81.3 94.1 79.4	4.7 10.6 15.1 11.6 8.5 13.6 3.9 20.6	1.4 2.1 5.6 2.1 2.0 3.4 .7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대 무소득 대 ■	(349) (252) (262) (204) (282) (151)	90.4 87.0 84.4 84.8 86.0 85.4	6.6 10.4 13.4 10.5 11.2 11.5	1.8 2.1 1.5 4.1 2.0 1.6	.5 .4 .0 .0 .4 .0	.7 .0 .8 .6 .4 1.5	90.4 87.0 84.4 84.8 86.0 85.4	6.6 10.4 13.4 10.5 11.2 11.5	2.3 2.5 1.5 4.1 2.4 1.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당 지지 대 지지 않음 대 ■	(553) (384) (17) (8) (1) (458) (80)	91.3 90.3 93.1 100.0 100.0 78.4 81.7	7.1 7.3 6.9 .0 .0 16.2 15.5	.8 1.0 .0 .0 .0 5.1 .0	.2 .8 .0 .0 .0 .0 .0	.6 .6 .0 .0 .0 2.2 .0	91.3 90.3 93.1 100.0 100.0 78.4 81.7	7.1 7.3 6.9 .0 .0 16.2 15.5	1.0 1.7 .0 .0 .0 5.1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 대 중립 대 ■	(472) (545) (392) (91)	90.1 82.8 86.2 94.2	7.7 13.7 10.4 3.3	1.5 2.4 2.9 .0	.2 .2 .5 .0	.4 .8 .0 2.5	90.1 82.8 86.2 94.2	7.7 13.7 10.4 3.3	1.7 2.6 3.4 .0	100.0 100.0 100.0 100.0
■ 정치 관심 대 무관심 대 ■	(231) (555) (59) (540) (15) (86) (14)	89.4 88.5 87.1 83.8 73.3 85.7 100.0	8.3 8.9 12.9 2.5 13.8 11.3 .0	1.4 1.7 .0 3.1 5.3 1.4 .0	.4 .3 .0 .2 .0 .0 .0	.4 .6 .0 .4 7.6 1.6 .0	89.4 88.5 87.1 83.8 73.3 85.7 100.0	8.3 8.9 12.9 2.5 13.8 11.3 .0	1.9 2.1 .0 3.3 5.3 1.4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 의향 대 투표하지 않음 대 ■	(1300) (155) (36) (9)	100.0 .0 .0 .0	.0 100.0 .0 .0	.0 .0 89.1 .0	.0 .0 10.9 .0	.0 .0 .0 100.0	100.0 .0 .0 .0	.0 100.0 .0 .0	.0 .0 100.0 .0	100.0 100.0 100.0 100.0
■ 대선 후보 지지 대 지지 않음 대 ■	(669) (519) (9) (154) (150)	90.0 88.9 100.0 75.0 75.5	8.3 9.1 .0 16.9 17.6	1.0 1.7 .0 7.4 3.4	.0 .4 .0 .0 1.4	.7 .0 .0 .7 2.1	90.0 88.9 100.0 75.0 75.5	8.3 9.1 .0 16.9 17.6	1.0 2.0 .0 7.4 4.8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서인 대 일반 대 ■	(221) (195) (235) (268) (228) (245) (109)	83.6 88.1 87.4 88.8 86.9 83.7 89.8	13.4 7.6 8.8 7.9 11.7 14.4 6.3	2.0 1.9 3.8 2.6 1.3 .8 2.9	.0 .5 .3 .0 .0 .4 1.0	1.0 1.8 .0 .5 .0 .7 .0	83.6 88.1 87.4 88.8 86.9 83.7 89.8	13.4 7.6 8.8 7.9 11.7 14.4 6.3	2.0 2.4 3.8 2.9 1.3 1.2 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2 】 대선후보 선택시 최우선 고려사항

[문 1] 선생님께서 18대 대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겠습니까? (보기 Rotation)

	사례수	정책·공	후보	도덕성	이념	소속정당	출신지역	주변의가	기타	무응답/합	계
		%	%	%	%	%	%	%	%	%	
■ 전 체 ■	(1500)	32.8	32.2	14.8	7.7	6.5	.9	2.3	1.3	1.5	100.0
■ 여 선출 ■	(742)	34.5	27.9	16.3	8.8	6.5	1.2	2.3	1.6	.9	100.0
■ 19-29세	(307)	37.0	27.3	13.0	10.5	7.3	.8	1.7	.7	1.8	100.0
■ 30-39세	(331)	33.1	32.2	16.3	7.5	5.8	.8	1.9	1.8	1.6	100.0
■ 40-49세	(282)	26.4	45.7	14.7	6.1	6.0	.8	1.2	.0	1.2	100.0
■ 50-59세	(302)	24.1	39.2	11.8	4.9	8.4	1.6	2.8	3.1	3.9	100.0
■ 지식인	(311)	35.8	33.9	11.8	7.2	7.6	.5	1.2	.2	1.7	100.0
■ 대학원생	(428)	33.1	30.7	16.6	7.1	6.8	.9	2.8	1.3	.7	100.0
■ 대학원생	(152)	28.2	35.1	17.2	8.7	5.5	.0	.9	3.8	.6	100.0
■ 대학원생	(153)	30.5	34.1	16.3	5.4	4.2	.0	4.4	2.0	3.2	100.0
■ 대학원생	(155)	28.1	34.4	12.2	12.3	4.5	2.9	1.7	1.8	2.1	100.0
■ 대학원생	(239)	35.7	27.6	15.2	7.5	8.0	.5	2.9	.7	1.9	100.0
■ 대학원생	(62)	33.3	35.1	13.1	5.7	6.4	3.7	1.3	.0	1.3	100.0
■ 학부생	(223)	24.3	38.7	11.3	1.9	8.6	1.5	4.4	2.4	6.9	100.0
■ 학부생	(513)	29.2	34.6	15.0	7.5	7.2	.8	3.0	2.0	.7	100.0
■ 학부생	(741)	36.4	28.5	15.8	9.3	5.4	.5	1.1	.5	.5	100.0
■ 학부생	(22)	15.8	37.5	11.6	14.6	7.2	9.3	4.1	.0	.0	100.0
■ 직장인	(57)	30.6	37.5	11.4	4.8	6.2	.0	4.4	5.1	.0	100.0
■ 직장인	(246)	34.2	31.4	16.5	8.4	3.9	1.7	2.1	.4	1.6	100.0
■ 직장인	(150)	26.9	39.9	14.6	6.6	5.6	1.1	4.1	.7	.5	100.0
■ 직장인	(416)	38.4	27.5	16.0	10.5	4.7	.2	.7	1.2	.7	100.0
■ 직장인	(344)	25.0	42.9	11.8	4.6	9.2	1.0	1.9	1.4	2.3	100.0
■ 직장인	(144)	39.7	17.9	17.5	10.1	8.0	.0	6.0	.8	.0	100.0
■ 직장인	(138)	34.3	25.8	14.2	5.3	8.6	2.7	1.8	2.9	4.3	100.0
■ 직장인	(5)	.0	33.7	15.4	.0	30.3	.0	.0	.0	20.6	100.0
■ 200만원 이하	(349)	26.4	36.0	13.8	4.6	7.6	1.7	2.9	2.7	4.3	100.0
■ 200만원 이하	(252)	33.5	29.5	17.0	8.1	6.7	.4	3.0	1.0	.8	100.0
■ 200만원 이하	(262)	35.2	29.3	18.6	6.8	5.5	1.1	2.3	1.2	.0	100.0
■ 200만원 이하	(204)	36.2	30.9	12.9	10.1	7.2	.0	.6	.5	1.5	100.0
■ 200만원 이하	(282)	36.1	32.0	14.4	10.5	4.1	.3	1.0	1.0	.6	100.0
■ 200만원 이하	(151)	31.2	35.3	10.3	6.9	8.7	2.1	4.4	.6	.5	100.0
■ 정당 지지	(553)	25.0	39.3	12.8	9.1	7.3	1.6	2.7	1.1	1.3	100.0
■ 정당 지지	(384)	32.2	25.7	17.1	8.3	10.6	.5	2.1	1.4	2.2	100.0
■ 정당 지지	(17)	50.9	15.2	17.4	.0	10.8	.0	5.7	.0	.0	100.0
■ 정당 지지	(8)	42.6	12.4	30.6	14.4	.0	.0	.0	.0	.0	100.0
■ 정당 지지	(1)	.0	.0	.0	.0	.0	.0	.0	100.0	.0	100.0
■ 정당 지지	(458)	42.1	29.3	15.0	6.4	2.3	.4	2.2	1.3	.9	100.0
■ 정당 지지	(80)	31.8	37.9	15.0	3.0	5.3	1.5	.0	2.2	3.4	100.0
■ 이념 성향	(472)	29.9	34.9	14.5	10.0	6.3	.9	1.8	1.0	.7	100.0
■ 이념 성향	(545)	32.0	35.2	14.9	5.7	5.2	.9	3.2	1.1	1.6	100.0
■ 이념 성향	(392)	39.3	24.3	15.4	8.6	8.1	.5	1.3	1.6	1.1	100.0
■ 이념 성향	(91)	24.5	34.5	13.2	3.2	8.0	2.7	4.0	3.1	6.8	100.0
■ 정치보수	(231)	29.2	41.6	12.4	11.6	2.6	.3	.5	.7	1.2	100.0
■ 정치보수	(555)	26.4	36.4	14.2	6.2	7.9	1.5	3.1	1.7	2.7	100.0
■ 정치보수	(59)	31.5	38.1	12.6	5.4	4.8	.3	3.5	2.8	.0	100.0
■ 정치보수	(540)	39.3	25.7	16.3	7.7	6.8	.3	2.2	1.1	.6	100.0
■ 정치보수	(15)	35.2	21.0	23.9	6.7	13.1	.0	.0	.0	.0	100.0
■ 정치보수	(86)	43.7	20.2	18.0	7.5	5.3	1.0	2.9	1.4	.0	100.0
■ 정치보수	(14)	33.4	26.4	.0	7.6	12.1	8.3	.0	.0	12.1	100.0
■ 투표표지	(1300)	32.5	32.5	14.7	7.4	7.0	.9	2.0	1.4	1.7	100.0
■ 투표표지	(155)	36.5	30.2	12.1	10.4	3.9	.0	4.2	.6	.7	100.0
■ 투표표지	(36)	30.2	31.2	24.2	5.3	3.1	.0	6.0	.0	.0	100.0
■ 투표표지	(9)	23.4	35.6	41.0	.0	.0	.0	.0	.0	.0	100.0
■ 대선후보 지지	(669)	25.5	40.1	12.7	8.4	6.2	1.6	2.7	1.4	1.6	100.0
■ 대선후보 지지	(519)	37.6	23.7	17.8	7.2	8.6	.3	2.1	1.2	1.3	100.0
■ 대선후보 지지	(9)	20.2	32.6	12.0	12.6	12.3	.0	.0	10.4	.0	100.0
■ 대선후보 지지	(154)	45.4	22.6	14.6	9.2	3.8	.0	3.3	.6	.5	100.0
■ 대선후보 지지	(150)	36.9	36.5	14.2	4.0	3.0	.8	.0	1.8	2.9	100.0
■ 지식인	(221)	39.3	28.1	13.6	9.7	7.2	.3	.9	.0	.9	100.0
■ 지식인	(195)	35.3	28.3	13.8	9.3	7.7	1.0	2.4	1.7	.4	100.0
■ 지식인	(235)	26.2	38.7	13.9	7.2	5.9	.0	2.6	3.4	.0	100.0
■ 지식인	(268)	33.7	35.0	14.2	6.1	5.2	.7	1.8	.7	2.4	100.0
■ 지식인	(228)	35.6	33.3	16.6	10.9	4.7	1.7	1.8	1.7	2.6	100.0
■ 지식인	(245)	37.9	30.2	14.9	3.7	7.4	.8	3.3	1.1	.0	100.0
■ 지식인	(109)	31.3	29.3	18.4	7.4	8.9	2.9	1.8	.0	.0	100.0

【 표 3 】 안철수 후보 사퇴를 통한 야권 단일화

[문 2] 선생님께서는 지난 11월 23일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전격 사퇴했는데요. 안 후보의 사퇴를 통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모름/답	*긍정	*부정	계
		%	%	%	%	%	%	%	
■ 전 체 ■	(1500)	10.1	35.1	36.0	10.9	7.9	45.3	46.8	100.0
■ 남성	(742)	11.3	35.6	34.6	12.9	5.5	47.0	47.6	100.0
■ 여성	(758)	8.9	34.6	37.3	8.8	10.3	43.6	46.1	100.0
■ 연령	(278)	5.1	45.2	38.9	6.9	3.9	50.3	45.8	100.0
■ 19-29세	(307)	10.9	35.8	37.2	9.8	6.2	46.8	47.0	100.0
■ 30-39세	(331)	14.2	37.0	32.4	9.1	7.4	51.2	41.5	100.0
■ 40-49세	(282)	10.3	33.7	35.2	14.4	8.4	44.0	47.6	100.0
■ 50-59세	(302)	9.3	24.4	38.6	14.2	13.5	33.7	52.8	100.0
■ 지역	(311)	13.0	32.8	35.5	11.2	7.6	45.7	46.7	100.0
■ 서울	(428)	9.3	33.8	37.6	10.8	8.4	43.1	48.4	100.0
■ 경기	(152)	6.9	40.6	32.1	13.6	6.9	47.5	45.6	100.0
■ 충청	(153)	17.6	49.7	23.3	3.9	5.6	67.3	27.1	100.0
■ 강원	(155)	6.5	28.6	39.9	17.8	7.2	35.1	57.8	100.0
■ 경북	(239)	6.8	34.1	42.2	7.6	9.3	40.9	49.8	100.0
■ 경남	(62)	12.7	27.2	34.3	14.6	11.2	40.0	48.9	100.0
■ 학력	(223)	11.3	27.7	33.6	9.7	17.7	39.0	43.3	100.0
■ 고졸	(513)	8.5	33.7	39.4	10.6	7.8	42.2	50.0	100.0
■ 대졸	(741)	11.1	38.6	34.4	11.5	4.5	49.6	45.9	100.0
■ 모름/무응답	(22)	3.7	28.0	33.6	7.6	27.1	31.7	41.2	100.0
■ 직업	(57)	9.6	37.3	37.2	8.9	6.9	46.9	46.1	100.0
■ 농업	(246)	10.1	31.2	37.5	15.8	5.4	41.3	53.4	100.0
■ 자영업	(150)	12.6	38.3	31.8	9.6	7.8	50.9	41.3	100.0
■ 이직	(416)	12.1	39.0	33.9	9.3	5.7	51.1	43.1	100.0
■ 가정주부	(344)	8.7	31.1	37.2	9.3	13.8	39.8	46.5	100.0
■ 학부	(144)	4.1	42.5	39.1	10.1	4.2	46.7	49.2	100.0
■ 무직	(138)	10.7	29.9	38.2	13.4	7.9	40.6	51.6	100.0
■ 모름/무응답	(5)	30.9	0	14.8	17.0	37.3	30.9	31.8	100.0
■ 소득	(349)	11.3	31.9	32.0	11.6	13.2	43.2	43.6	100.0
■ 200만 이하	(252)	11.6	29.3	39.7	11.2	8.1	40.9	50.9	100.0
■ 300만 이상	(262)	8.7	37.6	37.5	11.5	4.7	46.3	49.0	100.0
■ 400만 이상	(204)	12.1	41.2	32.0	9.1	5.6	53.3	41.1	100.0
■ 500만 이상	(282)	9.2	38.6	35.8	12.0	4.3	47.8	47.8	100.0
■ 모름/무응답	(151)	6.2	33.4	42.0	7.6	10.9	39.6	49.5	100.0
■ 정당 지지	(553)	4.5	20.9	44.7	20.5	9.3	25.4	65.2	100.0
■ 새누리당	(384)	22.0	51.7	20.2	3.4	2.7	73.7	23.6	100.0
■ 민주노동당	(17)	34.9	37.8	23.3	6.0	0	72.7	27.3	100.0
■ 기타	(8)	16.6	56.0	27.5	0	0	72.5	27.5	100.0
■ 모름/무응답	(1)	6.0	0	100.0	0	0	100.0	0	100.0
■ 정당 지지	(458)	6.1	38.5	39.3	6.8	9.3	44.6	46.1	100.0
■ 모름/무응답	(80)	9.0	32.7	35.4	5.4	17.5	41.7	40.8	100.0
■ 이념	(472)	7.2	25.7	41.5	17.0	8.5	32.9	58.5	100.0
■ 중도우파	(545)	8.3	34.5	40.6	9.7	6.8	42.9	50.4	100.0
■ 진보	(392)	16.3	48.3	25.3	5.3	4.8	64.6	30.6	100.0
■ 모름/무응답	(91)	9.5	30.7	25.0	9.7	25.1	40.2	34.7	100.0
■ 정치	(231)	8.7	25.4	39.2	18.7	8.0	34.0	57.9	100.0
■ 보수	(555)	9.2	32.1	37.0	10.1	11.6	41.3	47.1	100.0
■ 개혁	(59)	7.6	32.4	50.4	6.8	2.8	40.0	57.2	100.0
■ 인본	(540)	11.9	39.9	34.0	4.4	4.9	51.8	43.3	100.0
■ 대안	(15)	13.7	62.3	11.1	5.3	7.6	76.0	16.4	100.0
■ 모름/무응답	(86)	8.5	50.0	29.4	8.4	3.8	58.4	37.8	100.0
■ 모름/무응답	(14)	19.7	20.6	26.6	6.4	26.7	40.3	33.0	100.0
■ 투표	(1300)	11.2	35.3	35.0	10.6	7.9	46.5	45.6	100.0
■ 찬성	(155)	3.6	33.6	41.2	11.0	10.6	37.2	52.2	100.0
■ 반대	(36)	2.8	26.9	53.5	16.9	0	29.7	70.3	100.0
■ 모름/무응답	(9)	0	64.4	11.7	23.9	0	64.4	35.6	100.0
■ 대선 후보	(669)	4.5	21.2	46.7	18.8	8.8	25.7	65.6	100.0
■ 김대중	(519)	20.6	55.5	18.8	2.3	2.8	76.1	21.1	100.0
■ 노무현	(9)	9.5	21.8	68.7	0	0	31.3	68.7	100.0
■ 이명박	(154)	2.7	36.2	39.8	7.7	13.6	38.9	47.5	100.0
■ 모름/무응답	(150)	6.5	26.6	41.7	8.7	16.5	33.1	50.4	100.0
■ 지지	(221)	12.3	38.2	32.1	9.9	7.5	50.5	42.0	100.0
■ 안철수	(195)	9.1	30.3	41.7	12.2	6.6	39.5	53.9	100.0
■ 박근혜	(235)	7.4	34.3	35.9	13.8	8.7	41.7	49.6	100.0
■ 문재인	(268)	16.6	44.5	30.0	4.5	4.3	61.2	34.5	100.0
■ 모름/무응답	(226)	6.3	31.0	38.0	15.0	9.7	37.3	53.0	100.0
■ 지지	(245)	8.0	32.7	41.3	9.4	8.5	40.8	50.7	100.0
■ 모름/무응답	(109)	9.7	30.4	32.3	14.2	13.4	40.1	46.5	100.0

【 표 4 】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 횟수 충분성

[문 3] 선생님께서는 현재 총 4회로 되어 있는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충분하다	부족하다	무응답/합	계
		%	%		
■ 전 체 ■	(1500)	63.3	30.0	6.7	100.0
■ 성 별 ■	(742)	63.2	32.6	4.2	100.0
■ 연 령 ■	(758)	63.4	27.5	9.1	100.0
■ 19-29세	(278)	63.4	34.1	2.5	100.0
■ 30-39세	(307)	58.5	38.4	3.0	100.0
■ 40-49세	(331)	57.9	36.2	5.9	100.0
■ 50-59세	(282)	67.5	25.2	7.4	100.0
■ 60대 이상	(302)	70.2	15.5	14.3	100.0
■ 지 역 ■	(311)	62.1	32.1	5.8	100.0
■ 서울	(428)	63.6	31.3	5.1	100.0
■ 경기	(152)	53.9	38.4	7.8	100.0
■ 충청	(153)	62.3	28.1	9.6	100.0
■ 전북	(155)	68.9	24.4	6.6	100.0
■ 전남	(239)	65.5	26.4	8.1	100.0
■ 경북	(62)	70.3	23.2	6.5	100.0
■ 학 령 ■	(223)	65.2	15.3	19.5	100.0
■ 초·중·고	(513)	66.6	26.9	6.3	100.0
■ 대·대학원	(741)	60.7	36.7	2.7	100.0
■ 모름/무응답	(22)	53.4	27.1	19.5	100.0
■ 직 업 ■	(57)	73.5	16.8	9.7	100.0
■ /영양사	(246)	62.2	32.7	5.1	100.0
■ /주방장	(150)	62.1	33.0	4.8	100.0
■ 이점주	(416)	57.3	39.3	3.4	100.0
■ 학원강사	(344)	67.8	20.3	12.0	100.0
■ 전무	(144)	65.9	32.5	1.6	100.0
■ 모름/무응답	(138)	67.1	22.0	10.9	100.0
■ (5)	(5)	50.8	15.5	33.7	100.0
■ 수 준 ■	(349)	60.7	25.8	13.4	100.0
■ 200만원 이하	(252)	68.3	27.6	4.1	100.0
■ 201-300만원	(262)	62.8	32.5	4.7	100.0
■ 301-400만원	(204)	61.6	32.7	5.7	100.0
■ 401-500만원	(282)	60.3	36.6	3.1	100.0
■ 501만원 이상	(151)	69.8	23.6	6.6	100.0
■ 정 당 ■	(553)	72.0	22.2	5.8	100.0
■ 새누리당	(384)	58.1	38.1	3.7	100.0
■ 민주통합당	(17)	68.6	25.7	5.7	100.0
■ 기타	(8)	42.6	57.4	.0	100.0
■ 모름/무응답	(458)	57.7	33.6	8.7	100.0
■ (80)	(80)	62.0	22.3	15.7	100.0
■ 이 성 ■	(472)	70.3	23.9	5.8	100.0
■ 남성	(545)	62.2	31.9	5.9	100.0
■ 여성	(392)	57.4	38.9	3.7	100.0
■ 모름/무응답	(91)	59.5	12.5	28.0	100.0
■ 정 보 소 득 ■	(231)	68.2	27.3	4.5	100.0
■ 100만원 이하	(555)	67.6	21.4	10.8	100.0
■ 101-200만원	(59)	66.1	24.8	9.1	100.0
■ 201-300만원	(540)	59.2	37.7	3.1	100.0
■ 301-400만원	(15)	66.0	28.7	5.3	100.0
■ 400만원 이상	(86)	45.9	51.4	2.6	100.0
■ 모름/무응답	(14)	52.8	16.1	31.1	100.0
■ 투 표 의 향 ■	(1300)	64.1	29.4	6.5	100.0
■ 김대중	(155)	58.5	32.8	8.6	100.0
■ 노무현	(36)	60.7	33.6	5.7	100.0
■ 이명박	(9)	44.9	55.1	.0	100.0
■ 모름/무응답	(9)	44.9	55.1	.0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도 ■	(669)	70.5	22.6	6.9	100.0
■ 박근혜	(519)	55.1	40.4	4.5	100.0
■ 김대중	(9)	66.3	33.7	.0	100.0
■ 기타	(154)	57.1	32.7	10.2	100.0
■ 모름/무응답	(150)	65.5	24.3	10.1	100.0
■ 고 령 ■	(221)	56.6	38.1	5.3	100.0
■ 19세 이하	(195)	68.2	24.4	7.4	100.0
■ 20-29세	(235)	63.2	29.9	6.9	100.0
■ 30-39세	(268)	62.6	29.2	7.9	100.0
■ 40-49세	(228)	67.0	25.8	7.2	100.0
■ 50-59세	(245)	63.7	30.2	6.1	100.0
■ 60대 이상	(109)	61.2	34.2	4.6	100.0

【 표 5 】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TV 토론회 횟수

	사례수	[문 3-1] (부족하다면) 몇 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								계	*평균*
		5	6	7	8	9	10	20	무응답/답		
		%	%	%	%	%	%	%	%		
전체	(450)	29.6	28.8	11.7	8.7	.2	12.3	.6	8.0	100.0	6.63
연령	(242) (208)	25.1 34.7	27.3 30.7	13.7 9.3	10.4 6.7	.5 .0	16.6 7.4	1.2 .0	5.3 11.2	100.0 100.0	6.99 6.20
성별	(95) (118) (120) (71) (47)	31.4 22.7 31.3 35.9 28.9	25.3 30.2 32.1 22.3 34.1	10.4 14.1 10.7 15.2 5.1	12.9 10.6 5.0 8.4 5.5	1.2 .0 .0 .0 .0	13.7 16.2 11.2 10.7 5.1	.0 .0 .8 .0 .0	5.1 6.2 8.9 4.8 21.3	100.0 100.0 100.0 100.0 100.0	6.67 6.83 6.49 6.80 6.10
지역	(100) (134) (58) (43) (38) (63) (14)	33.4 29.1 25.8 35.3 29.2 23.8 31.3	25.3 26.7 31.7 23.6 33.4 38.2 24.4	10.0 13.1 14.4 8.3 13.9 10.4 8.4	6.4 9.5 9.3 12.0 .0 13.5 7.0	1.1 .0 .0 .0 .0 .0 .0	15.1 12.4 12.6 9.5 13.0 9.3 11.6	.9 .0 1.6 .0 2.5 .0 .0	7.8 9.2 4.6 11.2 8.1 4.7 1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72 6.58 6.84 6.39 6.78 6.53 6.45
교육수준	(34) (138) (272) (6)	25.4 30.9 30.1 .0	36.2 28.2 27.7 52.7	8.9 13.1 11.5 .0	10.6 7.9 9.1 .0	.0 .0 .4 .0	5.7 11.2 13.3 33.7	.0 .0 1.0 .0	13.3 8.7 6.9 13.6	100.0 100.0 100.0 100.0	6.32 6.47 6.73 7.56
직업	(10) (80) (49) (63) (70) (47) (30) (1)	19.2 27.8 24.8 27.5 39.2 35.0 26.4 .0	33.1 26.9 31.0 27.0 30.2 25.7 41.6 .0	8.5 12.4 16.3 12.8 9.5 8.5 7.1 .0	.0 11.6 8.8 10.4 2.7 10.4 5.9 .0	.0 .0 .0 .0 .0 .0 .0 .0	10.5 14.8 17.6 12.7 6.7 12.8 8.4 .0	.0 .0 .0 1.7 .0 .0 .0 .0	28.7 6.5 1.5 7.9 11.6 5.3 1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44 6.72 6.81 6.88 6.03 6.55 6.29 .
소득수준	(90) (70) (85) (67) (103) (36)	31.1 35.5 28.6 32.2 24.8 25.2	32.3 28.2 24.9 26.3 29.3 34.4	7.2 12.9 10.4 16.2 12.7 12.0	8.3 6.1 5.8 9.1 13.7 6.5	.0 .0 .0 .0 .0 .0	11.1 10.7 19.1 7.2 12.6 11.5	.0 .0 1.1 .0 1.8 .0	10.0 6.7 10.0 7.3 5.2 1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41 6.35 6.95 6.39 6.96 6.51
정치적관심	(123) (146) (4) (4) (1) (154) (18)	27.2 28.1 22.4 49.5 31.6 38.5	39.3 22.4 .0 100.0 27.2 34.6	11.8 12.2 .0 .0 13.2 .0	4.4 11.1 54.3 28.9 8.5 5.2	.9 .0 .0 .0 .0 .0	8.7 16.8 23.4 21.6 10.6 11.5	.0 1.3 .0 .0 .6 .0	7.7 8.2 .0 .0 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34 7.00 7.80 6.95 6.00 6.54 6.20
인간관계	(113) (174) (153) (11)	22.1 35.2 28.9 27.2	41.6 29.6 18.6 28.7	9.5 12.1 12.4 16.9	5.8 8.4 11.9 .0	1.0 .0 .0 .0	8.8 8.0 19.4 18.5	.0 .0 1.8 .0	11.1 6.9 7.0 8.8	100.0 100.0 100.0 100.0	6.42 6.27 7.19 6.70
정치적참여	(63) (119) (15) (204) (4) (44) (2)	29.8 29.4 21.8 28.0 39.1 37.5 48.4	31.8 33.9 33.3 26.2 16.1 24.6 .0	10.1 10.0 11.8 12.1 44.8 13.7 .0	6.7 7.7 6.9 10.5 .0 8.0 .0	1.8 .0 .0 .0 .0 .0 .0	10.3 7.6 13.0 16.4 .0 8.2 51.6	.0 .0 .0 1.4 .0 .0 .0	9.5 11.3 13.2 5.5 .0 8.1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44 6.30 6.64 6.95 6.06 6.27 7.58
투표참여	(383) (51) (12) (5)	28.6 34.9 39.9 24.5	27.0 36.8 35.9 75.5	12.8 5.6 6.8 .0	9.0 9.7 .0 .0	.3 .0 .0 .0	13.1 8.7 9.1 .0	.7 .0 .0 .0	8.6 4.3 8.3 .0	100.0 100.0 100.0 100.0	6.72 6.26 6.04 5.75
대선후보지지도	(151) (210) (3) (50) (36)	28.9 29.0 37.3 28.8 36.3	36.5 21.1 30.7 32.0 37.0	10.7 13.1 32.0 14.2 2.0	6.8 10.7 .0 6.9 8.2	.7 .0 .0 .0 .0	7.7 17.6 .0 11.6 3.2	.6 .9 .0 .0 .0	8.1 7.5 .0 6.5 13.2	100.0 100.0 100.0 100.0 100.0	6.40 6.96 5.95 6.49 5.94
정치적참여	(84) (48) (70) (78) (59) (74) (37)	31.3 38.2 30.0 27.6 31.1 23.0 28.4	33.3 25.0 23.0 24.0 27.3 36.9 31.6	11.6 9.2 16.8 13.9 13.8 8.6 3.2	6.6 13.4 7.4 9.1 5.8 13.3 9.5	.0 .0 .0 .0 .0 .0 .0	7.7 7.3 .0 16.3 13.2 	1.1 .0 1.3 .0 1.6 .0 .0	8.4 4.6 9.4 9.1 10.3 4.9 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44 6.36 6.76 6.77 6.71 6.69 6.71

【 표 6 】 군소정당 후보 합동 TV 토론회 횟수 충분성

[문 4] 그러면 군소정당 후보들을 위한 1회의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충분하다	부족하다	모름/응답	계
		%	%		
■ 전 체 ■	(1500)	56.2	35.6	8.2	100.0
■ 남성	(742)	58.9	34.8	6.4	100.0
■ 여성	(758)	53.6	36.4	10.0	100.0
■ 19-29세	(278)	53.5	43.0	3.5	100.0
■ 30-39세	(307)	52.7	44.3	3.1	100.0
■ 40-49세	(331)	49.6	40.7	9.7	100.0
■ 50-59세	(282)	65.9	26.5	7.6	100.0
■ 60세 이상	(302)	60.5	22.8	16.6	100.0
■ 지식인	(311)	58.4	35.1	6.5	100.0
■ 일반인	(428)	51.8	39.8	8.4	100.0
■ 대졸	(152)	60.7	33.4	6.0	100.0
■ 고졸	(153)	58.5	31.4	10.0	100.0
■ 대졸 이하	(155)	61.3	32.1	6.5	100.0
■ 부	(239)	54.3	34.8	10.9	100.0
■ 없음	(62)	53.4	36.7	9.9	100.0
■ 환경	(223)	60.3	23.3	16.4	100.0
■ 고소득	(513)	56.8	35.0	8.2	100.0
■ 대재무	(741)	54.8	39.7	5.5	100.0
■ 모름/응답	(22)	48.8	36.5	14.8	100.0
■ 직종	(57)	68.2	20.3	11.4	100.0
■ 자영업	(246)	58.0	33.8	8.1	100.0
■ 이직	(150)	47.4	46.9	5.7	100.0
■ 학부	(416)	54.1	41.0	4.8	100.0
■ 학부	(344)	58.7	30.4	10.9	100.0
■ 모름/응답	(144)	53.9	41.9	4.2	100.0
■ 모름/응답	(138)	59.7	23.5	16.8	100.0
■ 모름/응답	(5)	62.7	20.6	16.7	100.0
■ 소득	(349)	58.8	27.8	13.4	100.0
■ 200만 이하	(252)	57.0	36.7	6.4	100.0
■ 201-300만	(262)	52.2	42.5	5.3	100.0
■ 301-400만	(204)	55.6	37.7	6.8	100.0
■ 401-500만	(282)	56.9	38.2	4.9	100.0
■ 501만 이상	(151)	55.5	32.3	12.1	100.0
■ 정치	(553)	62.7	28.7	8.6	100.0
■ 새당	(384)	54.0	39.8	6.2	100.0
■ 지지	(17)	59.4	35.3	5.3	100.0
■ 지지	(8)	48.7	38.2	13.1	100.0
■ 지지	(1)	50.0	100.0	.0	100.0
■ 지지	(458)	50.2	41.8	8.1	100.0
■ 지지	(80)	57.0	26.7	16.3	100.0
■ 이념	(472)	64.8	27.5	7.7	100.0
■ 중도	(545)	52.9	39.6	7.5	100.0
■ 중도	(392)	52.4	43.0	4.6	100.0
■ 중도	(91)	47.9	22.0	30.1	100.0
■ 정보	(231)	60.5	30.5	9.0	100.0
■ 신기술	(555)	59.1	29.4	11.5	100.0
■ 케이를	(59)	59.6	30.9	9.5	100.0
■ 케이를	(540)	53.2	42.6	4.2	100.0
■ 케이를	(15)	39.1	55.5	5.3	100.0
■ 케이를	(86)	46.3	48.8	5.0	100.0
■ 케이를	(14)	52.7	15.2	32.1	100.0
■ 투표	(1300)	57.7	33.4	8.8	100.0
■ 투표	(155)	46.3	50.6	3.2	100.0
■ 투표	(36)	45.9	49.2	4.9	100.0
■ 투표	(9)	48.7	37.8	13.5	100.0
■ 대선	(669)	61.1	29.2	9.7	100.0
■ 후보	(519)	52.5	41.7	5.8	100.0
■ 후보	(9)	67.6	32.4	.0	100.0
■ 후보	(154)	46.0	47.6	6.4	100.0
■ 후보	(150)	57.1	30.8	12.2	100.0
■ 고	(221)	55.1	36.5	8.4	100.0
■ 지	(195)	56.2	36.5	7.3	100.0
■ 지	(235)	57.6	34.5	7.9	100.0
■ 지	(268)	56.9	35.1	8.0	100.0
■ 지	(228)	58.7	34.6	6.8	100.0
■ 지	(245)	56.9	34.7	6.4	100.0
■ 지	(109)	47.0	40.0	13.0	100.0

【 표 7 】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TV 토론회 횟수(군소정당)

	사례수	[문 4-1] (부족하다면) 몇 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									계	*평균*
		2	3	4	5	6	7	8	10	모름/무응답		
		%	%	%	%	%	%	%	%	%		
■ 전 체 ■	(534)	38.0	36.7	10.3	8.8	1.8	.2	.9	1.6	1.8	100.0	3.12
■ 여성 ■	(258) (276)	33.5 42.2	40.0 33.6	7.7 12.7	10.8 6.9	2.2 1.4	.5 .0	1.0 .8	3.3 .0	1.2 2.4	100.0	3.32 2.92
■ 연령 19-29세	(120)	37.2	31.8	9.8	13.1	2.0	.0	2.1	4.0	.0	100.0	3.43
■ 30-39세	(136)	31.0	42.0	11.8	9.1	2.6	.9	.9	.0	1.8	100.0	3.15
■ 40-49세	(135)	38.5	38.2	7.9	7.8	2.1	.0	.8	2.7	2.2	100.0	3.14
■ 50-59세	(75)	39.7	31.4	16.4	10.2	.0	.0	.0	.0	2.2	100.0	2.97
■ 60대 이상	(69)	50.1	37.5	6.2	1.1	1.2	.0	.0	.0	3.9	100.0	2.60
■ 지식인	(109)	33.0	38.7	9.6	10.0	3.5	.0	.0	2.5	2.8	100.0	3.25
■ 대학졸	(170)	39.5	34.1	11.8	9.4	7.7	.7	1.3	7.7	1.8	100.0	3.07
■ 대학원졸	(51)	26.8	39.5	15.6	6.3	4.5	.0	2.7	4.6	.0	100.0	3.60
■ 전문대졸	(48)	45.5	37.6	6.4	6.5	.0	.0	.0	2.1	1.9	100.0	2.88
■ 고졸	(50)	39.5	33.0	8.5	14.7	.0	.0	.0	2.3	1.9	100.0	3.15
■ 중졸	(83)	41.4	42.5	4.9	5.0	2.8	.0	1.3	.0	2.1	100.0	2.88
■ 고졸 이하	(23)	43.4	24.8	21.9	9.9	.0	.0	.0	.0	.0	100.0	2.98
■ 학력 미지	(52)	47.1	30.0	9.5	8.1	.0	.0	.0	1.9	3.3	100.0	2.92
■ 고졸 이하	(180)	32.2	43.0	9.5	8.3	2.9	.0	.6	1.4	2.1	100.0	3.16
■ 모름/무응답	(294)	39.0	34.5	10.9	9.4	1.5	.4	1.2	1.7	1.4	100.0	3.15
■ 모름/무응답	(8)	69.7	20.3	10.0	.0	.0	.0	.0	.0	.0	100.0	2.40
■ 직업	(12)	35.5	50.1	5.8	.0	.0	.0	.0	8.6	.0	100.0	3.31
■ 자영업자	(83)	42.4	34.2	10.0	9.9	1.0	.0	1.3	.0	1.2	100.0	2.97
■ 일반직	(70)	31.7	40.0	11.5	5.9	3.5	1.7	.0	3.1	2.6	100.0	3.31
■ 공무원	(171)	37.5	35.3	11.1	8.0	2.0	.0	2.1	2.4	1.7	100.0	3.23
■ 학과	(105)	36.5	43.1	12.4	5.2	1.8	.0	.0	.0	1.0	100.0	2.92
■ 모름/무응답	(60)	35.4	30.6	9.9	20.4	1.7	.0	.0	1.9	.0	100.0	3.34
■ 모름/무응답	(32)	50.9	30.2	.0	9.2	.0	.0	.0	.0	9.7	100.0	2.64
■ 모름/무응답	(1)	100.0	.0	.0	.0	.0	.0	.0	.0	.0	100.0	2.00
■ 소득	(97)	34.3	38.1	12.2	8.8	1.3	.0	.0	2.4	2.8	100.0	3.17
■ 200만원 이하	(93)	35.8	37.6	8.3	13.3	1.5	1.3	.0	.0	2.2	100.0	3.09
■ 301-400만원	(111)	34.0	38.3	7.8	11.1	1.7	.0	2.0	3.4	1.7	100.0	3.36
■ 401-500만원	(77)	38.9	44.8	10.9	4.4	1.1	.0	.0	.0	.0	100.0	2.84
■ 501만원 이상	(108)	41.3	31.1	11.0	8.6	3.9	.0	2.3	1.0	.7	100.0	3.18
■ 모름/무응답	(49)	49.8	27.8	13.0	2.1	.0	.0	.0	2.4	4.9	100.0	2.83
■ 정치참여	(159)	41.4	37.2	9.1	9.2	1.8	.0	.0	.5	.9	100.0	2.95
■ 지지	(153)	37.9	38.8	6.8	9.3	.7	.8	1.7	3.5	.6	100.0	3.25
■ 지지 않음	(6)	30.4	53.3	16.2	.0	.0	.0	.0	.0	.0	100.0	2.86
■ 정치참여	(3)	29.9	32.4	.0	.0	.0	.0	.0	.0	37.7	100.0	2.52
■ 정치참여	(1)	.0	.0	100.0	.0	.0	.0	.0	.0	.0	100.0	4.00
■ 모름/무응답	(191)	36.1	35.4	11.9	9.5	3.0	.0	1.1	1.2	1.9	100.0	3.18
■ 모름/무응답	(21)	35.3	26.6	25.1	.0	.0	.0	.0	.0	13.0	100.0	2.88
■ 이념	(130)	47.0	32.8	8.9	5.9	2.2	.0	.0	.6	2.4	100.0	2.85
■ 진보	(216)	37.6	37.4	13.6	7.4	1.7	.0	.6	.0	1.7	100.0	2.99
■ 보수	(169)	31.9	38.7	7.2	12.0	1.8	.7	2.0	4.5	1.2	100.0	3.50
■ 모름/무응답	(20)	35.4	36.2	8.6	15.5	.0	.0	.0	.0	4.3	100.0	3.04
■ 정보습득	(71)	44.9	34.9	6.2	9.0	2.3	.0	.0	1.4	1.2	100.0	2.96
■ 지식습득	(163)	45.4	33.9	9.1	4.9	1.9	.0	.6	.0	4.2	100.0	2.82
■ 케이블	(18)	29.1	47.3	19.6	4.0	.0	.0	.0	.0	.0	100.0	2.96
■ 인터넷	(230)	32.9	38.0	10.3	11.6	2.1	.5	1.1	2.7	.9	100.0	3.34
■ 라디오	(9)	19.2	71.1	.0	9.6	.0	.0	.0	.0	.0	100.0	3.00
■ 휴대전화	(42)	32.5	31.0	20.4	10.4	.0	.0	2.8	2.9	.0	100.0	3.43
■ 모름/무응답	(2)	48.7	51.3	.0	.0	.0	.0	.0	.0	.0	100.0	2.51
■ 투표	(435)	37.2	37.5	10.6	10.0	1.1	.3	.8	1.7	.9	100.0	3.14
■ 투표	(78)	41.7	32.8	8.1	2.7	4.2	.0	1.4	1.5	7.6	100.0	3.02
■ 투표	(18)	35.9	41.5	7.1	7.7	7.7	.0	.0	.0	.0	100.0	3.10
■ 모름/무응답	(3)	69.0	.0	31.0	.0	.0	.0	.0	.0	.0	100.0	2.62
■ 대선	(195)	43.9	34.1	10.5	7.8	2.1	.0	.0	.4	1.2	100.0	2.91
■ 후보	(217)	35.6	40.2	7.4	10.1	.5	.5	1.7	3.5	.4	100.0	3.29
■ 기탁	(3)	.0	29.2	32.0	.0	.0	.0	.0	.0	38.8	100.0	3.52
■ 모름/무응답	(73)	36.8	31.1	13.7	10.0	6.0	.0	.0	.0	2.4	100.0	3.15
■ 모름/무응답	(46)	27.9	40.2	15.9	5.5	.0	.0	2.4	.0	8.1	100.0	3.12
■ 고서	(81)	25.9	49.2	9.7	7.4	4.7	.0	.0	1.4	1.7	100.0	3.23
■ 인대	(71)	39.0	31.4	15.8	8.8	.0	1.6	1.6	1.7	.0	100.0	3.21
■ 대	(81)	39.8	39.3	8.7	6.2	.0	.0	1.3	1.2	3.4	100.0	2.96
■ 부	(94)	35.9	39.7	9.5	7.8	3.7	.0	.0	2.5	1.0	100.0	3.18
■ 부	(79)	42.8	30.7	9.3	10.8	1.3	.0	.0	1.5	3.6	100.0	3.02
■ 부	(85)	46.1	35.2	7.6	6.2	1.5	.0	1.3	1.0	1.1	100.0	2.92
■ 모름/무응답	(44)	35.3	24.3	13.8	19.5	.0	.0	3.1	1.9	2.0	100.0	3.47

【 표 8 】 공중파 방송을 통한 TV 토론회 필요성

[문 5] 선생님께서는 공중파 방송을 통한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반대합니다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필요없습니다	전혀필요 없습니다	무응답/합	*필요	*불필요	계
		%	%	%	%				
■ 전 체 ■	(1500)	63.3	30.1	4.8	.5	1.3	93.4	5.3	100.0
■ 남성	(742)	67.8	26.6	4.6	.8	.2	94.4	5.4	100.0
■ 여성	(758)	58.9	33.5	5.1	.1	2.3	92.5	5.2	100.0
■ 연령	(278)	62.2	35.3	2.1	.4	.0	97.5	2.5	100.0
■ 19-29세	(307)	67.8	28.6	3.3	.0	.3	96.4	3.3	100.0
■ 30-39세	(331)	64.0	31.0	4.2	.2	.6	95.0	4.4	100.0
■ 40-49세	(282)	64.8	27.0	6.9	1.0	.3	91.8	7.9	100.0
■ 50-59세	(302)	57.7	28.8	7.7	.8	5.1	86.5	8.5	100.0
■ 60대 이상	(278)	62.2	35.3	2.1	.4	.0	97.5	2.5	100.0
■ 지역	(311)	65.0	27.2	6.4	.8	.5	92.2	7.2	100.0
■ 서울	(428)	64.3	30.9	3.7	.4	.8	95.2	4.0	100.0
■ 경기	(152)	61.1	31.5	6.2	.0	1.2	92.6	6.2	100.0
■ 충청	(153)	68.2	24.9	4.0	.6	2.4	93.1	4.6	100.0
■ 강원	(155)	63.3	30.5	3.9	1.2	1.2	93.7	5.1	100.0
■ 경북	(239)	61.3	31.7	4.8	.0	2.2	93.0	4.8	100.0
■ 경남	(62)	49.4	41.8	6.3	.0	2.5	91.2	6.3	100.0
■ 학력	(223)	51.5	32.7	8.1	.8	7.0	84.2	8.9	100.0
■ 중졸	(513)	58.6	35.5	5.0	.3	.6	94.1	5.3	100.0
■ 고졸	(741)	70.0	25.8	3.7	.5	.1	95.8	4.1	100.0
■ 대졸	(22)	68.5	24.0	7.5	.0	.0	92.5	7.5	100.0
■ 직업	(57)	62.9	29.1	4.7	.0	3.3	92.1	4.7	100.0
■ 농림어업	(246)	69.2	24.2	5.6	.6	.3	93.4	6.3	100.0
■ 제조업	(150)	53.9	40.9	3.9	1.3	.0	94.9	5.1	100.0
■ 서비스업	(416)	71.8	26.0	2.2	.0	.0	97.8	2.2	100.0
■ 기타	(344)	53.0	36.3	7.9	.0	2.8	89.3	7.9	100.0
■ 학부	(144)	61.8	34.3	2.9	.7	.0	96.0	4.0	100.0
■ 학부	(138)	63.4	23.3	6.6	1.8	4.9	86.7	8.4	100.0
■ 학부	(5)	100.0	.0	.0	.0	.0	100.0	.0	100.0
■ 소득	(349)	55.6	33.3	6.6	.3	4.3	88.8	6.8	100.0
■ 200만 원 미만	(252)	61.5	32.1	5.2	.6	.6	93.5	5.8	100.0
■ 201-300만 원	(262)	65.7	29.1	4.9	.3	.0	94.7	5.3	100.0
■ 301-400만 원	(204)	67.9	29.6	2.0	.5	.0	97.5	2.5	100.0
■ 401-500만 원	(282)	70.6	25.7	3.1	.3	.3	96.3	3.4	100.0
■ 501만 원 이상	(151)	60.5	30.2	6.9	1.3	1.2	90.7	8.2	100.0
■ 정치참여	(553)	58.4	33.1	6.7	.7	1.2	91.4	7.4	100.0
■ 정치참여	(384)	70.6	26.2	2.5	.0	.7	96.8	2.5	100.0
■ 정치참여	(17)	63.1	36.9	0.0	.0	.0	100.0	.0	100.0
■ 정치참여	(8)	65.3	18.1	16.6	.0	.0	83.4	16.6	100.0
■ 정치참여	(1)	100.0	.0	.0	.0	.0	100.0	.0	100.0
■ 정치참여	(458)	64.7	29.6	3.5	.6	1.6	94.3	4.1	100.0
■ 정치참여	(80)	54.1	31.5	10.3	1.0	3.0	85.6	11.4	100.0
■ 이념	(472)	61.4	30.5	6.8	1.0	.4	91.9	7.7	100.0
■ 중도	(545)	61.7	32.5	4.3	.2	1.3	94.2	4.4	100.0
■ 진보	(392)	72.0	25.3	2.6	.2	.0	97.2	2.8	100.0
■ 보수	(91)	45.7	34.4	7.9	.8	11.2	80.0	8.8	100.0
■ 정보수용	(231)	66.5	23.6	8.1	.3	1.4	90.1	8.5	100.0
■ 신상	(555)	56.7	35.0	5.5	.5	2.4	91.7	6.0	100.0
■ 케일	(59)	65.4	29.7	4.9	.0	.0	95.1	4.9	100.0
■ 안	(540)	68.6	28.2	2.6	.5	.2	96.8	3.1	100.0
■ 관	(15)	62.3	26.7	11.0	.0	.0	89.0	11.0	100.0
■ 후	(86)	64.6	32.3	3.1	.0	.0	96.9	3.1	100.0
■ 대	(14)	54.3	11.9	15.0	6.7	12.1	66.2	21.7	100.0
■ 투표표지	(1300)	64.1	29.3	4.7	.5	1.3	93.4	5.3	100.0
■ 투표표지	(155)	59.6	33.8	5.4	.0	1.3	93.3	5.4	100.0
■ 투표표지	(36)	54.7	40.9	4.4	.0	.0	95.6	4.4	100.0
■ 투표표지	(9)	49.4	38.9	11.7	.0	.0	88.3	11.7	100.0
■ 대선후보	(669)	56.1	34.7	6.7	.9	1.5	90.8	7.6	100.0
■ 유권	(519)	72.1	24.7	2.7	.0	.5	96.8	2.7	100.0
■ 기	(9)	75.7	24.3	.0	.0	.0	100.0	.0	100.0
■ 없	(154)	65.3	29.3	3.6	.5	1.3	94.6	4.1	100.0
■ 투표	(150)	62.4	29.3	5.5	.0	2.8	91.7	5.5	100.0
■ 거주	(221)	65.9	29.6	3.3	.8	.4	95.6	4.1	100.0
■ 서울	(195)	56.2	36.8	6.5	.0	.4	93.1	6.5	100.0
■ 경기	(235)	59.1	30.3	8.7	.3	1.5	89.4	9.0	100.0
■ 충청	(268)	69.0	25.7	3.4	.3	1.7	94.6	3.7	100.0
■ 강원	(228)	64.4	30.0	3.7	.4	1.5	94.4	4.1	100.0
■ 경북	(245)	65.1	30.1	3.1	.3	1.4	95.1	3.5	100.0
■ 경남	(109)	59.6	30.0	6.5	1.6	2.2	89.7	8.1	100.0

【 표 9 】 TV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

[문 6] 선생님께서는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선거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효과적이다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무응답/합	*효과	*비효과	계
		%	%	%	%				
■ 전 체 ■	(1500)	35.3	56.3	6.1	.7	1.6	91.6	6.8	100.0
■ 남성	(742)	40.3	52.4	5.6	1.0	.7	92.7	6.6	100.0
■ 여성	(758)	30.4	60.1	6.6	.4	2.5	90.5	7.0	100.0
■ 연령	(278)	28.7	64.7	6.7	.0	.0	93.3	6.7	100.0
■ 19-29세	(307)	32.9	61.2	4.9	.7	.4	94.1	5.5	100.0
■ 30-39세	(331)	37.4	57.0	4.1	.9	.6	94.4	5.0	100.0
■ 40-49세	(282)	39.4	51.5	6.8	1.2	1.1	90.8	6.0	100.0
■ 50-59세	(302)	37.5	47.5	8.5	.6	5.9	85.0	9.1	100.0
■ 지역	(311)	37.5	54.2	7.1	.9	.3	91.7	8.0	100.0
■ 서울	(428)	34.1	59.8	4.7	.2	1.3	93.9	4.9	100.0
■ 경기	(152)	34.7	56.0	7.5	.0	1.8	90.7	7.5	100.0
■ 충청	(153)	36.4	54.4	5.0	1.1	3.1	90.8	6.1	100.0
■ 강원	(155)	32.8	56.8	6.0	1.2	3.2	89.6	7.2	100.0
■ 경북	(239)	37.3	53.1	6.6	1.0	2.0	90.4	7.6	100.0
■ 경남	(62)	28.9	59.8	8.9	1.1	1.3	88.7	10.0	100.0
■ 학력	(223)	35.8	48.4	6.6	.4	8.9	84.1	7.0	100.0
■ 고졸	(513)	32.3	60.6	5.7	.8	.6	92.9	6.5	100.0
■ 대졸	(741)	37.3	55.8	6.1	.7	.1	93.1	6.8	100.0
■ 무응답	(22)	32.7	55.8	11.5	.0	.0	88.5	11.5	100.0
■ 직업	(57)	36.4	52.9	5.9	.0	4.8	89.3	5.9	100.0
■ 자영업	(246)	42.7	49.1	7.4	.3	.4	91.8	7.8	100.0
■ 일반직	(150)	39.8	53.6	3.8	2.1	.6	93.4	5.9	100.0
■ 이직	(416)	38.7	58.1	2.6	.4	.3	96.8	3.0	100.0
■ 기혼	(344)	26.3	61.4	8.2	.8	3.2	87.8	9.0	100.0
■ 미혼	(144)	25.3	64.9	9.8	.0	.0	90.2	9.8	100.0
■ 무응답	(138)	38.5	47.3	7.6	1.3	5.4	85.8	8.8	100.0
■ 기혼	(5)	47.2	37.3	15.5	.0	.0	84.5	15.5	100.0
■ 소득	(349)	33.3	53.3	6.5	1.3	5.5	86.6	7.8	100.0
■ 200만 이하	(252)	34.2	59.4	6.1	.0	.3	93.6	6.1	100.0
■ 200-300만	(262)	35.6	58.4	5.4	.6	.0	94.0	6.0	100.0
■ 300-400만	(204)	34.0	59.6	4.8	1.1	.5	93.6	5.9	100.0
■ 400-500만	(282)	38.1	55.1	6.5	.3	.0	93.2	6.8	100.0
■ 500만 이상	(151)	37.3	52.5	7.4	.6	2.1	89.9	8.0	100.0
■ 정치참여	(553)	33.7	54.5	8.9	1.1	1.8	88.2	10.0	100.0
■ 정치참여	(384)	37.1	57.9	4.3	.0	.7	95.0	4.3	100.0
■ 정치참여	(17)	35.7	59.0	5.3	.0	.0	94.7	5.3	100.0
■ 정치참여	(8)	43.3	56.7	.0	.0	.0	100.0	.0	100.0
■ 정치참여	(1)	.0	100.0	.0	.0	.0	100.0	.0	100.0
■ 정치참여	(458)	36.2	57.2	5.1	.5	.9	93.4	5.6	100.0
■ 정치참여	(80)	31.7	54.8	2.1	2.3	9.1	86.5	4.4	100.0
■ 이념	(472)	33.1	57.0	7.8	1.3	.8	90.1	9.0	100.0
■ 중도	(545)	33.4	58.4	6.4	.5	1.3	91.8	6.9	100.0
■ 진보	(392)	40.3	55.9	3.2	.0	.5	96.3	3.2	100.0
■ 보수	(91)	35.9	41.9	8.6	1.4	12.2	77.8	9.9	100.0
■ 정보수용	(231)	33.4	57.0	7.2	.8	1.5	90.4	8.1	100.0
■ 신상	(555)	33.5	55.9	6.7	.8	3.1	89.4	7.5	100.0
■ 케일	(59)	42.6	52.1	5.3	.0	.0	94.7	5.3	100.0
■ 안팎	(540)	37.3	57.3	4.9	.5	.0	94.6	5.4	100.0
■ 안팎	(15)	12.6	82.1	5.3	.0	.0	94.7	5.3	100.0
■ 후대	(86)	34.9	58.6	5.3	.0	1.2	93.5	5.3	100.0
■ 무응답	(14)	54.3	.0	20.5	6.7	18.5	54.3	27.2	100.0
■ 투표표지	(1300)	36.4	55.0	6.1	.6	1.8	91.5	6.8	100.0
■ 투표표지	(155)	30.3	63.1	5.3	1.3	.0	93.4	6.6	100.0
■ 투표표지	(36)	19.6	69.4	11.0	.0	.0	89.0	11.0	100.0
■ 투표표지	(9)	14.3	74.0	.0	.0	11.7	88.3	.0	100.0
■ 대선후보지지도	(669)	32.6	55.3	8.5	1.4	2.3	87.8	9.9	100.0
■ 박근혜	(519)	39.8	55.8	3.9	.0	.5	95.6	3.9	100.0
■ 김대중	(9)	45.2	54.8	.0	.0	.0	100.0	.0	100.0
■ 김대중	(154)	33.4	63.2	3.4	.0	.0	96.6	3.4	100.0
■ 무응답	(150)	32.9	56.0	6.2	.7	4.2	89.0	6.8	100.0
■ 거주지역	(221)	34.6	59.6	5.0	.0	.9	94.2	5.0	100.0
■ 서울	(195)	30.8	59.4	9.3	.0	.5	90.2	9.3	100.0
■ 경기	(235)	35.6	54.3	3.3	1.1	1.8	89.8	8.3	100.0
■ 충청	(268)	37.0	56.1	3.8	.3	2.7	93.2	4.1	100.0
■ 강원	(228)	35.4	55.0	6.6	.9	.9	90.4	7.5	100.0
■ 경북	(245)	36.7	56.4	4.6	.7	1.6	93.1	5.3	100.0
■ 경남	(109)	36.2	52.0	8.3	2.8	.8	88.2	11.1	100.0

【 표 10 】 TV토론회 중립 공정성

[문 7] 지금까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응답	*긍정	*부정	계
		%	%	%	%	%	%	%	
■ 전 체 ■	(1500)	7.7	50.5	28.9	4.3	8.6	58.2	33.2	100.0
■ 남성	(742)	8.7	51.2	27.5	5.9	6.7	59.9	33.4	100.0
■ 여성	(758)	6.8	49.8	30.3	2.7	10.4	56.6	33.0	100.0
■ 연령	(278)	5.2	50.4	32.1	5.8	6.6	55.5	37.9	100.0
■ 19-29세	(307)	4.8	53.5	29.4	6.0	6.3	58.3	35.4	100.0
■ 30-39세	(331)	6.6	50.8	29.4	5.2	8.0	57.4	34.6	100.0
■ 40-49세	(282)	10.3	50.2	28.3	3.3	8.0	60.4	31.6	100.0
■ 50-59세	(282)	11.9	47.6	25.4	1.1	14.0	59.5	26.5	100.0
■ 정치인	(311)	7.2	48.6	32.1	4.6	7.6	55.7	36.7	100.0
■ 정치인	(428)	8.5	49.1	32.3	3.0	7.1	57.6	35.3	100.0
■ 정치인	(152)	5.7	54.4	26.1	5.2	8.6	60.1	31.3	100.0
■ 정치인	(153)	5.8	49.8	29.6	5.8	9.0	55.6	35.4	100.0
■ 정치인	(155)	7.8	51.8	25.5	3.4	11.5	59.6	28.9	100.0
■ 정치인	(239)	9.7	53.6	21.4	4.6	10.8	63.2	26.0	100.0
■ 정치인	(62)	7.5	47.0	31.0	7.0	7.5	54.5	38.0	100.0
■ 학력	(223)	12.9	44.8	21.5	.8	19.9	57.7	22.3	100.0
■ 고졸	(513)	8.9	52.6	27.6	2.7	8.2	61.5	30.3	100.0
■ 대졸	(741)	5.5	51.2	31.5	6.6	5.2	56.7	38.1	100.0
■ 무응답	(22)	3.7	36.3	44.3	.0	15.7	40.0	44.3	100.0
■ 직업	(57)	15.8	53.5	21.4	1.4	7.8	69.4	22.8	100.0
■ 농업	(246)	8.2	50.1	31.6	3.4	6.7	58.3	35.0	100.0
■ 자영업	(150)	10.3	48.6	31.5	2.2	7.5	58.8	33.7	100.0
■ 일반직	(416)	4.8	51.7	28.5	8.8	6.3	56.4	37.3	100.0
■ 관리직	(344)	8.5	51.4	27.9	.4	11.8	59.9	28.3	100.0
■ 학부	(144)	5.7	49.2	32.1	4.4	8.7	54.9	36.5	100.0
■ 무부	(138)	10.3	48.0	25.3	5.5	10.9	58.3	30.7	100.0
■ 무응답	(5)	.0	47.2	15.5	.0	37.3	47.2	15.5	100.0
■ 소득	(349)	12.8	46.4	24.8	2.9	13.1	59.2	27.7	100.0
■ 200만 이하	(252)	5.3	54.5	27.1	2.9	10.2	59.8	30.0	100.0
■ 300만 이상	(262)	6.6	50.6	31.4	5.3	6.0	57.2	36.8	100.0
■ 400만 이상	(204)	6.8	54.1	27.0	4.5	7.7	60.9	31.4	100.0
■ 500만 이상	(282)	5.5	53.0	31.8	6.3	3.4	58.5	38.1	100.0
■ 무응답	(151)	7.4	43.8	33.8	4.3	10.8	51.1	38.0	100.0
■ 정당 지지	(553)	12.1	55.3	23.2	1.3	8.1	67.4	24.5	100.0
■ 새누리당	(384)	4.8	48.8	31.6	8.6	6.2	53.5	40.3	100.0
■ 민주통합당	(17)	.0	47.6	45.2	7.2	.0	47.6	52.4	100.0
■ 기타	(8)	12.4	27.2	29.5	14.4	16.6	39.5	43.9	100.0
■ 무응답	(1)	.0	.0	.0	100.0	.0	100.0	.0	100.0
■ 정당 지지	(458)	4.6	46.9	33.4	4.3	10.9	51.5	37.6	100.0
■ 무응답	(80)	11.0	49.7	26.1	1.6	11.6	60.7	27.7	100.0
■ 이념	(472)	10.2	52.7	27.9	2.3	6.9	62.9	30.2	100.0
■ 중도	(545)	6.5	55.1	27.5	3.5	7.5	61.6	30.9	100.0
■ 진보	(392)	5.4	45.2	34.6	8.0	6.8	50.6	42.6	100.0
■ 무응답	(91)	12.2	34.7	17.9	3.9	31.2	46.9	21.8	100.0
■ 정치	(231)	7.7	61.0	20.8	3.0	7.5	68.6	23.8	100.0
■ 보수	(555)	11.1	49.4	26.0	1.4	12.0	60.5	27.5	100.0
■ 진보	(59)	7.7	50.9	33.3	1.7	6.4	58.5	35.0	100.0
■ 중도	(540)	5.0	47.7	33.7	7.5	6.0	52.7	41.2	100.0
■ 기타	(15)	12.9	57.3	12.4	12.1	5.3	70.2	24.5	100.0
■ 무응답	(86)	1.4	51.7	37.0	5.0	4.8	53.1	42.1	100.0
■ 무응답	(14)	12.3	14.0	37.6	12.1	24.0	26.4	49.7	100.0
■ 투표	(1300)	8.0	50.7	28.4	5.0	7.9	58.7	33.3	100.0
■ 투표	(155)	6.1	54.9	27.3	.0	11.7	61.0	27.3	100.0
■ 투표	(36)	6.0	26.9	51.6	.0	15.5	32.9	51.6	100.0
■ 무응답	(9)	.0	37.1	39.5	.0	23.4	37.1	39.5	100.0
■ 대선 후보	(669)	10.3	55.7	23.5	1.2	9.3	66.0	24.8	100.0
■ 김대중	(519)	5.0	45.6	35.4	8.5	5.4	50.6	43.9	100.0
■ 이만희	(9)	.0	35.3	32.3	22.9	9.5	35.3	55.3	100.0
■ 무응답	(154)	6.0	46.3	31.7	5.7	10.2	52.4	37.4	100.0
■ 무응답	(150)	8.0	49.4	27.0	.8	14.8	57.4	27.8	100.0
■ 고지	(221)	6.2	49.3	30.8	6.3	7.4	55.5	37.1	100.0
■ 지	(195)	7.8	50.2	31.9	2.4	7.6	58.1	34.3	100.0
■ 지	(235)	8.1	56.8	26.4	2.6	6.1	64.9	29.0	100.0
■ 지	(268)	9.2	45.2	32.6	5.0	8.9	53.4	37.7	100.0
■ 지	(226)	7.0	51.3	27.1	2.9	11.7	58.3	30.0	100.0
■ 지	(245)	8.0	55.5	22.3	5.2	8.9	63.5	27.5	100.0
■ 지	(109)	9.5	40.1	34.1	6.3	9.9	49.6	40.4	100.0

【 표 11 】 TV토론회 흥미성

[문 8] 지금까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응답	*긍정	*부정	계
		%	%	%	%	%	%	%	
■ 전 체 ■	(1500)	5.3	40.8	40.5	6.3	7.1	46.1	46.8	100.0
■ 성별 ■	(742)	6.4	39.2	40.7	8.3	5.4	45.6	49.0	100.0
	(758)	4.2	42.4	40.4	4.3	8.8	46.6	44.6	100.0
■ 연령 ■	(278)	4.0	38.5	40.1	10.0	7.5	42.4	50.1	100.0
	(307)	5.8	39.1	44.8	6.0	4.3	44.9	50.8	100.0
	(331)	2.7	45.9	39.6	6.1	5.7	48.6	45.6	100.0
	(282)	6.0	43.0	39.9	5.7	5.4	49.0	45.6	100.0
	(302)	8.0	37.1	38.3	3.8	12.8	45.1	42.1	100.0
■ 지역 ■	(311)	5.4	36.5	44.4	7.6	6.2	41.8	52.0	100.0
	(428)	5.3	40.1	40.9	6.4	7.3	45.4	47.3	100.0
	(152)	3.8	44.3	37.5	7.2	7.3	48.1	44.6	100.0
	(153)	6.1	47.5	32.9	4.1	9.5	53.6	36.9	100.0
	(155)	5.4	41.7	41.9	3.3	7.7	47.1	45.2	100.0
	(239)	5.1	43.1	41.4	4.1	6.3	48.2	45.5	100.0
	(62)	6.2	31.1	39.0	17.2	6.4	37.4	56.3	100.0
■ 학력 ■	(223)	8.4	43.3	30.8	4.3	13.2	51.8	35.1	100.0
	(513)	4.6	40.1	40.3	5.7	9.3	44.7	46.0	100.0
	(741)	4.8	40.8	43.6	7.1	3.7	45.6	50.7	100.0
	(22)	4.5	32.7	42.3	9.4	11.1	37.1	51.8	100.0
■ 직업 ■	(57)	12.0	39.5	36.7	2.8	9.0	51.6	39.4	100.0
	(246)	6.7	39.8	42.2	7.1	4.2	46.6	49.3	100.0
	(150)	5.0	45.0	35.6	5.9	8.4	50.0	41.5	100.0
	(416)	3.6	45.6	40.9	7.0	3.0	49.2	47.9	100.0
	(344)	4.2	40.2	42.1	3.3	10.2	44.4	45.4	100.0
	(144)	4.8	34.3	38.0	10.9	12.0	39.1	48.9	100.0
	(138)	7.9	32.7	43.3	6.3	9.7	40.6	49.7	100.0
	(5)	15.4	31.8	15.5	20.6	16.7	47.2	36.1	100.0
■ 소득 ■	(349)	6.3	37.7	39.9	5.5	10.5	44.0	45.5	100.0
	(252)	5.3	42.7	40.8	4.4	6.9	48.0	45.1	100.0
	(262)	4.3	41.8	43.4	5.9	4.6	46.0	49.3	100.0
	(204)	6.2	40.3	40.7	7.4	5.5	46.5	48.0	100.0
	(282)	4.4	44.1	39.8	9.3	2.5	48.5	49.0	100.0
	(151)	4.8	37.9	37.9	4.5	14.9	42.7	42.5	100.0
■ 정당 지지 ■	(553)	6.6	44.6	37.7	4.2	6.9	51.2	41.9	100.0
	(384)	4.3	41.2	42.2	7.4	4.9	45.5	49.6	100.0
	(17)	4.8	20.6	55.3	6.9	12.4	25.3	62.2	100.0
	(8)	.0	67.8	18.1	.0	14.0	67.8	18.1	100.0
	(1)	.0	100.0	.0	.0	.0	100.0	.0	100.0
	(458)	4.7	35.4	44.5	8.1	7.3	40.1	52.6	100.0
	(80)	4.3	44.7	29.0	5.2	16.7	49.1	34.2	100.0
■ 이념 ■	(472)	6.8	40.1	41.5	4.7	7.0	46.9	46.2	100.0
	(545)	4.1	41.8	41.1	7.3	5.6	46.0	48.4	100.0
	(392)	4.8	40.9	42.1	6.7	5.4	45.7	48.9	100.0
	(91)	5.6	38.5	25.8	5.8	24.3	44.1	31.6	100.0
■ 관심 분야 ■	(231)	6.7	37.1	44.7	6.4	5.2	43.8	51.1	100.0
	(555)	6.1	44.9	36.3	3.7	9.0	51.0	40.0	100.0
	(59)	8.0	41.5	37.7	4.8	8.0	49.5	42.5	100.0
	(540)	3.8	38.7	42.8	8.8	5.8	42.5	51.6	100.0
	(15)	11.8	43.4	39.5	5.3	.0	55.1	44.9	100.0
	(86)	2.6	40.5	45.5	6.3	5.1	43.1	51.8	100.0
	(14)	.0	20.2	34.6	14.5	30.7	20.2	49.1	100.0
■ 투표 ■	(1300)	5.2	41.8	39.8	6.3	6.9	47.0	46.1	100.0
	(155)	4.9	36.0	47.0	4.3	7.8	40.9	51.4	100.0
	(36)	10.2	22.1	45.8	9.2	12.7	32.3	55.0	100.0
	(9)	.0	63.0	11.8	25.2	.0	63.0	37.0	100.0
■ 대선 후보 지지 ■	(669)	6.0	42.4	40.3	4.3	7.1	48.4	44.5	100.0
	(519)	4.8	40.2	41.5	8.2	5.2	45.0	49.7	100.0
	(9)	.0	77.2	22.8	.0	.0	77.2	22.8	100.0
	(154)	4.6	37.2	42.6	11.0	4.6	41.8	53.6	100.0
	(150)	4.4	37.4	37.3	4.0	16.9	41.8	41.2	100.0
■ 고지 ■	(221)	5.7	35.9	42.9	9.5	5.9	41.7	52.4	100.0
	(195)	5.5	37.6	44.0	6.5	6.4	43.1	50.5	100.0
	(235)	4.3	42.9	41.1	3.3	8.4	47.2	44.4	100.0
	(268)	6.2	44.6	36.3	5.7	7.2	50.8	42.0	100.0
	(226)	2.9	42.9	42.5	4.3	7.4	45.8	46.8	100.0
	(245)	6.8	41.6	39.1	5.8	6.6	48.4	45.0	100.0
	(109)	5.0	36.7	37.9	11.9	8.4	41.7	49.9	100.0

【 표 12 】 17대 대선 TV토론회 시청 여부

[문 9] 선생님께서는 지난 2007년 실시된 17대 대선 당시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시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합	계
		%	%		
■ 전 체 ■	(1500)	73.2	23.7	3.1	100.0
■ 성 별 ■	(742) (758)	77.3 69.2	20.9 26.5	1.8 4.3	100.0 100.0
■ 연 령 ■	(278) (307) (331) (282) (302)	48.3 78.0 80.3 83.3 74.0	49.3 21.3 17.3 13.8 18.9	2.4 1.7 2.4 2.9 7.1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 역 ■	(311) (428) (152) (153) (155) (239) (62)	72.4 76.0 70.9 69.8 73.2 73.5 70.6	23.6 22.2 26.7 27.3 21.9 23.4 24.4	4.0 1.8 2.4 3.0 4.9 3.1 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 령 ■	(223) (513) (741) (22)	64.9 71.6 76.9 72.5	27.2 25.1 21.6 27.5	7.9 3.3 1.6 0	100.0 100.0 100.0 100.0
■ 직 업 ■	(57) (246) (150) (416) (344) (144) (138) (5)	75.1 82.2 70.1 78.1 76.7 38.0 71.9 100.0	22.0 15.9 28.5 19.2 19.1 61.3 20.0 0	2.9 1.9 1.4 2.7 4.2 8.8 8.1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 준 ■	(349) (252) (262) (204) (282) (151)	65.5 73.8 75.7 79.9 81.9 60.3	28.2 22.9 21.3 19.3 17.2 37.2	6.3 3.3 3.0 .8 1.0 2.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 당 ■	(553) (384) (17) (8) (1) (458) (80)	75.7 72.2 88.7 60.5 100.0 72.5 62.6	19.7 25.7 5.3 26.4 0 26.6 29.4	4.6 2.1 6.0 13.1 0 1.0 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 성 ■	(472) (545) (392) (91)	78.3 72.1 72.2 57.7	19.3 25.3 26.4 26.2	2.4 2.6 1.4 16.1	100.0 100.0 100.0 100.0
■ 정 보 수 렷 ■	(231) (555) (59) (540) (15) (86) (14)	83.1 73.4 76.1 70.6 72.1 62.9 54.2	14.9 21.7 19.7 28.1 18.0 34.8 33.6	2.0 4.9 4.2 1.2 9.9 2.3 1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 표 수 렷 ■	(1300) (155) (36) (9)	74.2 67.1 69.9 48.9	22.6 30.9 30.1 39.5	3.2 2.0 0 11.6	100.0 100.0 100.0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도 ■	(669) (519) (9) (154) (150)	74.2 71.8 87.7 79.1 66.9	21.7 26.7 12.3 19.1 27.7	4.1 1.5 0 1.8 5.4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 령 ■	(221) (195) (235) (288) (228) (245) (109)	70.3 75.4 74.8 74.8 71.8 71.7 74.0	25.3 22.7 23.1 22.6 23.4 25.8 22.1	4.3 1.8 2.0 2.6 4.8 2.5 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13 】 17대 대선 TV토론회 투표결정 영향력

[문 9-1] (있으시다면) 당시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선생님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례수	매우 영향 있었다	영향을 편하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 없음	*비영향 없음	계
		%	%	%	%	%	%			
■ 전 체 ■	(1098)	13.8	43.4	33.5	6.5	2.8	57.2	40.0	100.0	
■ 남성	(574)	15.3	38.3	36.0	7.9	2.5	53.6	43.9	100.0	
■ 여성	(524)	12.2	49.0	30.8	4.9	3.2	61.2	35.6	100.0	
■ 19-29세	(134)	10.1	44.8	30.9	2.7	11.5	54.9	33.6	100.0	
■ 30-39세	(239)	13.3	46.8	32.9	6.4	5.0	60.2	39.4	100.0	
■ 40-49세	(266)	15.5	45.1	31.7	7.7	5.0	60.6	39.4	100.0	
■ 50-59세	(235)	14.5	40.6	37.3	5.0	2.5	55.1	42.3	100.0	
■ 60대 이상	(223)	13.7	39.9	33.7	8.9	3.8	53.6	42.6	100.0	
■ 지역	(225)	14.0	43.6	35.3	6.2	1.0	57.5	41.5	100.0	
■ 서울	(325)	14.9	44.1	32.6	6.0	2.3	59.1	38.6	100.0	
■ 부산	(108)	10.1	41.3	38.6	5.7	4.3	51.4	44.3	100.0	
■ 대구	(107)	15.0	38.0	36.1	6.3	4.6	53.0	42.4	100.0	
■ 대전	(113)	9.7	47.1	31.7	8.9	2.6	56.8	40.6	100.0	
■ 광주	(176)	14.7	43.6	29.6	7.2	5.0	58.2	36.8	100.0	
■ 강원	(44)	17.9	45.8	32.1	4.3	0.0	63.7	36.3	100.0	
■ 학력	(145)	13.3	42.6	31.2	7.4	5.5	55.9	38.6	100.0	
■ 고졸	(367)	14.9	41.5	31.3	8.0	4.3	56.3	39.3	100.0	
■ 대졸	(570)	13.1	44.6	35.8	5.4	1.1	57.7	41.2	100.0	
■ 무학력	(16)	18.1	54.3	22.9	0.0	4.8	72.3	22.9	100.0	
■ 직업	(43)	15.1	51.1	25.7	8.1	0.0	66.2	33.8	100.0	
■ 농업	(202)	17.7	38.0	35.6	7.5	1.2	55.7	43.1	100.0	
■ 서비스	(105)	14.3	37.2	35.1	10.1	3.3	51.5	45.3	100.0	
■ 이직	(325)	15.2	47.4	34.0	3.5	0.0	62.5	37.5	100.0	
■ 가정주부	(264)	11.1	47.6	30.9	7.9	2.6	58.6	38.8	100.0	
■ 무직	(55)	0.0	38.9	32.9	0.0	26.1	38.9	32.9	100.0	
■ 기타	(99)	15.9	36.0	36.4	9.8	1.8	51.9	46.2	100.0	
■ 무응답	(5)	0.0	49.1	30.3	0.0	20.6	49.1	30.3	100.0	
■ 소득	(229)	13.1	41.8	34.8	6.8	3.5	54.9	41.6	100.0	
■ 200만 이하	(186)	12.3	46.1	32.7	7.3	1.5	58.4	40.0	100.0	
■ 300만~400만	(198)	11.0	47.5	29.0	9.6	2.9	58.5	38.6	100.0	
■ 400만~500만	(163)	14.0	46.3	33.5	5.1	1.1	60.3	38.6	100.0	
■ 500만 이상	(231)	18.9	40.8	35.0	3.9	1.4	59.8	38.8	100.0	
■ 무응답	(91)	11.1	34.6	37.8	6.0	10.4	45.8	43.8	100.0	
■ 정치참여	(419)	15.4	41.7	32.1	7.6	3.3	57.1	39.6	100.0	
■ 자주	(277)	12.5	44.7	33.4	5.0	4.4	57.3	38.4	100.0	
■ 가끔	(15)	18.6	37.7	24.1	19.7	0.0	56.2	43.8	100.0	
■ 전혀	(5)	0.0	81.1	18.9	0.0	0.0	81.1	18.9	100.0	
■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	
■ 정치참여 없음	(332)	12.7	43.2	36.0	6.5	1.5	56.0	42.5	100.0	
■ 무응답	(50)	14.9	50.9	32.5	1.7	0.0	65.8	34.2	100.0	
■ 연령	(369)	11.4	43.1	35.4	7.6	2.4	54.5	43.1	100.0	
■ 18-29세	(393)	15.1	46.3	30.7	5.2	2.8	61.4	35.9	100.0	
■ 30-39세	(283)	14.5	40.2	35.6	7.3	2.4	54.7	42.9	100.0	
■ 40-49세	(53)	17.3	41.5	29.3	3.4	8.5	58.7	32.7	100.0	
■ 정치신념	(192)	12.6	44.8	34.6	6.5	1.6	57.3	41.1	100.0	
■ 보수	(407)	14.5	44.1	32.6	6.0	2.8	58.6	38.6	100.0	
■ 중도	(45)	19.0	28.1	32.7	11.8	8.4	47.1	44.5	100.0	
■ 진보	(382)	12.1	44.6	33.3	7.1	2.8	56.8	40.5	100.0	
■ 기타	(11)	9.3	48.9	25.3	16.4	0.0	58.3	41.7	100.0	
■ 무응답	(54)	21.1	37.4	39.2	0.0	2.3	58.5	39.2	100.0	
■ 무응답	(8)	15.3	36.4	36.0	0.0	12.3	51.7	36.0	100.0	
■ 투표표지	(965)	14.6	42.3	33.5	6.8	2.7	56.9	40.4	100.0	
■ 사용	(104)	8.6	52.2	29.6	4.7	4.9	60.8	34.3	100.0	
■ 사용 안함	(25)	6.4	48.9	44.7	0.0	0.0	55.3	44.7	100.0	
■ 무응답	(4)	0.0	44.1	55.9	0.0	0.0	44.1	55.9	100.0	
■ 대선 후보 지지	(496)	13.5	42.2	34.1	7.6	2.5	55.7	41.8	100.0	
■ 박근혜	(373)	14.0	43.0	33.0	6.2	3.9	56.9	39.2	100.0	
■ 문재인	(8)	0.0	63.6	25.5	10.9	0.0	63.6	36.4	100.0	
■ 기타	(122)	15.9	43.8	35.5	3.8	1.0	59.7	39.3	100.0	
■ 무응답	(100)	13.0	49.1	30.2	4.6	3.1	62.1	34.8	100.0	
■ 거주지역	(155)	16.8	39.5	34.0	7.5	2.3	56.2	41.5	100.0	
■ 서울	(147)	12.0	48.1	33.5	4.7	1.7	60.1	38.2	100.0	
■ 부산	(176)	10.8	44.6	34.9	6.1	3.7	55.3	40.9	100.0	
■ 대구	(200)	12.9	42.6	35.3	6.5	2.7	55.6	41.7	100.0	
■ 대전	(163)	10.4	44.4	33.4	9.4	2.3	54.8	42.9	100.0	
■ 광주	(175)	17.8	39.3	32.1	6.3	4.3	57.0	38.4	100.0	
■ 강원	(81)	18.4	49.0	28.2	2.9	1.5	67.4	31.1	100.0	

【 표 14 】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 중요도

[문 10] 선생님께서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터 5까지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1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다", 5는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를 의미합니다.

	사례수	1	2	3	4	5	무응답/미응답	*비중요	*보통	*중요	계	*평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다										
		%	%	%	%	%	%	%	%	%		
■ 전 체 ■	(1500)	1.7	2.6	8.1	10.7	75.1	1.8	4.3	8.1	85.8	100.0	4.58
■ 요양보호사 ■	(742)	2.3	3.2	7.9	9.7	75.8	1.2	5.4	7.9	85.5	100.0	4.55
	(758)	1.1	2.0	8.3	11.8	74.3	2.4	3.1	8.3	86.1	100.0	4.60
■ 19-29세 ■	(278)	1.3	1.9	8.8	17.2	70.8	.0	3.2	8.8	88.0	100.0	4.54
■ 30-39세 ■	(307)	.8	1.3	12.0	14.5	71.0	.4	2.1	12.0	85.5	100.0	4.54
■ 40-49세 ■	(331)	2.6	2.4	7.8	11.3	74.5	1.5	5.0	7.8	85.8	100.0	4.55
■ 50-59세 ■	(282)	1.5	3.7	6.6	6.7	80.3	1.2	5.1	6.6	87.0	100.0	4.63
■ 60세 이상 ■	(302)	2.2	3.7	5.4	4.2	78.8	5.8	5.9	5.4	82.9	100.0	4.63
■ 지식/전문직/사무직 ■	(311)	1.8	1.1	8.2	12.4	75.1	1.4	2.9	8.2	87.5	100.0	4.60
■ 서비스직/판매직/판매원 ■	(428)	1.4	3.1	7.9	10.4	75.9	1.2	4.5	7.9	86.4	100.0	4.58
■ 제조/생산직 ■	(152)	3.0	4.0	10.4	5.6	75.1	1.8	7.0	10.4	80.7	100.0	4.48
■ 건설/건설노조/건설자 ■	(153)	.0	3.8	5.3	8.9	79.0	3.0	3.8	5.3	88.0	100.0	4.68
■ 서비스직/판매직/판매원 ■	(156)	1.3	3.2	6.2	15.1	72.5	1.7	4.6	6.2	87.6	100.0	4.57
■ 제조/생산직 ■	(239)	1.9	1.5	10.4	11.4	72.8	2.0	3.4	10.4	84.1	100.0	4.55
■ 서비스직/판매직/판매원 ■	(62)	3.5	2.9	6.8	8.3	73.9	4.6	6.4	6.8	82.2	100.0	4.53
■ 대학/대학원 ■	(223)	1.9	2.4	5.5	4.4	78.9	7.0	4.3	5.5	83.3	100.0	4.68
■ 대학원 ■	(513)	2.0	4.1	9.3	7.0	75.7	1.9	6.1	9.3	82.7	100.0	4.53
■ 대학 ■	(741)	1.3	1.6	8.2	15.4	73.3	.2	2.9	8.2	88.6	100.0	4.58
■ 대학원/대학 ■	(22)	4.1	4.8	3.9	7.3	79.9	.0	8.9	3.9	87.2	100.0	4.54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57)	1.5	2.9	8.4	10.6	68.7	7.9	4.5	8.4	79.3	100.0	4.54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246)	3.5	4.5	6.3	7.2	76.6	1.9	8.0	6.3	83.8	100.0	4.52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150)	2.9	3.4	9.4	5.5	78.8	.0	6.3	9.4	84.3	100.0	4.54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416)	.9	1.2	8.5	15.0	74.2	.2	2.1	8.5	89.2	100.0	4.61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344)	.8	2.5	9.5	7.9	76.7	2.5	3.3	9.5	84.6	100.0	4.61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144)	1.6	1.9	8.1	22.9	65.5	.0	3.5	8.1	88.4	100.0	4.49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138)	1.8	3.3	5.0	4.6	80.0	5.3	5.1	5.0	84.6	100.0	4.67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5)	.0	.0	20.6	.0	62.7	16.7	.0	20.6	62.7	100.0	4.51
■ 200만 원 이하 ■	(349)	2.1	4.3	8.3	6.9	72.8	5.7	6.4	8.3	79.6	100.0	4.53
■ 200만 원 이상 ■	(252)	2.3	2.9	10.3	9.4	74.9	.3	6.2	10.3	84.3	100.0	4.52
■ 300만 원 이하 ■	(262)	1.3	2.3	7.3	14.9	75.2	.0	2.6	7.3	90.1	100.0	4.62
■ 300만 원 이상 ■	(204)	1.3	2.7	8.2	9.5	77.9	.4	4.0	8.2	87.4	100.0	4.61
■ 400만 원 이하 ■	(282)	1.9	2.3	7.0	14.0	75.8	1.0	2.2	7.0	89.8	100.0	4.63
■ 400만 원 이상 ■	(151)	2.2	2.8	7.6	10.4	75.1	1.8	5.0	7.6	85.5	100.0	4.56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553)	1.6	2.6	7.3	8.4	78.9	1.2	4.2	7.3	87.3	100.0	4.62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384)	2.3	2.8	6.5	11.4	75.6	1.4	5.1	6.5	87.0	100.0	4.58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17)	.0	.0	.0	.0	100.0	.0	.0	.0	100.0	100.0	5.00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8)	.0	.0	18.1	16.6	65.3	.0	.0	18.1	81.9	100.0	4.47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1)	.0	.0	.0	.0	100.0	.0	.0	.0	100.0	100.0	5.00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458)	1.2	3.1	10.8	13.2	69.7	2.0	4.3	10.8	82.9	100.0	4.50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80)	2.4	.0	7.3	11.6	71.7	7.0	2.4	7.3	83.3	100.0	4.62
■ 이념/성향 ■	(472)	2.0	2.3	7.2	9.9	77.4	1.2	4.3	7.2	87.3	100.0	4.60
■ 이념/성향 ■	(545)	1.5	3.2	10.6	10.9	72.4	1.5	4.7	10.6	83.2	100.0	4.52
■ 이념/성향 ■	(392)	1.7	2.3	6.0	12.2	77.3	.5	4.0	6.0	89.5	100.0	4.62
■ 이념/성향 ■	(91)	1.0	2.2	7.2	8.0	69.6	12.0	3.2	7.2	77.6	100.0	4.63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231)	2.1	2.2	6.4	9.4	76.8	3.1	4.3	6.4	86.2	100.0	4.62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555)	2.2	3.4	7.9	7.8	76.0	2.7	5.6	7.9	83.8	100.0	4.56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59)	.0	.0	8.3	4.9	84.0	.0	.0	8.3	88.9	100.0	4.78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540)	1.5	2.3	9.0	13.2	73.9	.2	3.8	9.0	87.0	100.0	4.56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15)	.0	11.6	12.2	10.7	65.6	.0	11.6	12.2	76.2	100.0	4.30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86)	.0	1.2	8.1	23.7	67.0	.0	1.2	8.1	90.7	100.0	4.57
■ 정치/행정/법률/의사/간호사/교사/연구직/기타 ■	(14)	.0	.0	5.9	.0	76.4	17.7	.0	5.9	76.4	100.0	4.86
■ 투표/투표율 ■	(1300)	1.7	2.5	7.3	9.6	77.0	1.8	4.2	7.3	86.6	100.0	4.61
■ 투표/투표율 ■	(155)	.6	2.5	13.5	19.1	63.0	1.3	3.2	13.5	82.1	100.0	4.43
■ 투표/투표율 ■	(36)	4.5	7.9	16.5	11.8	59.4	.0	12.4	16.5	71.2	100.0	4.14
■ 투표/투표율 ■	(9)	.0	.0	.0	23.4	64.9	11.7	.0	.0	88.3	100.0	4.74
■ 대선 후보 지지도 ■	(669)	1.6	2.7	7.9	9.9	76.5	1.4	4.2	7.9	86.5	100.0	4.59
■ 대선 후보 지지도 ■	(519)	2.1	2.7	6.4	10.9	76.8	1.0	4.8	6.4	87.8	100.0	4.59
■ 대선 후보 지지도 ■	(9)	.0	12.0	12.3	.0	75.7	.0	12.0	12.3	75.7	100.0	4.39
■ 대선 후보 지지도 ■	(154)	.6	2.5	14.6	13.9	65.6	2.8	3.0	14.6	79.5	100.0	4.46
■ 대선 후보 지지도 ■	(150)	1.9	1.3	8.4	11.0	72.1	5.4	3.2	8.4	83.1	100.0	4.59
■ 고지식/전문직/사무직 ■	(221)	1.9	2.6	7.0	10.6	77.6	.4	4.5	7.0	88.2	100.0	4.60
■ 고지식/전문직/사무직 ■	(195)	2.8	1.7	10.0	11.4	72.8	1.4	4.5	10.0	84.1	100.0	4.52
■ 고지식/전문직/사무직 ■	(235)	1.5	2.9	9.2	8.3	76.2	2.0	4.4	9.2	84.4	100.0	4.58
■ 고지식/전문직/사무직 ■	(268)	1.4	3.8	6.7	9.5	75.8	.8	5.2	6.7	85.3	100.0	4.59
■ 고지식/전문직/사무직 ■	(228)	1.6	2.6	8.5	13.3	72.1	1.8	4.2	8.5	85.4	100.0	4.54
■ 고지식/전문직/사무직 ■	(245)	1.2	1.4	9.3	11.0	75.1	2.1	2.6	9.3	86.1	100.0	4.61
■ 고지식/전문직/사무직 ■	(109)	1.4	3.3	5.1	12.5	75.8	1.9	4.7	5.1	88.4	100.0	4.61

【 표 15 】 누가 권력을 잡느냐 차이

[문 11]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터 5까지 선
 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1은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5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수	1	2	3	4	5	무응답/미응답	*차이 없음	*보통	*차이 있음	계	*평균*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없다	%	%	%	%						
■ 전 체 ■	(1500)	4.5	2.8	12.9	14.2	62.8	2.8	7.2	12.9	77.1	100.0	4.32
■ 요양보호사 ■	(742)	5.3	2.3	10.8	13.1	67.3	1.2	7.7	10.8	80.4	100.0	4.36
■ 19~29세 ■	(278)	2.4	4	12.9	18.9	65.0	.4	2.8	12.9	83.9	100.0	4.44
■ 30~39세 ■	(307)	3.5	2.0	13.6	18.1	62.1	.8	5.5	13.6	80.1	100.0	4.34
■ 40~49세 ■	(331)	5.6	5.2	10.5	15.7	62.3	.6	10.8	10.5	78.1	100.0	4.25
■ 50~59세 ■	(282)	7.3	2.9	14.4	9.8	62.2	3.4	10.2	14.4	72.0	100.0	4.21
■ 60세 이상 ■	(302)	3.5	2.8	13.3	8.6	62.7	9.1	6.3	13.3	71.3	100.0	4.36
■ 지식/정보/기술 분야 ■	(311)	5.4	2.3	9.8	14.3	67.0	1.2	7.7	9.8	81.3	100.0	4.37
■ 서비스 분야 ■	(428)	4.3	1.8	15.0	14.1	63.1	1.6	6.1	15.0	77.3	100.0	4.32
■ 제조/건설 분야 ■	(152)	3.7	3.7	10.7	15.6	62.7	4.1	6.9	10.7	78.3	100.0	4.36
■ 판매/서비스 분야 ■	(153)	2.8	4.2	8.8	14.2	63.3	6.7	7.0	8.8	77.5	100.0	4.40
■ 보건/의료 분야 ■	(155)	4.3	10.9	16.0	16.0	61.4	2.1	9.6	16.9	77.4	100.0	4.28
■ 인문/사회/자연 분야 ■	(239)	5.1	2.3	16.7	13.1	59.8	3.0	7.4	16.7	72.9	100.0	4.24
■ 기타 ■	(62)	6.4	1.2	19.2	11.4	54.0	7.8	7.6	19.2	65.4	100.0	4.14
■ 대학원생 ■	(223)	4.3	4.0	16.3	6.6	56.3	12.5	8.3	16.3	62.9	100.0	4.22
■ 대학원생(인문/사회/자연) ■	(513)	6.6	3.8	13.6	13.7	61.4	1.0	10.3	13.6	75.1	100.0	4.21
■ 대학원생(제조/건설) ■	(741)	3.2	1.8	11.5	16.7	66.0	.8	5.0	11.5	82.7	100.0	4.42
■ 대학원생(서비스) ■	(22)	.0	.0	7.1	23.6	54.7	14.6	.0	7.1	78.3	100.0	4.56
■ 직장/직무 ■	(57)	1.8	1.5	17.8	12.0	58.9	7.9	3.4	17.8	70.9	100.0	4.35
■ 관리자/감독자 ■	(246)	7.8	2.5	11.3	10.6	66.4	1.4	10.3	11.3	77.0	100.0	4.27
■ 일반직 ■	(150)	6.3	4.5	15.1	13.8	59.7	.6	10.8	15.1	73.5	100.0	4.17
■ 계약직 ■	(416)	3.2	1.5	12.8	17.9	63.8	.7	4.7	12.8	81.8	100.0	4.39
■ 파트타임 ■	(344)	3.6	4.4	14.7	13.0	57.9	6.4	8.0	14.7	70.9	100.0	4.25
■ 프리랜서 ■	(144)	3.2	.8	11.8	20.8	63.4	.0	4.0	11.8	84.2	100.0	4.41
■ 기타 ■	(138)	5.1	3.7	7.8	7.8	70.7	4.9	8.8	7.8	78.5	100.0	4.42
■ 기타(5) ■	(5)	.0	.0	20.6	.0	47.9	31.5	.0	20.6	47.9	100.0	4.40
■ 소득 ■	(349)	5.4	4.5	12.3	10.6	58.8	8.3	9.9	12.3	69.5	100.0	4.23
■ 200만 원 이하 ■	(252)	6.1	4.1	14.3	10.6	64.7	.3	10.2	14.3	75.3	100.0	4.24
■ 300만 원 이상 ■	(262)	4.0	2.3	13.3	14.6	65.2	.7	6.3	13.3	79.7	100.0	4.35
■ 401만 원 이상 ■	(204)	1.4	1.8	16.9	18.3	61.2	.4	3.2	16.9	79.5	100.0	4.37
■ 501만 원 이상 ■	(282)	4.0	1.9	11.2	16.4	65.6	1.0	5.9	11.2	81.9	100.0	4.39
■ 기타 ■	(151)	5.6	.0	9.0	18.6	62.0	4.9	5.6	9.0	80.6	100.0	4.38
■ 정치/사회/문화 분야 ■	(553)	4.0	2.6	15.0	11.5	64.7	2.2	6.6	15.0	76.2	100.0	4.33
■ 지식/정보/기술 분야 ■	(384)	2.6	2.7	9.8	14.3	68.5	2.1	5.3	9.8	82.8	100.0	4.46
■ 서비스 분야 ■	(17)	.0	.0	14.1	6.1	79.8	.0	.0	14.1	85.9	100.0	4.66
■ 제조/건설 분야 ■	(8)	.0	.0	27.5	14.0	58.5	.0	.0	27.5	72.5	100.0	4.31
■ 판매/서비스 분야 ■	(1)	.0	.0	.0	.0	.0	.0	100.0	.0	.0	100.0	2.00
■ 보건/의료 분야 ■	(458)	6.8	2.7	13.3	17.9	57.3	2.0	9.5	13.3	75.2	100.0	4.18
■ 기타 ■	(80)	5.1	3.5	9.3	13.8	52.1	16.1	8.7	9.3	65.9	100.0	4.24
■ 이념/성향 ■	(472)	4.1	2.0	12.1	12.4	67.9	1.6	6.1	12.1	80.2	100.0	4.40
■ 보수/중도/진보 ■	(545)	5.3	4.5	17.8	12.5	58.2	1.7	9.8	17.8	70.7	100.0	4.16
■ 대우/무우 ■	(392)	3.1	1.2	8.2	20.4	66.4	.7	4.3	8.2	86.8	100.0	4.47
■ 기타 ■	(91)	7.1	3.2	7.5	7.8	49.0	25.3	10.4	7.5	56.8	100.0	4.18
■ 정치/사회/문화 분야 ■	(231)	5.6	2.4	12.8	14.4	63.7	1.1	8.0	12.8	78.2	100.0	4.30
■ 지식/정보/기술 분야 ■	(555)	5.0	5.7	14.0	10.2	58.8	6.4	10.7	14.0	69.0	100.0	4.20
■ 서비스 분야 ■	(59)	5.7	1.3	12.1	14.7	66.1	.0	7.0	12.1	80.8	100.0	4.34
■ 제조/건설 분야 ■	(540)	3.7	.5	12.0	17.8	65.6	.4	4.2	12.0	83.3	100.0	4.41
■ 판매/서비스 분야 ■	(15)	5.7	4.6	6.7	23.6	59.4	.0	10.3	6.7	83.0	100.0	4.26
■ 보건/의료 분야 ■	(86)	1.2	.0	14.1	17.9	66.8	.0	1.2	14.1	84.7	100.0	4.49
■ 기타 ■	(14)	6.6	.0	5.7	.0	69.2	18.5	6.6	5.7	69.2	100.0	4.54
■ 투표/선거 ■	(1300)	4.4	2.5	12.4	13.3	64.2	3.3	6.9	12.4	77.4	100.0	4.35
■ 투표 ■	(155)	5.9	2.7	17.3	21.4	52.7	.0	8.5	17.3	74.1	100.0	4.12
■ 투표(보수/중도) ■	(36)	2.1	8.2	10.6	21.4	57.7	.0	10.3	10.6	79.1	100.0	4.24
■ 투표(진보) ■	(9)	.0	23.5	11.6	.0	64.9	.0	23.5	11.6	64.9	100.0	4.06
■ 대선 후보 지지도 ■	(669)	5.1	2.9	14.4	13.3	61.6	2.7	7.9	14.4	75.0	100.0	4.27
■ 박근혜 지지도 ■	(519)	2.8	2.6	9.5	14.6	69.0	1.5	5.3	9.5	83.6	100.0	4.47
■ 문재인 지지도 ■	(9)	.0	10.4	12.6	12.0	65.1	.0	10.4	12.6	77.1	100.0	4.32
■ 기타 ■	(154)	6.5	3.2	15.2	18.6	54.8	1.6	9.7	15.2	73.4	100.0	4.14
■ 기타(150) ■	(150)	6.0	2.0	15.3	12.8	54.6	9.3	8.0	15.3	67.4	100.0	4.19
■ 고령/노년층 ■	(221)	3.7	1.5	11.5	15.7	67.3	.4	5.2	11.5	82.9	100.0	4.42
■ 19~29세 ■	(195)	4.4	2.9	14.5	15.6	60.6	2.0	7.3	14.5	76.2	100.0	4.28
■ 30~39세 ■	(235)	4.6	2.9	11.3	14.3	63.3	3.7	7.5	11.3	77.6	100.0	4.34
■ 40~49세 ■	(268)	4.4	3.4	9.2	13.6	64.3	5.0	7.8	9.2	77.9	100.0	4.37
■ 50~59세 ■	(228)	4.3	4.1	13.6	16.1	58.6	3.4	8.4	13.6	74.6	100.0	4.25
■ 60세 이상 ■	(245)	5.7	2.3	15.3	11.9	63.2	1.6	8.0	15.3	75.1	100.0	4.27
■ 기타 ■	(109)	3.7	1.5	18.2	11.6	61.3	3.7	5.2	18.2	72.9	100.0	4.30

【 표 16 】 대통령임기(정치상식)

[문 12-1]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사례수	정인지	오인지	계
		(5년)	(5년 이상의 답변)	
		%	%	
■ 전 체 ■	(1500)	85.0	15.0	100.0
■ 남성	(742)	88.6	11.4	100.0
■ 여성	(758)	81.5	18.5	100.0
■ 19-29세	(278)	77.6	22.4	100.0
■ 30-39세	(307)	84.9	15.1	100.0
■ 40-49세	(331)	86.7	13.3	100.0
■ 50-59세	(282)	86.6	13.4	100.0
■ 60대 이상	(302)	88.6	11.4	100.0
■ 지식인	(311)	91.9	8.1	100.0
■ 일반인	(428)	79.5	20.5	100.0
■ 대학원생	(152)	84.9	15.1	100.0
■ 대학원생	(153)	85.0	15.0	100.0
■ 대학원생	(155)	83.2	16.8	100.0
■ 대학원생	(239)	87.0	13.0	100.0
■ 대학원생	(62)	84.6	15.4	100.0
■ 학부생	(223)	82.7	17.3	100.0
■ 대학원생	(513)	82.4	17.6	100.0
■ 대학생	(741)	87.7	12.3	100.0
■ 대학생	(22)	74.7	25.3	100.0
■ 정치인	(57)	84.1	15.9	100.0
■ 일반인	(246)	86.2	13.8	100.0
■ 정치인	(150)	80.3	19.7	100.0
■ 일반인	(416)	89.0	11.0	100.0
■ 정치인	(344)	82.3	17.7	100.0
■ 일반인	(144)	80.7	19.3	100.0
■ 정치인	(138)	87.5	12.5	100.0
■ 일반인	(5)	83.0	17.0	100.0
■ 200만 원 이하	(349)	83.8	16.2	100.0
■ 201~300만 원	(252)	83.0	17.0	100.0
■ 301~400만 원	(262)	86.1	13.9	100.0
■ 401~500만 원	(204)	86.0	14.0	100.0
■ 501만 원 이상	(282)	89.2	10.8	100.0
■ 대학생	(151)	79.8	20.2	100.0
■ 정치인	(553)	84.9	15.1	100.0
■ 일반인	(384)	83.5	16.5	100.0
■ 정치인	(17)	79.9	20.1	100.0
■ 일반인	(8)	81.9	18.1	100.0
■ 정치인	(1)	100.0	0.0	100.0
■ 일반인	(458)	86.1	13.9	100.0
■ 정치인	(80)	87.0	13.0	100.0
■ 이념성	(472)	87.2	12.8	100.0
■ 중도	(545)	82.4	17.6	100.0
■ 보수	(392)	86.2	13.8	100.0
■ 진보	(91)	83.7	16.3	100.0
■ 정치인	(231)	92.2	7.8	100.0
■ 일반인	(555)	82.1	17.9	100.0
■ 정치인	(59)	92.0	8.0	100.0
■ 일반인	(540)	85.3	14.7	100.0
■ 정치인	(15)	87.4	12.6	100.0
■ 일반인	(86)	79.7	20.3	100.0
■ 정치인	(14)	66.8	33.2	100.0
■ 투표	(1300)	86.0	14.0	100.0
■ 투표	(155)	77.2	22.8	100.0
■ 투표	(36)	83.6	16.4	100.0
■ 투표	(9)	72.8	27.2	100.0
■ 대선 후보 지지	(669)	83.9	16.1	100.0
■ 일반인	(519)	84.8	15.2	100.0
■ 대선 후보 지지	(9)	100.0	0.0	100.0
■ 일반인	(154)	89.2	10.8	100.0
■ 대선 후보 지지	(150)	85.2	14.8	100.0
■ 고서인	(221)	88.4	11.6	100.0
■ 일반인	(195)	76.9	23.1	100.0
■ 고서인	(235)	81.9	18.1	100.0
■ 일반인	(268)	86.6	13.4	100.0
■ 고서인	(228)	86.1	13.9	100.0
■ 일반인	(245)	88.0	12.0	100.0
■ 고서인	(109)	85.9	14.1	100.0

【 표 17 】 국회의원 임기(정치상식)

[문 12-2]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사례수	정인지	오인지	계
		(4년)	(4년 이외의 답변)	
		%	%	
■ 전 체 ■	(1500)	82.3	17.7	100.0
■ 남성	(742)	86.7	13.3	100.0
■ 여성	(758)	78.0	22.0	100.0
■ 19~29세	(278)	73.4	26.6	100.0
■ 30~39세	(307)	82.5	17.5	100.0
■ 40~49세	(331)	83.6	16.4	100.0
■ 50~59세	(282)	87.7	12.3	100.0
■ 60대 이상	(302)	84.0	16.0	100.0
■ 지식인	(311)	86.1	13.9	100.0
■ 일반인	(428)	81.2	18.8	100.0
■ 대학원생	(152)	81.7	18.3	100.0
■ 대학원 졸업생	(153)	81.2	18.8	100.0
■ 대학원 미수료	(155)	83.2	16.8	100.0
■ 대학원 미수료 예정	(239)	80.1	19.9	100.0
■ 대학원 미수료 미예정	(62)	81.7	18.3	100.0
■ 학부생	(223)	80.6	19.4	100.0
■ 대학원생	(513)	80.0	20.0	100.0
■ 대학원 졸업생	(741)	84.9	15.1	100.0
■ 대학원 미수료	(22)	66.6	33.4	100.0
■ 진 자 / 어	(57)	95.2	4.8	100.0
■ 자 자 / 어	(246)	86.6	13.4	100.0
■ 자 자 / 어	(150)	71.0	29.0	100.0
■ 자 자 / 어	(416)	85.6	14.4	100.0
■ 자 자 / 어	(344)	80.3	19.7	100.0
■ 자 자 / 어	(144)	74.0	26.0	100.0
■ 자 자 / 어	(138)	85.5	14.5	100.0
■ 자 자 / 어	(5)	83.0	17.0	100.0
■ 소 200만 원 이하	(349)	79.8	20.2	100.0
■ 소 201~300만 원	(252)	82.2	17.8	100.0
■ 소 301~400만 원	(262)	82.2	17.8	100.0
■ 소 401~500만 원	(204)	85.0	15.0	100.0
■ 소 501만 원 이상	(282)	86.6	13.4	100.0
■ 소 200만 원 이하	(151)	77.1	22.9	100.0
■ 정 당 지 지	(553)	80.6	19.4	100.0
■ 정 당 지 지	(384)	85.5	14.5	100.0
■ 정 당 지 지	(17)	68.1	31.9	100.0
■ 정 당 지 지	(8)	100.0	.0	100.0
■ 정 당 지 지	(1)	100.0	.0	100.0
■ 정 당 지 지	(458)	82.8	17.2	100.0
■ 정 당 지 지	(80)	77.8	22.2	100.0
■ 이 년 성	(472)	85.8	14.2	100.0
■ 이 년 성	(545)	79.3	20.7	100.0
■ 이 년 성	(392)	85.5	14.5	100.0
■ 이 년 성	(91)	69.0	31.0	100.0
■ 정 도 습 득 경	(231)	92.8	7.2	100.0
■ 정 도 습 득 경	(555)	79.9	20.1	100.0
■ 정 도 습 득 경	(59)	79.8	20.2	100.0
■ 정 도 습 득 경	(540)	81.4	18.6	100.0
■ 정 도 습 득 경	(15)	95.4	4.6	100.0
■ 정 도 습 득 경	(86)	77.6	22.4	100.0
■ 정 도 습 득 경	(14)	66.7	33.3	100.0
■ 투 표 기 관	(1300)	84.5	15.5	100.0
■ 투 표 기 관	(155)	69.7	30.3	100.0
■ 투 표 기 관	(36)	71.2	28.8	100.0
■ 투 표 기 관	(9)	33.2	66.8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669)	81.2	18.8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519)	84.5	15.5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9)	100.0	.0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154)	83.5	16.5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150)	77.3	22.7	100.0
■ 고 서 인 대	(221)	84.6	15.4	100.0
■ 고 서 인 대	(195)	76.9	23.1	100.0
■ 고 서 인 대	(235)	83.1	16.9	100.0
■ 고 서 인 대	(268)	84.6	15.4	100.0
■ 고 서 인 대	(228)	81.2	18.8	100.0
■ 고 서 인 대	(245)	82.2	17.8	100.0
■ 고 서 인 대	(109)	82.8	17.2	100.0

【 표 18 】 국무총리(정치상식)

[문 12-3] 현재 국무총리는 누구입니까?

	사례수	김황식 (정답)	박재완	고건	정운찬	모 답 / 미 답	계
		%					
■ 전 체 ■	(1500)	42.1	.4	.8	4.1	52.6	100.0
■ 여성 ■	(742)	53.2	.3	.5	2.4	43.6	100.0
■ 1990년대 ■	(278)	21.9	.9	.5	6.2	70.6	100.0
■ 2000년대 ■	(307)	36.6	.0	1.1	3.6	58.7	100.0
■ 4000년대 ■	(331)	48.7	.9	.9	4.7	44.8	100.0
■ 5000년대 ■	(282)	51.1	.0	.3	3.2	45.3	100.0
■ 6000년대 ■	(302)	50.5	.3	1.4	2.8	45.0	100.0
■ 지식인 ■	(311)	49.7	.6	1.2	3.7	44.8	100.0
■ 일반인 ■	(428)	38.3	.3	.5	4.4	56.5	100.0
■ 대학 ■	(152)	41.0	.6	1.2	5.1	52.2	100.0
■ 대학원 ■	(153)	44.5	.0	.0	3.0	52.5	100.0
■ 대학원생 ■	(155)	39.9	.0	2.0	5.2	52.9	100.0
■ 대학원생 ■	(239)	40.7	.4	.7	3.4	54.8	100.0
■ 대학원생 ■	(62)	36.9	1.9	.0	4.5	56.7	100.0
■ 학생 ■	(223)	33.4	.0	1.2	3.8	61.6	100.0
■ 대학생 ■	(513)	39.8	.8	1.5	3.4	54.5	100.0
■ 대학원생 ■	(741)	46.4	.3	.3	4.7	48.3	100.0
■ 대학원생 ■	(22)	37.7	.0	.0	4.5	57.9	100.0
■ 직업 ■	(57)	49.2	.0	.0	8.3	42.4	100.0
■ 자영업자 ■	(246)	54.6	.4	.6	3.7	40.7	100.0
■ 일반직 ■	(150)	40.5	.0	1.4	5.2	52.8	100.0
■ 이직 ■	(416)	46.6	.0	1.0	4.4	48.1	100.0
■ 가업 ■	(344)	33.4	.6	1.0	3.0	62.0	100.0
■ 학업 ■	(144)	17.9	1.7	.9	5.4	74.1	100.0
■ 직업 ■	(138)	51.8	.6	.0	2.5	45.1	100.0
■ 직업 ■	(5)	37.3	.0	.0	.0	62.7	100.0
■ 소득 ■	(349)	41.2	.8	1.2	4.1	52.7	100.0
■ 200만 이하 ■	(252)	43.6	.0	.4	4.1	51.9	100.0
■ 201~300만 ■	(262)	42.3	.5	.4	5.5	51.3	100.0
■ 301~400만 ■	(204)	47.1	.5	.5	4.8	47.0	100.0
■ 401~500만 ■	(282)	44.7	.0	1.0	2.2	52.1	100.0
■ 501만 이상 ■	(151)	29.2	.8	1.5	4.2	64.3	100.0
■ 정치 ■	(553)	44.5	.9	1.4	3.5	49.7	100.0
■ 새누리당 ■	(384)	43.8	.0	.3	4.6	51.4	100.0
■ 민주노동당 ■	(17)	21.3	.0	.0	6.9	71.8	100.0
■ 기타 ■	(8)	70.5	.0	.0	.0	29.5	100.0
■ 정치 ■	(1)	.0	.0	.0	.0	100.0	100.0
■ 정치 ■	(458)	38.4	.3	.8	4.9	55.6	100.0
■ 정치 ■	(80)	40.2	.0	.0	1.1	58.7	100.0
■ 이념 ■	(472)	50.6	.9	1.6	2.8	44.1	100.0
■ 보수 ■	(545)	37.6	.4	.7	4.5	56.8	100.0
■ 진보 ■	(392)	42.1	.0	.3	4.5	53.2	100.0
■ 이념 ■	(91)	24.5	.0	.0	6.6	68.9	100.0
■ 정치 ■	(231)	58.3	.5	.0	1.4	39.8	100.0
■ 보수 ■	(555)	38.3	.5	1.4	4.1	55.6	100.0
■ 진보 ■	(59)	49.5	.0	3.7	5.2	41.7	100.0
■ 정치 ■	(540)	40.4	.2	.4	4.6	54.2	100.0
■ 보수 ■	(15)	36.5	.0	.0	10.4	53.2	100.0
■ 진보 ■	(86)	28.5	1.5	.0	5.8	64.2	100.0
■ 정치 ■	(14)	47.2	.0	.0	.0	52.8	100.0
■ 투표 ■	(1300)	43.8	.4	1.0	3.6	51.3	100.0
■ 투표 ■	(155)	29.5	.6	.0	7.3	62.6	100.0
■ 투표 ■	(36)	42.1	.0	.0	6.3	51.6	100.0
■ 투표 ■	(9)	11.6	.0	.0	11.8	76.6	100.0
■ 대선 ■	(669)	41.8	.6	1.3	4.3	52.0	100.0
■ 후보 ■	(519)	45.6	.0	.2	4.0	50.2	100.0
■ 지지 ■	(9)	32.9	.0	.0	12.0	55.1	100.0
■ 지지 ■	(154)	37.9	.8	1.0	6.0	54.3	100.0
■ 지지 ■	(150)	35.6	.7	.6	1.3	61.9	100.0
■ 고서 ■	(221)	42.5	.5	.5	4.1	52.5	100.0
■ 서신 ■	(195)	33.7	.6	1.2	3.8	60.7	100.0
■ 서신 ■	(235)	44.5	.4	.8	4.2	50.2	100.0
■ 서신 ■	(268)	46.4	.4	.7	4.2	48.4	100.0
■ 서신 ■	(228)	44.2	.0	1.3	4.4	50.2	100.0
■ 서신 ■	(245)	41.9	.4	.6	4.2	52.9	100.0
■ 서신 ■	(109)	36.6	1.1	.8	3.5	58.1	100.0

【 표 19 】 국회의장(정치상식)

[문 12-4] 현재 국회의장은 누구입니까?

	사례수	강창희 (정답)	이만섭	박희태	김형오	모름/ 이답	계
		%	%	%	%		
■ 전 체 ■	(1500)	20.7	.8	3.5	2.2	72.8	100.0
■ 여성	(742)	27.5	.1	2.9	3.1	66.3	100.0
■ 19 - 29 세	(278)	8.2	.5	4.2	1.3	85.9	100.0
■ 30 - 39 세	(307)	15.3	.7	2.8	3.2	78.0	100.0
■ 40 - 49 세	(331)	21.6	.5	4.0	3.3	70.7	100.0
■ 50 - 59 세	(282)	29.1	.6	3.0	1.7	65.6	100.0
■ 60 세 이상	(302)	28.9	2.0	3.8	1.1	64.2	100.0
■ 지식인	(311)	22.5	.6	4.0	.6	72.2	100.0
■ 일반인	(428)	18.1	.7	5.1	2.5	73.6	100.0
■ 대학	(152)	30.4	1.2	3.6	3.0	61.8	100.0
■ 대학원	(153)	17.8	1.3	2.7	2.2	76.0	100.0
■ 대학원생	(155)	18.5	.5	2.8	2.5	75.7	100.0
■ 대학원생	(239)	18.9	1.0	1.1	2.6	76.4	100.0
■ 대학원생	(62)	25.2	1.2	3.6	3.0	66.9	100.0
■ 학생	(223)	13.5	1.9	4.3	.8	79.4	100.0
■ 대학생	(513)	23.8	1.0	1.6	1.7	71.9	100.0
■ 대학원생	(741)	20.9	.5	4.6	2.9	71.1	100.0
■ 대학생	(22)	11.7	.0	3.2	4.2	80.9	100.0
■ 지식인	(57)	26.9	1.9	6.0	2.7	62.5	100.0
■ 일반인	(246)	27.5	.4	3.1	3.1	66.0	100.0
■ 대학	(150)	17.5	.0	4.7	1.8	76.0	100.0
■ 대학원	(416)	19.6	1.0	4.5	2.9	72.0	100.0
■ 대학원생	(344)	16.8	1.4	3.4	1.0	77.3	100.0
■ 대학원생	(144)	7.5	.0	2.4	1.6	88.4	100.0
■ 대학원생	(138)	36.4	1.2	.7	2.1	59.6	100.0
■ 대학생	(5)	20.6	.0	.0	.0	79.4	100.0
■ 200 만원 미만	(349)	21.9	1.2	3.5	1.0	72.4	100.0
■ 201 ~ 300 만원	(252)	22.2	1.1	1.3	3.7	71.7	100.0
■ 301 ~ 400 만원	(262)	21.4	.4	4.5	2.1	71.6	100.0
■ 401 ~ 500 만원	(204)	20.5	.8	7.0	3.2	68.5	100.0
■ 501 만원 이상	(282)	20.5	.7	2.9	2.7	73.1	100.0
■ 모름	(151)	14.6	.5	2.4	.0	82.5	100.0
■ 정치인	(553)	24.6	.4	3.5	2.5	69.0	100.0
■ 새누리당	(384)	21.3	1.5	4.7	1.7	70.8	100.0
■ 민주통합당	(17)	10.5	.0	13.2	.0	76.3	100.0
■ 기타	(8)	14.4	.0	11.4	.0	74.2	100.0
■ 정치인	(1)	.0	.0	.0	.0	100.0	100.0
■ 정치인	(458)	16.9	1.0	2.0	2.5	77.6	100.0
■ 정치인	(80)	15.1	.0	4.3	1.3	79.4	100.0
■ 이만섭	(472)	28.1	.9	3.3	2.4	65.3	100.0
■ 강창희	(545)	17.4	.9	3.3	2.1	76.4	100.0
■ 박희태	(392)	19.2	1.0	4.5	2.6	72.7	100.0
■ 김형오	(91)	8.5	.0	1.9	.0	89.6	100.0
■ 강창희	(231)	31.4	.3	1.7	3.4	63.1	100.0
■ 이만섭	(555)	18.5	1.3	4.4	1.0	75.0	100.0
■ 박희태	(59)	19.7	2.6	1.5	5.0	71.1	100.0
■ 김형오	(540)	20.2	.7	3.8	2.7	72.6	100.0
■ 강창희	(15)	5.3	.0	.0	.0	94.7	100.0
■ 이만섭	(86)	10.3	.0	4.3	2.3	83.1	100.0
■ 박희태	(14)	32.2	.0	.0	.0	67.8	100.0
■ 강창희	(1300)	21.7	1.0	3.8	2.2	71.3	100.0
■ 이만섭	(155)	13.8	.0	1.5	2.5	82.3	100.0
■ 박희태	(36)	20.2	.0	.0	.0	79.8	100.0
■ 김형오	(9)	.0	.0	14.3	.0	85.7	100.0
■ 대선 후보	(669)	23.1	.6	3.7	2.5	70.2	100.0
■ 박희태	(519)	19.0	.9	4.8	2.4	72.9	100.0
■ 강창희	(9)	45.2	.0	.0	.0	54.8	100.0
■ 이만섭	(154)	15.1	2.6	1.2	1.9	79.2	100.0
■ 박희태	(150)	19.8	.0	1.2	.7	78.3	100.0
■ 강창희	(221)	18.1	.0	4.7	1.0	76.2	100.0
■ 이만섭	(195)	14.2	.6	4.3	2.5	78.3	100.0
■ 박희태	(235)	26.3	1.2	3.1	1.9	67.5	100.0
■ 김형오	(268)	23.1	1.1	2.9	1.8	71.1	100.0
■ 강창희	(228)	20.6	.7	4.1	3.5	71.0	100.0
■ 이만섭	(245)	20.3	1.3	1.2	1.8	75.4	100.0
■ 박희태	(109)	20.4	.8	6.3	3.6	68.9	100.0

【 표 20 】 박근혜 호감도

[문 13-1]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0부터 10까지 정치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0은 선생님께서 그 지도자를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10은 선생님께서 그 정치지도자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_/_ 먼저, 박근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0 매우 싫어한다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좋아한다
		%	%	%	%	%	%	%	%	%	%	%
■ 전 체 ■	(1500)	10.0	2.4	3.7	5.8	3.3	21.4	6.5	10.3	10.2	5.0	18.0
■ 성별 ■	(742)	10.8	2.2	5.3	7.5	3.0	20.5	7.8	9.5	9.5	4.8	16.5
■ 연령 ■	(758)	9.2	2.5	2.0	4.1	3.5	22.3	5.1	10.9	10.8	5.3	19.5
■ 19-29 ■	(278)	11.4	4.0	7.4	8.3	4.3	28.6	5.8	15.4	7.1	.8	5.5
■ 30-39 ■	(307)	16.2	2.9	3.4	9.7	3.3	25.1	7.1	8.0	10.0	3.9	6.7
■ 40-49 ■	(331)	11.6	3.1	3.6	5.5	3.3	23.5	8.7	11.6	10.9	5.3	11.8
■ 50-59 ■	(282)	5.3	1.2	3.0	4.0	5.0	16.1	4.9	10.0	12.8	6.4	27.2
■ 60 이상 ■	(302)	4.9	.6	1.1	1.6	.6	13.9	5.5	6.6	9.9	9.2	39.3
■ 지역 ■	(311)	13.1	3.0	3.8	7.2	4.4	19.5	7.0	10.2	8.8	3.8	15.5
■ 서울 ■	(428)	10.1	1.8	4.4	6.6	2.3	21.5	8.0	9.6	10.3	5.7	15.6
■ 부산 ■	(152)	7.2	4.6	5.1	4.4	4.3	23.3	3.1	8.8	11.1	3.0	23.8
■ 대구 ■	(153)	19.5	4.5	6.4	5.9	7.0	26.6	7.2	7.0	3.9	.0	5.4
■ 대전 ■	(155)	1.9	.6	1.0	6.9	2.4	13.9	3.6	13.1	16.5	10.3	28.0
■ 광주 ■	(239)	7.1	1.0	2.1	4.2	1.3	21.2	5.6	12.3	11.2	7.3	23.1
■ 울산 ■	(62)	7.6	1.9	.0	.0	2.3	33.3	9.4	11.5	9.0	2.4	20.3
■ 학력 ■	(223)	6.3	.4	.8	1.2	2.3	13.6	7.0	4.3	9.2	9.6	37.7
■ 고졸 ■	(513)	7.6	1.2	3.7	4.7	3.1	22.0	5.1	11.7	12.3	4.1	21.2
■ 대졸 ■	(741)	12.6	3.8	4.6	8.1	3.8	23.7	7.4	11.4	8.8	4.3	9.5
■ 무응답 ■	(22)	15.9	.0	.0	.0	.0	11.3	.0	.0	14.8	7.1	31.2
■ 직업 ■	(57)	12.9	.0	1.8	.0	8.1	20.4	11.2	6.6	1.3	4.6	27.5
■ 학생 ■	(246)	8.2	2.0	2.6	5.5	2.1	21.3	6.9	9.0	11.1	6.1	23.3
■ 일반직 ■	(150)	12.0	.0	5.3	6.1	4.5	19.4	4.0	8.6	11.9	5.2	16.5
■ 공무원 ■	(416)	14.2	4.3	5.0	8.8	3.9	23.2	7.6	11.2	9.4	3.2	6.9
■ 자영업자 ■	(344)	5.4	1.1	1.6	2.5	3.0	18.9	5.8	9.5	12.2	7.7	26.6
■ 무직 ■	(144)	10.5	5.4	6.6	10.1	3.1	24.7	7.1	20.7	7.7	.8	3.3
■ 무응답 ■	(138)	7.7	.9	2.5	3.3	1.4	22.8	4.1	4.4	9.7	6.7	32.8
■ 무응답 ■	(5)	15.4	.0	.0	.0	.0	.0	.0	.0	20.6	.0	47.3
■ 소득 ■	(349)	7.6	1.5	1.2	3.1	2.6	20.3	3.6	6.3	10.2	6.7	30.6
■ 200만 이하 ■	(252)	8.7	2.0	3.8	6.2	2.7	22.4	6.6	12.1	9.9	4.0	19.2
■ 300만 이상 ■	(262)	8.7	2.8	4.8	6.3	2.7	23.7	8.6	9.1	11.0	6.0	13.6
■ 401-500만 ■	(204)	13.1	4.2	3.7	5.8	4.3	22.5	7.2	12.0	11.4	3.4	10.5
■ 501만 이상 ■	(282)	11.9	2.7	4.3	7.9	3.6	18.4	7.3	14.0	11.2	5.2	11.8
■ 무응답 ■	(151)	11.9	1.3	5.8	6.7	4.7	22.7	6.4	8.7	5.3	3.4	16.3
■ 정치대응 ■	(553)	25.9	3.0	.7	1.2	.9	9.4	5.1	13.9	18.6	11.1	37.7
■ 지지 ■	(384)	29.3	.0	7.0	9.6	6.1	25.9	6.7	5.7	3.5	.4	2.8
■ 반대 ■	(17)	25.8	.0	.0	18.0	.0	29.1	.0	5.1	.0	.0	.0
■ 모름 ■	(8)	.0	.0	.0	48.7	.0	.0	.0	13.1	.0	.0	.0
■ 무응답 ■	(1)	.0	.0	.0	.0	.0	.0	.0	.0	.0	.0	.0
■ 무응답 ■	(458)	8.3	4.3	4.6	6.6	3.4	32.5	8.7	9.6	6.6	2.2	8.6
■ 무응답 ■	(80)	3.2	1.0	1.0	8.5	5.1	20.9	3.6	11.1	7.7	3.8	14.7
■ 이념 ■	(472)	4.5	1.2	2.9	2.9	1.3	14.9	8.3	12.5	14.2	7.5	27.7
■ 중도 ■	(545)	8.0	1.0	2.4	5.7	4.1	26.1	5.1	12.0	12.0	5.2	14.7
■ 진보 ■	(392)	20.4	6.0	7.1	10.2	4.8	25.1	7.1	6.7	3.6	1.1	6.0
■ 무응답 ■	(91)	5.1	1.0	.0	3.0	1.7	11.6	2.9	3.2	6.3	8.4	39.6
■ 정보수용 ■	(231)	4.2	1.2	1.2	4.0	2.9	21.9	7.9	12.2	13.8	7.1	22.1
■ 신지식 ■	(565)	6.0	.5	2.0	3.4	3.0	18.8	5.5	9.5	12.3	6.4	27.1
■ 케일 ■	(59)	3.0	1.4	5.1	4.9	1.5	19.3	5.2	15.3	3.1	6.9	34.1
■ 인디언 ■	(540)	15.9	4.7	6.0	9.0	3.8	24.7	7.0	9.7	7.1	2.3	7.1
■ 라디오 ■	(15)	5.0	5.3	.0	6.7	5.7	29.2	5.3	4.6	12.9	19.4	5.9
■ 휴대폰 ■	(86)	18.4	3.5	6.8	8.2	4.1	16.9	6.4	12.5	10.6	5.0	5.8
■ 무응답 ■	(14)	16.1	.0	.0	.0	.0	18.5	6.6	.0	7.6	.0	33.4
■ 투표의 ■	(1300)	10.6	2.5	3.7	5.6	3.1	19.8	5.9	9.6	10.4	5.5	20.0
■ 적극적 ■	(155)	6.3	1.9	1.9	6.0	3.8	31.8	10.4	16.3	10.7	1.9	5.1
■ 소극적 ■	(36)	4.9	.0	8.5	10.2	7.3	34.8	12.9	7.0	2.6	.0	3.0
■ 무응답 ■	(9)	.0	.0	8.4	13.5	.0	27.2	.0	14.3	.0	13.2	11.6
■ 대선후 ■	(669)	25.1	.0	.5	1.2	.8	11.6	5.2	14.7	17.6	10.4	36.8
■ 박근혜 ■	(519)	22.0	5.4	7.7	11.2	5.4	28.1	5.6	5.2	2.5	.2	1.5
■ 김대중 ■	(9)	6.7	4.1	4.7	6.3	5.5	35.6	10.7	8.6	5.4	.6	2.2
■ 무응답 ■	(150)	3.5	.7	2.0	6.4	5.1	27.9	10.5	10.3	9.1	2.7	8.7
■ 고서인 ■	(221)	13.9	2.5	4.9	10.4	3.8	27.2	4.5	8.3	9.4	1.3	10.0
■ 천정환 ■	(195)	9.6	1.8	4.3	4.4	2.5	20.3	7.0	10.3	9.1	8.5	18.7
■ 김문기 ■	(235)	7.5	2.9	1.9	4.1	2.9	20.8	5.8	9.0	11.2	3.8	27.2
■ 김근태 ■	(268)	14.0	4.8	7.9	6.8	6.8	23.0	8.4	8.1	5.1	2.1	8.1
■ 김문기 ■	(228)	6.5	.4	.9	4.7	2.8	14.4	4.5	14.7	15.8	8.3	23.3
■ 부영 ■	(245)	8.7	1.9	1.5	5.7	1.3	23.0	5.9	12.1	10.2	7.0	19.9
■ 김문기 ■	(109)	8.3	1.1	3.7	3.0	1.2	20.8	11.4	8.8	12.0	5.4	22.2

[계 속]

【 표 21 】 문재인 호감도

	사례수	[문 13-2] 그러면, 문재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매우 싫어한다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좋아한다
		%	%	%	%	%	%	%	%	%	%	%
■ 전 체 ■	(1500)	7.8	1.9	4.0	5.5	5.2	27.7	10.4	11.4	10.7	2.7	6.3
■ 여 성 ■	(742)	8.5	2.1	3.9	6.6	4.9	25.6	10.4	13.9	11.2	2.9	6.7
■ 남 성 ■	(758)	7.1	1.7	4.0	4.6	5.5	29.8	10.5	9.0	10.3	2.5	6.0
■ 19 - 29 세 대 ■	(278)	1.7	1.8	4.7	7.1	3.5	31.9	15.0	14.4	12.9	1.8	3.9
■ 30 - 39 세 대 ■	(307)	6.0	1.5	2.1	4.1	4.5	28.4	11.6	16.4	11.0	2.1	7.0
■ 40 - 49 세 대 ■	(331)	3.5	1.8	3.3	4.6	7.7	28.9	10.0	11.2	13.8	3.8	7.7
■ 50 - 59 세 대 ■	(282)	12.1	2.4	5.4	6.4	5.8	24.5	8.0	10.5	9.1	2.6	5.7
■ 60 세 이상 ■	(302)	16.1	2.2	4.6	5.8	4.4	24.9	7.9	4.8	6.7	3.2	7.2
■ 지식인 ■	(311)	7.7	1.5	5.8	7.1	5.5	23.2	13.9	14.3	6.4	3.2	5.0
■ 일반인 ■	(428)	8.0	2.0	2.6	8.0	5.7	28.5	10.8	9.7	10.5	1.5	6.4
■ 대학원생 ■	(152)	7.9	1.9	4.0	5.0	3.8	31.2	9.1	8.7	9.0	3.3	8.8
■ 대학생 ■	(153)	1.8	.8	4.8	.7	1.9	21.2	11.2	17.4	14.4	5.7	14.7
■ 부속생 ■	(155)	12.8	3.4	5.5	6.2	10.1	25.9	10.0	9.2	8.1	2.4	1.8
■ 안전 ■	(239)	7.5	2.0	3.2	2.2	3.5	34.4	6.8	9.1	17.6	1.9	4.3
■ 안안 ■	(62)	10.3	2.4	1.2	5.4	7.0	30.5	7.0	15.1	9.8	3.9	5.1
■ 학력 ■	(223)	12.5	1.1	3.2	5.4	6.0	21.3	6.3	4.7	9.6	3.2	9.8
■ 고졸 이하 ■	(513)	8.0	2.4	4.8	5.2	5.2	31.4	9.8	10.2	9.6	2.3	5.7
■ 대졸 이상 ■	(741)	5.9	1.9	3.6	6.0	5.2	26.9	12.4	14.7	11.8	3.0	5.8
■ 무응답 ■	(22)	19.4	.0	4.8	.0	.0	34.0	.0	.0	14.4	.0	4.5
■ 직업 ■	(57)	9.1	1.4	1.4	6.4	2.5	22.4	9.9	9.8	9.3	1.4	17.6
■ 자영업자 ■	(246)	11.2	1.4	4.9	5.0	5.4	28.0	8.1	12.6	9.6	2.2	6.5
■ 일반직 ■	(150)	6.1	3.6	6.3	4.5	3.9	28.7	9.3	11.3	11.3	2.7	5.9
■ 공무원 ■	(416)	3.8	1.4	3.4	4.8	5.0	26.3	13.9	15.5	13.0	3.4	7.0
■ 기타 ■	(344)	9.9	1.4	3.8	5.4	6.5	29.4	7.9	5.9	9.3	2.4	5.9
■ 무응답 ■	(144)	2.5	3.5	5.0	7.4	3.5	30.7	14.6	16.3	11.7	1.6	3.3
■ 직업 ■	(138)	14.7	2.5	1.9	8.1	7.2	25.4	8.1	7.0	8.3	4.4	4.0
■ 무응답 ■	(5)	30.3	.0	.0	.0	.0	17.0	.0	.0	20.6	.0	15.4
■ 소득 ■	(349)	11.9	.7	3.9	4.6	4.8	25.2	6.9	6.5	12.4	3.5	7.6
■ 200만 이하 ■	(252)	8.3	2.7	4.1	6.3	6.2	33.6	10.2	12.3	8.6	.8	4.2
■ 300만 이상 ■	(262)	7.7	4.5	4.5	6.2	7.8	27.4	9.2	10.7	10.2	2.2	6.9
■ 401만 이상 ■	(204)	3.5	1.9	2.8	6.1	2.0	30.5	13.4	13.3	12.0	4.2	6.1
■ 501만 이상 ■	(282)	5.5	1.0	3.9	5.0	5.9	23.2	12.7	16.7	12.9	3.5	7.5
■ 무응답 ■	(151)	8.0	.7	4.5	5.4	3.3	28.7	12.9	10.2	5.7	1.6	4.2
■ 정치 ■	(553)	17.1	3.9	6.0	9.5	8.4	28.3	7.3	6.8	5.1	.8	.6
■ 새누리당 ■	(384)	.2	.5	1.3	1.6	1.9	14.6	11.8	20.2	18.4	6.8	20.3
■ 민주통합당 ■	(17)	.0	.0	.0	.0	.0	22.5	4.8	19.4	16.6	10.7	12.0
■ 기타 ■	(8)	.0	.0	.0	.0	.0	13.1	14.0	30.5	30.9	.0	11.4
■ 무응답 ■	(1)	.0	.0	.0	.0	.0	.0	100.0	.0	.0	.0	.0
■ 직업 ■	(458)	3.9	1.1	4.4	5.1	4.4	37.2	14.5	9.8	10.5	1.3	1.8
■ 무응답 ■	(80)	4.6	.0	1.1	1.2	3.3	34.3	2.4	7.3	11.7	3.3	3.4
■ 인종 ■	(472)	14.1	3.5	6.2	8.6	7.1	26.6	8.9	8.6	7.8	1.6	3.0
■ 한국인 ■	(545)	6.0	1.3	3.7	4.1	5.4	33.1	10.6	10.6	10.3	3.0	5.1
■ 외국인 ■	(392)	1.7	1.1	2.1	4.0	3.9	23.2	13.8	17.6	15.5	4.2	10.1
■ 무응답 ■	(91)	12.4	.8	2.0	4.9	.8	20.0	3.0	4.8	7.8	.9	14.5
■ 정치 ■	(231)	13.4	1.8	4.4	7.9	6.7	31.0	9.4	8.4	6.7	1.9	4.2
■ 새누리당 ■	(566)	9.5	2.0	3.8	5.8	4.7	27.5	8.3	8.0	10.4	2.0	7.4
■ 민주통합당 ■	(59)	10.6	4.6	4.3	9.2	4.3	29.1	9.0	13.1	10.2	1.3	1.6
■ 기타 ■	(540)	4.2	1.8	3.5	4.9	5.4	25.7	13.1	15.9	12.1	3.8	6.9
■ 무응답 ■	(15)	.0	.0	.0	.0	10.0	34.3	5.7	26.0	6.1	.0	10.4
■ 직업 ■	(86)	3.7	.0	8.0	1.2	4.3	30.7	11.8	10.3	17.9	4.9	4.3
■ 무응답 ■	(14)	12.9	6.7	.0	.0	.0	26.8	14.2	7.8	.0	.0	6.4
■ 투표 ■	(1300)	8.5	2.1	3.7	5.1	4.7	27.3	9.8	11.5	11.1	3.1	7.0
■ 투표 ■	(155)	2.8	1.2	4.9	9.1	8.0	30.2	15.0	11.6	10.3	.6	1.9
■ 투표 ■	(36)	4.7	.0	9.1	5.3	14.2	33.1	15.9	6.3	2.6	.0	.0
■ 무응답 ■	(9)	13.5	.0	.0	8.4	.0	27.2	.0	14.3	.0	.0	11.6
■ 대선 ■	(689)	16.2	3.5	6.0	9.1	8.4	29.3	7.5	6.1	5.5	.9	.8
■ 박근혜 ■	(519)	.2	.6	.9	1.3	1.7	17.3	13.4	20.7	20.0	6.4	16.3
■ 김대중 ■	(9)	.0	.0	10.8	10.7	12.3	33.7	19.9	.0	12.6	.0	.0
■ 무응답 ■	(154)	2.0	.8	7.6	6.9	3.6	45.1	9.6	7.6	6.9	.5	1.1
■ 무응답 ■	(150)	3.4	.8	1.3	2.7	4.6	38.7	13.6	7.7	6.0	.6	2.3
■ 고서 ■	(221)	7.9	2.1	5.4	8.0	4.3	25.4	13.5	14.2	7.5	1.9	5.7
■ 서민 ■	(195)	7.9	2.2	4.2	8.5	3.4	28.1	12.8	10.6	8.7	2.6	5.0
■ 일반 ■	(235)	9.9	1.5	4.1	5.4	5.2	31.6	7.1	7.6	9.7	1.6	6.1
■ 부속 ■	(288)	3.8	2.0	4.2	2.9	3.9	23.9	11.2	14.3	12.7	4.6	12.1
■ 안전 ■	(228)	9.3	2.6	5.0	6.0	7.3	26.8	11.0	11.2	8.5	2.7	2.6
■ 안안 ■	(245)	8.2	1.7	2.5	4.4	6.1	29.8	9.2	9.0	16.5	2.5	3.8
■ 무응답 ■	(109)	9.1	.8	.7	3.8	7.2	29.8	7.1	14.5	10.2	3.2	10.0

[계 속]

【 표 21 】 문재인 호감도

[문 13-2] 그러면, 문재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응답/답	*싫음	*보통	*좋음	계	*평균*
	%	%	%	%		
■ 전 체 ■	6.1	24.5	27.7	41.7	100.0	5.35
■ 성별 ■	3.3 / 8.9	26.1 / 22.9	25.6 / 29.8	45.0 / 38.4	100.0 / 100.0	5.37 / 5.34
■ 연령 ■	1.3 / 5.4 / 3.9 / 7.7 / 12.4	18.8 / 18.2 / 20.8 / 32.0 / 33.1	31.9 / 28.4 / 28.9 / 24.5 / 24.9	48.0 / 48.0 / 46.5 / 35.8 / 29.7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5.62 / 5.69 / 5.79 / 4.90 / 4.63
■ 지역 ■	6.4 / 6.1 / 7.3 / 5.4 / 4.6 / 7.6 / 2.3	27.6 / 26.4 / 22.5 / 9.9 / 38.0 / 18.3 / 26.3	23.2 / 28.5 / 31.2 / 21.2 / 25.9 / 34.4 / 30.5	42.8 / 39.0 / 38.9 / 63.4 / 31.6 / 39.7 / 40.8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5.19 / 5.24 / 5.41 / 6.65 / 4.53 / 5.48 / 5.25
■ 학력 ■	16.9 / 5.5 / 5.5 / 22.9	28.2 / 25.6 / 22.6 / 24.2	21.3 / 31.4 / 26.9 / 34.0	33.6 / 37.5 / 47.7 / 18.9	100.0 / 100.0 / 100.0 / 100.0	5.16 / 5.18 / 5.55 / 4.41
■ 직업 ■	8.7 / 5.1 / 6.3 / 2.6 / 12.2 / 0 / 8.4 / 16.7	20.9 / 28.0 / 24.4 / 18.3 / 27.0 / 21.9 / 34.4 / 30.3	22.4 / 28.0 / 28.7 / 26.3 / 29.4 / 30.7 / 25.4 / 17.0	48.0 / 39.0 / 40.6 / 52.8 / 31.4 / 47.5 / 31.8 / 36.0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5.88 / 5.12 / 5.32 / 5.85 / 5.03 / 5.46 / 4.69 / 4.85
■ 소득 ■	11.8 / 2.7 / 2.7 / 4.2 / 2.2 / 14.7	26.0 / 27.6 / 30.7 / 16.3 / 21.4 / 21.9	25.2 / 33.6 / 27.4 / 30.5 / 23.2 / 28.7	37.0 / 36.1 / 39.3 / 49.0 / 53.3 / 34.7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5.24 / 5.01 / 5.15 / 5.79 / 5.79 / 5.09
■ 정치인 ■	6.2 / 2.4 / 0 / 0 / 5.8 / 27.5	45.0 / 5.4 / 14.1 / 0 / 19.0 / 10.2	28.3 / 14.6 / 22.5 / 13.1 / 37.2 / 34.3	20.5 / 77.5 / 63.4 / 86.9 / 37.9 / 28.0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3.88 / 7.30 / 6.82 / 7.25 / 6.00 / 5.29 / 5.69
■ 이념 ■	4.0 / 6.8 / 2.7 / 28.1	39.5 / 20.5 / 12.8 / 20.9	26.6 / 33.1 / 23.2 / 20.0	29.9 / 39.6 / 61.3 / 31.0	100.0 / 100.0 / 100.0 / 100.0	4.41 / 5.44 / 6.35 / 5.42
■ 정보 ■	4.3 / 10.6 / 2.7 / 2.8 / 7.6 / 2.8 / 25.2	34.1 / 25.8 / 33.0 / 19.7 / 10.0 / 17.2 / 19.6	31.0 / 27.5 / 29.1 / 25.7 / 34.3 / 30.7 / 26.8	30.6 / 36.1 / 35.2 / 51.8 / 48.2 / 49.2 / 28.4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4.64 / 5.19 / 4.71 / 5.80 / 6.28 / 5.80 / 4.61
■ 투표 ■	6.1 / 4.6 / 8.8 / 24.9	24.1 / 26.0 / 33.3 / 21.9	27.3 / 30.2 / 33.1 / 27.2	42.6 / 39.3 / 24.8 / 25.9	100.0 / 100.0 / 100.0 / 100.0	5.39 / 5.22 / 4.57 / 5.03
■ 대선 후보 지지 ■	6.7 / 1.3 / 0 / 8.4 / 18.2	43.2 / 4.6 / 33.8 / 20.9 / 12.8	29.3 / 17.3 / 33.7 / 45.1 / 38.7	20.8 / 76.8 / 32.5 / 25.6 / 30.2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3.97 / 7.15 / 4.92 / 5.00 / 5.33
■ 고서인 ■	4.2 / 6.0 / 10.2 / 4.4 / 7.0 / 6.4 / 3.6	27.7 / 26.3 / 26.0 / 16.9 / 30.2 / 23.0 / 21.6	25.4 / 28.1 / 31.6 / 23.9 / 26.8 / 29.8 / 29.8	42.8 / 39.6 / 32.2 / 54.9 / 36.0 / 40.9 / 44.9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5.17 / 5.15 / 5.06 / 6.12 / 4.91 / 5.37 / 5.66

【 표 22 】 안철수 호감도

		[문 13-3] 끝으로, 안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0 매우 싫어한다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좋아한다
		%	%	%	%	%	%	%	%	%	%	%
■ 전 체 ■	(1500)	11.8	2.9	3.2	7.1	5.3	20.0	6.5	10.9	10.4	5.1	6.4
■ 여 성 ■	(742)	12.1	2.9	3.5	7.1	4.9	19.6	6.4	11.2	11.1	5.5	7.5
■ 남 성 ■	(758)	11.6	2.9	2.9	7.1	5.7	20.4	6.6	10.5	9.8	4.8	5.4
■ 19 - 29 세 대 ■	(278)	3.4	2.9	1.7	6.5	5.6	20.6	10.6	16.3	18.3	6.3	6.0
■ 30 - 39 세 대 ■	(307)	8.7	.8	3.5	5.3	6.4	20.8	6.7	15.2	13.6	4.7	8.6
■ 40 - 49 세 대 ■	(331)	7.3	4.5	1.5	8.6	6.0	23.6	6.8	9.3	8.2	8.8	6.4
■ 50 - 59 세 대 ■	(282)	17.2	3.2	4.6	7.0	3.6	22.4	5.3	9.0	7.8	3.6	5.0
■ 60 세 이상 ■	(302)	22.7	3.0	4.7	8.0	4.9	12.5	3.3	4.9	4.7	1.9	6.0
■ 지식인 ■	(311)	10.0	4.0	3.0	4.2	5.6	18.1	8.6	14.0	12.6	4.7	6.2
■ 일반인 ■	(428)	11.9	3.4	3.6	7.8	6.4	18.4	4.8	11.6	9.2	6.0	6.9
■ 대학원생 ■	(152)	12.5	1.2	2.5	5.3	3.2	28.7	6.2	9.9	8.6	4.1	5.8
■ 대학생 ■	(153)	1.4	1.3	1.8	7.6	2.7	19.3	10.2	12.2	16.6	7.7	10.2
■ 고졸 ■	(155)	21.0	2.5	3.6	10.5	7.8	23.5	5.6	3.3	8.8	4.5	1.3
■ 중졸 이하 ■	(239)	13.8	2.9	3.3	8.7	4.5	20.3	4.3	11.0	9.5	4.4	4.8
■ 미취업 ■	(62)	15.0	3.6	4.5	5.4	5.6	12.0	9.7	6.8	5.0	2.8	16.2
■ 학력 ■	(223)	19.9	2.7	4.1	6.9	2.2	14.8	2.3	5.2	4.6	1.6	7.7
■ 고졸 이하 ■	(513)	13.4	2.6	3.4	7.1	4.9	23.8	6.2	9.1	8.9	4.5	5.7
■ 대학원생 ■	(741)	8.3	3.3	2.8	7.2	6.5	18.9	8.1	14.0	13.5	6.6	6.7
■ 대학생 ■	(22)	11.9	.0	.0	7.7	6.2	23.6	.0	3.2	3.5	4.1	4.5
■ 직업 ■	(57)	13.4	1.8	1.8	6.0	1.5	21.7	4.8	4.7	12.4	5.4	12.9
■ 자영업자 ■	(246)	18.2	3.6	4.0	6.0	4.4	22.6	5.7	10.1	5.6	4.2	6.0
■ 일반직 ■	(150)	11.9	3.6	2.6	8.6	3.7	20.6	7.8	10.1	9.0	9.2	3.9
■ 공무원 ■	(416)	5.8	1.7	2.5	6.3	8.3	20.1	8.8	13.8	15.6	6.3	7.8
■ 기업직 ■	(344)	14.4	2.5	3.7	8.4	5.6	19.7	4.7	7.2	6.0	2.6	5.0
■ 무직 ■	(144)	3.2	4.9	2.5	6.1	4.1	20.3	6.6	17.6	18.5	8.8	5.7
■ 미응답 ■	(138)	18.9	3.9	4.3	8.5	2.4	15.3	4.9	9.4	6.5	1.9	7.8
■ 미응답 ■	(5)	50.9	.0	.0	.0	.0	.0	.0	.0	15.4	.0	.0
■ 소득 ■	(349)	17.2	2.5	3.8	7.6	4.6	16.2	4.0	6.5	5.9	3.9	7.2
■ 200만 이하 ■	(252)	15.1	2.5	3.5	9.4	2.9	21.6	6.9	10.7	11.1	2.2	5.7
■ 300만 이상 ■	(262)	10.4	4.0	3.9	7.8	4.7	24.1	7.7	11.3	12.0	5.1	4.6
■ 400만 이상 ■	(204)	10.4	2.5	1.2	4.9	5.0	22.1	6.0	13.0	12.1	9.3	6.3
■ 500만 이상 ■	(282)	8.1	3.0	4.5	4.9	9.6	16.1	7.9	15.6	12.3	7.4	7.8
■ 미응답 ■	(151)	5.3	2.9	.0	8.3	4.3	23.8	7.5	8.7	11.2	2.8	6.6
■ 정치관심 ■	(553)	24.9	4.7	5.6	10.3	6.4	19.0	4.3	4.7	5.4	1.4	1.4
■ 매우 관심 ■	(384)	3.1	2.4	1.2	4.1	3.8	19.8	6.7	14.8	15.9	11.0	13.1
■ 관심 있음 ■	(17)	.0	.0	.0	.0	.0	18.1	18.4	20.2	10.5	16.8	10.8
■ 관심 없음 ■	(8)	.0	.0	.0	.0	.0	74.6	.0	.0	14.0	.0	11.4
■ 미응답 ■	(1)	.0	.0	.0	.0	.0	.0	.0	.0	.0	.0	.0
■ 미응답 ■	(458)	5.4	1.9	2.2	6.1	5.5	21.1	8.4	15.6	12.2	5.3	6.8
■ 미응답 ■	(80)	4.3	.0	2.3	7.9	5.6	17.6	8.6	7.0	8.5	.0	5.7
■ 연령 ■	(472)	17.6	5.5	5.3	10.2	7.4	16.7	7.2	8.2	7.1	2.6	4.4
■ 20대 ■	(545)	11.8	1.8	1.5	5.7	4.9	23.8	6.5	12.1	9.4	4.7	6.3
■ 30대 ■	(392)	4.2	1.9	3.0	5.2	4.7	20.7	6.0	14.0	17.2	9.8	9.3
■ 40대 ■	(91)	14.9	.0	2.8	7.8	.0	11.9	4.7	4.2	4.6	1.0	5.9
■ 정치관심 ■	(231)	20.7	3.5	2.9	7.5	9.1	15.6	5.2	10.5	7.3	3.7	4.9
■ 매우 관심 ■	(566)	15.3	3.2	3.6	9.0	3.6	21.3	4.3	6.2	6.5	3.6	5.3
■ 관심 있음 ■	(59)	12.0	6.3	3.5	14.9	2.6	20.3	5.0	11.5	5.9	4.3	9.2
■ 관심 없음 ■	(540)	5.7	2.4	2.9	4.8	5.7	20.1	9.3	15.3	15.6	6.2	7.9
■ 미응답 ■	(15)	.0	.0	7.6	5.3	5.3	37.9	5.7	.0	11.6	12.1	8.2
■ 미응답 ■	(86)	5.2	1.2	2.4	4.8	5.2	19.5	7.5	17.7	13.4	12.7	6.9
■ 미응답 ■	(14)	19.6	.0	.0	.0	6.6	21.6	7.6	.0	14.2	.0	6.2
■ 투표의견 ■	(1300)	12.6	3.0	3.5	7.1	5.0	20.1	6.3	9.7	10.5	5.2	6.4
■ 찬성 ■	(155)	5.8	2.6	1.6	6.4	6.5	18.4	7.4	20.9	8.7	5.9	7.6
■ 반대 ■	(36)	11.0	2.8	.0	8.2	11.7	18.0	6.9	13.4	16.2	2.3	6.1
■ 미응답 ■	(9)	15.6	.0	.0	11.7	.0	46.7	14.3	.0	.0	.0	.0
■ 대선 후보 지지도 ■	(669)	23.4	4.7	5.6	10.1	5.4	19.6	4.1	6.1	5.8	1.7	1.6
■ 박근혜 지지 ■	(519)	2.0	1.7	1.4	3.5	3.5	19.4	8.8	15.7	17.3	10.5	13.0
■ 다중 지지 ■	(9)	12.3	.0	.0	.0	10.7	32.8	9.6	24.3	.0	.0	.0
■ 미응답 ■	(154)	2.3	1.2	1.9	7.1	10.2	17.9	8.2	15.0	10.6	4.7	8.4
■ 미응답 ■	(150)	4.0	1.2	.0	6.8	5.9	25.4	7.3	10.1	7.7	2.6	3.9
■ 고서인대원 ■	(221)	6.6	5.0	1.8	6.8	7.1	22.7	6.7	13.1	10.2	7.1	7.0
■ 찬성 ■	(195)	12.1	4.9	4.2	7.0	5.2	12.4	9.5	16.5	8.6	3.5	6.5
■ 반대 ■	(235)	17.8	1.9	4.4	5.8	2.6	23.5	4.8	6.4	7.0	3.1	7.4
■ 미응답 ■	(288)	3.1	1.5	2.5	7.9	3.6	18.4	8.8	12.0	16.7	8.9	7.6
■ 미응답 ■	(228)	18.1	2.7	2.8	9.1	5.7	21.3	4.3	8.4	10.2	3.7	3.1
■ 미응답 ■	(245)	13.4	2.5	3.3	7.0	6.4	21.9	5.4	9.3	10.2	4.8	5.9
■ 미응답 ■	(109)	14.0	2.2	3.3	5.1	8.9	17.9	5.8	11.6	7.1	3.1	8.4

[계 속]

【 표 22 】 안철수 호감도

[문 13-3] 끝으로, 안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응답/답	*싫음	*보통	*좋음	계	*평균*
	%	%	%	%		
■ 전 체 ■	10.2	30.4	20.0	39.4	100.0	5.14
■ 성별 ■	8.3 12.2	30.5 30.2	19.6 20.4	41.6 37.2	100.0 100.0	5.21 5.06
■ 연령 ■	1.7 5.6 8.9 11.2 23.4	20.1 24.7 27.9 35.6 43.2	20.6 20.8 23.6 22.4 12.5	57.6 48.9 39.6 30.7 20.9	100.0 100.0 100.0 100.0 100.0	6.03 5.70 5.39 4.50 3.75
■ 지역 ■	9.1 10.0 12.1 9.2 7.7 12.5 13.3	26.7 33.1 24.5 14.7 45.3 33.2 34.1	18.1 18.4 28.7 19.3 23.5 20.3 12.0	46.1 38.5 34.6 56.8 23.5 34.0 4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39 5.09 5.10 6.44 4.01 4.82 5.13
■ 학력 ■	28.0 10.4 4.1 35.4	35.8 31.4 28.1 25.7	14.8 23.8 18.9 23.6	21.4 34.4 48.9 15.3	100.0 100.0 100.0 100.0	4.07 4.90 5.55 4.61
■ 직업 ■	13.6 9.6 9.2 3.1 20.2 1.6 16.2 33.7	24.6 36.3 30.3 24.6 34.7 20.8 37.9 50.9	21.7 22.6 20.6 20.1 19.7 20.3 15.3 0	40.1 31.6 39.9 52.2 25.4 57.3 30.6 15.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50 4.51 5.10 5.86 4.45 6.03 4.38 1.86
■ 소득 ■	20.5 8.3 4.3 7.1 2.7 18.6	35.8 33.5 30.8 24.0 30.1 20.8	16.2 21.6 24.1 22.1 16.1 23.8	27.6 36.7 40.8 46.8 51.1 3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49 4.79 5.11 5.61 5.61 5.54
■ 정치 ■	11.9 4.2 5.3 0.0 100.0 9.6 32.6	51.8 14.6 0 0 0 21.2 20.1	19.0 19.8 18.1 74.6 0 21.1 17.6	17.3 61.4 76.6 25.4 0 48.2 2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37 6.60 7.23 5.99 5.80 5.40
■ 이념 ■	7.9 11.4 4.1 42.2	46.0 25.8 19.0 25.5	16.7 23.8 20.7 11.9	29.4 39.0 56.3 20.4	100.0 100.0 100.0 100.0	4.17 5.25 6.23 4.34
■ 정보 ■	9.1 18.2 4.5 4.0 6.5 3.4 24.2	43.8 34.6 39.2 21.5 18.2 18.8 26.2	15.6 21.3 20.3 20.1 37.9 19.5 21.6	31.6 25.9 36.0 54.3 37.4 58.2 2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30 4.46 4.80 5.93 5.97 6.20 4.69
■ 투표 ■	10.7 8.2 3.4 11.8	31.2 22.9 33.7 27.2	20.1 18.4 18.0 46.7	38.1 50.5 45.0 14.3	100.0 100.0 100.0 100.0	5.06 5.80 5.29 4.02
■ 대선 ■	11.9 3.2 10.4 12.6 25.1	49.2 12.1 23.0 22.5 17.9	19.6 19.4 32.8 17.9 25.4	19.3 65.4 33.8 47.0 31.6	100.0 100.0 100.0 100.0 100.0	3.53 6.73 4.84 5.97 5.48
■ 고서 ■	5.8 9.5 15.3 8.9 10.8 9.9 12.7	27.3 33.4 32.5 18.6 38.4 32.6 33.5	22.7 12.4 23.5 18.4 21.3 21.9 17.9	44.2 44.7 28.7 54.1 29.6 35.6 3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51 5.03 4.57 6.19 4.42 4.95 4.96

【 표 23 】 정치성향

[문 001] 정치에서 사람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를 구분합니다. 숫자 0부터 10까지 중 선생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5는 중도적, 10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입니다.

	사례수	0 진보	1	2	3	4	5 중도	6	7	8	9	10 보수
		%	%	%	%	%	%	%	%	%	%	%
■ 전 체 ■	(1500)	4.2	1.8	4.8	8.7	6.7	36.4	8.0	7.2	6.9	1.9	7.4
■ 여성	(742)	4.7	2.8	4.3	11.1	7.7	31.6	9.1	8.0	6.5	1.9	8.8
■ 19-29세	(278)	4.8	1.8	7.5	15.6	7.9	33.2	11.3	7.2	5.1	.8	2.5
■ 30-39세	(307)	5.7	3.1	5.9	11.9	9.5	41.9	6.4	5.9	5.9	.7	1.7
■ 40-49세	(331)	4.7	2.3	4.7	10.3	7.0	39.5	9.6	7.6	6.9	1.8	3.6
■ 50-59세	(282)	3.0	1.2	3.8	4.5	6.5	34.5	8.3	8.8	8.4	3.5	12.1
■ 60대 이상	(302)	2.6	.5	1.9	1.4	2.4	31.9	4.8	6.5	8.1	2.8	17.5
■ 지식인	(311)	2.9	1.2	5.1	10.1	9.4	30.0	7.9	9.6	8.5	1.2	11.6
■ 대학원생	(428)	3.7	2.0	6.9	9.3	5.8	36.0	8.9	7.3	6.8	2.2	6.3
■ 대학원생	(152)	5.6	4.3	2.9	8.3	4.5	40.5	6.6	6.5	5.7	2.5	5.0
■ 대학원생	(153)	8.4	.7	5.2	7.3	6.9	37.1	6.3	4.8	6.4	1.9	5.4
■ 대학원생	(155)	3.3	1.2	1.2	7.1	8.1	34.7	9.4	5.0	10.8	2.0	11.0
■ 대학원생	(239)	2.8	1.8	4.0	8.1	5.7	40.8	9.4	7.7	4.3	2.5	4.6
■ 대학원생	(62)	6.8	1.9	4.0	8.7	4.0	46.1	1.9	5.2	4.0	.0	6.4
■ 학생	(223)	3.6	.7	3.3	.8	1.7	39.0	2.4	4.1	8.2	2.7	9.8
■ 대학원생	(513)	4.1	2.3	4.0	6.6	5.7	36.8	8.8	6.5	6.8	2.2	9.7
■ 대학원생	(741)	4.5	1.9	5.8	12.8	9.0	35.0	9.5	7.2	6.6	1.4	5.1
■ 대학원생	(22)	.0	.0	3.8	.0	.0	45.8	.0	7.3	3.5	4.8	7.9
■ 직장인	(57)	9.5	3.3	2.9	2.2	.0	31.6	8.3	6.8	1.4	2.8	9.5
■ 직장인	(246)	3.9	2.1	5.5	4.2	7.0	41.3	9.1	6.2	7.8	2.2	9.1
■ 직장인	(150)	5.4	4.1	4.1	7.7	8.0	36.8	4.6	5.5	6.7	3.7	7.3
■ 직장인	(416)	4.8	1.6	6.5	15.6	8.5	34.0	9.6	7.5	5.5	.9	4.2
■ 직장인	(344)	2.4	.9	4.5	3.2	5.4	40.8	6.9	6.5	9.0	1.8	5.0
■ 직장인	(144)	5.9	1.8	3.4	16.7	10.4	31.2	11.3	9.2	5.1	.7	8.8
■ 직장인	(138)	1.5	1.3	2.0	5.5	1.3	31.1	4.9	9.4	9.0	3.8	19.0
■ 직장인	(5)	15.4	.0	.0	.0	.0	14.8	.0	15.5	.0	.0	.0
■ 소득	(349)	3.1	2.1	3.5	4.4	3.1	38.6	3.8	4.4	6.7	2.9	10.3
■ 소득	(252)	5.4	1.6	3.2	7.9	7.7	36.9	7.3	7.4	7.2	2.5	11.6
■ 소득	(282)	4.4	2.8	4.9	9.2	7.8	38.3	9.7	5.8	8.9	2.1	4.8
■ 소득	(204)	3.4	2.1	8.5	12.3	7.8	37.0	11.9	9.1	3.2	.9	2.2
■ 소득	(282)	2.8	.8	5.6	11.6	8.5	36.6	11.1	8.1	7.0	.7	6.3
■ 소득	(151)	7.6	1.3	3.5	9.2	6.1	25.4	5.3	11.3	8.1	2.0	7.4
■ 정당 지지	(553)	2.0	.9	.8	1.8	2.6	32.6	9.2	10.5	12.7	3.5	17.2
■ 정당 지지	(384)	6.6	3.4	9.8	15.5	10.0	32.1	6.8	3.8	3.5	1.2	1.6
■ 정당 지지	(17)	.0	17.2	6.0	25.8	22.0	19.0	4.8	.0	.0	.0	.0
■ 정당 지지	(8)	14.4	.0	.0	26.4	.0	46.1	13.1	.0	.0	.0	.0
■ 정당 지지	(1)	.0	.0	.0	.0	.0	.0	.0	.0	.0	.0	.0
■ 정당 지지	(458)	3.3	1.4	5.5	11.3	8.9	43.0	8.6	6.8	4.2	1.0	1.1
■ 정당 지지	(80)	2.4	.0	3.5	3.4	3.5	48.1	3.3	5.4	1.3	.0	6.1
■ 이념	(472)	.0	.0	.0	.0	.0	.0	25.6	22.9	21.9	6.1	23.5
■ 이념	(545)	.0	.0	.0	.0	.0	100.0	.0	.0	.0	.0	.0
■ 이념	(392)	15.9	7.0	18.2	33.4	25.5	.0	.0	.0	.0	.0	.0
■ 이념	(91)	.0	.0	.0	.0	.0	.0	.0	.0	.0	.0	.0
■ 정치	(231)	3.0	1.6	2.9	6.1	4.5	32.1	8.6	10.2	11.6	4.6	12.3
■ 정치	(555)	3.8	.8	3.2	3.8	5.0	37.8	6.3	6.6	7.8	1.7	9.9
■ 정치	(59)	1.4	5.5	4.4	6.1	8.3	39.3	11.0	4.6	4.8	.0	12.0
■ 정치	(540)	5.6	2.7	6.3	15.6	8.5	35.4	9.1	7.0	4.4	1.1	2.9
■ 정치	(15)	.0	5.3	.0	.0	24.4	35.3	16.9	8.2	.0	4.6	5.3
■ 정치	(86)	3.5	1.0	12.1	9.4	6.8	42.8	8.5	5.7	6.7	.0	3.6
■ 정치	(14)	.0	.0	.0	.0	7.8	35.0	.0	5.9	7.6	12.9	6.7
■ 투표	(1300)	4.5	1.7	4.4	8.8	6.6	34.7	7.8	7.3	7.2	2.1	8.3
■ 투표	(155)	1.5	2.3	4.9	9.5	7.9	48.3	9.8	6.6	4.3	1.3	1.4
■ 투표	(36)	5.2	3.8	18.0	5.4	4.9	40.2	9.9	8.7	3.9	.0	.0
■ 투표	(9)	.0	.0	.0	.0	.0	52.1	.0	.0	14.3	.0	8.4
■ 대선	(669)	1.7	1.1	1.3	2.2	2.6	36.6	8.9	9.8	11.6	3.0	14.7
■ 대선	(519)	7.3	3.4	9.7	18.1	12.2	30.4	6.3	4.5	2.4	.5	1.6
■ 대선	(9)	34.3	10.8	.0	.0	9.6	12.3	10.7	.0	.0	.0	.0
■ 대선	(154)	3.5	.8	5.6	9.4	6.3	43.6	7.8	7.5	5.1	2.4	1.1
■ 대선	(150)	3.3	.0	2.7	5.2	5.9	49.7	10.6	4.7	3.8	1.3	1.7
■ 고	(221)	4.7	1.9	4.7	11.9	7.9	33.5	9.6	9.4	5.8	.9	5.9
■ 고	(195)	4.0	.6	5.2	11.0	4.7	37.4	6.1	7.3	7.9	2.2	9.5
■ 고	(235)	3.9	2.2	6.5	5.2	5.8	34.0	7.8	6.4	7.6	3.3	10.3
■ 고	(268)	5.3	1.8	5.0	9.5	9.3	36.6	6.7	5.3	7.2	1.4	5.3
■ 고	(228)	3.8	.8	3.2	7.5	6.7	34.9	9.2	7.6	7.8	2.2	9.7
■ 고	(245)	3.8	1.7	3.3	8.2	6.8	39.5	10.8	7.0	4.1	2.1	6.7
■ 고	(109)	2.8	5.4	6.4	7.7	2.5	40.8	3.7	8.4	9.3	.8	2.3

[계 속]

【 표 23 】 정치성향

[문 001] 정치에서 사람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를 구분합니다. 숫자 0부터 10까지 중 선생님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5는 중도적, 10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입니다.

	무응답/답	*진보	*중도	*보수	계
	%	%	%	%	
■ 전 체 ■	6.1	26.1	36.4	31.4	100.0
■ 성별 ■	3.6 8.6	30.6 21.8	31.6 41.0	34.2 28.7	100.0 100.0
■ 연령 ■	2.2 1.4 2.1 5.4 19.5	37.7 36.0 29.0 19.1 8.9	33.2 41.9 39.5 34.5 31.9	27.0 20.7 29.4 41.0 39.7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역 ■	2.7 4.9 7.7 9.6 6.1 8.2 10.7	28.7 27.7 25.6 28.5 20.9 22.4 25.5	30.0 36.0 40.5 37.1 34.7 40.8 46.1	38.7 31.5 26.2 24.9 38.3 28.6 1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력 ■	23.7 4.4 1.3 27.0	10.2 22.7 33.9 3.8	39.0 36.8 35.0 45.8	27.1 36.0 29.8 23.5	100.0 100.0 100.0 100.0
■ 직업 ■	21.7 1.7 6.1 1.4 10.7 3.4 11.2 54.3	18.0 22.7 29.3 37.0 16.3 38.3 11.6 15.4	31.6 41.3 36.8 34.0 40.8 31.2 31.1 14.8	28.7 34.3 27.8 27.7 32.1 27.1 46.1 1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17.0 1.3 1.5 1.5 1.9 12.9	16.2 25.7 29.0 34.2 29.4 27.7	38.6 36.9 38.3 37.0 36.6 25.4	28.2 36.0 31.2 27.3 33.1 34.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당 지지 ■	6.1 3.8 5.3 100.0 5.0 23.0	8.3 47.3 71.0 40.8 30.4 12.8	32.6 32.1 19.0 46.1 43.0 48.1	53.0 16.9 4.8 13.1 21.7 1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 ■	.0 .0 .0 100.0	.0 .0 100.0 .0	.0 100.0 .0 .0	100.0 .0 .0 .0	100.0 100.0 100.0 100.0
■ 정치관심 ■	2.4 13.3 2.8 1.3 .0 .0 24.2	18.1 16.6 25.7 38.7 29.7 32.7 7.8	32.1 37.8 39.3 35.4 35.3 42.8 35.0	47.3 32.3 32.3 24.6 35.0 24.5 3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 중요성 ■	6.6 2.0 .0 25.3	26.0 26.3 37.3 .0	34.7 48.3 40.2 52.1	32.7 23.5 22.5 22.7	100.0 100.0 100.0 100.0
■ 대선 후보 지지 ■	6.6 3.5 22.4 6.9 11.2	8.8 50.8 54.7 25.6 17.0	36.6 30.4 12.3 43.6 49.7	48.1 15.3 10.7 23.9 22.1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서인대 ■	3.8 4.1 7.2 6.6 6.6 5.9 9.9	31.1 25.5 23.5 30.9 22.0 23.8 24.8	33.5 37.4 34.0 36.6 34.9 39.5 40.8	31.5 33.1 35.3 25.9 36.5 30.8 24.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24 】 공공문제 정보 획득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매체

[문 Q02] 선생님께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사례수	지상파 방송	인터넷	신문	휴대전화	케이블	라디오	모름/답	계	
		(KBS, MBC, SBS)	(데스크탑)	(종이신문)	(휴대전화, PC 등)	(케이블 위성 방송)	방송	무응답		
		%	%	%	%	%	%	%		
■ 전 체 ■	(1500)	37.0	36.0	15.4	5.7	3.9	1.0	.9	100.0	
■ 성별 ■	(742) (758)	28.0 45.8	43.2 29.0	16.4 14.5	5.6 5.8	4.2 3.6	1.3 .7	1.3 .6	100.0 100.0	
■ 연령 ■	(278) (307) (331) (282) (302)	10.5 21.8 37.2 50.4 64.1	68.8 56.4 32.6 17.6 6.1	5.4 8.8 18.9 22.2 21.2	12.9 8.5 5.8 1.5 .0	2.4 1.8 3.0 6.7 5.8	.0 1.6 1.7 .9 .8	.0 1.1 1.9 .7 2.0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역 ■	(311) (428) (152) (153) (155) (239) (62)	29.0 33.8 39.2 50.2 37.4 41.2 44.1	39.9 39.4 36.7 29.0 34.8 31.4 29.9	18.3 14.5 12.5 11.5 15.0 17.4 17.4	8.4 6.3 4.2 3.8 4.5 5.1 2.0	2.0 3.9 5.0 4.5 6.5 3.4 4.6	1.5 1.2 .6 .6 .5 .8 1.9	.9 .9 1.8 .6 1.3 .7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력 ■	(223) (513) (741) (22)	77.0 44.3 18.9 70.0	2.1 28.5 52.2 12.6	11.4 15.0 17.3 .0	1.3 3.9 8.4 .0	5.9 6.1 1.8 3.5	.3 1.9 .7 .0	1.9 .4 .6 13.9	100.0 100.0 100.0 100.0	
■ 직업 ■	(57) (246) (150) (416) (344) (144) (138) (5)	72.7 37.1 37.8 18.1 59.3 9.6 50.8 50.9	.0 26.7 35.0 57.9 14.6 72.1 19.3 15.4	13.8 25.2 7.6 12.9 17.4 5.5 20.0 16.7	1.8 3.6 6.5 9.1 2.4 10.4 3.3 .0	8.9 4.8 9.2 1.2 4.7 2.4 2.6 .0	.0 1.7 1.9 .5 1.4 .0 .9 .0	2.9 .9 2.0 2.2 .0 3.2 1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349) (252) (262) (204) (282) (151)	61.1 36.7 29.0 23.3 22.7 40.9	15.8 34.9 38.2 44.4 50.9 41.6	12.0 16.3 18.3 20.5 16.3 8.3	3.4 3.2 10.3 7.7 6.8 2.6	4.7 6.6 2.1 2.5 3.4 3.3	1.2 1.5 2.1 1.0 .0 .0	1.7 .8 .5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당 지지 ■	(553) (384) (17) (8) (1) (458) (80)	47.6 31.8 27.8 11.4 100.0 25.9 56.3	22.2 45.0 55.1 88.6 .0 47.0 17.1	20.4 10.0 6.7 .0 .0 14.3 17.4	3.4 8.1 10.5 .0 .0 6.9 3.5	4.7 3.4 .0 .0 .0 4.1 1.1	1.0 1.2 .0 .0 .0 1.1 .0	.9 .5 .0 .0 .0 .8 4.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 ■	(472) (545) (392) (91)	38.0 38.5 23.5 80.6	28.2 35.0 53.4 7.8	23.2 13.6 10.7 6.2	4.4 6.7 7.1 .0	4.0 4.2 3.8 1.8	1.1 1.0 1.2 .0	1.0 .9 .3 3.7	100.0 100.0 100.0 100.0	
■ 정치보수 ■	(231) (555) (59) (540) (15) (86) (14)	.0 100.0 .0 .0 .0 .0 .0	.0 .0 .0 100.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 표적 ■	(1300) (155) (36) (9)	37.8 31.7 32.3 37.7	34.8 43.6 49.9 21.9	15.9 12.3 12.1 11.7	5.6 6.2 3.4 15.6	3.9 4.9 .0 .0	.9 1.4 2.3 13.2	1.1 .0 .0 .0	100.0 100.0 100.0 100.0	
■ 대선 후보 지지 ■	(669) (519) (9) (154) (150)	45.2 27.2 22.7 29.2 43.1	23.5 50.2 57.2 46.3 31.2	20.7 8.9 10.7 13.6 16.5	4.0 8.8 9.5 5.3 2.7	5.2 2.9 9.5 3.2 2.6	.5 1.5 .0 1.3 1.5	.9 .6 .0 1.1 2.5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서인대 ■	(221) (195) (235) (268) (228) (245) (109)	28.2 31.3 40.7 44.4 36.9 38.3 36.2	44.3 38.4 30.8 33.7 35.8 35.5 33.3	13.6 14.2 17.2 13.3 13.6 17.4 21.9	8.7 10.5 5.0 1.9 7.5 3.5 3.1	3.9 2.5 4.1 4.8 4.6 3.0 4.3	.9 1.6 .9 1.3 3.3 1.1 1.1	.4 1.5 1.7 1.2 1.2 1.2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25 】 지상파 방송 신뢰도

[문 DQ3] 선생님께서는 지상파 방송(KBS, MBC, SBS)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례수	전적으로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모름/응답	*신뢰	*비신뢰	계
		%	%	%	%	%	%	%	
■ 전 체 ■	(1500)	9.0	59.1	26.3	3.1	2.5	68.1	29.4	100.0
■ 성별 ■	(742) (758)	9.1 8.9	56.6 61.6	27.8 24.8	4.5 1.8	2.1 3.0	65.7 70.4	32.3 26.6	100.0 100.0
■ 연령 ■	(278) (307) (331) (282) (302)	6.5 1.6 5.4 12.8 19.1	52.9 57.5 64.2 62.0 58.1	36.0 34.8 25.0 19.5 16.4	3.8 3.8 4.3 3.3 3	.8 2.3 1.1 2.4 6.1	59.3 59.1 69.6 74.8 77.2	39.8 38.6 29.3 22.8 16.7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역 ■	(311) (428) (152) (153) (155) (239) (62)	7.1 7.5 13.3 10.4 8.6 9.9 12.2	59.9 55.8 54.8 54.7 67.1 64.2 59.8	28.0 31.6 26.4 27.3 19.5 18.9 23.6	3.7 2.7 3.2 4.6 1.4 3.6 1.9	1.3 2.4 2.4 3.1 3.5 3.4 2.5	67.0 63.3 68.0 65.0 75.7 74.1 72.0	31.7 34.3 29.6 31.9 20.8 22.5 2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력 ■	(223) (513) (741) (22)	25.5 10.6 3.0 4.0	55.7 65.6 56.3 38.2	9.8 20.6 35.0 30.1	1.3 2.1 4.4 .0	7.7 1.1 1.2 27.6	81.2 76.1 59.3 42.3	11.1 22.8 39.5 30.1	100.0 100.0 100.0 100.0
■ 직업 ■	(57) (246) (150) (416) (344) (144) (138) (5)	24.2 7.3 12.6 3.0 12.0 5.6 15.5 20.6	57.1 62.6 67.4 54.4 65.3 46.8 58.4 .0	12.1 24.0 16.4 37.2 17.8 42.6 17.8 30.9	5.1 4.4 3.6 4.2 .6 3.4 2.2 .0	1.6 1.6 .0 1.2 4.3 1.6 6.1 46.5	81.2 69.9 80.0 57.4 77.3 52.4 73.9 20.6	17.2 28.5 20.0 41.5 18.4 46.0 20.0 3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349) (252) (262) (204) (282) (151)	16.6 7.5 6.5 5.5 3.9 12.4	56.9 65.5 63.7 58.3 55.2 53.9	17.1 23.0 26.7 31.1 36.6 26.4	3.9 3.0 2.6 3.1 3.9 .8	5.5 1.1 .5 2.0 .4 6.5	73.5 73.0 70.2 63.8 59.0 66.3	21.0 25.9 29.3 34.3 40.6 2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당 지지 ■	(553) (384) (17) (8) (1) (458) (80)	13.2 5.7 10.5 11.4 0.0 6.1 11.1	70.2 50.6 40.2 27.2 0.0 54.8 55.4	13.1 35.7 31.9 61.4 100.0 33.7 24.4	.7 6.8 17.3 .0 .0 3.0 .0	2.8 1.2 .0 .0 .0 2.4 9.1	83.5 56.4 50.8 38.6 0.0 60.9 66.5	13.8 42.5 49.2 61.4 100.0 36.7 2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 ■	(472) (545) (392) (91)	9.2 8.8 5.4 24.1	66.2 62.2 50.0 43.2	22.6 24.0 36.1 16.8	1.0 2.3 7.5 .0	1.1 2.6 1.0 16.0	75.4 71.0 55.4 67.3	23.5 26.4 43.6 16.8	100.0 100.0 100.0 100.0
■ 시사 ■	(231) (555) (59) (540) (15) (86) (14)	6.7 16.9 13.6 2.7 0.0 2.6 6.2	62.6 66.3 57.2 51.9 72.4 49.5 47.3	25.8 12.7 26.0 39.3 20.0 37.5 13.3	2.5 3 1.7 5.7 0.0 9.0 .0	2.4 3.9 1.5 5.5 7.6 1.5 33.2	69.3 83.1 70.8 54.6 72.4 52.0 53.5	28.2 13.0 27.7 44.9 20.0 46.5 1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 ■	(1300) (155) (36) (9)	9.3 5.8 5.6 25.9	59.0 62.2 57.8 20.1	26.0 27.2 34.4 25.2	3.2 2.0 2.2 15.6	2.5 2.8 .0 13.2	68.4 68.0 63.4 46.1	29.1 29.2 36.6 40.8	100.0 100.0 100.0 100.0
■ 대선 후 지지 ■	(669) (519) (9) (154) (150)	12.4 4.9 0.0 6.6 10.7	69.3 48.3 34.1 55.9 55.9	14.8 38.6 65.9 33.3 25.3	.9 7.2 0.0 1.6 .6	2.6 1.0 0.0 2.6 7.5	81.7 53.1 34.1 62.5 66.6	15.7 45.8 65.9 34.9 25.9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지 ■	(221) (195) (235) (268) (226) (245) (109)	5.6 7.8 13.0 9.8 8.2 9.4 8.0	53.4 58.5 60.5 55.4 63.0 60.7 65.9	36.4 27.7 22.4 28.4 28.7 23.1 19.2	2.7 4.3 1.2 4.4 1.5 4.7 2.7	1.9 1.7 2.9 2.0 3.6 2.2 4.1	59.0 66.3 73.4 65.2 71.2 70.1 73.9	39.1 31.9 23.6 32.7 25.2 27.7 2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26 】 정당지지도

[문 Q06] 현재 선생님께서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사례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기타정당	없음	잘모름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	(1500)	36.9	25.6	1.2	.5	.1	30.5	2.3	3.1	100.0
■ 여성 ■	(742) (758)	35.0 38.6	27.0 24.2	1.2 1.1	.7 .3	.0 .1	32.2 28.9	1.0 3.5	2.8 3.3	100.0 100.0
■ 연령 ■	(278) (307) (331) (282) (302)	21.6 23.8 31.1 49.4 58.7	32.4 32.7 27.1 22.6 13.1	.5 2.2 2.1 .6 .3	.0 1.6 1.6 .0 .3	.0 0.0 0.0 0.0 0.0	42.2 36.0 32.8 22.5 19.1	2.5 2.4 1.2 2.0 3.4	.8 1.4 5.2 2.8 4.8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식인대량대산강 ■	(311) (428) (152) (153) (155) (239) (62)	35.5 35.7 34.4 8.5 60.7 43.8 41.1	22.5 26.7 28.2 59.7 6.2 15.2 31.5	.3 1.4 .7 1.9 .6 1.8 1.9	.4 .5 .0 .0 1.3 .9 .0	.0 0.0 .6 0.0 0.0 0.0 0.0	34.2 30.8 30.6 24.2 29.1 33.1 18.9	2.3 2.8 1.3 2.0 1.2 3.1 1.2	5.0 1.9 4.3 3.7 1.1 2.0 5.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생대 ■	(223) (513) (741) (22)	52.3 42.9 28.1 33.7	19.2 25.0 26.2 16.3	.0 1.2 1.5 .0	.4 .4 .6 .0	.0 .2 .0 .0	19.3 26.3 37.3 12.3	3.9 1.6 1.9 15.2	5.0 2.5 2.3 22.5	100.0 100.0 100.0 100.0
■ 직업자 ■	(57) (246) (150) (416) (344) (144) (138) (5)	30.0 44.3 35.2 25.7 49.8 20.5 48.2 .0	40.6 19.5 27.0 32.2 17.9 31.8 21.1 36.0	.0 .0 3.4 1.6 1.4 .0 .7 .0	.0 .0 .6 1.4 .3 .0 .0 .0	.0 .0 0.0 1.4 0.0 0.0 0.0 0.0	23.2 32.3 29.5 34.5 23.1 43.9 24.2 16.7	3.1 .8 1.1 2.3 3.4 3.1 2.1 .0	3.1 3.0 3.1 2.2 4.1 4.7 3.8 4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349) (252) (262) (204) (282) (151)	44.4 42.4 37.2 29.3 32.7 27.4	22.9 25.2 25.9 29.9 27.6 22.5	.9 .3 2.0 2.5 1.1 .0	.0 .9 .7 .0 .9 .6	.0 .0 .3 .0 .0 .0	25.5 27.6 29.5 37.5 33.0 34.4	2.5 1.9 .8 4.4 2.5 6.9	3.8 1.6 3.4 4.4 2.3 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치참여 ■	(553) (384) (17) (8) (1) (458) (80)	100.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0 42.6	.0 .0 .0 .0 .0 .0 5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 ■	(472) (545) (392) (91)	62.1 33.1 11.7 37.1	13.7 22.6 46.3 16.0	.2 .6 3.2 1.0	.2 .6 .8 .0	.0 .0 .0 1.0	21.0 36.1 35.5 24.8	.6 3.1 1.4 9.7	2.1 4.0 1.2 10.4	100.0 100.0 100.0 100.0
■ 정보통신 ■	(231) (555) (59) (540) (15) (86) (14)	48.7 47.4 44.0 22.7 36.6 21.7 34.6	16.5 22.0 32.6 22.0 30.5 36.2 13.0	.5 .9 .0 1.8 .0 2.1 .0	.0 .0 1.3 .0 .0 .0 .0	.0 .2 .0 0.0 0.0 0.0 0.0	28.2 21.3 31.9 39.8 32.9 36.7 26.3	1.1 3.7 1.5 1.3 .0 1.2 14.0	4.9 4.4 .0 1.2 .0 2.0 1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 ■	(1300) (155) (36) (9)	38.8 25.4 15.5 35.9	26.7 18.1 18.7 27.2	1.2 .8 .0 .0	.6 .0 .0 .0	.1 .0 .0 .0	27.6 47.8 65.8 11.8	2.1 3.5 .0 13.5	2.9 4.5 .0 11.7	100.0 100.0 100.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 ■	(669) (519) (9) (154) (150)	77.2 1.4 .0 4.7 14.4	1.8 66.1 21.7 10.1 7.6	.0 3.0 9.6 .0 .8	.1 .9 12.6 .7 .0	.0 .0 10.4 .0 .0	18.1 26.5 45.8 82.5 45.8	1.3 1.0 .0 1.4 12.3	1.5 1.3 .0 .6 19.0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서인대량대산강 ■	(221) (195) (235) (268) (228) (245) (109)	26.4 39.2 39.5 16.2 55.5 45.0 41.7	29.1 21.8 21.7 49.4 10.3 16.8 26.8	.5 1.7 .5 1.5 .4 2.1 1.8	.5 .7 .0 1.0 1.7 .5 .0	.0 .0 .0 0.0 0.0 0.4 0.0	37.9 31.7 31.4 27.2 27.9 30.9 24.3	3.6 2.5 2.4 2.1 1.5 2.3 .7	2.1 2.4 4.6 3.6 2.7 2.0 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27 】 지지 대선후보

[문 DQ7] 현재 선생님께서 지지하는 대선 후보는 누구입니까?		사례수	박근혜	문재인	기타	없음	모름/이답	계
			%	%	%	%	%	
■ 전 체 ■	(1500)	44.6	34.6	.6	10.2	10.0	100.0	
■ 여성	(742)	41.4	38.2	.5	10.2	9.6	100.0	
	(758)	47.7	31.1	.7	10.3	10.3	100.0	
■ 19-29세	(278)	30.5	47.5	.0	13.8	8.3	100.0	
	(307)	30.7	45.8	1.4	14.8	7.3	100.0	
	(331)	39.4	38.5	.5	9.6	11.9	100.0	
	(282)	57.0	24.9	.6	6.7	10.7	100.0	
	(302)	65.7	16.2	.3	6.3	11.4	100.0	
■ 지식인	(311)	40.7	33.0	.9	11.5	14.0	100.0	
	(428)	45.2	36.2	.2	10.0	8.4	100.0	
	(152)	43.9	34.9	2.6	9.9	8.7	100.0	
	(153)	9.7	66.1	.0	11.3	12.9	100.0	
	(155)	72.0	15.1	.0	6.0	6.9	100.0	
	(239)	52.7	25.3	.4	12.0	9.6	100.0	
	(62)	48.2	38.1	.0	7.7	6.0	100.0	
■ 학생	(223)	62.6	20.2	.0	6.8	10.3	100.0	
	(513)	51.9	29.6	.2	8.6	9.8	100.0	
	(741)	34.1	43.1	1.1	12.3	9.5	100.0	
	(22)	45.5	12.1	.0	15.2	27.3	100.0	
■ 직장	(57)	36.7	44.9	.0	8.2	10.2	100.0	
	(246)	55.3	28.6	.0	8.3	7.8	100.0	
	(150)	41.0	33.8	1.2	11.3	12.7	100.0	
	(416)	29.7	47.7	1.7	12.0	8.9	100.0	
	(344)	59.2	20.7	.0	8.8	11.4	100.0	
	(144)	33.5	47.3	.0	11.4	7.7	100.0	
	(138)	54.3	24.0	.0	10.2	11.5	100.0	
	(5)	.0	36.0	.0	16.7	47.3	100.0	
■ 소득	(349)	54.6	27.2	.0	9.6	8.6	100.0	
	(252)	48.0	31.2	1.1	11.1	8.6	100.0	
	(262)	41.8	38.2	1.2	8.9	9.9	100.0	
	(204)	36.3	42.9	1.0	7.7	12.2	100.0	
	(282)	42.8	40.5	.0	10.9	5.8	100.0	
	(151)	35.2	28.9	.6	15.1	20.1	100.0	
■ 정당	(553)	93.5	1.3	.0	1.3	3.9	100.0	
	(384)	3.1	89.4	.5	4.1	3.0	100.0	
	(17)	.0	88.0	4.8	.0	7.2	100.0	
	(8)	13.1	58.5	14.4	14.0	.0	100.0	
	(1)	.0	.0	100.0	.0	.0	100.0	
	(458)	26.4	30.0	.9	27.7	15.0	100.0	
	(80)	23.0	14.5	.0	3.8	58.8	100.0	
■ 이념	(472)	68.2	16.8	.2	7.8	7.0	100.0	
	(545)	44.9	29.0	.2	12.3	13.6	100.0	
	(392)	14.9	67.3	1.2	10.0	6.5	100.0	
	(91)	48.1	19.9	2.1	11.6	18.3	100.0	
■ 정치	(231)	59.9	20.0	.4	9.0	10.7	100.0	
	(555)	54.5	25.5	.4	8.1	11.6	100.0	
	(59)	59.4	25.7	.0	8.3	6.6	100.0	
	(540)	29.1	48.2	.9	13.2	8.6	100.0	
	(15)	22.3	50.5	.0	12.9	14.3	100.0	
	(86)	31.5	53.3	1.0	9.5	4.7	100.0	
	(14)	41.0	20.8	.0	12.1	26.1	100.0	
■ 투표	(1300)	46.3	35.5	.7	8.9	8.7	100.0	
	(155)	35.7	30.5	.0	16.8	17.0	100.0	
	(36)	18.9	29.5	.0	31.6	20.1	100.0	
	(9)	53.2	.0	.0	11.8	35.0	100.0	
■ 대선	(669)	100.0	.0	.0	.0	.0	100.0	
	(519)	.0	100.0	.0	.0	.0	100.0	
	(9)	.0	.0	100.0	.0	.0	100.0	
	(154)	.0	.0	.0	100.0	.0	100.0	
	(150)	.0	.0	.0	.0	100.0	100.0	
■ 고서	(221)	35.5	41.5	.4	10.9	11.8	100.0	
	(195)	47.8	33.4	.5	10.1	8.1	100.0	
	(235)	52.5	27.7	.4	9.2	10.2	100.0	
	(268)	19.3	55.1	.7	12.6	12.3	100.0	
	(228)	64.4	18.4	.5	6.4	8.3	100.0	
	(245)	50.3	28.3	.8	10.9	9.7	100.0	
	(109)	48.2	35.3	1.0	7.8	7.6	100.0	

5. 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효과분석 (사후조사)

통계표 목차

【응답자 특성 표】.....	165
【표 1】 TV 토론회 시청 여부.....	166
【표 2】 TV 토론회 시청 횟수.....	167
【표 3】 TV 토론회 관심도.....	168
【표 4】 TV토론회 충분성.....	169
【표 5】 토론회 확대 횟수.....	170
【표 6】 토론회 시간 적절성.....	171
【표 7】 토론행식 변경 동의도.....	172
【표 8】 토론진행 방식 만족도.....	173
【표 9】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자질 비교.....	174
【표 10】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공약 비교.....	175
【표 11】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비교.....	176
【표 12】 토론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된 이슈.....	177
【표 13】 TV 토론회 이후 추가적 선거정보 취득.....	178
【표 14】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 관심도.....	179
【표 15】 TV 토론회 후 지인들과 관련 대화 여부.....	180
【표 16】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181
【표 17】 TV 토론회의 공정한 진행.....	182
【표 18】 TV 토론회의 흥미성.....	183
【표 19】 TV 토론회의 유익성.....	184
【표 20】 대선 투표여부.....	185
【표 21】 대선 투표후보.....	186
【표 22】 TV 토론회 투표후보 결정 영향력.....	187
【표 23】 TV 토론회 투표후보 지지도 영향력.....	188
【표 24】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189
【표 25】 토론회 상식1-FTA 폐기.....	190
【표 26】 토론회 상식2-소득에 따른 차등 등록금.....	191
【표 27】 토론회 상식3-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축소.....	192
【표 28】 토론회 상식4-스펙초월채용시스템 도입.....	193
【표 29】 토론회 상식5-일자리 나눔제 실시.....	194
【표 30】 토론회 상식 인지도.....	195
【표 DQ1】 대선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한 매체.....	196

【 응답자 특성 표 】

	사례수	%
■ 전 체 ■	1000	100.0%
■ 성별 ■	495 505	49.5% 50.5%
■ 연령 ■	184 204 218 191 203	18.4% 20.4% 21.8% 19.1% 20.3%
■ 지역 ■	208 287 101 102 105 157 40	20.8% 28.7% 10.1% 10.2% 10.5% 15.7% 4.0%
■ 학력 ■	139 355 499 7	13.9% 35.5% 49.9% .7%
■ 직업 ■	24 167 94 274 239 105 94 3	2.4% 16.7% 9.4% 27.4% 23.9% 10.5% 9.4% .3%
■ 소득 ■	227 174 157 147 201 94	22.7% 17.4% 15.7% 14.7% 20.1% 9.4%
■ 정당 지지 ■	396 244 11 3 1 314 30	39.6% 24.4% 1.1% .3% .1% 31.4% 3.0%
■ 이념 성향 ■	332 356 264 48	33.2% 35.6% 26.4% 4.8%
■ 정치 관심 ■	155 359 41 367 12 58 7	15.5% 35.9% 4.1% 36.7% 1.2% 5.8% .7%
■ 투표 의향 (사전) ■	863 106 27 4	86.3% 10.6% 2.7% .4%
■ 대선 후보 지지도 (사전) ■	478 340 7 89 86	47.8% 34.0% .7% 8.9% 8.6%
■ 고서인대 ■	132 143 155 174 162 168 66	13.2% 14.3% 15.5% 17.4% 16.2% 16.8% 6.6%
■ 토론 회상식 인지도 ■	78 190 279 245 157 50	7.8% 19.0% 27.9% 24.5% 15.7% 5.0%

【 표 1 】 TV 토론회 시청 여부

[문 SQ3] 선생님께서는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를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	(1000)	96.7	3.3	100.0
■ 성별 ■	(495) (505)	96.5 96.8	3.5 3.2	100.0 100.0
■ 연령 ■	(184) (204) (218) (191) (203)	93.3 96.9 96.1 98.7 98.2	6.7 3.1 3.9 1.3 1.8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식인대중 ■	(208) (287) (101) (102) (105) (157) (40)	97.8 97.8 100.0 92.7 92.8 95.3 100.0	2.2 2.2 0.0 7.3 7.2 4.7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력 ■	(139) (355) (499) (7)	96.8 97.0 96.3 100.0	3.2 3.0 3.7 0.0	100.0 100.0 100.0 100.0
■ 직업 ■	(24) (167) (94) (274) (239) (105) (94) (3)	96.6 96.1 94.0 98.1 96.6 94.8 98.3 100.0	3.4 3.9 6.0 1.9 3.4 5.2 1.7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227) (174) (157) (147) (201) (94)	96.0 94.9 98.0 99.1 95.9 97.4	4.0 5.1 2.0 0.9 4.1 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치참여 ■	(396) (244) (11) (3) (1) (314) (30)	97.1 96.3 100.0 100.0 100.0 96.3 96.2	2.9 3.7 0.0 0.0 0.0 3.7 3.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향 ■	(332) (356) (264) (48)	95.9 96.3 98.5 95.1	4.1 3.7 1.5 4.9	100.0 100.0 100.0 100.0
■ 정보습득 ■	(155) (359) (41) (367) (12) (58) (7)	98.0 97.3 94.7 95.5 100.0 96.9 100.0	2.0 2.7 5.3 4.5 0.0 3.1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사전) ■	(863) (106) (106) (27) (4)	96.8 95.0 97.2 100.0	3.2 5.0 2.8 0.0	100.0 100.0 100.0 100.0
■ 대선후보자지도(사전) ■	(478) (340) (7) (89) (86)	97.6 95.0 100.0 98.0 96.5	2.4 5.0 0.0 2.0 3.5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식인대중 ■	(132) (143) (155) (174) (162) (168) (66)	97.8 98.5 97.5 97.5 95.8 93.1 97.5	2.2 1.5 2.5 2.5 4.2 6.9 2.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사전) ■	(78) (190) (279) (245) (157) (50)	90.7 95.2 96.0 98.8 98.8 96.4	9.3 4.8 3.1 1.2 1.2 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2 】 TV 토론회 시청 횟수

[문 SQ3-1] 있다면, 총 4번의 토론회 중 몇 회 TV 토론회를 시청하십니까?

	사례수	1	2	3	4	계	*평균*
		%	%	%	%		
■ 전 체 ■	(967)	11.3	36.1	35.0	17.6	100.0	2.59
■ 전 국 ■	(478)	11.4	35.0	35.5	18.1	100.0	2.60
■ 연 령 ■	(489)	11.1	37.9	34.5	17.1	100.0	2.58
■ 19 ~ 29 세 ■	(172)	19.8	50.0	24.2	6.0	100.0	2.16
■ 30 ~ 39 세 ■	(198)	11.7	44.9	31.7	11.7	100.0	2.44
■ 40 ~ 49 세 ■	(210)	9.4	36.2	37.2	17.2	100.0	2.82
■ 50 ~ 59 세 ■	(188)	10.6	28.5	41.9	18.9	100.0	2.69
■ 60 세 이상 ■	(199)	6.0	22.8	38.7	32.5	100.0	2.98
■ 지 성 ■	(203)	10.3	32.5	41.2	16.0	100.0	2.63
■ 서울 ■	(281)	11.9	37.7	32.4	18.0	100.0	2.56
■ 부산 ■	(101)	15.1	43.3	28.4	13.1	100.0	2.40
■ 대구 ■	(95)	4.8	34.2	40.2	20.8	100.0	2.77
■ 대전 ■	(97)	12.0	29.5	28.7	29.9	100.0	2.77
■ 광주 ■	(150)	13.2	37.8	37.5	11.5	100.0	2.47
■ 제주 ■	(40)	8.1	40.8	31.9	19.2	100.0	2.62
■ 학 령 ■	(134)	11.5	24.8	34.9	28.9	100.0	2.81
■ 대학원 ■	(345)	11.1	40.5	31.1	17.4	100.0	2.55
■ 대학 ■	(481)	11.3	36.0	38.0	14.6	100.0	2.56
■ 중학교 ■	(7)	12.4	48.5	25.2	13.9	100.0	2.40
■ 직 업 ■	(24)	13.9	38.6	36.8	10.6	100.0	2.44
■ / ■	(161)	10.9	25.5	42.2	21.3	100.0	2.74
■ 이 공업 ■	(88)	13.7	45.0	29.1	12.1	100.0	2.40
■ 이 공업 ■	(269)	11.4	42.1	32.6	13.8	100.0	2.49
■ 정 수 ■	(230)	9.1	31.9	36.2	22.8	100.0	2.73
■ 정 수 ■	(99)	18.1	48.1	27.5	6.3	100.0	2.22
■ 정 수 ■	(92)	6.6	25.9	38.8	28.6	100.0	2.89
■ 정 수 ■	(3)	.0	35.9	64.1	.0	100.0	2.64
■ 소 득 ■	(217)	9.3	38.1	30.3	22.3	100.0	2.66
■ 20 ~ 30 만 원 ■	(165)	7.2	36.2	36.8	19.8	100.0	2.69
■ 30 ~ 40 만 원 ■	(154)	15.1	32.9	35.6	16.4	100.0	2.53
■ 40 ~ 50 만 원 ■	(146)	14.3	38.1	38.0	9.7	100.0	2.43
■ 50 ~ 60 만 원 ■	(192)	9.4	35.5	38.4	16.7	100.0	2.62
■ 60 만 원 이상 ■	(92)	15.9	35.1	30.1	18.9	100.0	2.52
■ 정 당 지지 ■	(385)	11.9	32.1	36.7	19.3	100.0	2.63
■ 민주당 지지 ■	(235)	9.1	41.3	29.7	19.9	100.0	2.60
■ 새누리당 지지 ■	(11)	9.4	41.6	27.6	21.4	100.0	2.61
■ 기타 지지 ■	(3)	.0	24.0	76.0	.0	100.0	2.76
■ 지지 않음 ■	(302)	12.3	37.9	37.0	12.8	100.0	4.00
■ 모름/무응답 ■	(29)	10.9	38.1	27.6	23.4	100.0	2.51
■ 인 생 ■	(318)	11.1	33.0	37.9	18.0	100.0	2.63
■ 20 ~ 30 세 ■	(343)	10.9	35.6	35.4	18.1	100.0	2.61
■ 30 ~ 40 세 ■	(260)	12.3	41.7	32.2	13.9	100.0	2.48
■ 40 ~ 50 세 ■	(46)	9.1	30.7	28.4	31.9	100.0	2.83
■ 정치 관심 ■	(152)	6.1	32.3	40.7	21.0	100.0	2.77
■ 매우 관심 ■	(349)	11.7	31.6	34.5	22.2	100.0	2.67
■ 관심 있음 ■	(39)	13.3	21.1	38.0	27.7	100.0	2.80
■ 관심 없음 ■	(351)	12.0	41.1	34.9	12.0	100.0	2.47
■ 모름/무응답 ■	(12)	6.2	47.8	30.7	15.3	100.0	2.55
■ 정치 관심 ■	(57)	18.8	50.7	21.6	8.8	100.0	2.20
■ 모름/무응답 ■	(7)	.0	47.3	41.1	11.6	100.0	2.64
■ 투표의향(사전) ■	(836)	10.4	34.8	35.8	19.0	100.0	2.63
■ 투표의향(사전) ■	(101)	17.3	44.8	28.7	9.1	100.0	2.30
■ 투표의향(사전) ■	(27)	15.9	41.6	36.4	6.1	100.0	2.33
■ 모름/무응답 ■	(4)	.0	76.7	23.3	.0	100.0	2.23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467)	12.4	32.4	37.4	17.8	100.0	2.61
■ 박근혜 지지 ■	(323)	9.9	40.2	31.9	18.1	100.0	2.58
■ 문재인 지지 ■	(7)	.0	61.5	23.8	14.7	100.0	2.53
■ 기타 지지 ■	(87)	13.4	40.1	35.7	10.8	100.0	2.44
■ 모름/무응답 ■	(83)	8.8	35.3	34.1	21.8	100.0	2.69
■ 고 성 ■	(129)	14.1	38.8	34.1	13.0	100.0	2.46
■ 남성 ■	(141)	13.7	38.7	31.4	16.3	100.0	2.50
■ 여성 ■	(151)	14.2	32.2	35.3	18.3	100.0	2.58
■ 서울 ■	(170)	4.2	37.0	38.8	20.0	100.0	2.75
■ 부산 ■	(155)	12.5	33.9	31.1	22.5	100.0	2.64
■ 대구 ■	(157)	9.3	35.5	40.9	14.3	100.0	2.60
■ 광주 ■	(64)	13.9	39.2	29.2	17.7	100.0	2.51
■ 토론 회 ■	(71)	28.8	35.3	17.8	18.2	100.0	2.25
■ 1 회 ■	(181)	13.6	42.5	32.7	11.2	100.0	2.41
■ 2 회 ■	(271)	9.1	41.0	32.6	17.2	100.0	2.58
■ 3 회 ■	(241)	11.7	32.7	39.5	16.1	100.0	2.60
■ 4 회 ■	(155)	6.0	29.9	40.9	23.2	100.0	2.81
■ 5 회 이상 ■	(48)	3.1	23.8	41.1	32.0	100.0	3.02

【 표 3 】 TV 토론회 관심도

[문 1] 선생님께서는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사례수	관심있음	관심있음	별로	특별한	무관심	*관심	*관심	계
		보았다	보았다	관심있지	관심있지				
		%	%	%	%	%	%	%	
■ 전 체 ■	(967)	51.2	40.6	7.0	.9	.4	91.8	7.9	100.0
■ 여성 ■	(478) (489)	51.8 50.7	39.1 41.9	8.1 5.9	.6 1.1	.3 .4	91.0 92.6	8.7 7.0	100.0 100.0
■ 19대 대선 후보 이산 ■	(172) (198) (210) (188) (199)	26.5 42.0 49.0 63.0 72.4	63.0 47.6 42.0 31.2 21.6	8.9 9.9 7.1 5.9 4.7	1.7 1.4 1.0 1.3	.0 .5 .5 .0	88.5 90.0 94.0 94.0	10.5 9.3 9.1 9.5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치인/언론인/전문가/학자/일반인/학생/취업준비생/무응답 ■	(203) (281) (101) (95) (97) (190) (40)	55.5 47.0 36.6 62.6 69.0 46.3 50.9	34.4 44.8 53.4 33.1 32.5 41.7 45.2	9.7 9.7 4.4 5.5 5.5 2.8	.4 3.4 1.1 1.0	.0 .4 .0 .0 1.1	88.8 89.0 90.0 90.0 90.0 	10.1 9.0 8.6 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치인/언론인/전문가/학자/일반인/학생/취업준비생/무응답 ■	(134) (345) (491) (7)	70.1 46.0 49.7	23.9 43.4 50.3	4.6 6.0	1.4 1.0	.0 .0	99.0 100.0	6.0 6.0	100.0 100.0 100.0
■ 정치인/언론인/전문가/학자/일반인/학생/취업준비생/무응답 ■	(24) (61) (288) (300) (36) (3)	51.9 62.3 47.2 56.5 100.0	44.0 58.7 45.0 86.0	4.0 4.0 4.0	.0 2.1 2.0	.0 .0 .0	96.0 99.0 99.0 100.0	4.0 1.7 1.1 1.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치인/언론인/전문가/학자/일반인/학생/취업준비생/무응답 ■	(217) (165) (146) (92) (32)	58.0 56.0 44.6 59.3	34.0 45.0 40.1 38.2	5.8 5.0 4.4 3.3	1.8 1.0 1.0	.5 .0 .0	91.9 99.0 99.0	7.6 4.4 3.6	100.0 100.0 100.0 100.0
■ 정치인/언론인/전문가/학자/일반인/학생/취업준비생/무응답 ■	(385) (235) (1) (3) (1) (302) (29)	59.4 96.1 24.7 100.0 40.0 68.5	30.8 53.6 75.3 0.0 34.5	8.1 4.1 9.5 7.0	1.6 1.0 1.0	.1 .0 .0 1.0	90.0 100.0 100.0 100.0	9.7 4.4 8.0	100.0 100.0 100.0 100.0
■ 정치인/언론인/전문가/학자/일반인/학생/취업준비생/무응답 ■	(318) (343) (260) (46)	57.8 50.0 42.6 64.2	34.8 40.1 50.0 30.4	6.6 6.9 5.5 3.3	1.8 1.3 1.0	.0 .4 .0	93.5 90.1 94.7	7.5 9.1 5.3	100.0 100.0 100.0
■ 정치인/언론인/전문가/학자/일반인/학생/취업준비생/무응답 ■	(152) (349) (39) (351) (12) (57) (7)	55.0 61.0 59.8 38.4 68.0 44.9 74.0	36.3 30.9 30.5 53.8 17.6 43.3 26.0	7.5 6.0 7.7 7.2 14.4 8.9 1.0	.9 .8 2.1 2.6 2.8 1.0	.3 .0 .0 .0 .0	91.3 90.4 90.2 85.6 88.3 100.0	8.4 7.7 9.8 14.4 11.7 1.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사전) ■	(836) (101) (27) (4)	54.4 32.0 29.6 23.3	38.5 54.2 49.4 76.7	5.9 12.6 21.0	1.9 1.3 1.0	.4 .0 .0	93.8 86.1 79.0 100.0	6.7 13.9 21.0	100.0 100.0 100.0
■ 대선후보지지도(사전) ■	(467) (323) (7) (87) (83)	53.7 51.0 25.9 44.5 47.2	36.5 43.9 74.1 45.6 42.5	7.8 5.1 7.7 7.7 9.7	1.6 1.0 1.0 1.0	.4 .0 .0 .5	90.2 94.9 100.0 90.1 89.8	9.4 5.1 0.0 8.7 9.7	100.0 100.0 100.0 100.0
■ 고령인/대졸/대학생/취업준비생/무응답 ■	(129) (141) (151) (170) (155) (157) (64)	40.7 46.9 48.8 59.3 56.2 53.5 48.8	49.6 45.7 43.6 33.8 34.4 38.9 40.9	8.9 7.3 4.9 5.4 8.4 6.3 9.7	.0 1.5 1.5 1.0 1.4 1.0	.8 1.3 .0 .0 .0 .7	90.3 92.7 92.3 93.2 90.6 92.3 89.6	8.9 7.3 6.4 6.8 9.4 7.7 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토론회 시청자지지도 ■	(71) (181) (271) (241) (155) (48)	42.2 39.1 53.1 51.6 60.0 68.9	43.5 50.4 38.0 42.2 34.0 26.5	11.0 7.6 7.9 5.4 5.8 4.6	1.8 2.6 .6 .3 .0	1.5 1.3 .5 .0	85.7 89.5 91.1 93.8 94.8 95.4	12.8 10.3 8.6 5.8 4.6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4 】 TV토론회 총분성

[문 2] 선생님께서는 총 4회 진행된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가 총분했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총분했다	부족했다	모름/답	계
		%	%		
■ 전 체 ■	(1000)	52.9	43.1	4.0	100.0
■ 여성	(495)	50.7	46.2	3.1	100.0
■ 남성	(505)	55.0	40.1	4.9	100.0
■ 19-29세	(184)	55.8	40.5	3.6	100.0
■ 30-39세	(204)	42.7	55.0	2.3	100.0
■ 40-49세	(218)	43.7	55.1	1.2	100.0
■ 50-59세	(191)	57.5	38.9	3.6	100.0
■ 60대 이상	(203)	65.8	28.9	5.3	100.0
■ 지식인	(208)	50.0	46.6	3.5	100.0
■ 일반인	(287)	53.7	43.2	3.1	100.0
■ 대학생	(101)	61.9	37.1	1.0	100.0
■ 직장인	(102)	40.9	51.1	8.0	100.0
■ 주부	(105)	56.6	38.6	4.8	100.0
■ 학생	(157)	53.6	40.7	5.7	100.0
■ 원장	(40)	57.0	40.3	2.8	100.0
■ 학생	(139)	62.3	30.1	7.6	100.0
■ 일반인	(355)	59.0	37.0	4.0	100.0
■ 대학생	(499)	45.5	51.3	3.2	100.0
■ 원장	(7)	77.8	22.2	.0	100.0
■ 지식인	(24)	68.0	24.1	7.8	100.0
■ 일반인	(167)	44.7	51.1	4.1	100.0
■ 대학생	(94)	53.7	44.6	1.8	100.0
■ 직장인	(274)	46.9	49.6	3.5	100.0
■ 주부	(239)	57.9	36.8	5.2	100.0
■ 학생	(105)	55.0	43.1	1.9	100.0
■ 원장	(94)	64.3	30.7	5.0	100.0
■ 원장	(3)	64.1	.0	35.9	100.0
■ 200만 이하	(227)	61.7	31.6	6.6	100.0
■ 201-300만	(174)	48.4	46.8	4.8	100.0
■ 301-400만	(157)	50.6	47.1	2.3	100.0
■ 401-500만	(147)	50.4	46.8	2.7	100.0
■ 501만 이상	(201)	45.3	51.0	3.7	100.0
■ 모름/답	(94)	63.6	34.3	2.1	100.0
■ 정치개혁	(396)	64.0	31.2	4.8	100.0
■ 지지	(244)	42.9	52.9	4.2	100.0
■ 반대	(11)	54.7	45.3	.0	100.0
■ 모름/답	(3)	.0	100.0	.0	100.0
■ 정치개혁	(1)	.0	100.0	.0	100.0
■ 지지	(314)	45.2	51.4	3.4	100.0
■ 반대	(30)	72.5	24.9	2.6	100.0
■ 이념	(332)	59.6	36.4	4.1	100.0
■ 중립	(356)	49.4	45.3	5.3	100.0
■ 지지	(264)	47.5	51.4	1.1	100.0
■ 반대	(48)	61.7	27.7	10.5	100.0
■ 정보습득	(155)	54.6	43.8	1.6	100.0
■ 신시	(359)	60.3	33.4	6.2	100.0
■ 케	(41)	57.2	40.4	2.4	100.0
■ 이	(367)	44.7	53.1	2.2	100.0
■ 관	(12)	39.9	53.9	6.2	100.0
■ 대	(58)	51.4	39.0	9.7	100.0
■ 리	(7)	71.3	28.7	.0	100.0
■ 투표의	(863)	52.5	44.2	3.3	100.0
■ 정	(106)	53.2	38.7	8.1	100.0
■ 사	(27)	66.0	28.7	5.2	100.0
■ 타	(4)	24.8	23.3	51.9	100.0
■ 모					
■ 대선후보지지도(사전)	(478)	61.9	33.2	4.9	100.0
■ 지지	(340)	42.0	54.7	3.2	100.0
■ 반대	(7)	12.3	87.7	.0	100.0
■ 모름/답	(89)	48.2	49.5	2.3	100.0
■ 원장	(86)	53.7	42.0	4.4	100.0
■ 고	(132)	55.7	41.4	2.9	100.0
■ 서	(143)	51.0	45.1	3.9	100.0
■ 인	(155)	56.5	40.6	3.0	100.0
■ 대	(174)	44.3	50.6	5.1	100.0
■ 광	(162)	58.3	36.5	5.2	100.0
■ 주	(168)	53.5	42.1	4.4	100.0
■ 부	(66)	50.1	47.4	2.5	100.0
■ 상					
■ 원					
■ 강					
■ 토론회상	(78)	65.3	25.9	8.8	100.0
■ 0개	(190)	64.3	29.7	6.0	100.0
■ 1개	(279)	52.6	43.6	3.8	100.0
■ 2개	(245)	50.2	46.3	3.5	100.0
■ 3개	(157)	42.5	56.1	1.4	100.0
■ 4개	(50)	36.9	61.8	1.3	100.0
■ 5개					

【 표 5 】 토론회 확대 횟수

[문 2-1] 부족했다면, 토론회를 몇 회 정도로 늘려야 할까요? ()회

	사례수	5	6	7	8	10	13	15	20	무응답/합	계	*평균*
		%	%	%	%	%	%	%	%			
■ 전 체 ■	(431)	31.5	29.6	8.4	5.0	10.9	.2	.2	1.0	13.3	100.0	6.54
■ 모든 토론회 확대해야 합니다 ■	(229) (202)	32.5 30.2	22.9 37.2	12.1 4.3	5.8 4.0	13.3 8.2	.3	.3	1.2 .8	11.9 15.0	100.0	6.72 6.33
■ 1~3회 늘려야 합니다 ■	(75) (111) (109) (59)	20.3 29.2 32.6 42.7	22.6 29.7 28.7 20.4	12.2 9.8 9.2 6.4	9.7 4.1 5.1 1.6	9.7 11.0 12.1 10.0	.0	.0	.0 2.3 1.7 1.2	15.6 10.0 13.0 10.0	100.0	6.59 6.73 6.51 6.44 6.49
■ 4~6회 늘려야 합니다 ■	(97) (124) (37) (52) (41) (64) (16)	28.4 29.4 34.4 39.7 32.0 28.1 44.7	24.9 33.3 23.6 27.3 26.0 36.4 29.3	8.3 11.1 3.0 12.4 9.1 2.7 9.8	6.1 3.5 3.8 3.5 4.9 6.3 12.1	14.5 10.7 16.3 1.5 9.0 14.2 .0	.0	.8	3.6 .0 .0 1.9 .0 .0	13.5 11.6 19.0 15.7 17.2 11.2 4.1	100.0	7.24 6.36 6.51 6.83 6.44 6.58 5.88
■ 7~9회 늘려야 합니다 ■	(42) (31) (25) (2)	39.9 36.7 27.6 .0	21.8 30.9 9.9 .0	8.0 5.4 10.1 .0	3.3 3.5 6.0 .0	6.3 8.1 13.1 .0	.0	.0	.0 .8 1.3 .0	20.6 15.8 10.3 100.0	100.0	6.00 6.22 6.77 .
■ 10회 이상 늘려야 합니다 ■	(6) (48) (36) (8)	56.7 28.3 29.9 42.4	13.2 28.6 34.4 17.0	.0 9.4 9.4 11.5	.0 9.4 3.3 6.4	9.0 1.8 5.5 8.1	.0	.0	.0 1.9 .0 2.2	30.1 10.9 14.7 10.8 15.7 15.5 .0	100.0	5.19 6.66 6.64 6.24 6.81 6.28 .
■ 10회 이상 늘려야 합니다 ■	(72) (82) (63) (32)	35.8 37.8 24.5 28.7	26.7 25.0 35.9 22.2	8.0 6.2 11.3 9.5	4.4 4.9 4.4 9.5	11.3 10.9 9.9 5.2	.0	.0	.0 2.6 2.0 .0	18.2 12.7 11.1 22.5	100.0	6.21 6.27 6.30 5.96
■ 10회 이상 늘려야 합니다 ■	(124) (124) (35) (11) (161) (8)	35.2 31.2 20.8 48.7 29.0 24.1	29.3 15.8 10.0 32.3 32.5 3.5	7.3 7.1 42.0 9.4 11.5	3.7 3.8 .0 .0 7.4 .0	8.0 14.1 22.1 11.0 11.0	.0	.0	2.0 .0 .0 1.0 .0	16.5 15.5 51.3 8.9 18.8	100.0	6.14 6.80 7.10 6.00 6.83 6.64
■ 10회 이상 늘려야 합니다 ■	(121) (161) (36) (13)	36.4 29.4 30.6 21.2	25.6 38.2 29.6 5.5	8.5 7.0 10.9 .0	2.6 5.9 6.4 .0	7.8 11.6 13.9 .0	.4	.6	.6 2.0 2.6 .0	17.8 7.5 13.1 46.2	100.0	6.28 6.42 6.97 5.80
■ 10회 이상 늘려야 합니다 ■	(68) (120) (17) (195) (37) (2)	36.9 32.8 45.9 29.5 17.4 20.5	28.8 16.1 33.2 16.1 1.1 38.2	5.7 4.2 10.8 10.6 17.9 52.5	9.3 4.9 5.2 3.9 3.3 .0	11.1 10.4 12.9 9.3 16.6 47.5	.0	.0	.0 1.4 6.9 .0	9.2 19.0 9.1 11.8 26.9 8.0	100.0	6.33 6.36 6.53 6.59 6.67 6.43
■ 투표의향(사전) ■	(381) (41) (6) (1)	32.1 27.8 22.5 .0	27.9 42.3 47.3 .0	8.8 4.6 9.9 .0	4.9 7.1 .0 .0	10.9 8.7 10.6 100.0	.0	.2	1.1 .0 .0 .0	14.0 7.9 9.9 .0	100.0	6.55 6.41 6.33 10.00
■ 대선후보 지지도(사전) ■	(159) (186) (46) (36)	36.4 26.7 15.2 30.5	29.0 28.2 48.0 36.3	6.9 10.6 4.7 9.7	4.1 4.4 24.0 12.3	7.5 16.7 5.4 4.6	.0	.0	.6 1.4 1.7 .0	15.5 12.5 9.8 14.9	100.0	6.19 6.38 6.43 6.35
■ 고선지지도(사전) ■	(55) (64) (83) (59) (88) (71) (31)	38.4 27.5 32.8 33.6 24.6 25.3 45.7	21.7 33.2 31.3 27.3 39.5 22.4	10.4 13.0 6.7 9.3 6.2 6.6 5.1	3.0 4.8 2.8 4.1 3.4 12.1 2.5	10.0 8.0 12.6 12.1 8.6 12.9 11.1	.0	.0	1.7 .0 .0 1.1 3.9 .0 .0	14.9 13.4 13.8 11.6 12.6 14.5 13.3	100.0	6.48 6.31 6.35 6.63 6.88 6.67 6.10
■ 토론회 실시인지도 ■	(20) (56) (12) (13) (88) (31)	36.5 33.0 37.0 29.9 27.1 21.5	28.4 32.7 28.4 31.1 25.1 8.8	18.8 8.6 6.3 7.8 11.5 3.2	3.8 3.0 3.0 4.9 9.4 10.5	8.8 6.3 6.8 15.7 8.2 27.1	.0	.0	.0 3.8 19.4 17.7 8.6 2.8 2.8	3.8 19.4 17.7 8.6 15.2 2.8 2.8	100.0	6.26 6.01 6.17 6.77 6.88 6.74

【 표 6 】 토론회 시간 적절성

[문 3] 선생님께서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의 시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시간을 늘려야 한다	시간을 줄여야 한다	시간을 늘려야 한다	무응답/답	계
		%	%	%		
■ 전 체 ■	(1000)	29.3	65.5	3.7	1.5	100.0
■ 성별 ■	(495) (505)	33.4 25.2	62.4 68.5	3.9 3.6	2.3 2.7	100.0 100.0
■ 연령 ■	(184) (204) (218) (191) (203)	26.7 31.4 31.0 33.6 23.4	69.1 64.6 64.1 61.5 68.4	2.8 2.4 3.5 3.6 6.3	1.4 1.6 1.5 1.3 1.9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업 ■	(208) (287) (101) (102) (105) (157) (40)	33.3 28.3 20.1 33.3 26.8 28.5 37.4	61.7 68.7 71.4 58.5 67.6 65.5 60.1	3.7 2.1 6.1 6.0 2.6 4.8 2.5	1.3 .9 2.4 2.2 3.1 1.3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력 ■	(139) (355) (499) (7)	26.6 28.2 31.1 .0	64.9 67.1 64.2 89.1	5.6 3.7 3.1 10.9	2.9 1.0 1.5 .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24) (167) (94) (274) (239) (105) (94) (3)	24.2 32.3 32.7 30.7 25.7 29.1 27.5 .0	72.4 64.6 61.4 65.9 65.9 68.1 63.0 100.0	3.4 2.2 5.1 1.7 5.6 2.0 8.5 .0	.0 .9 .8 1.6 2.8 .9 1.1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227) (174) (157) (147) (201) (94)	25.7 34.1 34.8 28.2 26.4 27.4	64.6 64.3 59.9 66.3 71.3 65.8	7.1 1.7 3.0 4.0 1.3 5.2	2.6 .0 2.3 1.4 1.0 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치참여 ■	(396) (244) (11) (3) (1) (314) (30)	22.8 38.8 35.6 75.3 0.0 30.1 21.5	71.8 56.9 53.6 24.7 100.0 64.8 67.7	3.9 3.2 10.8 .0 .0 3.3 8.3	1.4 1.2 .0 .0 .0 1.9 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 ■	(332) (356) (264) (48)	26.7 31.7 31.7 15.8	68.4 62.4 65.5 68.1	3.7 3.9 2.4 9.8	1.2 2.0 4.4 6.3	100.0 100.0 100.0 100.0
■ 정치참여 ■	(155) (359) (41) (367) (12) (58) (7)	22.5 27.8 26.6 33.0 48.7 31.2 26.0	71.0 65.9 71.4 64.9 51.3 53.3 47.3	5.9 4.7 2.0 1.0 1.0 9.6 11.6	.5 1.6 .0 1.1 .0 5.9 1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사전) ■	(863) (106) (27) (4)	30.7 21.6 17.2 .0	64.2 75.1 72.9 48.1	3.7 2.3 9.9 .0	1.4 1.0 .0 51.9	100.0 100.0 100.0 100.0
■ 대선후보 지지도(사전) ■	(478) (340) (7) (89) (86)	24.1 38.8 33.5 25.8 24.0	69.5 58.0 76.5 67.9 69.5	4.2 2.9 0.0 4.6 3.4	2.1 .3 .0 1.6 3.1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업 ■	(132) (143) (155) (174) (162) (168) (66)	30.8 26.1 27.0 36.2 27.4 28.9 25.3	65.6 69.8 64.6 59.4 67.7 66.8 65.4	3.5 2.8 2.7 2.8 2.9 2.1 7.7	.0 1.3 2.8 1.6 2.0 1.2 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토론회 ■	(78) (190) (279) (245) (157) (50)	21.6 20.0 26.4 33.3 35.0 53.0	65.4 71.0 71.0 62.7 60.0 45.4	7.9 6.1 2.4 2.0 4.5 1.5	5.0 3.0 2.2 2.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8 】 토론진행 방식 만족도

[문 5]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선 TV 토론회의 토론 진행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만족	*불만족	계
		%	%	%	%		%	%	
■ 전 체 ■	(1000)	6.8	50.7	33.4	7.3	1.8	57.5	40.7	100.0
■ 성별 ■	(495)	5.7	46.5	37.7	8.9	1.2	52.2	46.6	100.0
■ 연령 ■	(505)	7.8	54.9	29.1	5.7	2.3	62.8	34.9	100.0
■ 19-29 ■	(184)	6.4	49.8	35.8	7.5	1.5	56.2	43.3	100.0
■ 30-39 ■	(204)	8.2	45.5	37.3	7.8	1.2	53.7	45.1	100.0
■ 40-49 ■	(218)	4.2	45.3	36.7	10.2	3.7	49.5	46.8	100.0
■ 50-59 ■	(191)	5.2	57.5	30.9	5.8	2.6	62.7	36.7	100.0
■ 60 이상 ■	(203)	10.2	56.2	26.0	5.0	2.5	66.5	31.0	100.0
■ 직업 ■	(208)	2.8	48.0	38.4	9.5	1.3	50.9	47.8	100.0
■ 교사/교원 ■	(287)	6.8	49.7	32.3	7.5	0.6	59.5	39.9	100.0
■ 공무원/직공 ■	(101)	0.0	54.0	31.1	4.0	3.2	61.0	35.7	100.0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102)	0.8	57.3	26.5	8.1	3.6	64.3	34.6	100.0
■ 주부/주부 ■	(105)	0.4	60.8	20.0	1.1	1.6	65.3	33.2	100.0
■ 학생/학생 ■	(157)	9.0	43.6	33.7	6.4	4.3	58.6	43.6	100.0
■ 기타/기타 ■	(40)	5.0	46.5	40.9	6.4	1.1	51.5	47.4	100.0
■ 학력 ■	(139)	14.2	66.0	15.5	3.1	1.2	80.2	18.6	100.0
■ 고졸/고졸 ■	(355)	7.4	55.0	30.9	4.4	2.7	62.4	34.9	100.0
■ 대졸/대졸 ■	(499)	4.4	43.4	40.9	10.6	1.3	47.8	50.9	100.0
■ 대학원/대학원 ■	(7)	0.0	59.1	40.9	0.0	0.0	59.1	40.9	100.0
■ 소득수준 ■	(24)	11.2	65.5	23.3	7.0	0.0	76.7	23.3	100.0
■ 10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	(167)	6.7	44.6	39.9	7.2	1.6	51.3	47.1	100.0
■ 1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 ■	(94)	4.6	56.8	36.0	8.1	1.0	61.3	38.7	100.0
■ 1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 ■	(274)	4.4	43.8	39.8	10.7	1.4	48.2	50.4	100.0
■ 1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 ■	(239)	7.7	59.6	25.0	3.5	3.7	67.4	28.8	100.0
■ 1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 ■	(105)	6.5	48.7	35.0	8.5	1.9	55.6	43.5	100.0
■ 1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 ■	(94)	12.5	51.4	27.1	7.3	1.7	63.9	34.4	100.0
■ 1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 ■	(3)	0.0	64.1	35.9	0.0	0.0	64.1	35.9	100.0
■ 수급액 ■	(227)	13.4	53.4	22.3	8.8	2.1	66.7	31.1	100.0
■ 2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	(174)	5.2	52.0	35.2	5.7	2.0	57.1	40.9	100.0
■ 3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 ■	(157)	5.0	47.3	38.7	7.2	1.8	52.2	46.0	100.0
■ 400만원 이상/400만원 이상 ■	(147)	4.2	51.4	37.6	5.1	1.7	55.6	42.7	100.0
■ 500만원 이상/500만원 이상 ■	(201)	4.4	44.1	39.0	10.5	2.1	48.5	49.4	100.0
■ 501만원 이상/501만원 이상 ■	(94)	6.3	61.0	29.3	3.4	0.0	67.3	32.7	100.0
■ 정치참여 ■	(396)	9.1	56.9	28.5	3.8	1.8	66.0	32.3	100.0
■ 자주/자주 ■	(244)	5.4	49.6	32.1	12.6	4.4	55.0	44.6	100.0
■ 자주/자주 ■	(11)	9.7	27.6	26.9	26.2	9.6	37.4	53.0	100.0
■ 자주/자주 ■	(3)	0.0	24.7	24.0	51.3	0.0	24.7	75.3	100.0
■ 자주/자주 ■	(1)	0.0	100.0	0.0	0.0	0.0	100.0	0.0	100.0
■ 자주/자주 ■	(314)	4.4	44.2	42.2	6.7	2.5	48.6	48.9	100.0
■ 자주/자주 ■	(30)	13.4	56.6	20.4	6.5	3.1	70.0	26.9	100.0
■ 이념 ■	(332)	7.8	54.6	30.8	5.7	1.1	62.3	36.5	100.0
■ 보수/보수 ■	(356)	5.2	50.6	34.3	7.4	2.5	55.8	41.7	100.0
■ 진보/진보 ■	(264)	6.4	43.3	38.2	10.5	1.6	49.7	48.7	100.0
■ 진보/진보 ■	(48)	14.5	65.8	17.7	0.0	2.0	80.3	17.7	100.0
■ 정보습득 ■	(155)	4.0	48.4	38.7	8.0	3.8	52.4	46.8	100.0
■ 자주/자주 ■	(359)	9.9	59.6	23.6	3.6	3.3	69.5	27.2	100.0
■ 자주/자주 ■	(41)	15.7	48.2	31.5	4.7	0.0	63.8	36.2	100.0
■ 자주/자주 ■	(367)	3.9	45.6	39.6	9.6	1.3	49.4	49.3	100.0
■ 자주/자주 ■	(12)	0.0	46.6	44.5	9.0	0.0	46.6	53.4	100.0
■ 자주/자주 ■	(58)	7.8	41.7	36.1	14.3	0.0	49.5	50.5	100.0
■ 자주/자주 ■	(7)	17.2	15.1	55.4	12.3	0.0	32.2	67.8	100.0
■ 투표의향(사전) ■	(863)	7.1	49.5	33.7	7.9	1.8	56.7	41.6	100.0
■ 보수/보수 ■	(106)	5.0	57.6	30.1	5.0	2.3	62.7	35.1	100.0
■ 진보/진보 ■	(27)	4.5	55.8	39.7	0.0	0.0	60.3	39.7	100.0
■ 진보/진보 ■	(4)	0.0	100.0	0.0	0.0	0.0	100.0	0.0	100.0
■ 대선후도지도(사전) ■	(478)	7.9	56.0	30.2	3.9	1.9	63.9	34.1	100.0
■ 보수/보수 ■	(340)	6.3	45.1	34.6	12.8	0.0	51.4	47.7	100.0
■ 진보/진보 ■	(7)	0.0	49.2	39.4	11.3	0.0	49.2	50.8	100.0
■ 진보/진보 ■	(89)	3.5	44.1	43.9	7.3	1.2	47.7	51.1	100.0
■ 진보/진보 ■	(86)	6.4	50.8	33.6	4.3	4.9	57.3	37.8	100.0
■ 교육 ■	(132)	1.9	54.8	33.4	9.3	0.6	56.7	42.7	100.0
■ 보수/보수 ■	(145)	11.7	49.5	34.9	3.8	3.1	60.8	36.7	100.0
■ 진보/진보 ■	(155)	7.7	49.5	35.7	6.8	0.0	57.4	42.6	100.0
■ 진보/진보 ■	(174)	8.8	52.0	30.6	6.6	5.5	60.1	39.9	100.0
■ 진보/진보 ■	(162)	3.3	57.6	30.7	6.1	3.1	61.3	35.6	100.0
■ 진보/진보 ■	(168)	9.3	46.4	30.4	12.0	2.0	55.6	42.4	100.0
■ 진보/진보 ■	(66)	2.1	39.2	47.6	6.8	4.3	41.3	54.4	100.0
■ 투표의향(사전) ■	(78)	12.0	54.7	27.3	4.0	6.0	66.7	27.3	100.0
■ 보수/보수 ■	(190)	8.7	59.9	25.3	0.0	1.4	68.6	30.0	100.0
■ 진보/진보 ■	(279)	8.3	48.5	33.3	7.1	2.7	56.7	40.2	100.0
■ 진보/진보 ■	(245)	4.9	51.3	36.0	7.2	0.7	56.1	43.2	100.0
■ 진보/진보 ■	(157)	3.0	47.5	37.0	10.7	0.8	50.6	48.6	100.0
■ 진보/진보 ■	(50)	5.0	29.9	45.5	19.7	0.0	34.8	65.2	100.0

【 표 9 】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자질 비교

[문 6-1]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선 TV 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비교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었다	그저 그렇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무응답/답	*비도움	*도움	계
		%	%	%	%	%	%	%		
■ 전 체 ■	(1000)	2.3	11.2	19.8	44.4	21.5	.8	13.4	66.0	100.0
■ 여 성 ■	(495) (505)	2.4 2.2	12.2 10.1	22.1 17.6	43.8 45.1	18.8 24.2	.8 .8	14.6 12.3	62.5 69.3	100.0 100.0
■ 19-29세 ■	(184) (204) (218) (191) (203)	.6 5.0 2.0 .8 2.7	9.8 10.4 10.4 12.0 13.2	20.1 28.7 16.6 21.1 12.9	44.2 39.8 52.8 43.3 41.4	23.7 16.1 17.2 21.9 29.4	1.7 .0 1.1 .9 .4	10.4 15.4 12.4 12.8 15.9	67.9 55.9 69.9 65.2 70.8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식인/대학생/전문직/사무직/주부 ■	(208) (287) (101) (102) (105) (157) (40)	1.9 2.1 3.2 2.8 3.1 3.4 3.0	15.3 8.6 9.9 17.5 13.0 9.0 13.2	20.2 20.2 22.9 17.4 10.5 21.9 29.9	42.7 47.2 41.4 49.5 53.5 40.6 19.2	19.3 23.0 23.6 14.7 17.3 23.6 37.7	.5 .7 .0 .0 2.3 1.6 .0	17.2 8.9 12.1 18.3 16.4 12.4 13.2	62.1 70.2 65.0 64.3 70.8 64.1 5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생/대학생/전문직/사무직/주부 ■	(139) (355) (493) (7)	1.1 2.0 2.8 3.0	13.1 12.5 9.0 13.0	12.0 18.6 23.0 10.7	44.9 44.7 43.9 61.6	28.4 21.4 19.6 27.7	.6 .8 .8 .0	14.2 14.5 12.7 12.0	73.3 66.1 63.5 88.3	100.0 100.0 100.0 100.0
■ 19-29세 ■	(24) (167) (94) (274) (239) (105) (94) (3)	.0 4.4 3.3 3.3 2.4 3.0 2.8 2.2	7.4 13.4 10.7 10.2 11.1 13.9 9.0	22.8 20.4 25.4 22.4 16.4 18.6 35.9	46.8 37.7 50.1 44.2 47.8 48.6 39.1 42.6	22.9 23.7 14.3 20.2 24.4 24.4 25.5 27.8	.0 .5 .0 .8 2.0 3.0 .0	7.4 17.7 14.5 12.4 13.2 16.2 28.2	69.7 61.4 64.3 64.4 69.2 73.0 64.1 3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30-39세 ■	(227) (174) (157) (147) (201) (94)	2.6 3.6 3.4 1.9 1.7 2.6	11.4 13.6 11.6 12.4 8.4 9.2	16.0 20.6 22.3 19.0 23.5 16.5	43.3 43.3 45.8 47.0 44.6	26.2 19.6 16.1 19.6 20.3 27.8	.3 1.1 .8 .0 1.4 1.2	14.0 15.0 14.9 14.4 10.1 11.9	69.6 63.1 61.9 66.6 64.9 7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40-49세 ■	(396) (244) (11) (3) (1) (314) (30)	2.4 2.6 .0 .0 .0 2.3 3.0	11.1 8.8 16.1 .0 .0 13.3 9.1	20.0 18.3 10.8 51.3 21.8 9.0	42.8 44.5 53.6 48.7 100.0 45.5 48.6	22.8 25.9 19.5 .0 .0 15.8 33.2	1.0 .0 .0 .0 .0 1.3 .0	13.4 11.3 16.1 .0 .0 15.6 9.1	65.5 70.4 73.1 48.7 100.0 61.3 81.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50-59세 ■	(332) (356) (264) (48)	2.9 1.4 2.8 2.2	14.2 9.3 9.3 15.0	19.3 24.2 16.2 10.2	46.1 46.2 41.0 38.9	16.5 18.1 30.3 33.6	1.1 .9 .4 .0	17.0 10.6 12.0 17.3	62.6 64.2 71.3 72.5	100.0 100.0 100.0 100.0
■ 60-69세 ■	(155) (359) (41) (367) (12) (58) (7)	1.9 1.8 2.0 3.0 3.0 2.7 3.0	13.7 13.1 6.7 8.4 14.4 14.1 14.0	20.5 17.6 27.7 21.3 5.2 18.6 28.7	39.4 44.9 45.0 46.6 65.4 38.3 27.4	24.6 21.8 18.5 19.3 14.9 26.3 43.8	.0 .8 .0 1.4 .0 .0 .0	15.5 14.9 8.7 11.3 14.4 16.8 .0	64.0 66.7 63.5 66.0 80.4 64.6 7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70-79세 ■	(863) (106) (27) (4)	2.4 1.8 .0 .0	11.1 9.7 17.7 23.3	18.4 25.7 40.2 24.8	44.5 46.5 31.9 51.9	22.9 14.3 10.1 .0	.7 2.1 .0 .0	13.5 11.5 17.7 23.3	67.4 60.8 42.1 51.9	100.0 100.0 100.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478) (340) (7) (89) (86)	2.5 2.4 1.9 1.3 1.9	11.5 9.1 11.5 17.4 11.0	20.6 18.2 34.4 14.5 26.0	43.5 45.7 27.0 47.9 42.3	20.7 24.6 11.2 18.9 17.4	1.2 .0 .0 .0 2.5	13.9 11.5 27.4 16.6 11.9	64.2 70.3 38.2 66.9 59.6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식인/대학생/전문직/사무직/주부 ■	(132) (143) (155) (174) (162) (168) (66)	1.8 3.3 1.1 4.4 4.8 2.4 1.6	11.6 9.9 9.0 13.0 12.8 9.9	25.0 18.6 19.6 28.3 28.5	42.6 44.4 43.9 48.3 47.7 42.8 35.3	19.0 25.3 26.5 15.0 29.7 21.1 24.7	.0 1.4 .0 1.1 1.5 .0	13.4 10.4 9.4 16.5 17.4 13.6 11.5	61.6 69.7 78.3 68.3 64.6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토론형 지지도 ■	(78) (190) (279) (245) (157) (50)	1.4 3.9 2.0 5.5 4.9	9.5 10.6 14.0 7.3 10.5	25.5 20.1 17.4 20.3 18.1 26.3	37.8 43.9 46.4 42.2 49.1 42.3	23.4 22.0 20.0 21.1 25.0 15.9	2.4 2.3 .0 .0 .0	10.9 11.9 15.9 16.8 7.8 15.4	61.3 66.0 66.4 63.3 74.0 5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10 】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공약 비교

[문 6-2] 후보자의 정책공약 비교에서는요?

	사례수	전혀 不知道 않았다	별로 不知道 않았다	그저 그렇다	약간 不知道 않았다	매우 不知道 않았다	무 응답/ 답	*비도움	*도움	계
		%	%	%	%	%	%	%	%	
■ 전 체 ■	(1000)	2.6	11.2	25.6	44.1	15.5	1.0	13.7	59.6	100.0
■ 연 령 ■	(495) (505)	3.5 1.6	12.3 10.0	27.5 23.8	42.7 45.6	13.5 17.4	.4 1.6	15.8 11.7	56.2 62.9	100.0 100.0
■ 연 령 19 ~ 29 ■	(184) (204) (218)	2.1 4.0 2.7	11.3 12.0 10.7	37.8 27.3 24.4	37.2 47.4 47.9	10.5 9.2 13.1	1.1 .0 1.1	13.4 16.0 13.4	47.7 56.7 61.1	100.0 100.0 100.0
■ 연 령 30 ~ 39 ■	(191) (203)	3.2 .8	9.8 12.0	22.4 17.3	48.4 39.1	15.3 28.8	.8 2.0	13.0 12.8	63.8 67.9	100.0 100.0
■ 연 령 40 ~ 49 ■	(208) (287) (101) (102) (105) (157) (40)	3.2 2.2 5.4 2.4 1.4 1.1 3.8	16.1 11.0 11.2 8.7 6.3 8.7 15.5	28.4 26.3 23.0 24.9 17.1 27.9 28.4	34.1 46.9 40.7 52.0 55.2 43.9 37.0	17.6 13.2 18.7 10.8 17.7 16.2 15.4	.5 .4 1.0 1.2 2.3 2.0 .0	19.4 13.2 16.6 11.0 7.7 9.9 19.2	51.7 60.1 59.4 62.8 72.9 60.1 5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연 령 50 ~ 59 ■	(139) (355) (499) (7)	1.2 1.3 3.9 .0	10.2 12.7 10.5 .0	15.3 26.2 28.1 24.0	45.9 41.6 45.6 37.6	23.3 17.9 11.2 38.4	4.1 .4 .6 .0	11.4 13.9 14.5 14.0	69.2 59.5 56.8 76.0	100.0 100.0 100.0 100.0
■ 연 령 60 이상 ■	(24) (167) (94) (274) (239) (105) (94) (3)	.0 4.8 .0 4.3 1.0 1.2 2.5 .0	11.4 11.9 9.0 12.0 8.8 14.6 12.2 .0	28.3 21.2 39.3 26.2 20.7 36.0 19.3 .0	29.2 48.0 34.1 46.9 47.4 38.0 42.2 35.9	27.1 14.1 16.5 9.9 20.6 9.3 22.5 64.1	3.9 .0 1.1 .8 1.6 1.9 3.9 .0	11.4 16.7 9.0 16.2 9.7 15.8 14.7 14.0	56.4 62.0 50.6 56.8 67.9 47.3 6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연 령 20 ~ 29 ■	(227) (174) (157) (202) (147) (201) (94)	2.3 1.8 2.9 2.3 4.8 .0	6.5 13.7 12.5 10.9 10.8 16.9	24.4 29.4 24.6 22.6 26.9 25.6	43.0 42.1 44.9 52.2 45.7 33.7	21.8 12.4 14.3 12.1 10.9 22.8	2.1 .6 .8 .0 1.0 1.0	8.7 15.5 15.4 13.1 15.5 16.9	64.8 54.5 59.2 64.3 56.6 5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연 령 30 ~ 39 ■	(396) (244) (11) (3) (314) (30)	1.8 3.4 .0 .0 2.6 6.2	10.8 9.8 11.1 7.0 12.7 2.6	21.1 24.4 43.9 .0 32.0 25.9	44.6 47.6 27.6 24.0 41.7 41.3	19.9 14.8 9.4 .0 10.0 24.0	1.7 .0 .0 .0 1.0 .0	12.6 13.2 19.1 76.0 15.3 8.7	64.5 62.4 37.1 24.0 51.7 65.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연 령 40 ~ 49 ■	(332) (356) (264) (48)	2.9 1.9 3.2 1.7	11.2 10.1 12.9 9.0	23.4 24.1 30.3 26.8	44.1 50.2 38.1 32.9	17.4 12.5 15.1 25.2	.8 1.1 1.4 4.5	14.2 12.0 16.1 10.7	61.6 62.7 53.2 58.0	100.0 100.0 100.0 100.0
■ 연 령 50 ~ 59 ■	(155) (359) (41) (367) (12) (58) (7)	4.7 1.5 2.0 2.5 4.8 .0	16.0 8.5 5.7 12.4 13.0 15.1	22.6 23.6 27.9 23.8 30.7 26.0	40.1 45.2 48.1 46.0 57.8 26.7	16.5 18.9 18.9 10.4 18.4 18.1 32.2	.0 1.9 .0 .8 .0 .0 .0	20.7 10.0 14.9 10.0 17.8 15.1	56.6 64.1 67.0 56.4 76.2 51.5 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연 령 60 이상 ■	(863) (106) (27) (4)	2.5 2.0 6.1 .0	11.5 7.8 14.4 .0	24.4 32.1 35.9 25.2	43.9 49.3 36.1 24.8	16.7 6.8 10.5 .0	.9 .0 .0 .0	14.1 9.8 20.5 14.0	60.6 56.1 46.6 24.8	100.0 100.0 100.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478) (340) (7) (89) (86)	2.3 2.1 .0 2.1 2.3	10.4 10.3 27.1 16.0 12.7	22.1 23.0 23.8 32.7 24.8	45.4 43.7 49.2 38.3 44.3	18.3 13.8 .0 11.0 11.9	1.4 .0 .0 .0 4.0	12.7 13.5 27.1 18.1 15.1	63.8 57.5 49.2 56.1	100.0 100.0 100.0 100.0
■ 연 령 20 ~ 29 ■	(132) (143) (155) (174) (162) (168) (66)	1.9 2.4 2.4 2.4 2.2 1.2	14.5 10.8 10.9 10.4 14.0	35.5 33.1 16.5 24.7 22.2 26.6	35.2 43.9 50.4 44.7 48.4 47.4	12.9 15.3 21.5 19.0 14.8 8.9	.0 .0 1.4 .7 1.5 .0	16.4 14.1 16.7 12.7 10.1 12.7 15.2	48.1 53.1 63.5 63.5 63.2 56.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토론회 참석 인지도 ■	(78) (190) (279) (245) (157) (50)	3.3 1.1 1.1 7.8 7.8	9.1 11.6 10.1 13.8	21.5 25.0 23.3 30.0	49.9 45.9 52.0 37.6	13.3 12.3 15.5 11.0	2.4 3.3 .0 .0	12.9 15.3 12.7 21.4	63.3 58.3 67.5 48.6	100.0 100.0 100.0 100.0

【 표 11 】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비교

[문 6-3]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비교에서는요?

	사례수	전혀 못 했 다	별로 못 했 다	그 저 그 렇 다	약 간 못 했 다	매 우 못 했 다	무 응 답	*비도움	*도움	계
		%	%	%	%	%	%	%	%	
■ 전 체 ■	(1000)	1.8	9.7	27.0	40.5	18.6	2.5	11.5	59.0	100.0
■ 연 령 ■	(495) (505)	2.7 .9	11.3 8.1	28.0 26.0	38.9 42.0	17.7 19.4	1.4 3.6	14.0 8.9	56.6 61.4	100.0 100.0
■ 연 령 19-29세	(184)	2.9	11.3	35.7	39.1	8.8	2.3	14.2	47.8	100.0
■ 연 령 30-39세	(204)	1.9	14.3	36.7	32.9	13.3	.9	16.3	46.1	100.0
■ 연 령 40-49세	(218)	2.5	10.1	21.2	46.1	18.0	2.1	12.6	64.1	100.0
■ 연 령 50-59세	(191)	1.7	6.2	22.6	45.2	22.6	1.7	7.9	67.8	100.0
■ 연 령 60대 이상	(203)	.0	6.3	19.7	38.8	29.7	5.5	6.3	68.5	100.0
■ 지 사 시 군 구 읍 면 동	(208)	3.8	15.4	29.3	29.4	20.3	1.8	19.2	49.7	100.0
■ 서울	(101)	1.4	9.3	23.7	44.8	18.2	2.7	10.7	63.0	100.0
■ 부산	(102)	4.6	9.1	24.7	37.6	21.1	3.0	13.7	58.7	100.0
■ 대구	(105)	.8	7.9	28.5	47.3	11.1	4.4	8.7	58.5	100.0
■ 광주	(105)	.0	5.8	25.2	41.2	25.2	2.6	5.8	66.4	100.0
■ 대전	(157)	.4	6.6	30.5	43.5	16.8	2.1	7.1	60.3	100.0
■ 울산	(40)	.0	10.7	31.7	43.1	14.5	.0	10.7	57.6	100.0
■ 학 령 10대	(139)	.6	2.9	23.0	42.4	24.5	6.6	3.5	66.9	100.0
■ 학 령 20대	(355)	1.0	10.5	23.1	43.0	19.7	2.8	11.5	62.7	100.0
■ 학 령 30대	(499)	2.7	11.1	31.0	37.8	16.2	1.2	13.8	54.0	100.0
■ 학 령 40대	(7)	.0	.0	22.2	63.9	13.9	.0	.0	77.8	100.0
■ 직 계 1. 행정직	(24)	.0	4.5	35.4	37.0	16.0	7.1	4.5	53.0	100.0
■ 직 계 2. 교육직	(167)	3.7	6.8	23.7	40.9	24.2	.7	10.5	65.2	100.0
■ 직 계 3. 의료직	(94)	3.3	11.5	25.6	41.2	17.5	.9	14.8	58.7	100.0
■ 직 계 4. 기타직	(274)	1.4	13.0	33.4	34.6	15.7	1.9	14.4	50.3	100.0
■ 직 계 5. 미응답	(239)	1.1	6.7	17.2	50.1	20.3	4.6	7.9	70.4	100.0
■ 직 계 6. 미응답	(105)	2.0	10.8	41.7	35.1	9.6	.9	12.8	44.7	100.0
■ 직 계 7. 미응답	(94)	.0	11.2	22.7	38.6	24.0	3.5	11.2	62.6	100.0
■ 직 계 8. 미응답	(3)	.0	.0	.0	35.9	28.2	35.9	.0	64.1	100.0
■ 수 령 20대	(227)	.0	7.8	23.2	41.2	21.6	6.2	7.8	62.8	100.0
■ 수 령 30대	(174)	1.8	9.1	30.5	38.9	17.5	2.2	10.9	56.4	100.0
■ 수 령 40대	(157)	3.8	11.3	29.8	35.9	17.0	2.3	15.0	52.9	100.0
■ 수 령 50대	(147)	1.3	10.1	26.4	44.4	17.9	.0	11.4	62.2	100.0
■ 수 령 60대	(201)	3.5	10.7	23.5	42.2	19.0	1.0	14.2	61.3	100.0
■ 수 령 70대	(94)	.0	9.6	33.4	39.4	15.9	1.7	9.6	55.3	100.0
■ 지 지 1. 서울	(396)	1.5	6.1	23.6	40.6	25.2	2.9	7.6	65.9	100.0
■ 지 지 2. 부산	(244)	1.5	10.1	26.4	45.7	15.5	.9	11.6	61.2	100.0
■ 지 지 3. 대구	(11)	.0	20.1	32.3	28.6	19.0	.0	20.1	47.6	100.0
■ 지 지 4. 광주	(3)	.0	.0	76.0	24.0	.0	.0	.0	24.0	100.0
■ 지 지 5. 대전	(3)	.0	.0	100.0	.0	.0	.0	.0	.0	100.0
■ 지 지 6. 울산	(314)	1.8	13.8	30.8	37.3	13.5	2.7	15.6	50.9	100.0
■ 지 지 7. 세종	(30)	9.1	7.8	27.7	35.3	10.6	9.5	16.9	45.9	100.0
■ 이 직 1. 행정직	(332)	2.7	9.3	26.2	40.0	19.6	2.2	12.0	59.6	100.0
■ 이 직 2. 교육직	(356)	2.1	9.4	25.3	44.2	17.0	2.1	11.5	61.2	100.0
■ 이 직 3. 의료직	(264)	.6	11.1	30.8	36.0	20.2	1.2	11.8	56.2	100.0
■ 이 직 4. 기타직	(48)	.0	6.4	24.1	40.5	14.6	14.5	6.4	55.0	100.0
■ 정 보 1. 정치	(155)	2.3	10.2	26.1	38.7	21.4	1.3	12.5	60.1	100.0
■ 정 보 2. 경제	(359)	2.1	4.9	24.1	42.8	21.7	4.4	6.9	64.5	100.0
■ 정 보 3. 문화	(41)	.0	4.0	18.4	55.8	21.9	4.0	4.0	77.6	100.0
■ 정 보 4. 환경	(367)	1.5	14.3	31.4	38.3	12.9	1.7	15.9	51.1	100.0
■ 정 보 5. 외교	(12)	.0	.0	35.6	44.1	20.3	.0	.0	64.4	100.0
■ 정 보 6. 통일	(58)	2.1	15.9	25.2	31.1	23.8	1.9	18.1	54.9	100.0
■ 정 보 7. 기타	(7)	.0	.0	13.6	54.1	32.2	.0	.0	86.4	100.0
■ 투 표 1. 찬성	(863)	1.7	9.1	26.7	40.1	20.2	2.3	10.8	60.3	100.0
■ 투 표 2. 반대	(106)	2.0	19.8	31.7	42.1	9.3	5.1	11.8	51.4	100.0
■ 투 표 3. 미응답	(27)	4.6	19.0	23.3	47.2	5.9	.0	23.6	53.1	100.0
■ 투 표 4. 미응답	(4)	.0	75.2	.0	24.8	.0	.0	75.2	24.8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도 (사 전)	(478)	1.9	7.4	23.4	39.8	24.8	2.6	9.3	64.7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도 (사 후)	(340)	1.7	11.0	28.9	42.0	15.1	1.2	12.7	57.2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도 (사 후)	(7)	.0	27.1	47.3	13.3	12.3	.0	27.1	25.6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도 (사 후)	(89)	1.4	12.8	36.4	38.9	9.6	.9	14.2	48.5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도 (사 후)	(86)	2.2	12.6	27.9	41.4	7.1	8.7	14.8	48.6	100.0
■ 지 사 시 군 구 읍 면 동	(132)	1.6	14.0	38.3	30.9	15.8	.0	15.6	46.1	100.0
■ 서울	(143)	3.9	10.2	32.0	41.1	18.6	4.1	14.1	59.8	100.0
■ 부산	(155)	3.9	11.3	25.8	36.1	24.3	4.0	12.2	61.0	100.0
■ 대구	(174)	3.3	11.3	25.9	43.3	15.5	3.1	11.5	58.7	100.0
■ 광주	(162)	3.8	4.9	30.2	38.8	23.6	1.7	5.7	62.5	100.0
■ 대전	(168)	1.0	14.8	24.9	45.9	17.3	3.0	9.1	63.1	100.0
■ 울산	(66)	1.2	14.8	23.4	48.4	12.2	.0	15.9	60.7	100.0
■ 투 론 회 사 인 지 도	(78)	1.4	12.9	20.3	41.3	18.0	6.0	14.3	59.4	100.0
■ 1차	(190)	3.0	10.0	27.3	43.3	16.1	5.0	13.0	56.4	100.0
■ 2차	(279)	3.4	12.0	26.5	36.2	19.2	4.4	13.0	55.4	100.0
■ 3차	(245)	1.1	11.7	26.0	37.7	19.7	1.7	13.0	57.0	100.0
■ 4차	(157)	1.3	10.7	18.8	42.8	19.0	.0	13.0	61.7	100.0
■ 5차	(50)	.0	9.6	28.3	42.3	18.9	.0	9.6	61.1	100.0

【 표 12 】 토론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된 이슈

[문 7]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정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이슈가 있었습니까?

	사례수	매우 많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모름/답	*있음	*없음	계
		%	%	%	%		%	%	
■ 전 체 ■	(1000)	14.2	54.3	27.2	2.9	1.4	68.5	30.0	100.0
■ 성별 ■	(495) (505)	13.5 14.9	51.6 57.0	30.0 24.3	4.1 1.7	.8 2.1	65.1 71.9	34.1 26.0	100.0 100.0
■ 연령 ■	(184) (204) (218) (191) (203)	11.4 9.1 9.4 17.5 24.0	56.0 55.4 59.1 51.3 49.4	27.6 31.9 28.0 26.7 21.9	4.3 2.3 1.1 3.8 2.5	.7 1.7 1.7 1.9 2.1	67.5 64.5 68.5 68.8 73.4	31.9 33.8 29.8 30.4 24.5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역 ■	(208) (287) (101) (102) (105) (157) (40)	11.5 15.7 16.5 14.1 11.9 15.6 12.9	53.4 54.1 53.7 59.6 55.8 52.6 51.5	31.2 25.6 27.4 20.7 29.9 25.3 33.4	3.4 3.4 1.1 2.2 2.4 3.2 2.2	.5 1.9 1.2 3.3 1.7 3.3 0	64.9 69.8 70.3 73.8 67.7 68.2 64.4	34.6 29.3 28.5 22.9 31.5 28.5 3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력 ■	(139) (355) (499) (7)	27.6 15.4 9.4 26.3	49.8 53.3 56.2 62.8	15.1 27.5 30.5 10.9	3.2 2.2 3.3 .0	4.3 1.6 1.5 .0	77.4 68.7 65.7 89.1	18.3 29.7 33.8 10.9	100.0 100.0 100.0 100.0
■ 직업 ■	(24) (167) (94) (274) (239) (105) (94) (3)	15.3 12.0 16.4 9.1 20.4 9.2 19.1 64.1	49.2 59.9 59.5 54.1 52.6 54.4 47.1 .0	26.1 26.0 24.1 31.4 22.0 30.8 29.8 .0	1.8 2.0 0.0 4.4 1.9 4.4 2.6 35.9	7.6 0.0 0.0 1.0 3.1 1.2 1.3 .0	64.5 72.0 75.9 63.2 72.9 63.6 66.3 64.1	27.9 28.0 24.1 35.8 24.0 35.2 32.4 3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227) (174) (157) (147) (201) (94)	21.9 10.5 11.8 9.9 12.5 17.1	52.3 55.8 53.8 59.4 53.7 50.8	21.1 28.3 29.1 26.5 30.9 29.9	2.8 3.3 4.4 2.0 3.2 2.9	1.8 2.1 1.8 1.1 1.2 1.3	74.2 66.3 69.7 69.2 69.2 67.8	23.9 31.7 33.5 29.8 32.8 3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당 지지 ■	(396) (244) (11) (3) (1) (314) (30)	17.6 12.3 18.2 0.0 0.0 10.7 22.1	51.8 62.4 45.9 24.0 100.0 51.3 58.4	26.3 20.7 26.2 24.7 0.0 34.2 19.5	3.1 2.8 0.0 51.3 0.0 2.2 0.0	1.2 1.8 0.0 0.0 0.0 1.7 0.0	69.4 74.7 64.1 24.0 100.0 62.0 80.5	29.4 23.5 35.9 76.0 0.0 36.3 1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 ■	(332) (356) (264) (48)	15.0 13.4 12.0 26.5	53.5 56.7 53.5 46.6	27.3 25.6 31.1 15.7	3.4 2.1 2.5 6.7	.7 2.1 1.9 4.5	68.6 70.1 65.6 73.1	30.7 27.8 33.6 22.4	100.0 100.0 100.0 100.0
■ 정보 습득 ■	(155) (359) (41) (367) (12) (58) (7)	14.9 19.4 20.2 8.7 11.5 32.2	54.8 53.1 50.8 54.0 77.4 61.4 42.5	26.0 23.7 27.9 31.6 16.4 25.3 25.2	4.3 1.4 1.1 4.0 6.2 1.8 0.0	.0 2.4 0.0 1.6 0.0 0.0 0.0	69.7 72.5 71.0 62.8 77.4 72.9 74.8	30.3 25.1 29.0 35.6 22.6 27.1 2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사전) ■	(863) (106) (27) (4)	15.2 8.0 10.6 0.0	53.9 56.5 55.9 76.7	27.1 26.9 30.8 23.3	2.8 3.6 2.8 0.0	1.1 5.0 0.0 0.0	69.1 64.5 66.3 76.7	29.9 30.5 33.5 23.3	100.0 100.0 100.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478) (340) (7) (89) (86)	17.2 11.2 0.0 10.7 14.1	52.9 56.7 60.4 57.3 49.1	26.1 27.7 39.6 27.6 29.4	2.7 3.7 0.0 0.9 2.8	1.0 1.7 0.0 3.5 4.6	70.1 67.9 60.4 68.1 63.2	28.8 31.4 39.6 28.4 32.2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서인대 ■	(132) (143) (155) (174) (162) (168) (66)	9.6 16.8 17.8 13.6 12.3 15.4 12.8	50.9 54.0 52.2 54.5 56.7 53.7 62.1	35.3 24.3 26.0 28.2 27.1 25.8 20.9	4.2 4.1 2.2 1.8 2.0 2.8 4.3	.0 1.9 1.9 1.8 2.3 0.0	60.5 70.8 70.0 68.1 69.0 69.2 74.8	39.5 28.4 28.1 30.0 29.1 28.6 2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토론회 시청 인지도 ■	(78) (190) (279) (245) (157) (50)	19.4 13.3 16.4 12.5 12.3 11.7	37.6 59.2 55.1 56.2 55.5 44.6	35.0 22.9 26.3 26.8 26.5 40.0	2.4 3.4 1.5 3.6 4.6 0.0	5.6 1.2 0.8 0.9 1.0 3.6	57.0 72.5 71.5 68.7 67.8 56.3	37.4 26.3 27.7 30.4 31.2 4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13 】 TV 토론회 이후 추가적 선거정보 취득

[문 8] TV 토론회 시청 후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더 찾아보셨습니까?

	사례수	많이 찾아 보았다	어느 정도 찾아 보았다	별로 찾아 보지 않았다	전혀 찾아 보지 않았다	모름/응답	*찾아봄	*찾아지름	계
		%	%	%	%		%	%	
■ 전 체 ■	(1000)	11.6	45.1	27.8	14.7	.7	56.7	42.5	100.0
■ 수도권 여성 ■	(495) (505)	12.6 10.7	43.6 46.6	30.3 25.4	13.1 16.2	.4 1.1	56.2 57.3	43.4 41.6	100.0 100.0
■ 연령 19-29세 ■	(184)	15.4	54.4	24.3	5.2	.6	69.8	29.6	100.0
■ 30-39세 ■	(204)	10.6	47.5	30.6	9.9	1.4	58.1	40.5	100.0
■ 40-49세 ■	(218)	7.7	48.9	27.8	15.1	.6	56.6	42.8	100.0
■ 50-59세 ■	(191)	12.4	39.5	31.1	16.9	1.0	52.0	48.0	100.0
■ 60대 이상 ■	(203)	12.7	35.5	25.2	25.6	1.1	48.2	50.7	100.0
■ 지식인/대학원생/전문직/사무직/주부 ■	(208)	12.7	46.5	28.2	12.6	.0	59.3	40.7	100.0
■ 일반인/대학원생/전문직/사무직/주부 ■	(287)	10.1	45.0	28.9	16.0	.0	55.1	44.9	100.0
■ 대학원생/전문직/사무직/주부 ■	(101)	14.1	33.4	32.7	19.7	3.0	47.6	52.4	100.0
■ 일반인/대학원생/전문직/사무직/주부 ■	(102)	17.2	45.9	19.2	13.9	3.9	63.1	33.1	100.0
■ 대학원생/전문직/사무직/주부 ■	(105)	9.2	49.4	31.4	10.0	2.0	58.6	41.4	100.0
■ 일반인/대학원생/전문직/사무직/주부 ■	(157)	8.2	45.9	27.2	16.4	2.3	54.1	43.6	100.0
■ 대학원생/전문직/사무직/주부 ■	(40)	15.9	51.4	21.4	11.2	.0	67.4	32.6	100.0
■ 학종/고교/대졸/무직/주부 ■	(139) (355) (499) (7)	10.4 12.0 11.9 .0	34.8 43.6 49.2 32.9	20.9 30.8 27.5 39.4	32.4 13.3 10.6 27.7	1.6 .4 .8 .0	45.2 55.5 61.1 32.9	53.3 44.1 38.0 67.1	100.0 100.0 100.0 100.0
■ 직군/직업/직종/직급/직위 ■	(24) (167) (94) (274) (239) (105) (94) (3)	9.7 14.6 10.4 12.8 7.9 12.5 12.6 28.2	35.0 44.2 44.6 48.2 41.1 59.2 36.6 .0	25.4 25.4 33.6 26.9 30.9 23.1 28.1 .0	26.2 15.8 11.4 11.7 18.8 4.0 21.4 71.8	3.8 .0 .0 .4 1.3 1.1 1.3 .0	44.7 58.7 55.0 61.0 49.0 	51.6 41.3 45.0 38.6 49.7 27.1 49.5 71.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200만 이하/200만 이상 ■	(227) (174) (157) (147) (201) (94)	11.8 11.7 6.7 13.9 14.3 9.9	37.9 46.1 52.3 44.1 45.0 50.5	26.7 29.2 27.7 31.6 28.2 21.7	22.5 11.5 12.5 10.4 11.9 17.9	1.1 1.6 .8 .0 .5 .0	49.7 57.7 59.1 58.0 59.3 60.4	49.2 40.7 40.1 42.0 40.1 3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치/사회/문화/스포츠/기타 ■	(396) (244) (11) (3) (1) (314) (30)	10.7 14.5 16.8 0.0 0.0 10.9 7.3	43.2 51.5 28.3 76.0 100.0 42.8 44.7	28.1 20.9 54.8 24.0 0.0 31.7 31.6	17.2 12.4 0.0 0.0 0.0 13.9 16.4	.9 .7 .0 .0 .0 .7 .0	53.9 66.0 45.2 76.0 100.0 53.6 52.0	45.3 33.2 54.8 24.0 0.0 45.6 4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성향/정치/종교/무종교/기타 ■	(332) (356) (264) (48)	11.5 11.3 12.3 11.7	45.9 45.8 45.2 34.0	26.5 28.0 28.0 22.0	15.8 13.2 12.6 29.7	.3 .7 1.1 2.5	57.5 57.1 57.4 45.7	42.2 42.2 41.5 51.7	100.0 100.0 100.0 100.0
■ 정치/사회/문화/스포츠/기타 ■	(155) (359) (41) (367) (12) (58) (7)	12.3 10.6 12.1 11.1 20.2 18.6 0.0	44.6 38.9 37.4 51.3 42.7 53.1 32.2	29.8 26.6 27.4 29.4 25.7 21.3 25.2	13.3 22.7 18.7 8.1 11.4 5.1 42.5	1.0 1.3 4.4 .0 .0 2.0 .0	56.9 49.5 49.6 62.5 62.8 71.7 32.2	43.1 49.3 46.1 37.5 37.2 26.3 6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사전) ■	(863) (106) (27) (4)	12.4 5.5 12.3 0.0	45.5 42.5 45.0 24.8	27.5 24.6 23.3 23.3	13.8 20.1 17.3 51.9	.9 .0 .0 .0	57.9 48.0 58.1 24.8	41.2 52.0 41.9 75.2	100.0 100.0 100.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478) (340) (7) (89) (86)	10.1 14.4 11.5 13.3 7.4	40.9 50.1 76.2 47.6 44.0	31.0 24.9 12.3 25.8 25.1	17.4 10.6 0.0 12.1 20.0	.7 .0 .0 1.2 3.5	50.9 64.5 87.7 60.9 51.4	48.4 35.5 12.3 37.9 45.1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지식/중지식/저지식/기타 ■	(132) (143) (155) (174) (162) (168) (86)	11.1 12.1 9.1 16.2 10.0 11.7 8.9	46.2 40.7 42.9 45.0 48.1 45.6 49.3	27.5 23.3 23.3 23.1 20.5 27.5	15.2 13.4 21.3 13.4 10.7 14.3 14.2	.0 .0 .7 2.3 .8 .0	57.3 52.0 55.0 61.2 58.1 57.3 58.3	42.7 47.1 46.7 37.8 41.9 4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토론회 시청 이지도 ■	(78) (190) (279) (245) (152) (50)	8.7 9.8 14.8 9.6 14.7 17.2	33.9 43.3 48.7 55.0 43.3	28.6 23.3 25.9 25.7 21.7	25.1 16.2 13.3 15.5 7.8	3.7 1.3 1.4 .0 .0	42.6 46.0 58.3 58.3 60.5	53.7 52.6 41.1 44.4 58.5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14 】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 관심도

[문 9] TV 토론회 시청을 통해 선생님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높아졌다	조금 높아졌다	변화가 없었다	조금 낮아졌다	매우 낮아졌다	무응답/ 000/0	*높아짐	*낮아짐	계
		%	%	%	%	%		%	%	
■ 전 체 ■	(1000)	40.1	39.6	18.2	1.2	.5	.4	79.7	1.7	100.0
■ 전 지역 ■	(495)	33.8	42.6	21.2	1.9	.5	.0	76.4	2.4	100.0
■ 서울 ■	(204)	33.3	45.8	18.2	1.9	1.8	.0	79.1	2.7	100.0
■ 인천 ■	(218)	38.9	40.0	19.6	1.9	.9	.0	77.2	1.9	100.0
■ 경기 ■	(191)	38.4	38.2	21.9	1.8	.7	.0	76.7	1.5	100.0
■ 강원 ■	(203)	48.4	33.2	17.5	.3	.0	.6	81.6	.3	100.0
■ 충청 ■	(208)	40.0	40.7	17.4	.8	.5	.5	80.7	1.3	100.0
■ 전북 ■	(287)	38.3	41.0	18.1	2.0	.6	.0	79.3	2.7	100.0
■ 전남 ■	(101)	41.0	40.0	18.9	.8	.6	.0	81.1	.0	100.0
■ 경북 ■	(102)	40.1	33.4	22.7	1.8	.8	1.2	73.5	2.6	100.0
■ 경남 ■	(105)	40.1	41.7	16.6	1.6	.6	.0	81.8	1.6	100.0
■ 대구 ■	(157)	44.7	37.2	16.0	.4	.9	.8	81.9	1.3	100.0
■ 부산 ■	(40)	33.9	42.7	23.4	.0	.0	.0	76.6	.0	100.0
■ 호남 ■	(139)	51.6	31.5	15.5	.5	.0	.9	83.0	.5	100.0
■ 제주 ■	(355)	39.0	45.1	14.5	.5	.5	.4	84.1	1.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499)	37.6	38.2	21.5	1.8	.7	.2	75.8	2.5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7)	49.2	23.8	27.0	.0	.0	.0	73.0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24)	44.0	32.9	23.1	.0	.0	.0	76.9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167)	41.2	36.0	20.2	1.1	1.5	.0	77.2	2.6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94)	32.2	47.5	19.5	.8	.3	.4	79.7	.8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274)	33.1	44.5	19.4	2.2	.3	.0	77.6	2.5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239)	46.7	35.5	16.5	1.5	.3	.5	82.2	.8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105)	45.5	39.9	11.8	1.8	1.0	.0	85.4	2.8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94)	42.2	36.8	19.7	.0	.0	1.3	79.0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3)	64.1	.0	35.9	.0	.0	.0	64.1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227)	43.7	35.0	19.3	1.1	.4	.5	78.7	1.5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174)	42.4	41.9	14.0	1.6	.0	.0	84.3	1.6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157)	33.4	44.6	19.6	1.7	.9	.8	78.0	1.6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147)	38.3	40.0	21.3	2.4	.0	.0	76.3	2.4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201)	38.2	40.2	19.3	2.3	.5	.0	78.4	1.7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94)	48.7	36.2	14.1	1.1	.0	.0	84.9	1.1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396)	45.6	37.1	16.3	.4	.4	.3	82.6	.7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244)	41.3	37.4	18.2	1.1	1.4	.5	78.7	2.6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11)	16.4	36.8	46.8	.0	.0	.0	53.2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3)	.0	48.7	51.3	.0	.0	.0	48.7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1)	.0	.0	100.0	.0	.0	.0	.0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314)	33.5	43.9	19.8	2.4	.0	.4	77.4	2.4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30)	42.0	47.8	10.2	.0	.0	.0	89.8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332)	39.4	39.8	19.8	.8	.2	.0	79.2	1.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356)	38.7	43.7	15.3	1.2	.7	.4	82.4	1.9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264)	40.4	38.5	18.3	1.8	.6	.4	78.9	2.5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48)	54.1	14.5	28.9	.0	.0	2.5	68.6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155)	35.0	40.9	22.4	1.3	.4	.0	75.9	1.7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359)	44.2	36.1	16.7	1.6	.7	.0	80.3	2.3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41)	48.6	36.5	14.9	.0	.0	.0	85.1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367)	35.6	43.9	18.7	1.1	.5	.3	79.4	1.6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12)	47.7	37.9	14.4	.0	.0	.0	85.6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58)	48.9	36.3	14.8	.0	.0	.0	85.2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7)	47.3	15.1	37.6	.0	.0	.0	62.4	.0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863)	42.7	37.7	17.9	.9	.5	.3	80.4	1.4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106)	27.3	51.1	17.5	2.5	.6	1.0	78.3	3.2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27)	7.5	36.9	31.4	4.2	.0	.0	64.5	4.2	100.0
■ 서울/경기/충청/전남/전북/경남/부산/대구/호남/제주	(4)	51.9	23.3	24.8	.0	.0	.0	75.2	.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478)	43.5	39.0	16.1	.5	.7	.3	82.4	1.2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340)	39.2	38.4	19.6	1.9	.5	.4	77.6	2.4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7)	23.5	21.1	55.4	.0	.0	.0	44.6	.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89)	30.8	46.2	21.0	2.0	.0	.0	77.0	2.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86)	36.2	42.6	18.7	1.3	.0	1.3	78.8	1.3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132)	32.9	48.1	15.1	3.9	.0	.0	81.0	3.9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143)	36.4	38.4	23.9	.0	1.3	.0	74.8	1.3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155)	46.6	37.7	14.9	.0	.0	.7	84.4	.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174)	39.2	37.7	19.8	2.1	.6	.7	76.8	2.7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162)	43.2	40.7	15.7	.5	.0	.0	83.9	.5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168)	41.8	38.0	17.4	.8	1.3	.8	79.7	2.1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66)	38.2	36.1	24.3	1.4	.0	.0	74.3	1.4	100.0
■ 토론회 시청인지도 ■	(78)	36.0	37.6	22.9	2.1	.0	1.4	73.6	2.1	100.0
■ 토론회 시청인지도 ■	(190)	36.3	42.4	19.9	.4	.4	.7	78.7	.8	100.0
■ 토론회 시청인지도 ■	(279)	40.4	37.9	19.3	.6	1.3	.4	78.3	1.9	100.0
■ 토론회 시청인지도 ■	(245)	42.9	39.9	15.7	1.1	.3	.0	82.8	1.4	100.0
■ 토론회 시청인지도 ■	(157)	42.1	38.6	16.2	3.1	.0	.0	80.8	3.1	100.0
■ 토론회 시청인지도 ■	(50)	39.4	43.3	17.3	.0	.0	.0	82.7	.0	100.0

【 표 15 】 TV 토론회 후 지인들과 관련 대화 여부

[문 10] 선생님께서는 TV 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이번 선거와 TV토론에 대한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례수	매우 있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대화 %	*대화 없음	계
		%	%	%	%				
■ 전 체 ■	(1000)	44.3	45.2	7.4	2.8	.3	89.5	10.2	100.0
■ 성별 ■	(495) (505)	38.8 49.8	47.8 42.6	9.1 5.7	4.1 1.6	.2 .4	86.6 92.3	13.2 7.2	100.0 100.0
■ 연령 ■	(184) (204) (218) (191) (203)	44.8 43.9 41.3 42.7 48.9	46.6 46.5 48.4 44.4 39.8	6.8 6.6 6.7 10.3 6.6	1.7 3.0 2.1 2.6 4.7	.0 1.5 1.0 1.0 .0	91.5 90.4 89.7 87.1 88.8	8.5 9.6 8.8 12.9 11.2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역 ■	(208)	50.2 40.7 41.5 47.2 38.6 49.3 35.1	42.3 47.8 51.9 41.8 50.5 38.8 44.4	4.7 7.3 3.7 9.8 9.5 9.0 12.6	2.9 3.8 2.0 1.2 1.5 2.1 7.8	.0 .4 .8 .0 .8 .0 .0	92.5 88.5 93.4 89.0 89.1 88.1 79.5	7.5 11.1 5.8 11.0 10.9 11.1 2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력 ■	(139) (355) (499) (7)	41.8 41.7 46.8 51.0	42.2 46.2 45.6 23.8	9.9 7.8 6.1 25.2	6.0 3.4 1.5 .0	.0 .9 .0 .0	84.1 87.9 92.4 74.8	15.9 11.2 7.6 25.2	100.0 100.0 100.0 100.0
■ 직업 ■	(24) (167) (94) (274) (239) (105) (94) (3)	37.5 41.4 36.6 45.3 47.8 49.5 40.8 64.1	40.2 46.2 49.7 48.0 41.8 45.8 41.1 .0	11.4 9.7 7.7 5.7 7.0 4.7 11.0 .0	10.9 2.0 6.0 1.1 2.4 1.0 7.1 35.9	.0 .7 .0 .0 .9 .0 .0 .0	77.7 87.7 86.3 93.3 89.7 95.3 81.9 64.1	22.3 11.7 13.7 6.7 9.4 4.7 18.1 3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227) (174) (157) (147) (201) (94)	40.4 41.2 42.1 44.7 51.3 47.7	41.1 51.5 48.0 48.5 41.5 41.4	11.0 4.5 5.7 6.8 6.2 9.9	7.0 2.8 2.8 1.0 1.0 .9	.5 1.4 1.0 .0 .0 .0	81.5 92.7 90.1 93.2 92.8 89.1	18.0 7.3 8.6 6.8 7.2 1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치관심 ■	(396) (244) (11) (3) (1) (314) (30)	45.4 45.6 60.6 24.7 100.0 40.1 57.7	44.9 43.2 18.9 75.3 .0 48.4 39.8	6.4 8.7 20.5 .0 .0 7.6 2.6	3.0 2.5 .0 .0 .0 3.2 .0	.3 .0 .0 .0 .0 .6 .0	90.3 88.8 79.5 100.0 100.0 88.5 97.4	9.4 11.2 20.5 .0 .0 10.9 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 ■	(332) (356) (264) (48)	48.1 40.9 45.4 37.0	43.3 46.9 45.6 43.5	5.6 6.6 6.9 12.9	3.0 2.6 2.1 6.6	.0 .9 .0 .0	91.4 87.8 91.0 80.5	8.6 11.3 9.0 19.5	100.0 100.0 100.0 100.0
■ 정치성향 ■	(155) (359) (41) (367) (12) (58) (7)	43.3 44.3 37.6 45.0 17.9 50.7 62.4	50.3 40.4 52.7 47.6 64.5 40.3 11.6	4.5 10.2 1.9 6.0 9.4 9.0 13.6	1.9 4.2 7.8 1.4 8.2 1.0 12.3	.0 .9 .0 .0 .0 .0 .0	93.6 84.7 90.3 92.7 82.4 91.0 74.0	6.4 14.4 9.7 7.3 17.6 9.0 2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사전) ■	(863) (106) (27) (4)	46.7 30.7 24.8 23.3	43.3 55.2 65.1 51.9	7.0 9.9 6.1 24.8	2.6 4.1 4.0 .0	.4 .0 .0 .0	90.0 88.9 88.9 75.2	9.6 14.1 10.1 24.8	100.0 100.0 100.0 100.0
■ 대선후보 지지도(사전) ■	(478) (340) (7) (89) (86)	44.7 44.7 27.0 44.9 41.3	45.5 45.2 73.0 42.1 44.3	6.6 9.6 9.0 9.2 9.5	2.6 2.4 .0 3.8 4.8	.7 .0 .0 .0 .0	90.2 90.0 100.0 87.0 86.6	9.1 10.0 .0 13.0 14.4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지인 대화 ■	(132) (143) (155) (174) (162) (168) (86)	44.7 44.6 42.3 49.3 39.6 47.8 36.9	42.6 45.5 51.3 38.2 52.6 41.6 44.9	6.3 7.0 9.0 9.5 9.5 9.5 13.4	5.6 1.2 3.0 3.0 2.0 2.6 4.8	.8 .0 .5 .0 .8 .0 .0	87.3 90.0 90.5 92.4 89.4 86.4 81.9	11.9 10.0 9.5 7.4 10.6 13.4 1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토론회 참석인지도 ■	(78) (190) (279) (245) (152) (50)	28.0 41.7 50.7 44.8 46.2 35.9	47.7 46.0 40.2 46.2 48.1 49.2	17.4 9.9 9.9 9.3 9.1 11.6	6.9 5.7 5.7 5.3 3.3 3.3	.0 .3 .3 .4 .0 .0	75.7 87.6 90.0 91.1 89.1 89.1	24.3 11.7 9.0 8.9 10.7 1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16 】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문 11-1] 선생님께서는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의를 TV 토론회가 선거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효과적이다	약간 효과적이다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무응답	*긍정	*부정	계
		%	%	%	%				
■ 전 체 ■	(1000)	19.3	62.1	16.9	1.2	.5	81.3	18.2	100.0
■ 여성	(495) (505)	19.2 19.3	59.7 64.4	19.9 14.0	1.9	.3 .7	78.9 83.7	20.8 15.6	100.0 100.0
■ 19대 대선 이후 10년 이상	(184) (204) (218) (191) (203)	14.1 11.4 20.4 19.1 30.7	71.6 67.1 62.3 61.5 48.5	14.2 18.7 16.3 17.1 18.1	2.0 2.2 1.5 1.6 1.8	.0 .5 .4 .8 .8	85.6 78.5 80.0 79.9	14.2 20.9 16.7 18.7 19.9	100.0 100.0 100.0 100.0 100.0
■ 19대 대선 이후 10년 미만	(208) (287) (101) (102) (105) (157) (40)	19.3 17.7 15.4 24.4 24.1 20.7 8.2	58.0 63.8 55.5 58.1 63.3 72.0	21.5 14.3 13.5 13.5 16.7	1.2 2.0 2.0 1.7 1.1	.0 .0 .0 1.1 1.0	77.3 88.1 88.5 88.0	22.7 11.9 11.5 11.5 1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9대 대선 이후 10년 이상 / 보수	(139) (355) (499) (7)	32.6 18.0 27.7	50.2 50.6 32.9	13.6 14.6 25.6	1.8 1.1 13.9	1.7 .0	85.1 80.6	15.5 19.4	100.0 100.0 100.0
■ 19대 대선 이후 10년 미만 / 보수	(24) (167) (94) (274) (239) (105) (93)	13.7 20.7 17.1 14.4 22.7 25.7 54.1	73.4 61.1 68.6 67.7 59.5	4.5 23.3 17.7 13.0	1.8 2.9 1.7 1.0	6.6 .0 .0 .0	87.1 74.4 88.8 90.4 100.0	6.3 25.6 11.2 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9대 대선 이후 10년 이상 / 진보	(227) (174) (151) (147) (201) (94)	24.2 17.1 16.6 18.3 26.3 24.0	58.3 58.4 61.7 67.1 62.6	14.9 22.7 16.7 17.1 13.4	1.9 1.4 1.0 1.3	.8 .0	83.4 78.5 88.3 86.6	16.8 21.5 11.7 13.4	100.0 100.0 100.0 100.0 100.0
■ 19대 대선 이후 10년 미만 / 진보	(396) (244) (11) (3) (1) (314) (30)	22.9 18.3 25.0 1.0 1.0 38.8	57.8 66.4 48.7 100.0 64.9 51.7	17.1 14.6 51.0 19.3	1.3 1.7 .0 1.7	.8 .0 .0 .0	80.8 84.7 93.2 100.0 78.4 90.4	18.4 15.3 6.8 .0 21.6	100.0 100.0 100.0 100.0 100.0
■ 19대 대선 이후 10년 이상 / 진보	(332) (356) (264) (48)	19.2 14.9 15.5 38.4	58.4 63.6 67.5 45.6	20.6 14.9 16.1 11.5	1.5 1.4 2.4 2.5	.2 2.4 2.0	77.6 83.1 84.0	22.1 16.9 14.0	100.0 100.0 100.0
■ 19대 대선 이후 10년 미만 / 진보	(155) (359) (41) (367) (12) (58) (7)	18.8 25.3 11.3 14.2 5.2 44.6	56.5 59.0 55.8 67.3 80.4 67.3 30.2	24.3 11.5 30.1 18.2 14.4 25.2	.4 2.7 2.9 .2 .0 .0	1.0 .0 .0 .0	75.3 84.6 67.0 81.4 85.6 86.8 74.8	24.7 14.2 33.0 18.4 14.4 13.2 2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사전)	(863) (106) (27) (4)	20.3 13.5 8.2 24.8	61.2 69.6 57.9 75.2	16.5 16.9 33.9 30.0	1.4 .0 .0 .0	.6 .0 .0 .0	81.5 83.1 66.1 100.0	17.9 16.9 33.9 .0	100.0 100.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478) (340) (7) (89) (86)	21.0 18.0 .0 14.0 21.5	59.8 66.6 67.5 65.6 52.5	16.7 15.1 32.5 17.9 23.3	1.8 .3 .0 1.3 2.0	.7 .0 1.2 .8	80.8 84.6 67.5 79.6 73.9	18.5 15.4 32.5 19.1 25.3	100.0 100.0 100.0 100.0
■ 고선인대관 대선강	(132) (143) (155) (174) (162) (168) (66)	10.2 18.6 19.2 21.7 23.0 20.7 19.7	66.0 61.9 63.6 60.5 62.5 60.3 58.5	22.3 16.9 14.8 16.6 13.1 17.5 19.8	1.5 2.6 1.1 1.2 .5 2.5 2.0	.0 .0 1.2 .9 1.0 .0	76.1 80.5 82.8 82.2 85.5 81.0 78.2	23.9 19.5 17.8 15.9 13.5 18.0 21.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토론회 시청여부	(78) (190) (279) (245) (157) (50)	24.1 23.0 20.8 16.3 15.2 15.7	58.6 60.1 58.5 66.2 66.8 59.5	14.9 14.6 18.5 15.6 17.6 24.8	.0 2.2 1.3 1.6 .4 .0	2.4 .0 .9 .3 .0	82.7 83.1 79.4 82.5 82.0 75.2	14.9 16.9 19.8 17.2 18.0 24.8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17 】 TV 토론회의 공정한 진행

[문 11-2] 선생님께서는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답	*긍정	*부정	계
		%	%	%	%	%	%	%	
■ 전 체 ■	(1000)	16.4	53.0	23.3	5.5	1.8	69.4	28.8	100.0
■ 수도권 여성 ■	(495)	18.6	50.7	23.2	6.3	1.2	69.3	29.5	100.0
■ 수도권 남성 ■	(505)	14.2	55.3	23.4	4.7	2.3	69.6	28.1	100.0
■ 연령 19-29 ■	(184)	12.8	49.5	31.4	5.8	.5	62.3	37.2	100.0
■ 30-39 ■	(204)	12.1	50.6	27.5	8.9	.9	62.7	36.4	100.0
■ 40-49 ■	(218)	11.9	55.8	24.6	5.8	1.9	67.7	30.4	100.0
■ 50-59 ■	(191)	21.8	55.9	16.0	4.6	1.7	77.7	20.6	100.0
■ 60대 이상 ■	(203)	23.7	52.9	17.2	2.4	3.8	76.6	19.6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208)	17.8	47.6	26.5	6.7	1.3	65.4	33.2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287)	19.4	50.0	23.1	6.8	.8	69.4	29.9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101)	12.6	63.6	17.9	4.3	1.6	76.2	22.2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102)	19.3	46.8	27.2	4.5	2.2	66.1	31.7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105)	8.0	61.5	23.6	3.1	3.8	69.5	26.7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157)	15.5	51.2	24.8	5.2	3.3	66.7	30.0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40)	14.6	77.5	5.3	2.5	.0	92.1	7.9	100.0
■ 합중교도	(139)	21.3	56.5	16.4	1.9	3.9	77.9	18.2	100.0
■ 합중교도	(355)	17.5	53.9	22.6	5.0	1.1	71.4	27.6	100.0
■ 합중교도	(499)	14.3	51.7	25.7	6.7	1.6	66.0	32.5	100.0
■ 합중교도	(7)	13.9	35.8	24.0	13.9	12.4	49.7	37.9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24)	21.5	57.6	17.0	3.9	.0	79.1	20.9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167)	17.8	54.0	22.3	4.9	1.0	71.8	27.2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94)	13.6	53.4	25.4	7.7	.0	67.0	33.0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274)	14.2	52.9	24.2	7.1	1.6	67.0	31.4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239)	14.8	59.7	18.2	3.6	3.7	74.5	21.8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105)	15.9	42.5	35.3	6.4	.0	58.4	41.6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94)	26.0	46.6	20.2	4.0	3.2	72.6	24.2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3)	35.9	.0	64.1	.0	.0	35.9	64.1	100.0
■ 20-29 ■	(227)	18.1	50.1	21.4	7.0	3.5	68.2	28.4	100.0
■ 30-39 ■	(174)	13.3	60.5	21.4	4.0	.8	73.8	25.4	100.0
■ 40-49 ■	(157)	14.7	55.6	20.9	7.6	1.1	70.3	28.6	100.0
■ 50-59 ■	(147)	22.2	47.4	25.1	2.7	2.6	69.6	27.8	100.0
■ 60대 이상 ■	(201)	13.2	54.0	24.9	6.9	1.1	67.1	31.8	100.0
■ 합중교도	(94)	18.7	48.6	29.4	2.3	1.0	67.3	31.7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396)	21.0	55.6	19.0	2.8	1.6	76.6	21.8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244)	12.7	45.0	32.2	9.8	.3	57.7	42.0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11)	9.7	45.1	28.3	16.8	.0	54.8	45.2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3)	.0	48.7	.0	51.3	.0	48.7	51.3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1)	.0	100.0	.0	.0	.0	100.0	.0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314)	13.1	57.6	21.5	4.9	2.9	70.8	26.4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30)	24.4	38.7	27.2	3.6	6.1	63.1	30.8	100.0
■ 이념성향	(332)	20.7	52.9	20.9	4.3	1.2	73.6	25.2	100.0
■ 이념성향	(356)	13.2	53.9	25.2	5.7	2.1	67.1	30.2	100.0
■ 이념성향	(264)	12.3	53.4	25.4	7.4	1.5	65.7	32.8	100.0
■ 이념성향	(48)	32.8	45.1	14.3	2.0	5.8	77.9	16.3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155)	16.2	61.2	18.9	2.6	1.1	77.4	21.5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359)	21.1	54.0	18.6	4.0	2.3	75.1	22.5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41)	22.0	66.7	6.6	2.7	2.0	88.7	9.9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367)	12.8	46.3	32.3	7.1	1.7	59.0	39.3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12)	19.3	41.7	30.8	8.2	.0	61.0	39.0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58)	6.1	63.2	16.5	14.2	.0	69.3	30.7	100.0
■ 정치인 지지대립부	(7)	15.1	28.8	43.8	.0	12.3	43.8	43.8	100.0
■ 투표의향(사전)	(863)	16.7	51.4	24.3	5.9	1.7	68.1	30.2	100.0
■ 투표의향(사전)	(106)	14.1	63.4	16.7	2.9	2.8	77.5	19.6	100.0
■ 투표의향(사전)	(27)	13.1	62.2	21.9	2.8	.0	75.3	24.7	100.0
■ 투표의향(사전)	(4)	24.8	75.2	.0	.0	.0	100.0	.0	100.0
■ 대선후보지지도(사전)	(478)	19.0	56.9	18.5	3.7	2.0	75.8	22.1	100.0
■ 대선후보지지도(사전)	(340)	12.6	50.1	28.1	8.7	.4	62.7	36.1	100.0
■ 대선후보지지도(사전)	(7)	13.3	48.1	15.9	22.7	.0	61.5	38.5	100.0
■ 대선후보지지도(사전)	(89)	17.1	48.0	27.4	4.6	.8	65.1	33.0	100.0
■ 대선후보지지도(사전)	(86)	16.5	48.8	27.4	2.3	5.1	65.2	29.7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132)	14.3	51.0	25.6	7.5	1.6	65.3	33.1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143)	22.0	47.7	22.4	7.3	.6	69.8	29.7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155)	17.3	54.6	20.5	4.6	.3	71.1	28.9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174)	20.1	43.4	27.7	6.4	.3	63.3	34.1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182)	10.4	62.2	23.4	2.1	2.0	72.5	25.5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188)	15.9	54.1	23.4	5.1	1.6	70.0	29.0	100.0
■ 지식인 대립관심대립부	(86)	11.7	65.1	17.8	5.5	.0	76.8	23.2	100.0
■ 토론회 참석지지도	(78)	13.8	60.9	15.0	5.3	5.0	74.7	20.3	100.0
■ 토론회 참석지지도	(190)	13.6	54.0	27.5	3.4	4.4	67.6	30.0	100.0
■ 토론회 참석지지도	(279)	20.4	47.5	26.0	4.7	1.4	67.0	30.0	100.0
■ 토론회 참석지지도	(245)	15.7	55.0	21.1	5.6	2.1	70.7	27.2	100.0
■ 토론회 참석지지도	(152)	16.7	56.5	20.8	5.5	1.5	73.2	26.8	100.0
■ 토론회 참석지지도	(50)	10.6	47.6	21.6	17.4	2.8	58.2	39.0	100.0

【 표 18 】 TV 토론회의 흥미성

[문 11-3] 선생님께서는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긍정	*부정	계
		%	%	%	%		%	%	
■ 전 체 ■	(1000)	16.0	43.0	33.7	5.6	1.7	59.1	39.3	100.0
■ 연 령 ■	(495) (505)	13.3 18.7	39.8 46.2	39.1 28.4	6.5 4.7	1.3 2.0	53.1 64.9	45.5 33.1	100.0 100.0
■ 연 령 ■ 19-29 30-39 40-49 50-59 60대 이상	(184) (204) (218) (191) (203)	21.5 14.0 10.1 13.8 21.6	49.6 44.6 41.8 38.3 41.3	23.8 32.8 40.7 40.5 29.6	4.0 5.3 5.8 5.8 5.9	1.1 3.3 1.6 1.6 1.6	71.0 58.6 51.9 52.1 62.9	27.9 38.1 46.5 47.3 35.5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 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충청 전라 제주	(208) (287) (101) (102) (105) (157) (140)	13.9 14.6 16.3 17.8 16.1 26.6	42.6 46.7 42.6 38.4 43.0 44.3 27.2	36.3 30.6 35.7 33.7 36.1 32.2 36.5	5.9 7.0 4.0 8.8 4.3 7.7 6.6	1.3 1.0 1.4 2.7 3.6 1.1	56.5 61.3 58.8 55.8 60.8 60.4 55.8	42.2 37.6 39.7 41.9 38.5 36.0 4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 령 ■ 초·중 고·대 대학원	(139) (355) (499)	24.5 17.6 27.7	45.2 40.6 44.3 34.0	26.5 34.0 35.0 36.3	2.7 5.2 6.7 6.0	1.1 2.1 1.6 1.0	69.6 58.2 56.7 61.7	29.2 39.7 41.8 38.3	100.0 100.0 100.0 100.0
■ 직 업 ■ 학생 주부 직업 퇴직 무직	(24) (167) (94) (274) (239) (105) (94) (3)	19.0 13.6 18.6 11.6 16.7 26.5 16.6 35.9	46.4 35.9 36.8 47.1 45.2 50.9 35.2 28.2	28.1 39.6 41.6 35.4 33.3 48.7 40.5 40.0	3.2 3.2 3.8 3.3 3.3 5.0 5.0 35.9	3.4 1.5 0.0 3.6 3.5 1.9 1.7 1.0	65.4 49.3 55.6 55.5 55.3 77.4 52.2 64.1	31.2 49.2 44.4 41.0 34.6 20.7 46.1 3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 준 ■ 200만 이하 201-300만 301-400만 401-500만 501만 이상	(227) (174) (157) (147) (201) (94)	23.7 13.7 12.7 12.6 11.1 23.4	36.8 41.7 43.6 47.9 44.2 49.4	30.7 36.2 35.6 33.4 38.5 23.3	7.2 5.3 5.1 3.8 5.6 3.9	1.6 3.2 2.0 2.3 1.5 1.0	60.5 55.4 56.2 60.5 55.3 72.8	37.9 41.5 41.8 37.2 44.1 2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 사 ■ 정당 무당 정당 무당 정당 무당 정당 무당 정당 무당	(396) (244) (11) (3) (1) (314) (30)	14.7 16.9 19.6 24.7 14.0 14.0 44.8	40.0 45.9 54.3 100.0 45.7 29.4	37.9 27.8 19.3 75.3 34.4 21.3	5.0 7.8 6.8 0.0 4.7 4.4	2.3 1.6 0.0 0.0 1.2 0.0	54.8 62.8 73.8 24.7 100.0 59.7 74.3	42.9 35.6 26.2 75.3 0.0 39.0 25.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 름 ■ 전지현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332) (356) (264) (48)	13.3 16.4 14.0 42.9	43.9 40.3 46.2 39.6	35.0 36.6 31.8 13.8	6.4 4.1 6.9 3.7	1.4 2.6 1.1 1.0	57.2 56.7 60.2 82.5	41.4 40.7 38.7 17.5	100.0 100.0 100.0 100.0
■ 케 이 ■ 김민준 전지현 김민준 전지현 김민준 전지현 김민준 전지현 김민준 전지현	(155) (359) (41) (367) (12) (58) (7)	13.1 17.5 23.2 14.0 8.2 22.1 32.2	38.3 41.7 32.4 46.2 55.8 51.4 15.1	40.5 32.3 29.3 33.9 27.1 26.5 40.3	7.3 5.8 10.7 4.8 9.0 0.0 12.3	2.8 2.7 4.4 1.0 0.0 0.0 0.0	51.4 59.2 55.6 60.3 64.0 73.5 47.3	47.8 38.0 40.0 38.7 36.0 26.5 5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 표 의 향 (사전) ■ 전지현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863) (106) (27) (4)	16.2 16.1 11.9 11.0	42.4 48.3 38.5 76.7	33.4 32.2 46.6 23.9	6.2 2.4 0.0 0.0	1.8 1.0 0.0 0.0	58.6 64.3 50.4 76.7	39.6 34.6 49.6 23.3	100.0 100.0 100.0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도 (사전) ■ 김민준 전지현 김민준 전지현 김민준 전지현 김민준 전지현 김민준 전지현	(478) (340) (7) (89) (86)	14.6 17.4 23.5 11.8 22.7	41.8 46.4 51.7 43.3 35.3	36.0 29.3 33.3 33.9	5.7 6.6 11.5 3.9 2.1	2.0 3.0 0.0 1.3 5.9	56.4 63.8 75.2 55.1 58.0	41.7 35.9 24.8 43.6 36.1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 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충청 전라 제주	(132) (143) (155) (174) (162) (168) (66)	19.7 12.5 15.5 11.7 18.8 16.1 23.3	43.7 47.0 42.7 44.7 43.5 42.6 29.0	33.2 35.5 35.0 33.6 31.4 33.1 39.9	2.8 6.2 6.2 7.8 4.9 4.7	0.6 0.6 0.7 2.2 1.4 3.5 3.1	63.4 58.0 58.0 56.4 58.3 58.7 52.3	36.0 40.0 41.3 41.4 36.4 37.8 4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 표 의 향 (사전) ■ 0 1 2 3 4 5	(78) (190) (279) (245) (157) (50)	24.0 18.4 19.3 11.1 12.3 10.3	33.8 43.5 40.3 44.5 50.3 40.9	33.0 35.2 34.1 32.7 32.0 37.0	3.5 1.9 4.9 9.0 4.9 11.8	5.8 1.9 1.5 2.6 0.0 0.0	57.8 61.9 55.5 55.7 63.1 51.2	36.5 37.1 39.0 41.7 36.9 4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19 】 TV 토론회의 유의성

[문 12] 전반적으로 평가해볼 때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다른 정보매체를 보다 유의했
다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매우 유의했다	다소 유의했다	유 의하 지 않 았 다	유 의하 지 않 았 다	무 응 답	*긍 정	*부 정	계
		%	%	%	%	%	%	%	
■ 전 체 ■	(1000)	20.6	57.6	17.5	2.4	1.9	78.2	19.9	100.0
■ 대선 후보 TV 토론회 ■	(495) (505)	20.2 21.0	55.6 59.5	20.1 14.9	2.3 2.4	1.7 2.1	75.8 80.6	22.5 17.3	100.0 100.0
■ 19-34세 이대 이상 ■	(184) (204) (218) (191) (203)	15.7 13.5 21.6 20.5 31.3	63.2 58.3 58.4 56.4 52.0	16.5 22.7 15.8 16.6 22.9	3.4 2.7 2.7 2.2 .9	1.3 2.7 1.5 1.3 2.8	78.9 71.8 80.0 76.9 83.4	19.9 25.5 18.5 21.8 13.8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식인/전문직/대학원생/대학생/중고생/초고생/초중고생/초등학생/유치원생/무응답 ■	(208) (287) (101) (102) (105) (157) (40)	21.7 19.0 20.0 20.0 20.6 21.8 21.1	57.4 58.8 55.6 53.9 55.5 57.4 49.6	18.4 22.2 20.0 20.0 20.0 20.0 28.3	2.1 2.0 3.0 3.0 5.4 1.1	.5 1.1 1.3 1.1 3.8 3.0	79.1 77.8 76.4 74.9 84.1 79.2 70.6	20.4 20.2 20.0 21.8 14.4 16.9 2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업 성취도 ■	(139) (355) (499) (7)	32.8 20.4 17.3 27.7	49.7 57.3 59.9 61.4	11.7 17.9 18.9 10.9	1.6 2.7 2.4 .0	4.1 1.7 1.5 .0	82.6 77.7 77.2 89.1	13.3 20.6 21.3 10.9	100.0 100.0 100.0 100.0
■ 직업/직종 ■	(24) (167) (94) (274) (239) (105) (94) (3)	41.3 22.2 15.5 18.2 19.7 16.9 28.6 64.1	40.5 51.2 62.0 58.7 61.9 64.0 48.4 35.9	5.2 19.3 17.1 20.4 14.8 15.4 19.0 .0	5.9 4.8 3.9 1.4 2.7 1.5 2.5 .0	7.1 1.8 1.8 1.2 1.9 1.2 4.0 .0	81.8 74.1 77.2 76.9 81.6 81.0 77.0 100.0	11.1 24.1 21.0 21.8 16.5 17.9 19.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227) (174) (157) (147) (201) (94)	26.3 16.1 19.6 19.3 18.4 23.9	51.4 60.1 56.9 64.4 58.7 56.0	14.1 19.4 19.7 22.2 20.5 15.4	4.6 2.9 1.7 .0 1.8 2.1	3.6 1.6 2.0 1.1 2.6 2.6	77.8 76.2 76.5 83.7 77.0 79.9	18.7 22.2 21.4 15.2 22.3 1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치 관심도 ■	(396) (244) (11) (3) (1) (314) (30)	24.5 15.8 24.7 18.3 41.2	54.9 61.7 80.7 24.0 100.0 58.3 46.4	15.4 18.1 19.3 51.3 20.1 9.9	4.1 1.9 .0 .0 .0 .9 .0	1.2 2.6 .0 .0 .0 2.4 2.6	79.4 77.5 80.7 48.7 100.0 76.6 87.6	19.4 20.0 19.3 51.3 21.0 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 성향 ■	(332) (356) (264) (48)	20.5 21.1 17.4 35.3	59.4 56.3 59.5 44.7	16.8 16.6 20.9 9.7	2.8 2.3 1.8 2.8	.5 3.6 4.4 7.4	79.9 77.4 76.9 80.0	19.6 18.9 22.7 12.6	100.0 100.0 100.0 100.0
■ 정치 참여 ■	(155) (359) (41) (367) (12) (58) (7)	16.9 26.1 21.1 15.7 41.4 21.8 32.2	64.3 54.9 56.4 59.6 41.1 51.5 27.4	16.8 22.6 22.4 21.9 17.6 15.9 40.3	3.7 3.3 .0 2.4 .0 3.1 .0	1.3 3.2 .0 3.3 .0 7.7 .0	81.2 81.0 77.6 75.3 82.4 73.3 59.7	17.5 15.9 22.4 24.3 17.6 19.0 4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 의향(사전) ■	(863) (106) (27) (4)	21.6 15.3 13.1 .0	56.8 65.3 56.7 24.8	17.8 13.6 20.6 23.9	2.2 1.6 9.6 .0	1.5 4.3 4.0 51.9	78.4 80.6 69.8 24.8	20.1 15.1 30.2 23.3	100.0 100.0 100.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478) (340) (7) (89) (86)	22.1 18.9 12.3 16.3 22.2	56.7 60.1 87.7 58.1 49.7	18.7 18.4 19.9 19.9 23.0	3.7 1.4 .0 1.8	1.8 1.2 4.1 3.4	78.8 79.0 100.0 76.3 71.9	19.4 19.8 19.0 24.7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령자(65세 이상) ■	(132) (143) (155) (174) (162) (168) (66)	14.8 20.1 22.8 21.1 19.7 21.9 26.0	61.0 54.1 53.4 57.3 64.0 57.3 54.1	22.1 16.7 16.9 18.9 17.9 17.7 16.7	1.3 3.5 2.5 3.6 3.5 1.9 .7	.8 2.7 1.7 2.3 1.0 2.6 2.5	75.7 74.2 76.7 78.9 83.7 79.3 80.1	23.4 23.2 19.2 16.2 15.3 18.1 1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 회식 이지도 ■	(78) (190) (279) (245) (157) (50)	28.5 20.8 22.0 18.7 17.9 18.2	49.7 55.5 58.5 60.0 60.6 51.7	17.1 15.7 14.8 18.8 19.8 27.1	4.0 4.9 2.6 1.9 1.0 1.8	4.7 3.0 2.1 1.0 .7 1.3	78.2 76.4 80.5 78.6 78.4 69.8	17.1 20.6 17.4 20.4 20.9 2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20 】 대선 투표여부

[문 13] 선생님께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다?

	사례수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계
		%	%	
■ 전 체 ■	(1000)	99.0	1.0	100.0
■ 성별 ■	(495) (505)	99.0 99.0	1.0 1.0	100.0 100.0
■ 연령 ■	(184) (204) (218) (191) (203)	99.4 99.5 99.3 99.7 100.0	.6 .5 .7 .3 .0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업 ■	(208) (287) (101) (102) (105) (157) (40)	98.5 98.0 100.0 100.0 99.3 99.6 100.0	1.5 2.0 .0 .0 .7 .4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139) (355) (499) (7)	100.0 98.9 98.7 100.0	.0 1.1 1.3 .0	100.0 100.0 100.0 100.0
■ 교육 ■	(24) (167) (94) (274) (239) (105) (94) (3)	100.0 99.1 98.4 98.5 98.6 100.0 100.0 100.0	.0 .9 1.6 1.5 1.4 .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거주 ■	(227) (174) (157) (147) (147) (201) (94)	99.2 99.6 98.4 100.0 100.0 100.0 100.0	.8 .4 1.6 .0 .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치 ■	(396) (244) (11) (3) (1) (314) (30)	99.5 98.5 100.0 100.0 100.0 98.4 100.0	.5 1.5 .0 .0 .0 1.6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 ■	(332) (356) (264) (48)	98.2 98.8 100.0 100.0	1.8 1.2 .0 .0	100.0 100.0 100.0 100.0
■ 정치 ■	(155) (359) (41) (367) (12) (58) (7)	100.0 99.5 98.1 99.0 80.9 96.9 100.0	.0 .5 1.9 1.0 19.1 3.1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 ■	(863) (106) (27) (4)	99.6 96.2 97.2 48.1	.4 3.8 2.8 51.9	100.0 100.0 100.0 100.0
■ 대선 ■	(478) (340) (7) (89) (86)	99.3 99.5 100.0 95.8 97.9	.7 .5 .0 4.2 2.1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 ■	(132) (143) (155) (174) (162) (168) (66)	99.1 98.0 97.8 100.0 98.6 99.5 100.0	.9 2.0 2.2 .0 1.4 .5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 ■	(78) (190) (279) (245) (157) (50)	99.1 97.5 100.0 98.7 100.0 96.4	.9 2.5 .0 1.3 .0 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22 】 TV 토론회 투표후보 결정 영향력

[문 13-2] 이번 TV 토론회가 선생님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례수	매우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무응답	*영향	*비영향	계
		%	%	%	%				
■ 전 체 ■	(990)	24.7	39.1	23.9	11.2	1.1	63.8	35.1	100.0
■ 성별 ■	(490) (500)	21.5 27.8	38.0 40.1	25.8 22.1	13.8 8.7	1.9 1.3	59.5 67.9	39.6 30.8	100.0 100.0
■ 연령 ■	(183) (197) (216) (190) (203)	23.2 17.5 22.7 26.0 33.9	52.7 42.2 36.7 33.7 31.3	18.4 22.3 22.9 26.1 19.9	4.7 7.3 17.1 13.0 12.9	1.1 1.7 .6 1.2 2.1	75.9 59.7 59.4 59.8 65.2	23.1 39.6 40.0 39.1 32.7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업 ■	(205) (281) (101) (102) (104) (156) (40)	23.2 23.2 28.0 32.0 17.8 25.1 27.0	37.7 43.3 34.0 33.9 40.3 41.8 28.2	23.9 21.7 21.6 25.6 22.2 20.6 32.5	14.4 10.4 13.0 7.5 8.6 11.1 12.3	.8 3.5 1.0 1.0 1.4 1.0	60.9 67.3 61.9 65.9 58.2 66.9 55.1	38.3 32.1 34.6 33.1 40.9 31.7 4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력 ■	(139) (351) (493) (7)	34.8 27.0 19.7 60.6	33.3 39.3 40.9 12.4	18.2 22.7 26.4 27.0	10.0 10.1 12.4 .0	3.7 1.9 1.5 .0	68.1 66.3 60.6 73.0	28.1 32.8 38.8 27.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24) (166) (92) (270) (235) (105) (94) (3)	31.5 25.7 26.9 19.1 26.4 26.1 28.1 64.1	37.4 36.5 36.8 42.6 38.0 48.6 29.2 .0	26.1 22.5 20.7 26.9 23.8 20.7 25.3 .0	5.0 14.6 14.7 10.9 10.0 2.8 15.9 35.9	.0 1.9 1.5 1.0	68.9 62.2 63.8 61.7 64.4 74.7 57.3 64.1	31.1 37.0 35.4 37.8 33.8 23.5 41.2 3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성별 ■	(225) (168) (155) (147) (201) (94)	28.2 26.5 22.7 23.7 15.6 37.2	36.5 37.1 29.7 44.5 45.2 42.4	21.8 28.5 28.2 21.4 25.7 13.8	11.2 7.9 16.8 10.3 12.9 5.6	2.3 1.0 2.6 1.0 1.5 1.9	64.7 63.6 52.4 68.3 60.8 79.6	32.9 36.4 45.0 31.7 38.7 1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치인 지지 ■	(394) (241) (11) (3) (1) (309) (30)	27.1 22.6 19.0 0.0 0.0 22.7 37.4	37.4 37.8 26.2 24.7 100.0 42.2 43.3	21.9 22.0 25.9 51.3 0.0 25.6 8.1	12.4 12.0 18.9 24.0 0.0 9.1 5.5	1.2 1.4 1.0 1.0 1.0 5.7	64.5 60.4 45.2 24.7 100.0 64.8 80.7	34.4 38.3 54.8 75.3 0.0 34.7 1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 ■	(326) (352) (264) (48)	24.3 25.4 20.7 43.6	37.6 40.9 40.9 25.6	23.4 24.6 25.4 14.9	13.7 8.4 12.5 7.2	1.0 1.7 1.4 8.8	61.9 66.3 61.7 69.2	37.1 33.0 38.0 22.0	100.0 100.0 100.0 100.0
■ 정치인 지지 ■	(155) (357) (40) (364) (10) (57) (7)	24.9 27.3 21.7 21.0 32.9 24.7 32.2	32.8 40.7 29.0 41.5 7.7 45.5 15.1	26.2 20.9 28.7 24.9 31.3 25.4 25.2	15.3 8.8 17.4 11.4 28.1 4.4 27.4	2.8 1.0 1.5 1.0 1.0 1.0	57.7 68.0 54.0 63.3 40.6 70.3 47.3	41.5 29.7 46.0 36.3 59.4 29.8 5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사전) ■	(860) (102) (27) (2)	26.1 17.6 9.4 0.0	37.4 49.5 52.6 51.5	24.0 21.8 29.7 48.5	11.5 9.8 8.2 0.0	1.1 1.4 1.0 1.0	63.4 67.1 62.1 51.5	35.4 31.5 37.9 48.5	100.0 100.0 100.0 100.0
■ 대선후보 지지도(사전) ■	(475) (339) (7) (85) (84)	26.4 20.9 12.3 27.8 27.9	37.4 39.4 30.6 47.5 39.5	22.5 26.6 45.6 19.9 23.5	12.4 11.9 11.5 5.1 7.9	1.3 1.0 1.0 1.1	63.8 60.3 42.9 75.3 67.4	34.9 38.5 57.1 24.7 51.4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업 ■	(131) (140) (151) (174) (160) (168) (66)	24.6 23.6 29.8 24.2 24.3 25.1 25.7	38.9 45.8 32.9 35.0 39.7 43.6 36.6	25.7 20.8 20.0 20.0 20.4 26.0	9.3 9.4 13.6 14.7 7.4 12.4 10.2	1.5 2.8 1.6 1.5	63.6 68.8 62.6 64.0 65.9 62.3	35.0 31.1 34.5 35.4 31.7 3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사전) ■	(77) (186) (278) (242) (157) (48)	26.0 26.2 26.4 23.3 25.0 29.0	34.3 42.0 37.0 41.5 41.5 21.6	22.6 18.1 26.6 26.6 22.9	13.5 11.1 10.6 10.3 10.4 15.2	3.5 1.1 1.1 1.1 1.3	60.3 68.3 64.0 63.3 50.6	36.2 30.6 34.0 33.7 48.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23 】 TV 토론회 투표후보 지지도 영향력

[문 14] 그렇다면, 이번 TV 토론회가 선생님께서 투표하신(지지하신) 후보에 대한 지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례수	더욱 높게 나타났다	토론에 비해 지지도를 높였다	지지도가 바뀌었다	토론회 지지 후보가 생겼다	지지도가 떨어졌다	무응답/답	*지지유지	계
		%	%	%	%	%	%	%	
■ 전 체 ■	(1000)	49.9	37.5	5.5	2.8	1.3	2.9	87.4	100.0
■ 여성 ■	(495) (505)	43.8 55.7	43.1 32.0	4.8 6.2	3.6 2.1	1.8 .9	3.9 3.0	87.0 87.8	100.0 100.0
■ 19~29세 ■	(184) (284) (216) (191) (203)	40.7 49.3 42.0 50.0 50.9	38.6 43.1 42.6 29.4 29.4	8.2 6.0 4.5 6.0 4.5	6.2 5.0 1.7 1.7 .7	3.6 1.1 .6 .6 .6	2.7 4.4 3.7 3.4 3.7	79.3 91.0 94.0 90.3 90.3	100.0 100.0 100.0 100.0 100.0
■ 30~39세 ■	(208) (287) (101) (102) (105) (157) (40)	49.8 44.1 59.9 57.9 51.4 49.6	38.6 40.9 34.3 28.3 41.0 36.4 34.6	4.1 6.9 10.2 10.2 6.3 6.1	2.0 2.2 5.1 5.7 3.7 3.3	2.5 1.0 1.1 1.6 1.7 1.1	3.0 2.0 3.3 3.0 3.5 2.2	88.5 84.7 90.0 90.0 87.7 8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40~49세 ■	(139) (355) (499) (7)	67.5 50.7 44.0 75.5	22.0 36.4 43.0 13.9	4.2 3.4 3.9 .0	1.1 1.8 3.9 10.7	.6 1.8 1.0 .0	4.6 1.8 3.4 .0	89.5 87.0 89.3 .0	100.0 100.0 100.0 100.0
■ 50~59세 ■	(24) (167) (94) (274) (239) (105) (94) (3)	65.7 45.1 38.2 45.9 60.4 45.0 55.4 64.1	30.7 44.8 41.6 40.4 31.4 33.5 34.2 35.9	1.8 4.2 10.1 4.8 4.0 2.5 2.9 .0	1.8 2.3 4.3 4.8 1.8 4.4 1.5 .0	.0 2.4 4.4 2.0 2.5 2.0 .0	1.0 1.2 1.4 4.5 5.5 6.0 6.0 .0	96.4 89.8 96.9 91.1 89.6 89.6 8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60~69세 ■	(227) (174) (157) (147) (201) (94)	58.1 46.9 47.6 45.9 45.5 54.6	29.8 42.6 37.7 43.1 42.3 27.3	5.6 2.2 2.2 6.0 4.6 8.3	2.3 4.1 2.4 2.8 3.3 3.9	1.1 1.6 1.5 2.4 2.9 .9	3.0 2.7 3.6 1.3 2.9 5.0	87.9 89.5 85.4 89.0 87.8 8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70~79세 ■	(396) (244) (11) (3) (1) (314) (30)	56.3 53.1 49.3 24.7 40.0 41.0	33.4 34.9 41.1 75.3 40.0 38.9	5.0 5.8 9.6 10.0 9.9	1.5 2.0 .0 .0 5.4 1.9	1.0 1.6 .0 .0 1.4 2.6	2.8 2.6 .0 .0 3.3 5.7	89.7 88.0 90.4 100.0 84.8 7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80세 이상 ■	(332) (356) (264) (48)	50.4 48.5 49.1 59.7	38.5 36.9 39.4 24.8	4.8 5.5 5.9	3.5 3.9 2.0	.7 1.5 3.4	3.1 3.5 6.2	88.9 85.4 88.6 84.4	100.0 100.0 100.0 100.0
■ 90세 이상 ■	(155) (359) (41) (367) (12) (58) (7)	43.6 58.6 53.6 43.3 37.4 46.8 74.0	44.7 30.6 33.7 42.1 62.4 30.9 26.0	7.0 3.8 6.4 2.0	1.2 2.4 3.4 9.4	.6 1.9 1.0 3.0	3.1 2.3 2.8 5.9	88.2 89.9 87.6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사전) ■	(863) (106) (27) (4)	51.9 39.9 27.1 24.8	36.9 40.7 48.5 .0	4.9 6.0 2.0	2.6 2.8 2.0	.9 .8 .0	2.7 4.1 5.5 1.9	88.9 90.6 95.5 24.8	100.0 100.0 100.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478) (340) (7) (89) (86)	53.3 59.3 29.7 29.4	34.8 37.8 44.4 45.1	5.2 4.2 2.2 2.2	1.5 2.4 3.4 3.1	1.2 1.0 1.1 3.1	3.9 3.3 3.8 3.8	88.2 91.1 89.7 84.5	100.0 100.0 100.0 100.0
■ 19~29세 ■	(132) (143) (155) (174) (162) (168) (86)	46.2 49.3 56.6 47.7 49.9 53.9 25.0	41.5 36.2 33.4 35.7 42.7 36.0 38.3	4.4 10.4 10.4 10.9 9.9	2.2 2.2 0.0 4.5 5.6	2.1 2.0 1.1 1.4 2.1	3.6 3.3 3.3 4.4 3.1	87.7 89.5 90.0 90.3 88.8 8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토론회 상시 지지도 ■	(78) (190) (279) (245) (157) (50)	50.5 46.3 52.3 47.7 47.7 61.6	36.6 33.7 37.7 39.7 40.0 34.1	2.5 5.2 5.2 5.9 1.3	2.7 2.6 2.7 1.7 1.0	2.2 2.0	5.5 5.7 2.9 2.1 5.1	87.1 89.0 90.0 87.9 85.7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24 】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문 15] 이번 18대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에서 토론을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는 누구입니까?

	사례수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기타후보	무응답/합	계
		%	%	%	%		
■ 전 체 ■	(1000)	37.9	29.7	17.2	.6	14.7	100.0
■ 여 후보 ■	(495)	36.6	32.4	16.8	.3	13.9	100.0
■ 19대 대선 후보 ■	(505)	39.1	27.0	17.5	.9	15.5	100.0
■ 19대 대선 후보 지지자 ■	(184)	15.8	51.7	20.4	.0	12.1	100.0
■ 19대 대선 후보 지지자 (204)	(204)	26.5	28.6	30.8	.4	13.7	100.0
■ 19대 대선 후보 지지자 (218)	(218)	32.0	36.8	16.6	.5	14.0	100.0
■ 19대 대선 후보 지지자 (191)	(191)	48.5	20.7	12.8	.9	16.2	100.0
■ 19대 대선 후보 지지자 (203)	(203)	65.5	11.5	5.2	.3	17.5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	(208)	31.6	26.9	21.0	.8	19.7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287)	(287)	40.7	26.5	19.1	.7	13.1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101)	(101)	34.4	29.5	14.2	.9	21.3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102)	(102)	19.0	44.7	26.8	.8	8.8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105)	(105)	52.2	33.9	5.9	.0	0.0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157)	(157)	44.7	27.4	11.7	.7	16.2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40)	(40)	42.6	28.8	17.9	.0	10.6	100.0
■ 현역 후보 ■	(139)	62.2	16.2	4.4	2.4	14.8	100.0
■ 현역 후보 (355)	(355)	24.2	38.3	17.5	.8	13.7	100.0
■ 현역 후보 (499)	(499)	89.1	10.9	20.7	.0	15.6	100.0
■ 현역 후보 (7)	(7)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	(24)	43.5	23.4	10.6	.0	22.4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167)	(167)	47.9	26.5	16.1	.0	14.4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94)	(94)	35.0	26.3	24.7	1.9	12.2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274)	(274)	24.6	38.4	19.7	.6	16.6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239)	(239)	52.0	20.9	11.9	.9	15.0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105)	(105)	12.7	51.7	26.3	.0	9.2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94)	(94)	60.9	14.9	7.3	.7	16.2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3)	(3)	35.9		64.1	.0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227)	(227)	55.2	16.9	13.4	1.1	13.5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300)	(300)	39.7	30.6	14.1	1.0	14.6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157)	(157)	31.9	30.5	22.4	.0	15.2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147)	(147)	36.4	31.2	18.2	.0	14.3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500)	(500)	25.2	36.6	22.3	.6	15.3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201)	(201)	32.0	40.1	10.6	1.0	16.4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94)	(94)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396)	(396)	66.2	15.0	4.9	1.0	12.9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244)	(244)	9.7	47.6	35.5	.0	7.2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11)	(11)	16.4	42.0	41.6	.0	.0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3)	(3)	.0	48.7	51.3	.0	.0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1)	(1)	.0	.0	.0	.0	100.0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314)	(314)	24.5	35.4	17.0	.7	22.4	100.0
■ 새누리당 지지자 (30)	(30)	45.8	11.5	18.9	.0	23.7	100.0
■ 이념성향 ■	(332)	49.0	25.9	8.2	1.1	15.8	100.0
■ 이념성향 (356)	(356)	38.0	27.2	15.9	.2	18.7	100.0
■ 이념성향 (264)	(264)	19.1	41.2	30.7	.3	8.7	100.0
■ 이념성향 (48)	(48)	62.9	10.9	13.4	1.3	11.4	100.0
■ 정치보수성향 ■	(155)	41.3	25.9	4.8	.0	28.0	100.0
■ 정치보수성향 (359)	(359)	54.8	19.9	13.2	1.5	10.7	100.0
■ 정치보수성향 (41)	(41)	43.3	26.1	21.9	.0	8.7	100.0
■ 정치보수성향 (367)	(367)	22.7	39.4	24.8	.2	12.9	100.0
■ 정치보수성향 (12)	(12)	32.8	21.1	22.4	.0	23.8	100.0
■ 정치보수성향 (58)	(58)	16.3	44.6	22.4	.0	16.8	100.0
■ 정치보수성향 (7)	(7)	43.8	13.6	15.1	.0	27.4	100.0
■ 투표의향 ■	(863)	38.8	31.1	16.3	.7	13.1	100.0
■ 투표의향 (106)	(106)	35.2	20.8	21.3	.0	22.7	100.0
■ 투표의향 (27)	(27)	20.5	22.8	27.3	.0	26.5	100.0
■ 투표의향 (74)	(74)	24.8	20.0	23.3	.0	51.9	100.0
■ 대선후 지지자(사전) ■	(478)	63.5	16.7	5.6	.8	13.4	100.0
■ 대선후 지지자(사전) (340)	(340)	50.9	20.9	30.9	.2	8.7	100.0
■ 대선후 지지자(사전) (89)	(89)	21.4	28.7	46.7	.9	14.7	100.0
■ 대선후 지지자(사전) (86)	(86)	29.8	28.4	28.4	1.0	30.0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	(132)	27.0	36.5	21.8	.9	13.8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143)	(143)	38.9	23.7	19.1	.6	17.7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155)	(155)	46.7	16.5	25.4	.4	19.9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174)	(174)	24.7	37.4	25.2	.0	19.7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162)	(162)	50.1	30.7	10.9	.0	19.3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168)	(168)	40.5	30.7	12.5	.0	19.3	100.0
■ 지지자 중 박근혜 지지자 (66)	(66)	36.0	27.1	18.2	1.3	17.4	100.0
■ 투표의향 ■	(78)	38.7	30.2	8.3	.0	22.8	100.0
■ 투표의향 (190)	(190)	46.8	24.6	12.5	1.1	15.0	100.0
■ 투표의향 (279)	(279)	42.5	23.4	17.7	.3	16.1	100.0
■ 투표의향 (245)	(245)	32.2	36.1	18.3	.7	12.7	100.0
■ 투표의향 (157)	(157)	31.6	32.8	23.8	.5	11.3	100.0
■ 투표의향 (50)	(50)	24.0	41.8	19.1	1.3	13.9	100.0

【 표 26 】 토론회 상식2-소득에 따른 차등 등록금

[문 16-2]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

	사례수	박근혜 (정인지)	문재인	이정희	무응답/	계
		%	%	%	응답	
■ 전 체 ■	(1000)	69.9	18.6	.6	10.8	100.0
■ 전 체 ■	(495)	70.5	18.0	.4	11.1	100.0
■ 전 체 ■	(505)	69.4	19.2	.8	10.6	100.0
■ 전 체 ■	(184)	61.9	26.4	2.8	8.8	100.0
■ 전 체 ■	(204)	66.4	21.1	.0	12.5	100.0
■ 전 체 ■	(218)	70.0	18.4	.0	11.7	100.0
■ 전 체 ■	(191)	75.3	14.7	.5	9.4	100.0
■ 전 체 ■	(203)	75.6	13.0	.0	11.4	100.0
■ 전 체 ■	(208)	75.2	14.8	.0	10.0	100.0
■ 전 체 ■	(287)	66.5	21.4	.4	11.8	100.0
■ 전 체 ■	(101)	73.8	16.8	1.2	8.2	100.0
■ 전 체 ■	(102)	57.7	25.8	2.7	13.7	100.0
■ 전 체 ■	(105)	72.6	15.1	.9	11.5	100.0
■ 전 체 ■	(157)	71.7	18.7	.0	9.6	100.0
■ 전 체 ■	(40)	75.2	13.9	.0	10.9	100.0
■ 전 체 ■	(139)	66.5	16.8	.0	16.7	100.0
■ 전 체 ■	(355)	67.2	22.3	1.1	9.4	100.0
■ 전 체 ■	(499)	72.5	16.7	.4	10.4	100.0
■ 전 체 ■	(7)	87.6	12.4	.0	.0	100.0
■ 전 체 ■	(24)	66.1	17.5	.0	16.4	100.0
■ 전 체 ■	(167)	77.5	15.0	.0	7.5	100.0
■ 전 체 ■	(94)	62.0	25.6	1.3	11.1	100.0
■ 전 체 ■	(274)	70.4	17.8	.8	10.9	100.0
■ 전 체 ■	(239)	67.3	20.6	.0	12.1	100.0
■ 전 체 ■	(105)	69.8	21.1	2.6	6.5	100.0
■ 전 체 ■	(94)	70.5	12.7	.0	16.7	100.0
■ 전 체 ■	(3)	71.8	28.2	.0	.0	100.0
■ 전 체 ■	(227)	67.1	19.3	1.0	12.6	100.0
■ 전 체 ■	(174)	67.6	19.5	.5	12.3	100.0
■ 전 체 ■	(157)	72.8	19.9	1.1	16.2	100.0
■ 전 체 ■	(147)	70.8	18.1	.0	11.5	100.0
■ 전 체 ■	(201)	76.5	16.5	.6	6.7	100.0
■ 전 체 ■	(94)	62.2	18.5	.0	19.3	100.0
■ 전 체 ■	(396)	76.1	15.3	.3	8.3	100.0
■ 전 체 ■	(244)	63.6	25.3	1.5	9.6	100.0
■ 전 체 ■	(11)	48.6	18.8	.0	32.6	100.0
■ 전 체 ■	(3)	100.0	.0	.0	.0	100.0
■ 전 체 ■	(1)	100.0	.0	.0	.0	100.0
■ 전 체 ■	(314)	68.7	16.8	.4	14.1	100.0
■ 전 체 ■	(30)	55.9	30.3	.0	13.8	100.0
■ 전 체 ■	(332)	75.4	15.4	.3	8.9	100.0
■ 전 체 ■	(356)	69.1	18.8	.0	12.2	100.0
■ 전 체 ■	(264)	63.7	22.9	2.0	11.5	100.0
■ 전 체 ■	(48)	72.9	16.2	.0	11.0	100.0
■ 전 체 ■	(155)	75.0	14.6	.0	10.4	100.0
■ 전 체 ■	(359)	69.9	18.3	.3	11.5	100.0
■ 전 체 ■	(41)	69.4	26.7	.0	3.8	100.0
■ 전 체 ■	(367)	69.7	19.8	1.4	9.1	100.0
■ 전 체 ■	(12)	62.8	15.6	.0	21.6	100.0
■ 전 체 ■	(58)	61.4	19.4	.0	19.2	100.0
■ 전 체 ■	(7)	54.1	13.6	.0	32.2	100.0
■ 전 체 ■	(863)	71.2	18.6	.6	9.7	100.0
■ 전 체 ■	(106)	64.9	17.9	.9	16.3	100.0
■ 전 체 ■	(27)	59.3	26.3	.0	14.5	100.0
■ 전 체 ■	(4)	.0	.0	.0	100.0	100.0
■ 전 체 ■	(478)	75.9	15.6	.3	8.2	100.0
■ 전 체 ■	(340)	65.8	21.4	1.1	11.7	100.0
■ 전 체 ■	(7)	78.9	21.1	.0	.0	100.0
■ 전 체 ■	(89)	63.2	17.7	1.4	17.7	100.0
■ 전 체 ■	(86)	59.1	25.0	.0	15.9	100.0
■ 전 체 ■	(132)	70.0	20.3	.0	9.7	100.0
■ 전 체 ■	(143)	62.5	20.9	2.1	14.5	100.0
■ 전 체 ■	(155)	75.9	15.0	.8	8.3	100.0
■ 전 체 ■	(174)	64.3	24.3	.6	10.8	100.0
■ 전 체 ■	(162)	75.3	15.1	.6	9.1	100.0
■ 전 체 ■	(168)	69.3	17.3	.0	13.4	100.0
■ 전 체 ■	(66)	74.9	16.1	.0	9.0	100.0
■ 전 체 ■	(78)	.0	38.1	1.6	60.3	100.0
■ 전 체 ■	(190)	46.1	36.2	1.6	16.0	100.0
■ 전 체 ■	(279)	75.0	16.3	.7	8.0	100.0
■ 전 체 ■	(245)	83.9	12.7	.0	3.4	100.0
■ 전 체 ■	(157)	93.0	7.0	.0	.0	100.0
■ 전 체 ■	(50)	100.0	.0	.0	.0	100.0

【 표 28 】 토론회 상식4-스펙초월채용시스템 도입

[문 16-4] 대학 내 창업 활성화와 차별 없는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사례수	박근혜 (경인지)	문재인	이정희	문 무 0000 / 답	계	
		%	%	%	%		
■ 전 체 ■	(1000)	35.2	19.1	3.4	42.3	100.0	
■ 전 의 회 ■	(495) (505)	35.9 34.6	16.0 22.1	3.4 3.4	44.7 39.9	100.0 100.0	
■ 연 1 9 3 4 5 6 0 대 이 상 ■	(184) (204) (218) (191) (203)	37.4 33.0 35.7 35.9 34.3	26.4 24.1 17.4 19.5 8.9	4.3 4.2 5.6 5.0 2.4	31.9 38.7 40.9 44.6 54.5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 사 이 대 학 대 상 인 강 부 ■	(208) (287) (101) (102) (105) (157) (40)	38.5 35.1 36.1 37.9 31.8 31.2 34.4	19.3 20.3 16.8 14.5 17.1 20.3 27.4	2.0 4.1 5.2 5.0 2.0 3.3 1.7	40.2 40.5 41.9 42.6 49.0 45.2 3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 생 이 대 학 대 상 인 강 부 ■	(139) (355) (499) (7)	33.5 35.0 35.9 27.7	5.6 20.5 21.8 22.0	3.1 3.5 3.5 .0	57.8 41.0 38.8 50.3	100.0 100.0 100.0 100.0	
■ 직 위 자 비 예 하 가 인 강 부 ■	(24) (167) (94) (274) (239) (105) (94) (3)	34.9 37.3 36.7 33.0 34.4 38.7 32.7 100.0	8.6 17.3 16.9 24.3 16.6 27.8 9.0 .0	3.4 2.2 6.8 4.0 3.2 2.6 2.1 .0	53.1 43.2 39.6 38.7 45.7 30.8 56.2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 200 만 원 이 하 인 강 부 ■	(227) (174) (157) (147) (201) (94)	36.4 35.1 35.0 36.5 35.6 30.8	10.5 17.9 23.4 24.9 23.1 17.1	3.7 5.0 5.0 4.9 1.6	49.5 43.9 36.6 37.0 37.1 5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 사 이 대 학 대 상 인 강 부 ■	(396) (244) (11) (3) (1) (314) (30)	35.7 36.9 25.3 .0 .0 33.5 41.7	16.0 22.9 0.0 76.0 0.0 21.2 8.3	2.3 5.3 16.0 .0 .0 3.2 .0	45.9 34.8 58.7 24.0 100.0 42.1 4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 텔 상 하 수 인 강 부 ■	(332) (356) (264) (48)	33.9 37.9 33.9 31.7	17.0 17.3 25.6 10.6	2.8 3.0 4.7 4.5	46.3 41.8 35.7 53.2	100.0 100.0 100.0 100.0	
■ 정 사 이 대 학 대 상 인 강 부 ■	(155) (359) (41) (367) (12) (58) (7)	37.0 37.2 27.9 34.2 50.8 27.6 26.7	18.3 14.8 18.3 22.1 28.0 27.8 15.1	3.0 4.6 4.6 4.1 4.0 6.9 .0	41.8 45.6 49.2 39.6 21.1 37.8 5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 표 의 회 (사 전) ■	(863) (106) (27) (4)	34.4 42.1 39.0 .0	20.2 11.2 10.4 51.9	3.4 4.7 .0 .0	42.0 42.0 50.6 48.1	100.0 100.0 100.0 100.0	
■ 대 선 후 보 지 지 도 (사 전) ■	(478) (340) (7) (89) (86)	35.8 35.6 52.7 32.7 32.0	17.3 21.8 21.1 24.8 11.9	2.1 6.4 0.0 2.5 .0	44.7 36.2 26.2 40.0 56.2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 서 이 대 학 대 상 인 강 부 ■	(132) (143) (155) (174) (162) (168) (66)	43.9 37.5 36.4 37.0 32.4 28.3 29.8	18.2 20.9 14.2 17.2 22.3 20.5 21.8	2.0 4.6 4.6 3.1 1.8 5.7 .0	35.9 37.0 44.7 42.7 43.5 45.5 4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토 론 회 상 식 인 지 도 ■	(78) (190) (279) (245) (157) (50)	18.0 18.9 31.0 36.6 57.1 100.0	10.2 25.3 18.3 23.8 16.2 .0	3.2 2.3 5.7 3.3 2.1 .0	86.6 53.5 45.0 36.3 24.6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30 】 토론회 상식 인지도

[문 16] 토론회 상식 인지도

	사례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계
		정인지	정인지	정인지	정인지	정인지	정인지	
		%	%	%	%	%	%	
■ 전 체 ■	(1000)	7.8	19.0	27.9	24.5	15.7	5.0	100.0
■ 여성 ■	(495) (505)	7.3 8.3	15.4 22.6	25.8 30.0	25.1 23.9	19.4 12.2	7.1 3.0	100.0 100.0
■ 1990년대 ■	(184) (204) (218) (191) (203)	12.2 6.2 5.0 7.4 8.8	21.5 15.6 17.6 22.1 18.7	20.1 27.7 30.9 23.4 36.2	24.1 28.6 25.9 25.2 22.2	16.2 15.3 19.1 17.3 10.8	5.8 6.5 4.9 4.6 3.3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식인 ■	(208) (287) (101) (102) (105) (157) (40)	5.4 9.4 10.2 8.2 10.5 5.7 3.3	18.2 18.6 12.4 13.8 23.6 25.3 20.1	25.3 27.7 32.4 37.2 23.4 25.8 28.2	24.6 21.9 29.4 25.0 23.7 25.1 22.9	19.5 16.0 14.4 13.3 13.1 13.4 20.6	7.0 6.5 1.2 2.5 3.6 4.7 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학생 ■	(139) (355) (499) (7)	15.1 7.5 6.1 .0	23.1 22.4 15.2 45.3	35.2 30.1 24.0 54.7	18.9 23.8 26.9 .0	6.8 11.6 21.4 .0	.9 4.6 6.5 .0	100.0 100.0 100.0 100.0
■ 정치인 ■	(24) (167) (94) (274) (239) (105) (94) (3)	13.7 4.5 10.4 4.7 10.7 9.4 9.9 .0	8.9 17.3 18.0 17.7 22.1 18.4 23.1 .0	35.7 25.7 32.2 24.2 33.7 18.6 30.9 64.1	21.5 28.6 22.1 22.1 20.1 28.8 19.7 35.9	17.0 18.5 11.7 18.9 12.2 18.9 11.2 .0	3.2 5.4 5.6 7.6 1.2 6.0 5.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득 ■	(227) (174) (201) (157) (147) (201) (94)	10.3 9.7 5.0 4.2 3.2 4.2 18.4	20.6 16.7 19.6 23.5 16.4 16.7	34.3 26.6 21.2 29.1 26.9 26.4	21.4 24.1 31.7 22.7 28.5 19.0	9.9 16.7 15.8 17.0 21.9 12.9	3.4 6.2 6.7 4.5 5.0 4.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치인 지지 ■	(396) (244) (11) (3) (1) (314) (30)	7.8 5.0 10.8 .0 .0 9.3 14.7	21.6 16.3 12.1 .0 .0 17.9 23.8	28.5 33.3 18.4 .0 100.0 23.3 29.0	25.5 22.3 42.7 24.7 .0 25.8 10.1	14.0 15.5 16.1 75.3 .0 17.1 19.8	2.6 7.6 .0 .0 .0 6.5 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념 ■	(332) (356) (264) (48)	6.9 8.3 6.7 16.3	16.7 22.1 16.1 28.7	29.4 27.9 24.2 38.1	27.3 21.6 27.4 10.5	16.1 13.3 20.6 5.1	3.6 6.8 5.1 1.3	100.0 100.0 100.0 100.0
■ 정치인 지지 ■	(155) (359) (41) (367) (12) (58) (7)	6.9 9.3 14.3 5.4 .0 12.4 15.1	19.0 21.3 9.8 17.1 28.9 22.4 13.6	27.0 32.4 26.6 24.9 36.3 20.2 32.2	24.5 22.0 27.1 27.8 19.1 19.8 12.3	16.2 11.9 17.3 18.1 6.7 23.2 26.7	6.5 3.0 5.0 6.7 9.0 2.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사전) ■	(863) (106) (27) (4)	7.0 13.4 11.0 24.8	18.7 19.5 23.5 51.9	28.3 24.8 32.4 .0	25.0 21.8 19.1 23.3	15.9 15.5 14.1 .0	5.2 5.0 .0 .0	100.0 100.0 100.0 100.0
■ 대선 후보 지지도(사전) ■	(478) (340) (7) (89) (86)	7.9 6.5 .0 9.1 11.8	21.9 13.9 .0 20.8 22.8	27.4 28.3 30.6 22.8 33.9	25.2 25.4 44.8 25.3 14.9	14.4 17.9 24.5 15.0 14.6	3.1 8.0 .0 6.9 1.9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식인 ■	(132) (143) (155) (174) (162) (168) (66)	6.7 11.4 8.0 5.9 7.5 6.9 10.2	23.5 20.6 15.0 13.7 20.3 23.0 17.1	23.5 26.0 27.2 37.9 28.3 22.3 29.9	17.1 20.8 29.6 24.3 26.8 27.6 22.0	16.9 16.9 17.8 14.5 14.2 15.1 15.0	12.3 4.4 2.4 3.8 2.9 5.1 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토론회 상식 인지도 ■	(78) (190) (279) (245) (157) (50)	100.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DQ1 】 대선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이용한 매체

[문 DQ1] 끝으로, 선생님께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지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어느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얻으셨습니까?

	사례수	TV	신문	인터넷	선거홍보	기타	무응답	계
		%	%	%	%	%		
■ 전 체 ■	(1000)	48.0	9.9	37.5	1.7	1.9	.9	100.0
■ 요일상 / 매체상	(495) (505)	43.0 52.8	10.8 9.1	43.2 32.0	2.6	1.4	1.0 .9	100.0 100.0
■ 9시-12시 / 13시-18시 / 19시-24시	(184) (204) (218) (191) (203)	20.3 29.0 47.7 64.3 77.1	5.1 4.2 13.3 13.8	70.3 62.2 36.7 16.7 3.6	2.6 3.1 1.1 1.0 1.8	1.3 1.0 4.8 4.6 2.0	.5 .5 1.4 1.8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지후보 / 매체상	(208) (287) (101) (102) (105) (157) (40)	40.2 44.9 52.6 46.9 56.7 61.3	14.2 9.9 7.6 4.1 6.9 6.7	40.6 41.3 35.0 41.1 30.5 31.5 32.0	1.7 1.4 3.3 1.4 1.4	2.3 1.7 3.0 2.6 1.1	.9 1.0 1.1 1.0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후보명 / 매체상	(139) (355) (499) (7)	89.0 95.5 90.1 75.3	4.5 11.4 10.0	1.3 27.6 55.0	1.3 1.9 13.9	1.2 2.1 10.9	2.7 2.7 .0	100.0 100.0 100.0
■ 지지후보 / 매체상	(24) (67) (94) (239) (105) (95) (3)	79.6 93.4 91.4 88.7 91.1 71.8	13.3 13.3 16.0	4.4 29.7 57.8 73.8 14.4 28.2	3.8 2.1 3.1 3.0 1.0	.0 2.0 2.0 2.0	.0 1.0 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후보명 / 매체상	(227) (174) (157) (147) (201) (94)	67.8 49.4 43.7 40.4 33.3 46.5	8.4 10.0 13.3 13.3 5.7	16.8 38.7 32.1 40.9 51.1 43.9	1.6 1.4 1.3 3.5 1.9	3.4 4.4 1.1 4.4 3.0	2.0 .0 1.0 .0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지후보 / 매체상	(396) (244) (11) (13) (1) (314) (30)	62.3 57.1 39.3 100.0 96.7 71.8	13.6 3.5 .0 .0 11.5 3.6	20.2 54.1 60.7 100.0 47.3 16.1	1.4 2.5 .0 .0 1.5 2.9	1.9 2.0 .0 .0 1.3 2.6	.6 .0 .0 .0 3.0	100.0 100.0 100.0 100.0 100.0
■ 후보명 / 매체상	(332) (356) (264) (48)	49.5 52.9 33.4 80.7	17.7 7.0 5.3 4.5	29.0 35.7 56.8 5.1	1.7 1.9 1.0 3.9	1.4 2.0 3.1 3.2	.7 1.5 1.5 2.5	100.0 100.0 100.0
■ 지지후보 / 매체상	(155) (359) (41) (367) (12) (58) (7)	42.9 79.9 85.5 19.4 32.9 21.0 52.7	4.5 8.1 4.1 13.3 21.0 17.2	14.3 10.5 6.4 73.0 44.8 65.4 15.1	2.0 2.5 .0 1.6 4.0 4.2 .0	.6 2.0 .0 1.4 9.0 	2.2 2.6 .0 .5 .0 1.9 15.1	100.0 100.0 100.0 100.0 100.0
■ 투표의향 / 매체상	(863) (106) (27) (4)	49.4 37.5 46.1 24.8	10.0 11.0 5.8 .0	36.0 47.1 44.8 75.2	1.7 2.5 .0 .0	2.0 1.8 .0	1.0 .0 3.3 .0	100.0 100.0 100.0
■ 대선후보지도(사전)	(478) (340) (7) (89) (86)	60.0 32.7 49.2 35.3 54.5	14.1 3.8 .0 13.5 8.2	20.9 59.4 35.0 49.2 31.6	1.7 1.8 15.9 2.3	2.2 2.0 .0 .9 .9	1.1 .3 .0 1.2 2.5	100.0 100.0 100.0 100.0
■ 지지후보 / 매체상	(132) (143) (155) (174) (162) (168) (66)	34.7 40.4 54.8 48.1 50.5 50.5 61.9	13.7 10.1 12.9 5.5 6.3 13.2 7.6	48.2 44.2 26.7 39.9 39.1 32.9 28.8	2.8 1.3 3.7 3.1 1.8 1.7 1.6	.6 3.2 2.7 1.7 1.0	.0 1.3 1.6 .7 .6 1.7 .0	100.0 100.0 100.0 100.0 100.0
■ 토론회상 / 매체상	(78) (190) (279) (245) (157) (50)	58.4 56.0 50.5 41.8 41.1 38.4	10.1 7.9 11.2 8.3 12.1 11.9	26.3 30.0 34.3 45.2 43.3 46.1	2.5 2.7 2.0 1.5 .7 .0	.0 1.7 1.5 2.6 2.1 3.5	2.7 1.6 .6 .7 .7 .0	100.0 100.0 100.0 100.0 100.0